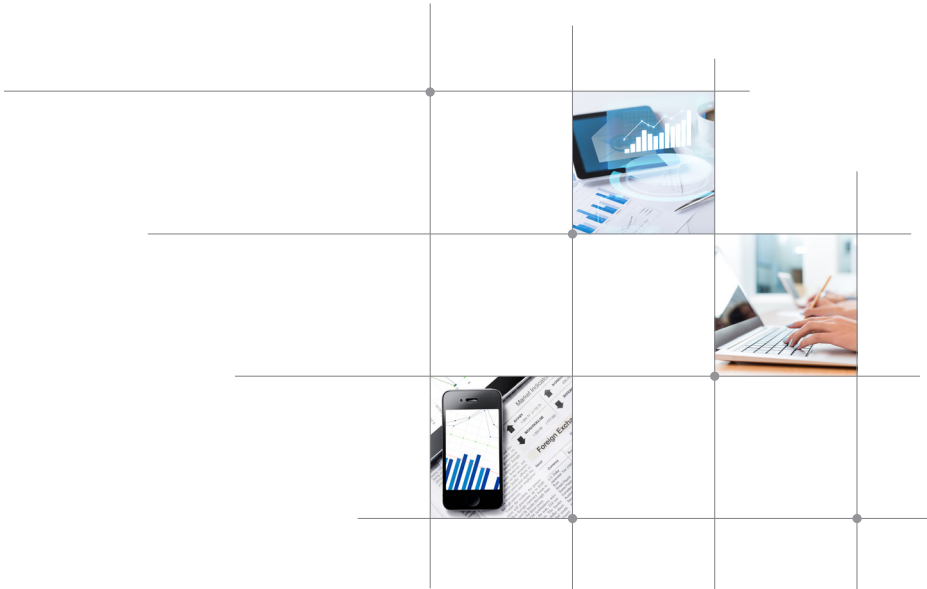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결산보고서 개발

2018. 12

정도진 · 박성환 · 김종현 · 강평경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결산보고서 개발

2018. 12.

정도진·박성환·김종현·강평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 언

새 정부 들어 5개년 국정운영계획의 100대 과제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포함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공공성의 실현에 있음에도, 현재 공공기관의 결산보고서는 경제성만을 주된 사항으로 보고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경제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포괄하는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보공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다른 목적과 배경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는 사회적책임경영 또는 사회가치실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기관에 적용가능하고 특성에 부합한 사회적 가치 실현성과의 측정 평가방법을 제시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특히 일관적인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부문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6년 말 현재 D3 기준 34%, 386조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의 경영위기는 정부의 재정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은 경영위기를 사전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정도진 소장이 연구책임을 맡고 한

발대학교 박성환 교수, 한양대학교 김종현 교수, 서강대학교 강평경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공동연구진 외에 박윤진 재정통계팀장, 엄기중 연구원, 손지영 위촉연구원도 자료수집 및 집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저자들은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신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중간 및 최종평가에서 고견을 주신 여러 교수, 원내 박사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힌다.

2018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 성과를 결산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식별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원칙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결산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단계를 실제로 공공기관에 적용하여 사례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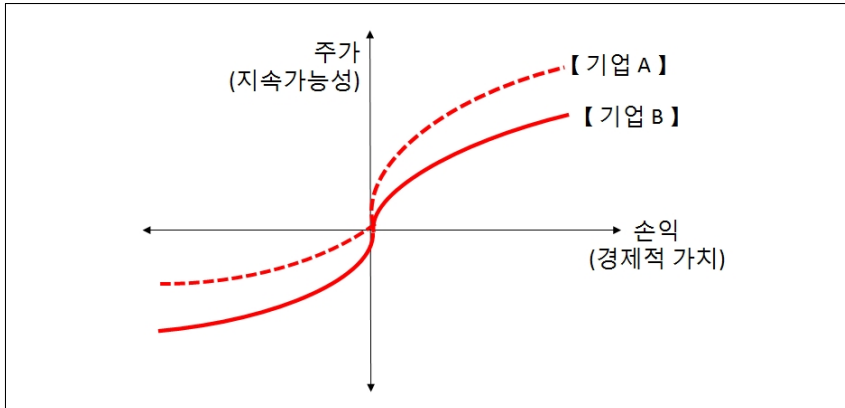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정의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종합하여 공공기관에 적용한다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경제·사회·기타공공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CSR과 CSV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본조달비용에 음(-)의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주가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Waddock and Graves, 1997). 마찬가지로 창출된 사회적 가치도 자본조달비용에 음(-)의 영향을 미쳐 기업의 주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기업의 주가는 손익 등의 경제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지만, 동일한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보다 더

높은 지속가능성에 따라 더 높은 주가로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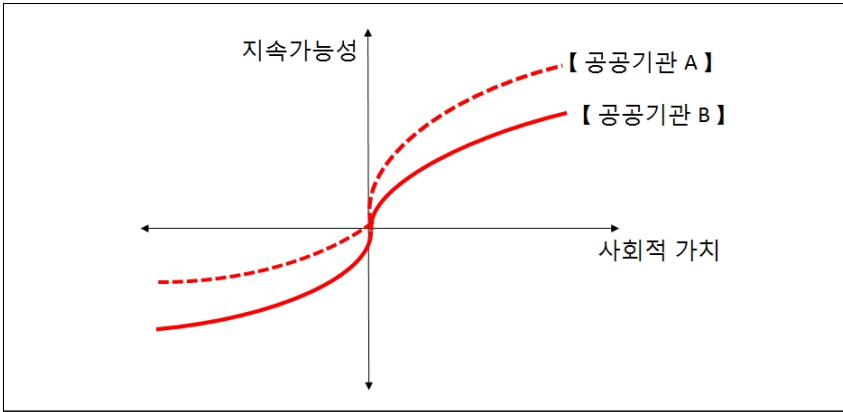
[그림 1]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주: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기업 A)
사회적 가치가 낮은 기업(기업 B)
자료: Friedman(197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반면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아래 그림과 같이 동일한 사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보다 더 높은 지속가능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시장성향이 강한 공공기관(예, 시장형 공기업)은 위의 첫 번째 그림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정한 규모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이 요구되는 반면, 공공성이 강한 공공기관(예,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이 공공기관 본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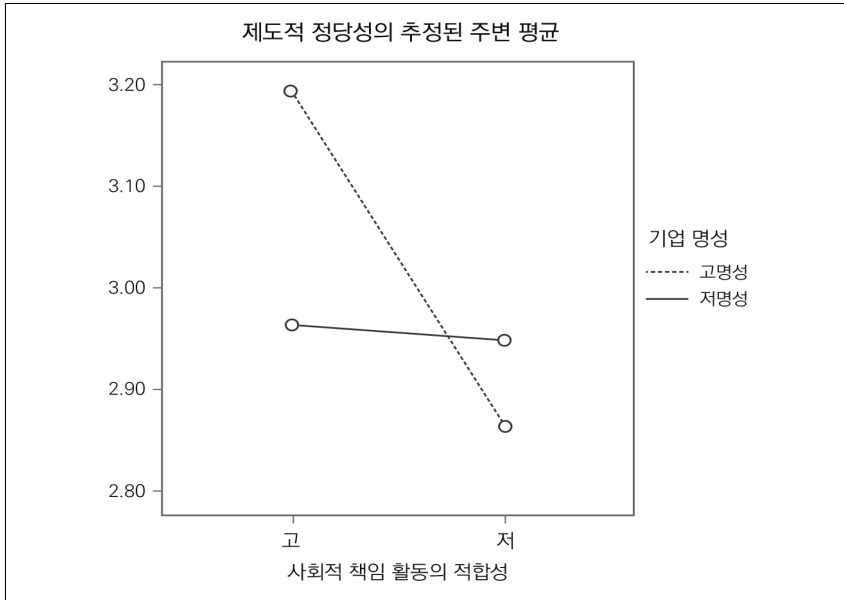
[그림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주: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기관(공공기관 A)
경제적 가치가 낮은 공공기관(공공기관 B)
자료: Friedman(197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그 명성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즉, 고명성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수행 여부가 그 존재의 정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저명성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수행 여부가 그 존재의 정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을 결정할 때 명성을 고려하여야만,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림 3] 기업 명성과 사회적 책임활동의 적합성이 제도적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자료: 박수정·차희원(2009), p. 518

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은 라준영 외(2017)와 정도진 외(2017)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제시한 13개 항목 및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기획재정부, 2018b)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1	국민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11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생활환경의 유지	21	제품과 서비스의 윤리적 생산과 공급 등 사회적 책임 이행
2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12	안전문화 확산	22	윤리경영
3	국민의 삶의 질 개선	13	대국민 서비스 제고	23	공정경쟁 기반 구축
4	양질의 일자리 창출	14	조달 혁신	24	협력 업체와 협업 강화
5	직원의 노동권 보장	15	인권 보호	25	대기업·중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
6	근로조건의 향상(유연근무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정착)	16	국정과제 추진	26	창업 및 벤처기업 참여 확대 등 지원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17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27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업 강화
8	취약계층 지원 강화(특화된 서비스 또는 제품제공 등)	18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28	혁신제품 판로 등 혁신성장 지원
9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19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10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지원	20	시민단체와 협업 강화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가스공사 설문조사 인식도 및 수행성과 매트릭스

구분	인식도(상)	인식도(중)	인식도(하)
실현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안전문화 확산 - 대국민 서비스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의 지속보전 실현 - 국정과제 추진 	
실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경영 실현 - 공정경쟁기반 구축 - 재난과 사고안전 근로환경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과 서비스의 윤리적 생산과 공급 - 협력업체와 협력강화 - 대중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회적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사회통합 - 취약계층지원 강화 -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질개선 지원 -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복원 -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공헌
실현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노동권보장 - 근로조건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기업 참여확대 지원 - 혁신제품판로 등 혁신성장지원 - 국민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 제공 -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 조달혁신 - 시민적 권리로서 참여의 실현 -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 시민단체와의 협업 강화

자료: 저자 작성

〈표 3〉 한국도로공사 설문조사 인식도 및 수행성과 매트릭스

구분	인식도(상)	인식도(중)	인식도(하)
실현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과 서비스의 윤리적 생산과 공급 - 공정경쟁기반 구축 -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자연환경의 지속보전 실현 - 재난과 사고안전 근로환경 유지 - 안전문화확산 - 대국민 서비스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사회통합 - 국정과제 추진 	
실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경영실현 - 직원 노동권 보장 - 근로조건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와 협력강화 - 대중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 -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업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지원 강화 - 인권보호 -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공헌 - 시민적 권리로서 참여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지원 - 조달혁신 -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복원
실현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판로등 혁신성장지원 - 국민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 제공 -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기업 참여 확대 지원 - 시민단체와의 협업 강화

자료: 저자 작성

〈표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설문조사 인식도 및 수행성과 매트릭스

	인식도(상)	인식도(중)	인식도(하)
수행 성과 (상)	-	-	-
수행 성과 (중)	1.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의 유지	14. 윤리적 생산과 유통 (예, 공정무역) 등 윤리경영	-
수행 성과 (하)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한 근로환경의 유지 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산업) 보건복지의 제공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 보건복지의 제공	5. 새로운 서비스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6.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서비스제품 제공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8.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10. 노동권의 보장과 양질의 근로조건 제공 11. 창업벤처 참여 확대 등 혁신 성장 지원 1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15.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16.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1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1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9. 양질의 일자리 창출 13. 지역경제 공헌

자료: 저자 작성

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측정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인식 조건으로 K-IFRS의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조건을 준용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결과를 자산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부채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수익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비용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자산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부채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수익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비용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자산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중 사회성과와 관련된 것”이다. 부채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는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중 사회성과와 관련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익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것이며,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비용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는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사회성과와 관련된 것이며,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특히,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서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핵심 미션과 주요 사업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나 절차가 문서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기관의 정관이나 비전에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규정이나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의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조직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문서화에는 공공기관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소와 범주가 규정되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문서의 종류나 형태, 형식 등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나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내용을 기업에서 문서화하여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한다. 현행 회계개념체계 및 기준하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요

소의 정의에 부합되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측정의 신뢰성이 보장되고,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어야 한다. 정도진 외(2017)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재무회계개념체계와 회계기준을 그대로 원용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가 재무제표에서 구분(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두 가지 기본전제하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자산 및 부채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수익 및 비용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더라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즉,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현행 회계개념을 적용하면서도 기관의 재무성과에는 변동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사회성과를 재무제표 표시항목 내에서 식별하고 인식한다. 둘째, 재무제표 본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재무제표 본문에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항목에 자산 및 부채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수익 및 비용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를 구분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보고방식은 재무제표의 본문에 직접 구분 표시하는 방식 이외에, 대안적으로 재무제표의 주석이나 별도의 보고서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가 제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

본 연구에서의 위의 사회적 가치 측정 원칙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공공기관의 개요와 주요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적 가치 인식기준에 부합하는 항목과 금액을 식별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금액을 산출한다. 각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식별 및 측정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재무제표 인식기준 충족 여부 검토, 설문을 통해 확인한 28개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범주 포함 여부 확인,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정의(주요 사업수행과정, 직접적, 의도적, 지속가능) 요소 충족 여부 검토, 문서화 조건의 충족 여부 검토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크게 3가지(① 사업기반 사회성과(환경, 사회, 거버넌스), ② 경제적 사회성과(부가가치배분 및 연관유발효과), ③ 사회공헌 성과 범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공사가 자체적으로 측정한 사회성과 금액은 8조 6,077억원이다. 이는 2017년도 총매출액 21조 556억원 대비 약 40.9%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4가지 기준(인식·식별·정의·문서화조건)에 기초하여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19개 항목 중 5개 항목만이 모든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 사회성과 금액은 4,432억원으로 측정된다. 이는 2017년도 총매출액(21조 556억원) 대비 약 2.1% 수준에 해당되며, 공사가 자체적으로 측정한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사회성과 측정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인식·측정하고 제시한 사회성과금액은 2017년도 총매출액 8,059,818,660,507원 중 3,670,552,497,543원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총매출액 대비 45.5%에 해당한다.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사회성과 측정 자료에서는 손익계산서의 주요 항목 위주로 분류되어 사회성과가 측정되었기 때문에 주요항목 내에 사회성과로 인식될 수 있는 세부항목들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회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항목으로 측정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예산서에 기초하여 집계하였다. 사회적 가치 측정은 예산서상 사회적 가치에서 사회적 가치와 무관한 계정항목 중 집행내역이 확인된 계정을 차감하여 최종 사회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동 항목에는 자산·비용항목이 모두 포함되며, 최종 사회적 가치에서 자산성이 있는 연구개발비·유형자산을 제외하여 비용으로 집행된 사회적 가치를 집계하였다. 나머지는 사회적 가치자산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최종 사회적 가치는 201,783,659천원이다. 예산서상 사회적 가치의 회사제시금액은 204,469,000천원이며, 업무추진비 938,095천원, 직무수행경비 1,747,246천원을 합한 2,658,341천원을 차감항목으로 하여 집계한 금액이다. 해당 최종 사회적 가치는 최종 사회적 가치자산 16,932,755천원과 최종 사회적 가치비용 184,850,904천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6.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보고

사회적 가치의 성과보고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몇 가지 대안으로 사회적 가치 성과를 재무제표의 본문에 구분표시하여 반영하는 방법, 재무제표 본문과는 별도로 재무제표의 주석에 사회적 가치성과를 반영하는 방법, 재무제표와는 별개로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를 재무제표의 본문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둘째,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를 재무제표의 본문이 아닌 주석에 공시하는 방법이다. 셋째,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를 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영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은 사회적 가치를 화폐적으로 측정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의 본문보다는 주석 또는 재무제표가 아닌 별개의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에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표 5〉 사회적 가치 반영 연결재무상태표 예시

XYZ - 20X7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20X7년 12월 31일	20X6년 12월 31일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350,700	360,020
영업권	80,800	91,200
관계기업투자	227,470	227,470
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	100,150	110,770
비유동자산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142,500	156,000
	901,620	945,460
유동자산		
재고자산	135,230	132,500
매출채권	91,600	110,800
유동자산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25,650	12,540
...		

자료: 저자 작성

〈표 6〉 사회적 가치 반영 연결재무상태표 예시

XYZ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20X7	20X6
수익	390,000	355,000
수익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매출원가	(245,000)	(230,000)
매출원가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매출총이익	145,000	125,000
기타수익	20,667	11,300
기타수익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물류원가	(9,000)	(8,700)
관리비	(20,000)	(21,000)
기타비용	(2,100)	(1,200)
기타비용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		

자료: 저자 작성

II. 공공기관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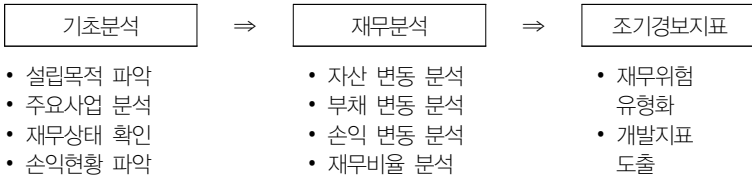
1. 공공기관의 경영위기에 대한 개념과 정의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의 위기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국가 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7). 동 지침은 공공기관의 위기를 “공공기관의 존립 및 경영, 공공기관이 관리·제공하는 국가 중요 기능과 구성원·서비스·시설에 중대한 위협 또는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공공기관 위기 분야 및 유형을 경영위험, 재난, 홍보, 갈등으로 구분하였다. 각 위기 분야 중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중 재무적 위험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공공기관의 경영위기지표를 설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례들을 통해 매뉴얼화하는 것이다.

2.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분석

기관별 경영위기 분석 및 조기경보지표 개발은 총 세 단계에 걸쳐 분석을 수행한다. 첫 번째로 기초분석을 통해 기관의 종합적인 특성과 사업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준비단계를 설정한다. 두 번째로 재무분석을 통해 기관의 재무구조 및 재무적 특이사항을 파악하며, 재무비율을 통해 종합적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분석한다. 세 번째로는 기관의 기초분석과 재무분석을 통해 탐지한 위험요인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여 조기경보지표를 구축한다.

[그림 4] 기관별 경영위기 분석 흐름



자료: 저자 작성

1)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기초분석

한국광물자원공사는 1967년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7〉 한국광물자원공사 주요 사업기능

구 분	내 용
투자사업	전략광종 공급기반을 확충하여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
융자사업	국내광업의 경쟁력 향상과 민영광산의 효율적 개발을 도모
지원사업	국가 기간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국내부존 원료광물의 “광량확보”와 확보광물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광업선진화”로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광산물비축사업	희유금속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도모를 위한 광산물 비축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관리비 보조 지원

자료: ALIO(<http://alio.go.kr/alioSystem.do>), 검색일자: 2018. 8. 21.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7년 기준으로 4.2조원의 자산과 5.4조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은 -1.3조원으로 자본잠식상태에 놓여 있다.

〈표 8〉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상태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자산총계	2,474	2,942	3,625	5,221	5,852	4,687	4,366	4,152	100
유동자산	533	376	284	376	486	510	530	466	11.2
비유동자산	1,942	2,566	3,341	4,844	5,366	4,178	3,836	3,686	88.8
부채총계	1,550	1,769	2,283	3,523	4,020	4,621	5,207	5,434	100
유동부채	89	250	541	586	1,509	1,067	576	880	16.2
비유동부채	1,460	1,519	1,742	2,938	2,512	3,554	4,631	4,554	83.8
자본총계	925	1,173	1,342	1,697	1,832	67	-841	-1,282	
납입자본	789	999	1,259	1,483	1,708	1,888	1,956	1,986	
이익잉여금	110	142	120	149	-117	-1,910	-2,717	-3,032	
기타	4	5	5	172	208	-62	-244	-287	

자료: 저자 작성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17년 매출은 0.7조원이며, 매출원가는 0.8조원으로 매출총손실 및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당기순손실은 -0.4조원으로 집계되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4년 적자전환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에 따라, 2016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표 9〉 한국광물자원공사 손익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211	225	284	327	274	298	330	723
매출원가	-174	-169	-293	-301	-519	-1,421	-607	-812
매출총이익(손실)	37	56	-9	26	-244	-1,123	-277	-89
판매비와관리비	-18	-18	-23	-31	-30	-35	-37	-89
영업이익(손실)	19	38	-32	-5	-274	-1,157	-314	-179
기타손익 ¹⁾	4	-5	11	24	11	-907	-673	-232
당기순이익(손실)	23	33	-21	19	-263	-2,064	-987	-411

주: 1) 기타수익, 기타비용, 기타이익(손실), 금융수익, 금융원가, 법인세비용의 합계금액

자료: 저자 작성

기초분석을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과 국내의 광물자원 확보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는 사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 재원조달, 상환 및 이자부담 위험과 대외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분석

가) 자산 분석

2017년 기준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산은 비유동자산 88.8%와 유동자산 11.2%으로 대부분의 자산은 유형자산,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장기대여금 등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산 분석은 비유동자산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0〉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자산총계	2,474	2,942	3,625	5,221	5,852	4,687	4,366	4,152	100
유동자산	533	376	284	376	486	510	530	466	11.2
비유동자산	1,942	2,566	3,341	4,844	5,366	4,178	3,836	3,686	88.8

자료: 저자 작성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유동자산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비유동금융자산 1.5조원,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1.1조원, 유형자산 0.8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주요 사업과 연계해서 분석해보면 용자사업 운영에 따른 장·단기대여금,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에 따른 유형자산 및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이 기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1〉 한국광물자원공사 비유동자산(자산)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비유동자산	1,942	2,566	3,341	4,844	5,366	4,178	3,836	3,686	100
비유동금융자산	1,141	1,128	1,607	1,072	1,284	1,169	1,364	1,487	40.3
(장기대여금)	1,114	1,099	1,573	1,005	1,252	1,167	1,363	1,474	
유형자산	55	57	81	1,720	2,092	1,442	1,014	825	22.4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561	1,172	1,408	1,810	1,692	1,140	1,040	1,058	28.7
기타	185	209	245	242	298	427	418	316	8.6

자료: 저자 작성

① 장·단기대여금 분석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용자사업을 통해 다양한 해외자원 및 국내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자금 용자지원, 국내자원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안전시설자금 및 설비투자자금 용자지원 등을 수행하며, 용자사업 운용에 따른 대여금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총 1.6조원(단기 0.1조원, 장기 1.5조원)에 이른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장·단기대여금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2012년 0.5조원 증가, 2013년 0.5조원 감소 등 규모가 크고 변동성이 매우 큰 편임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조기경보 지표 마련 시 장·단기대여금 및 관련 손익을 변수로 한 지표설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

② 유형자산 분석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투자사업을 통해 6대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과 新전략광물(희토류, 리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2010년과 2017년 사이 자산과 부채의 주요 증감 요인은 해외투자사업의 추진에 따른 유형자산과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의 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자산은 2010년 55십억원에서 2014년 2.1조원으로 증가하고, 2017년에는 0.8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변동 규모가 매우 큰 편임에 따라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③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분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2010년 0.6조원에서 2013년에는 규모가 1.8조원 까지 증가했지만, 관련 지분법평가손익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특히, 2014년부터는 피투자회사의 적자전환에 따라 대규모 지분법평가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의 규모 및 변동성이 매우 커서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따라 조기경보지표 마련 시에도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및 관련 손익을 변수로 한 지표설정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장·단기대여금	규모 및 변동성이 매우 큰 편으로 나타남
건설중인 자산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본계정 대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관운영에 위험요소로 작용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규모 및 변동성이 매우 커서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자료: 저자 작성

나) 부채 분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2017년 기준으로 총 5.4조원으로 비유동부채 4.5조원(83.8%), 유동부채 0.9조원(16.2%)로 구성되어 있다.

〈표 13〉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부채총계(A)	1,549	1,769	2,283	3,524	4,021	4,621	5,207	5,434
유동부채(B)	89	250	541	586	1,509	1,067	576	880
비유동부채	1,460	1,519	1,742	2,938	2,512	3,554	4,631	4,554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분석을 위해 성격에 따라 차입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로 재분류하였다. 차입부채는 채무, 사채 등과 같이 자본조달을 위해 발생한 부채로 구성하고, 충당부채는 불확실성이 내포된 부채를 포함하고, 그 외는 기타부채로 구분하였다.

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차입부채는 약 5.2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96.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기타부채는 약 0.2조원으로 전체의 3.2%, 충당부채는 약 44십억원으로 전체의 0.8% 수준이다.

〈표 14〉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분류 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부채총계	1,550	1,769	2,283	3,523	4,020	4,621	5,207	5,434	100
차입부채	1,218	1,508	2,038	3,169	3,614	4,217	4,903	5,217	96.0
충당부채	-	-	5	37	78	175	90	44	0.8
기타부채	332	261	239	318	328	229	213	173	3.2

자료: 저자 작성

① 차입부채의 유형별 분석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입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사채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등의 사업 진행으로 인해 대규모 자본 조달의 필요에 따라 회사채를 다수 발행하였기 때문이다.

〈표 15〉 한국광물자원공사 차입부채(재분류 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차입부채(A)	1,218	1,508	2,038	3,169	3,614	4,217	4,903	5,217
차입금	566	649	821	1,445	1,055	1,092	1,126	933
사채(B)	652	859	1,217	1,724	2,558	3,124	3,777	4,283
사채 비중(B/A)	53.5	57.0	59.7	54.4	70.8	74.1	77.0	82.1

자료: 저자 작성

② 차입부채의 유동/비유동 분석

차입부채 중 1년 이내 상환의무가 도래하는 유동부채 비율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2010년 5.5%에서 2014년 38.2%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 현재는 15.1%로 크게 감소하였다. 경기불황 시 유동부채 비중이 높은 경우 차입금 등에 대한 Roll-over(상환연장)가 되지 않아 유동성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유동부채비율의 변동폭이 매우 큰 편이라 조기경보지표에 포함해서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표 16〉 한국광물자원공사 유동 및 비유동차입부채(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차입부채총계(A)	1,218	1,508	2,038	3,169	3,614	4,217	4,903	5,217
유동차입부채(B)	67	229	501	488	1,381	986	510	787
비유동차입부채	1,152	1,279	1,538	2,682	2,233	3,231	4,393	4,430
유동부채비율(B/A)	5.5	15.2	24.6	15.4	38.2	23.4	10.4	15.1

자료: 저자 작성

③ 차입부채의 외화/원화 분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17년 차입부채 5.2조원 중 외화부채는 2.4조원으로 차입부채의 46.2%를 차지하였다. 외화부채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69.3%에서 2012년 79.3%으로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외화비중이 46.2%까지 낮아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여타 다른 공공기관 대비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변동 또한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외화차입부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기경보지표에서도 외화차입비중을 변수로 하는 지표설정 및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7〉 한국광물자원공사 원화 및 외화차입부채(부채)

(단위: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차입부채(A)	1,218	1,508	2,038	3,169	3,614	4,217	4,903	5,217
원화부채	374	421	421	946	1,559	1,771	2,496	2,806
외화부채(B)	844	1,087	1,617	2,223	2,055	2,446	2,407	2,411
외화비중(B/A)	69.3	72.1	79.3	70.1	56.9	58.0	49.1	46.2

자료: 저자 작성

〈표 18〉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사채	대규모 자본 조달로 인해 회사채를 다수 발행
유동부채	유동부채비율의 변동폭이 매우 큰 편
외화부채	다른 공공기관 대비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변동 또한 매우 큰 편

자료: 저자 작성

다) 손익 분석

재화판매의 경우 불레오 및 암바토비 등 광산물 매출에 따라 발생한 수익으로 불레오 광산 등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 및 관련 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을 제외하고는 매출총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자수익의 경우 용자사업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관련 원가는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구성된다. 니켈펀드 소송에 따른 이자비용을 추가 계상한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출총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기타사업의 경우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손익 및 손상차손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투자주식 특히, 암바토비 및 불레오 등의 투자주식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총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조기경보지표에서는 이러한 사업별 손익을 관련 자산과 연계해서 변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재화판매의 경우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과 연동해서, 이자수익의 경우 장·단기대여금과 같이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19〉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업별 매출액·매출원가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화판매								
매출액	22	40	40	45	64	53	67	209
매출원가	15	24	29	35	59	71	55	200
매출총이익(손실)	7	16	11	10	5	-18	12	9
이자수익								
매출액	77	73	92	111	80	96	88	104
매출원가	39	38	57	80	106	46	69	104
매출총이익(손실)	38	35	35	31	-26	50	19	0
정부보조금								
매출액	21	24	26	27	26	24	20	18
매출원가	20	24	26	27	26	24	20	18
매출총이익(손실)	1	0	0	0	0	0	0	0
기타사업								
매출액	91	88	126	144	104	125	155	392
매출원가	100	83	181	159	328	1,280	463	490
매출총이익(손실)	-9	5	-55	-15	-223	-1,155	-308	-98

자료: 저자 작성

〈표 20〉 한국광물자원공사 손익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손익 및 손상차손	투자주식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매출총손실이 발생
유형자산손상차손	해외투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자료: 저자 작성

3)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조기경보시스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조기경보지표를 구성하여 구축한다. 조기경보지표는 기관의 기초분석과 재무분석을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구성한다. 기관별 분석을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운영위험과 차입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위험 지표와 차입위험 지표를 구성한다.

〈표 21〉 한국광물자원공사 기관별 분석 결과

기초분석	재무분석	조기경영지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원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 손익(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손익 및 손상차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위험(차입부채비율) • 운영위험(투자회전율)
대규모 투자에 따른 상환 및 이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장·단기대여금) • 부채(사채, 유동부채) • 현금흐름(이자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위험(유동부채율) • 운영위험(대여회전율)
대외적(해외사업)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외화부채) • 손익(유형자산손상차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위험(외화부채율) • 운영위험(광산회전율)

자료: 저자 작성

운영위험 지표는 투자회전율, 광산회전율, 대여회전율 지표를 사용한다. 투자회전율은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이 기타수익 중 지분법 관련 매출 총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지표로 기관의 투자 효율성을 측정한다. 투자회전율은 자산의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을 기타 수익 중 지분법 관련 매출총이익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기타 수익 중 지분법 관련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의 기타 수익에서 지분법 관련 부분을 추출한 금액을 매출원가의 기타 수익에서 지분법 관련 부분을 추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광산회전율은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이 재화의 판매 부분의 매출총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통해 광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광산 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한다. 광산회전율은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합을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에서 재화의 판매로 인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대여회전율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중인 광업지원 용자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한다. 대여회전율은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의 합을 이자 부분의 매출총이익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표 22〉 한국광물자원공사 운영위험 지표 및 산식

지표 명	지표 산식
투자회전율	$(\text{기타손익 중 지분법 관련 금액}) / \text{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 100$
광산회전율	$(\text{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 \text{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에 대한 매출원가}) / (\text{유형자산} + \text{재고자산}) * 100$
대여회전율	$(\text{이자수익} - \text{이자수익에 대한 매출원가}) / (\text{단기대여금} + \text{장기대여금}) * 100$

자료: 저자 작성

차입위험은 차입부채비율, 유동차입률, 외화차입률 지표를 활용한다. 차입부채비율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입부채를 대상으로 하여 기관의 채무상환 능력 등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다. 차입부채비율은 차입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유동차입률은 차입부채 중 1년 이내 상환의무가 도래하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며, 유동차입부채를 차입부채로 나누어 산출한다. 외화차입률은 부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화부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며, 이를 통해 환위험 등과 연계하여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화부채율은 외화부채를 차입부채로 나누어 사용한다.

〈표 23〉 한국광물자원공사 차입위험 지표 및 산식

지표 명	지표 산식
차입부채비율	$(\text{차입부채} / \text{자기자본}) * 100$
유동부채율	$(\text{유동차입부채} / \text{차입부채}) * 100$
외화부채율	$(\text{외화부채} / \text{차입부채}) * 100$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지표를 통해 조기경보지표를 구성하며, 이와 동시에 몇 가지 지표를 보조지표로 주의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관에서 비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증가가 반드시 재무위험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 평균 대비 과도한 투자증가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기관의 지속가능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에 사업자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차입금 및 사채발행으로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있어 이에 따라 매년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비용이 상당하다. 시장 금리의 변동에 따라 기관 손익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자부담률을 조기경보지표에 포함하여 이자변동에 따른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산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주요 사업자산의 활동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금흐름 관점에서 순이익 대비 영업현금흐름 지표와 금융투자 대비 영업현금흐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기관의 이익의 질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 적정성 등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5] 한국광물자원공사 조기경보지표



자료: 저자 작성

3.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도입방안

공공기관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기관별 조기경보지표로 적합한 지표를 바탕으로 3단계 체계를 설정한다. 3단계 체계는 관심, 주의, 심각 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는 과거 시계열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상 벗어나는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설계한다.

〈표 24〉 공공기관 조기경보시스템 경보단계

단 계	설 정
관심	지표 중 1개 지표 이상이 1 표준편차($\mu \pm 1\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주의	지표 중 2개 지표 이상이 1 표준편차($\mu \pm 1\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지표 중 1개 지표 이상이 2 표준편차($\mu \pm 2\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심각	지표 중 3개 지표 이상이 1 표준편차($\mu \pm 1\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지표 중 2개 지표 이상이 2 표준편차($\mu \pm 2\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지표 중 1개 지표 이상이 3 표준편차($\mu \pm 3\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자료: 저자 작성

1)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조기경보시스템 적용사례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영위기가 발생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¹⁾을 가동하였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기관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조기경보지표를 활용하였다.

조기경보지표를 산출한 결과 운영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운영위험 중 투자회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지분법 관련 투자는 급증한 반면 손실은 크게 증가하여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차입위험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차입부채비율과 유동차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큰폭으로 하락하여 변동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외화차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해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5〉 한국광물자원공사 조기경보지표 현황

(단위: %)

지표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운영 위험	투자회전율	0.8	1.9	-0.2	1.4	-8.0	-80.0	-25.0	-8.3
	광산화전율	12.8	28.5	14.2	0.6	0.3	-1.2	1.1	1.1
	대여회전율	2.7	2.7	2.0	2.6	-1.8	3.8	1.2	0.0
차입 위험	차입부채비율	131.8	129.3	152.9	188.1	198.2	6324.5	-585.0	-408.0
	유동차입률	5.5	15.1	24.4	15.3	38.0	23.3	10.4	15.0
	외화부채율	69.3	71.7	78.8	69.6	56.6	57.8	48.9	46.1

자료: 저자 작성

1)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설명은 '4. 공공기관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도입방안' 참고

실제 조기경보시스템은 시계열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과거 3년간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가동하였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2013년도에 최초로 가동할 수 있었다.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결과 가동 첫해인 2013년부터 운영위험은 모두 '관심'단계로 나타났으며, 차입위험은 유동차입률을 제외하고 '주의'단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영위기는 최종적으로 '심각'단계로 확인되었다. 2014년은 경영위기가 보다 악화되어, 각 비율들이 '심각'단계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심각'단계가 유지되었다. '심각' 단계는 이후 2016년까지 지속되었으나 2017년 경보가 해제되었다. 2017년의 결과는 과거의 변동폭이 높아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만약 과거시계열을 확장하여 표준편차를 평탄화하였다면, 2017년도 조기경보시스템 역시 부정적인 결과로 나왔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26〉 한국광물자원공사 조기경보시스템 가동결과

지표	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운영 위험	투자회전율	관심	심각	심각	관심	-
	광산회전율	관심	-	-	주의	-
	대여회전율	관심	심각	주의	-	-
차입 위험	차입부채비율	주의	-	심각	주의	-
	유동차입률	-	심각	주의	주의	-
	외화부채율	주의	심각	-	-	-
총 합		심각	심각	심각	심각	-

자료: 저자 작성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결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라서 적극적인 해외 광산사업 투자를 추진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로 증가한 대부분의 자산은 당장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개발 및 탐사단계 사업에 대한 투자로서, 실제 수익창출로 이어지기까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기관운영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조기경보지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관운영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위기지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장밋빛 전망 및 홍보에만 치중한 결과 기관의 경영위기 수준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실제, 한국광물자원공사 관련 주요 기사를 검색한 결과 해외자원개발의 투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는 경영위기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의 부재로 문제 제기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기관에서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사업의 지속가능한 측면에서의 적절한 조기경보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했었다면 기관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조기경보시스템은 2013년부터 가동하였다. 다만,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은 2013년 이전이기 때문에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은 다소 늦은 결과일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4.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 활용방안

공공기관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재무위험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을 구성하여 조기경보시스템과 조기경보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과 현황에 대한 결과는 공공기관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대내외적으로 기관의 재정위험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각 기관의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및 결과를 기관의 평가와 연동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이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45
1. 연구배경과 필요성	45
2. 연구내용과 방법	47
3. 연구의 차별성	48
II. 공공기관이 실현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 및 범주	50
1. 사회적 가치 관련 선행연구	50
가.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 창출(CSV)	50
나. 사회적 가치 정의에 관한 연구	51
다.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55
라. 공공기관에 관한 연구	57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정의	58
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	58
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의 정의	59
다.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61
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범주	63
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2016)	63
나. 윤태범 외(2017)의 연구	64
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범주	68
4. 공공기관이 실현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조사	70
가. 공공기관과 일반인 응답자 종합분석 결과	71
나. 일반인 응답자 분석결과	78
다. 기관별 분석결과	79

- Ⅲ.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의 범주와 측정 90
 - 1.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의 인식기준 및 측정기준 90
 - 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의 인식기준 91
 - 나.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측정기준 96
 - 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의 측정 예시 97
 - 2. 사회적 가치 측정사례 99
 - 가. 한국가스공사 100
 - 나. 한국도로공사 123
 -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1

- Ⅳ.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의 성과보고 150
 - 1. 사회가치성과 보고 및 접근방법 150
 - 2. 사회적 가치성과를 반영하는 결산보고서 153

- Ⅴ. 공공기관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 156
 - 1. 공공기관의 경영위기에 대한 개념과 정의 156
 - 2. 공공기관 경영위기 관리 현황 158
 -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와 한계점 158
 - 나. 공공기관 경영공시 제도와 한계점 160
 - 다.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도와 한계점 164
 - 3. 경영위기에 관한 선행연구 167
 - 가. 해외의 선행연구 167
 - 나. 국내의 선행연구 169
 - 다. 공공기관의 선행연구 170
 - 4.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분석 171
 - 가. 한국광물자원공사 177

나. 한국도로공사	196
다. 한국가스공사	214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231
마. 한국철도공사	246
5.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도입방안	263
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현황	263
나. 공공기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방안	267
다. 공공기관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방안	269
라. 공공기관 조기경보지표 적용사례	269
6. 소 결	274
VI. 결 론	276
참고문헌	279
부록	285
부록 1.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인식 설문(안)	285
부록 2. 공공기관이 실현할 사회적 가치 인식 설문조사 결과	291
부록 3. 한국가스공사 기본업무현황 및 사회적 가치 활동현황	339
부록 4. 한국도로공사 기본업무현황 및 사회적 가치 활동현황	347
부록 5. 종점관리 공공기관 재무비율 분석	354

표 목차

〈표 II-1〉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 창출(CSV) 비교 51

〈표 II-2〉 국제기구, 정부 및 NGO 등에서 제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 55

〈표 II-3〉 윤태범 외(2017)의 사회적 가치 범주 65

〈표 II-4〉 라준영 외(2017)와 정도진 외(2017)의 연구에서 적용한 범주 69

〈표 II-5〉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제시된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평가지표 70

〈표 II-6〉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가치추구 정도의 중요성 인식 71

〈표 II-7〉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비율 72

〈표 II-8〉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비중 73

〈표 II-9〉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가치추구 정도의 중요성 인식 74

〈표 II-10〉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의 충분성 인식 74

〈표 II-11〉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성과의 재무제표에의
보고 75

〈표 II-12〉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의 재무제표에의
보고방식 76

〈표 II-13〉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 성과에 대한 별도보고서
보고인식 76

〈표 II-14〉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범위의 정관에의
기술필요성 77

〈표 II-15〉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성과 측정·보고 작성지침의
필요성 78

〈표 II-16〉 가스공사의 「경제 관련 사회적 가치」 인식 정도와
실현 정도(n=103) 80

〈표 II-17〉 가스공사의 「사회 관련 사회적 가치」 인식 정도와
실현 정도(n=103) 81

〈표 II-18〉 가스공사의 「기타 공공서비스 관련 사회적 가치」 인식 정도와 실현 정도(n=103)	82
〈표 II-19〉 한국가스공사 설문조사 인식도 및 수행성과 매트릭스	83
〈표 II-20〉 한국도로공사의 「경제 관련 사회적 가치」 인식 정도와 실현 정도(n=103)	85
〈표 II-21〉 한국도로공사의 「사회 관련 사회적 가치」 인식 정도와 실현 정도(n=103)	85
〈표 II-22〉 한국도로공사의 「기타 공공서비스 관련 사회적 가치」 인식 정도와 실현 정도(n=103)	86
〈표 II-23〉 한국도로공사 설문조사 인식도 및 수행성과 매트릭스	87
〈표 II-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설문조사 인식도 및 수행성과 매트릭스	89
〈표 III-1〉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97
〈표 III-2〉 원가 이하의 공공재 공급	98
〈표 III-3〉 친환경 또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98
〈표 III-4〉 가격할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99
〈표 III-5〉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104
〈표 III-6〉 한국도로공사 사회성과 측정 결과	128
〈표 III-7〉 사회적 가치와 무관한 계정명칭	142
〈표 III-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총 사회적 가치	143
〈표 III-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사회적 가치	144
〈표 III-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재해예방사업 사회적 가치	144
〈표 III-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및 검사 사업 사회적 가치	145
〈표 III-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 사회적 가치	146
〈표 III-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보호 사업 사회적 가치	146
〈표 III-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문화정착사업 사회적 가치	147
〈표 III-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개발사업 사회적 가치	148
〈표 III-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설건립사업 사회적 가치	148

〈표 III-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사업 사회적 가치	149
〈표 IV-1〉 사회적 가치 반영 연결재무상태표 예시	151
〈표 IV-2〉 사회적 가치 반영 연결손익계산서 예시	152
〈표 V-1〉 공공기관 위기관리지침상 위기 분야 및 유형	157
〈표 V-2〉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158
〈표 V-3〉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항목	161
〈표 V-4〉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시점	163
〈표 V-5〉 부채중점관리기관 부채 관련 ALIO 공시	164
〈표 V-6〉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기관	165
〈표 V-7〉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무전망	165
〈표 V-8〉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제도	166
〈표 V-9〉 선행연구의 경영위기 영향요인	170
〈표 V-10〉 12개 주요 공공기관	176
〈표 V-11〉 기초분석 체크리스트	177
〈표 V-12〉 한국광물자원공사 주요 사업기능	177
〈표 V-13〉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상태	178
〈표 V-14〉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현황	178
〈표 V-15〉 한국광물자원공사 손익	179
〈표 V-16〉 재무분석 체크리스트	179
〈표 V-17〉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	180
〈표 V-18〉 한국광물자원공사 비유동자산(자산)	180
〈표 V-19〉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의 위험요인	183
〈표 V-20〉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	184
〈표 V-21〉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분석 구분	184
〈표 V-22〉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분류 부채	185

〈표 V-23〉 한국광물자원공사 차입부채(재분류 부채)	185
〈표 V-24〉 한국광물자원공사 유동 및 비유동차입부채(부채)	186
〈표 V-25〉 한국광물자원공사 원화 및 외화차입부채(부채)	186
〈표 V-26〉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의 위험요인	187
〈표 V-27〉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업별 매출액·매출원가	188
〈표 V-28〉 한국광물자원공사 기타이익(손실)	188
〈표 V-29〉 한국광물자원공사 손익의 위험요인	189
〈표 V-30〉 한국광물자원공사 현금흐름	189
〈표 V-31〉 한국광물자원공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0
〈표 V-32〉 한국광물자원공사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0
〈표 V-33〉 한국광물자원공사 현금흐름의 위험요인	190
〈표 V-34〉 한국광물자원공사 수익성 비율	191
〈표 V-35〉 한국광물자원공사 안전성 비율	191
〈표 V-36〉 한국광물자원공사 현금흐름 비율	192
〈표 V-37〉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비율의 위험요인	192
〈표 V-38〉 조기경보지표 체크리스트	192
〈표 V-39〉 한국광물자원공사 기관별 분석 결과	193
〈표 V-40〉 한국광물자원공사 운영위험 지표 및 산식	194
〈표 V-41〉 한국광물자원공사 차입위험 지표 및 산식	194
〈표 V-42〉 한국도로공사 주요 사업기능	196
〈표 V-43〉 한국도로공사 재무상태	197
〈표 V-44〉 한국도로공사 출자현황	197
〈표 V-45〉 한국도로공사 손익	198
〈표 V-46〉 한국도로공사 자산	199
〈표 V-47〉 한국도로공사 유동자산(자산)	199
〈표 V-48〉 한국도로공사 비유동자산(자산)	200
〈표 V-49〉 한국도로공사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자산·비유동자산)	200
〈표 V-50〉 한국도로공사 자산의 위험요인	201

CONTENTS

〈표 V-51〉 한국도로공사 부채	201
〈표 V-52〉 한국도로공사 부채분석 구분	202
〈표 V-53〉 한국도로공사 재분류 부채	202
〈표 V-54〉 한국도로공사 차입부채(재분류 부채)	203
〈표 V-55〉 한국도로공사 부채의 위험요인	204
〈표 V-56〉 한국도로공사 손익	204
〈표 V-57〉 한국도로공사 사업별 매출액·매출원가	205
〈표 V-58〉 한국도로공사 금융비용	206
〈표 V-59〉 한국도로공사 손익의 위험요인	207
〈표 V-60〉 한국도로공사 현금흐름	207
〈표 V-61〉 한국도로공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8
〈표 V-62〉 한국도로공사 이자비용 비교	208
〈표 V-63〉 한국도로공사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9
〈표 V-64〉 한국도로공사 현금흐름의 위험요인	209
〈표 V-65〉 한국도로공사 수익성 비율	210
〈표 V-66〉 한국도로공사 안전성 비율	210
〈표 V-67〉 한국도로공사 현금흐름 비율	210
〈표 V-68〉 한국도로공사 재무비율의 위험요인	211
〈표 V-69〉 한국도로공사 기관별 분석 결과	211
〈표 V-70〉 한국도로공사 사업위험 지표 및 산식	212
〈표 V-71〉 한국도로공사 이자율위험 지표 및 산식	213
〈표 V-72〉 한국가스공사 주요 사업기능	214
〈표 V-73〉 한국가스공사 자산·부채	215
〈표 V-74〉 한국가스공사 출자현황	215
〈표 V-75〉 한국가스공사 손익	216
〈표 V-76〉 한국가스공사 자산분석 구분	217
〈표 V-77〉 한국가스공사 자산	217
〈표 V-78〉 한국가스공사 사업자산(자산)	218

〈표 V-79〉 한국가스공사 자산의 위험요인	219
〈표 V-80〉 한국가스공사 부채	220
〈표 V-81〉 한국가스공사 차입부채(부채)	220
〈표 V-82〉 한국가스공사 유동차입부채(차입부채)	221
〈표 V-83〉 한국가스공사 외화부채(차입부채)	221
〈표 V-84〉 한국가스공사 부채의 위험요인	222
〈표 V-85〉 한국가스공사 수익·비용	222
〈표 V-86〉 한국가스공사 사업별 매출액·매출원가	223
〈표 V-87〉 한국가스공사 기타이익(손실)	224
〈표 V-88〉 한국가스공사 손익의 위험요인	224
〈표 V-89〉 한국가스공사 현금흐름	225
〈표 V-90〉 한국가스공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5
〈표 V-91〉 한국가스공사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6
〈표 V-92〉 한국가스공사 현금흐름의 위험요인	226
〈표 V-93〉 한국가스공사 수익성 비율	227
〈표 V-94〉 한국가스공사 안전성 비율	227
〈표 V-95〉 한국가스공사 현금흐름 비율	228
〈표 V-96〉 한국가스공사 재무비율의 위험요인	228
〈표 V-97〉 한국가스공사 기관별 분석 결과	229
〈표 V-98〉 한국가스공사 차입위험 지표 및 산식	229
〈표 V-99〉 한국가스공사 사업위험 지표 및 산식	230
〈표 V-100〉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사업기능	231
〈표 V-101〉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부채	232
〈표 V-102〉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현황	232
〈표 V-103〉 한국토지주택공사 손익	233
〈표 V-104〉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234
〈표 V-105〉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별 자산	234
〈표 V-106〉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의 위험요인	236

〈표 V-107〉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237
〈표 V-108〉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분류 부채	237
〈표 V-109〉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입부채(재분류 부채)	238
〈표 V-110〉 한국토지주택공사 유동 및 비유동차입부채(부채)	238
〈표 V-111〉 한국토지주택공사 원화 및 외화차입부채(부채)	239
〈표 V-112〉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 및 선수금	239
〈표 V-113〉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의 위험요인	239
〈표 V-114〉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별 매출액·매출원가	241
〈표 V-115〉 한국토지주택공사 손익의 위험요인	242
〈표 V-116〉 한국토지주택공사 현금흐름	243
〈표 V-117〉 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43
〈표 V-118〉 한국토지주택공사 현금흐름 비율	243
〈표 V-119〉 한국토지주택공사 현금흐름의 위험요인	244
〈표 V-120〉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별 분석 결과	244
〈표 V-121〉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위험 지표 및 산식	245
〈표 V-122〉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입위험 지표 및 산식	245
〈표 V-123〉 한국철도공사 주요 사업기능	246
〈표 V-124〉 한국철도공사 재무상태	246
〈표 V-125〉 한국철도공사 출자현황	247
〈표 V-126〉 한국철도공사 손익	247
〈표 V-127〉 한국철도공사 정부지원수입	248
〈표 V-128〉 한국철도공사 자산	248
〈표 V-129〉 한국철도공사 유동자산(자산)	249
〈표 V-130〉 한국철도공사 비유동자산(자산)	249
〈표 V-131〉 한국철도공사 유형자산(자산-비유동자산)	250
〈표 V-132〉 한국철도공사 철도차량회전을	251
〈표 V-133〉 한국철도공사 자산의 위험요인	251
〈표 V-134〉 한국철도공사 부채	251

〈표 V-135〉 한국철도공사 부채분석 구분	252
〈표 V-136〉 한국철도공사 재분류 부채	253
〈표 V-137〉 한국철도공사 차입부채(재분류 부채)	253
〈표 V-138〉 한국철도공사 원화 및 외화차입부채(부채)	255
〈표 V-139〉 한국철도공사 부채의 위험요인	255
〈표 V-140〉 한국철도공사 사업별 매출·매출원가	256
〈표 V-141〉 한국철도공사 금융비용	257
〈표 V-142〉 한국철도공사 손익의 위험요인	257
〈표 V-143〉 한국철도공사 현금흐름	258
〈표 V-144〉 한국철도공사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8
〈표 V-145〉 한국철도공사 현금흐름의 위험요인	259
〈표 V-146〉 한국철도공사 수익성 비율	259
〈표 V-147〉 한국철도공사 안전성 비율	260
〈표 V-148〉 한국철도공사 현금흐름 비율	260
〈표 V-149〉 한국철도공사 재무비율의 위험요인	260
〈표 V-150〉 한국철도공사 기관별 분석 결과	261
〈표 V-151〉 한국철도공사 운영위험 지표 및 산식	261
〈표 V-152〉 한국철도공사 차입위험 지표 및 산식	262
〈표 V-153〉 지방자치단체 모니터링 기준	263
〈표 V-154〉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모형	265
〈표 V-155〉 금융기관별 경영실태평가 현황	267
〈표 V-156〉 공기업 전체 수익성 및 안전성 지표	268
〈표 V-157〉 공공기관 조기경보시스템 경보단계	268
〈표 V-158〉 한국광물자원공사 조기경보지표 현황	270
〈표 V-159〉 한국광물자원공사 조기경보시스템 가동결과	270
〈표 V-160〉 한국광물자원공사 손익계산서(2013~2017년)	272
〈표 V-161〉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상태표(2013~2017년)	273
〈표 V-162〉 공공기관 위기관리 방안	275

그림 목차

[그림 II-1]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61
[그림 II-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62
[그림 II-3] 기업 명성과 사회적 책임활동의 적합성이 제도적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63
[그림 V-1] 기관별 경영위기 분석 흐름	172
[그림 V-2] 기관별 기초분석 흐름	173
[그림 V-3] 기관별 재무분석 흐름	173
[그림 V-4] 구성항목 분석 도식	174
[그림 V-5] 기관별 조기경보지표	175
[그림 V-6] 한국광물자원공사 장·단기대여금(자산)	181
[그림 V-7] 한국광물자원공사 건설증인자산	182
[그림 V-8] 한국광물자원공사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183
[그림 V-9] 한국광물자원공사 조기경보지표	195
[그림 V-10] 한국도로공사 차입부채 추이	203
[그림 V-11] 한국도로공사 사업별 매출총이익률 추이	206
[그림 V-12] 한국도로공사 조기경보지표	213
[그림 V-13] 한국가스공사 사업자산 추이	219
[그림 V-14] 한국가스공사 조기경보지표	231
[그림 V-15]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자산(토지, 주택)	235
[그림 V-16] 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부동산	236
[그림 V-17]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별 매출총이익률 추이	242
[그림 V-18] 한국토지주택공사 조기경보지표	245
[그림 V-19] 한국철도공사 차입부채 추이	254
[그림 V-20] 한국철도공사 사업별 매출총이익률 추이	257
[그림 V-21] 한국철도공사 조기경보지표	263

I.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의 창출을 위한 사회적 책임 수행에 달려 있다. 즉,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공공성의 실현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성과는 공공성보다는 경제성을 주된 사항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되고 있다. 반면, 최근 민간기업들은 통합보고서(Integrated Reporting)²⁾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내역 등을 포괄하는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보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새 정부 들어 5개년 국정운영계획의 100대 과제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문재인법'으로 알려진 「사회적가치실현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 수정·발의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경영목표도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도 경영성과와 재무관리 등 수익성 중심에서 일자리·안전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재편되어, 2018년 경영평가부터는 '사회적 가치 구현'이 별도의 경영관리 평가지표로 신설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기업과 다른 목적과 배경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연구가 필요

2) 통합보고서(Integrated Reporting)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ing)로 불리기도 하며, 국제보고서 작성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따라 재무적 성과와 함께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등 사회책임경영의 성과를 담고 있음

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실현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그 범주를 식별하여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들을 단순히 비계량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의 측정 원칙을 정립하여 공공기관이 실현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결산보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은 경제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민간기관과는 달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즉, 사회적 가치)의 추구가 요구되는 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기본적 사명을 지속가능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위기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면 기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익적 사명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익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경영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6년 말 현재 D3 기준 34%, 386조원)이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영위기는 정부의 재정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공기관의 경영위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실제로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채비율 100%를 밑도는 건실한 공기업이었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불과 몇 년 새 부채비율이 6,900%까지 치솟더니 현재는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창립 5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즉,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관리보다는 경영위기를 사전에 감지·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위험에 대한 경영위기지표와 이를 측정·보고하는 결산보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사회적 가치 이슈는 사회적 기업 등과 관련되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기업의 CSR(사회적 책임)이나 CSV(공유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동안 CSR·CSV 등의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또는 측정 없이 기업 전략이나 혁신 모델 측면에서 다루어져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접근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와 측정 원칙을 개발하여 공공기관이 실현한 사회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 및 평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수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악화는 정부의 재정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후적 관리보다 사전적 관리가 중요하다. 기존의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은 주로 금융시장이나 외환위기와 같은 거시경제 차원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위험을 식별하여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기경보시스템 및 경영위기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정의 및 범주를 규정하기 위한 인식도 조사를 진행한다. 인식도 조사는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 외부 고객,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둘째, 공공기관이 실현한 사회적 가치의 인식 및 측정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이 실제로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측정사례를 소개한다. 셋째,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보고방법을 제시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합성을 평가한다. 넷째,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설계를 위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유형 및 재무적 위험을 식별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한다. 다섯째,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정보와 경영위기지표 평가결과를 포괄하는 결산보고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개념을 정립하고 그 범위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방향과 역할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측정하여 보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결산보고서에 사회적 가치를 보고·공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 경영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체계가 제시되면 공공기관의 재무적 위험을 사전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및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결산보고서를 개발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와 경영위기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은 계속기업(Going Concern)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계속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기관의 경영위기 관리는 계속기업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존재한다. 이에 공공기관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적 가치 추구로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경제적 가치 추구하고 함께 높은 사회적 가치 추구를 하여야만 공공기관 본연의 공익적 사명을 수행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관의 경영위기 관리가 중요하다. 만약 기관이 직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기관은 존속할 수 없다.³⁾ 따라서 공공기관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경영위기 관리

3) 현재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공공기관은 고강도 구조조정과 함께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체계를 수립하여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결산보고서를 개발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측면과 경영위기 관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

II. 공공기관이 실현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 및 범주

1. 사회적 가치 관련 선행연구

가.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 창출(CSV)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관점에서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관점으로 발전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사회의 목표와 가치의 관점에 따라 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의무로 정의할 수 있으며(Bowen, 1953), 최근에는 기업의 선택이 아닌 의무적인 활동으로 변화하였다. 다만, 사회적 책임 활동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에 악화 등의 비효율성을 견인한다는 견해(Vance, 1975; Aupperle et al., 1985)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감소시키며, 기업의 명성을 제고하여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Donaldson, 1982; Pava and Krausz, 1996)가 양립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본연의 활동이 아닌 부수적인 활동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미 창출한 가치를 분배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견해와 달리 공유가치 창출(CSV)은 기업의 가치사슬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와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견해이다. 공유가치 창출을 제안한 Poter and Kramer(2011)는 공유가치 창출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등 기업 본연의 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와 함께 사회적 니즈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업의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창출 개념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1>과 같다.

<표 II-1>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 창출(CSV) 비교

항목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 창출(CSV)
목표가치	선행	비용 대비 경제·사회적 가치
핵심개념	기업, 시민, 호혜, 지속가능성	기업-지역사회 간 공동의 가치창출
동기	재량적이거나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동기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
경제적 이익과 관계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는 별개의 요소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핵심요소
내용	외부보고목적 또는 개인적 선호에 의해 결정	기업실정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결정
영향범위	기업의 환경 및 사회성과와 CSR 예산에 의해 제한	기업 전체 예산을 재조정
사례	공정무역	품질과 수율 향상을 위한 구매과정의 전환

자료: 김종대 외(2016), p. 295에서 재인용
원자료: Porter and Kramer(2011), p. 76

이렇듯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은 사회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는 유사하지만,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관점에서는 다소 차별적이다.
즉,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는 독립적인 관계여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공유가치 창출은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
에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나. 사회적 가치 정의에 관한 연구

채종현 외(2009)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우리나라에서의
실체적 형태에 대해 연구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주요 행위자별 인식을 바
탕으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임의
영(2009)은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가변적이며, 분배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출되며, 분배의 기준은 가치의 특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승규·라준영(2010)은 광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화폐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비화폐적 가치’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진희선(2013)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적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에 먼저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펼침으로써 창출되는 가치”로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였다.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적 가치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3조에서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하였다.⁴⁾ 「사회적 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2016)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용창출이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사회 재생, 공동체의 이익 실현,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노동, 복지, 인권, 환경 차원에서 공동체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재정적·비재정적 편익이라고 정의하였다.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제2조에서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

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사회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의복지의 제공
 -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서울시공공조달혁신백서』(2016)에서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3조 제2호(의안번호 2001614)에서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라고 정의하였다.⁵⁾

윤태범 외(2017)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시되는 사회적 가치로 국내외에서 중요하게 꼽고 있는 인권, 안전, 노동, 일자리, 건강·복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상생협력, 지역경제, 공동체복원, 책임 및 윤리경영, 환경, 참여 등 12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윤태범 외(2017)의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는 ‘인권, 노동권, 안전한 근로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경제 공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등 공공이익과 공

5) 윤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001614) 제3조 제2호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계 활성화
-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본 법률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하였다. 김태영 외(2017)는 사회적 가치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선호하는 가치로서 사적 편익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양동수(2017)는 사회적 가치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 사회가 회복,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로서 '헌법적 가치 중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로 정의하였다. 송용한(2017)은 사회적 가치란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주장하고, 사적 편익에 대한 관심이거나 요구를 넘어서 타인과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김정인(2018)은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는 개인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이며, 화폐적 가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비화폐적 가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사회적 약자보호를 넘어서 보장성, 사회통합,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삶의 질 향상, 균형 있는 경제발전, 국민 권익 향상, 공동이익 추구,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 등의 의미도 포함하며,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형평성, 공동체주의, 통합성, 보편성, 보장성, 지속가능성, 공유성, 포용적 성장, 민주성, 자율적 개방성, 윤리성, 공개성, 안전성, 건강성 등과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소들은 사회적 목적과 공공성 달성이라는 공통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박상욱(2018)의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란 개인을 초월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정의하였다. <표 II-2>는 국제기구, 정부 및 NGO 등에서 정의한 사회적 가치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2〉 국제기구, 정부 및 NGO 등에서 제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

기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
국제기구(UN 글로벌컴팩트, GRI G4가이드라인, ISO2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안전, 건강·복지, 노동,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상생경제, 일자리, 공동체 복원, 지역경제, 환경지속성
영국(공공서비스(사회가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생경제: 위탁 및 조달과정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구매와 그에 따른 결과 이상으로 창출되는 공동체를 위한 편익
미국(사회혁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상생경제, 일자리, 공동체 복원, 지역경제, 참여: 사회서비스 참여 기회 확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대상 고용기회 확대 및 취업능력 향상,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사회적 창의 프로그램 투자 확대
NGO	Social Enterprise UK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의 한 방법이며,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위한 계약 등을 할 때, 비용적인 측면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
	NACVA(The National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ers and Analys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지출의 영향을 극대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며 공공의 영역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지출과정에서 창출 되도록 하는 것
OE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보다 사람을 중시,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개방성 강조, 구성원들 간 민주적 통제, 보편적 이익 추구, 사회적 연대와 책임,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목적과 공익활동 추구, 실업문제 해결 등을 강조함(1999) 오늘날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강조하고 있다고 제시함(2016)

자료: 박상욱(2018)에서 발췌 및 보완하여 재작성

다.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김순양(2008)은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 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현실의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① 성과평가 제도화, ②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논의, ③ 외부평가 제도화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성과평가의 적용방안 및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용탁(2009)은 균형성과표(BSC) 모형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과기준에 대한 적용방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적 관점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 재정지원 정도, 고객관점에 있어서는 정부(지자체), 내부프로세스 관점에 있어서는 사업전략의 구축,

학습과 성장 관점에 있어서는 CEO/관리자의 리더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규·라준영(2010)은 기존의 사회투자수익률(SROI) 기법을 검토하고 사회적 투자를 기업 회계와 동일한 개념으로 정립하고 사회적 편익과 비용 개념을 외부성(externality) 관점에서 명확히 정의하는 등 이론적으로 보완된 SROI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김혜란(2012)은 SROI 분석을 이용하여 경남지역 사회적 기업들의 가치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사회적 기업의 경우 기업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압도적으로 많이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복(2013)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하는 지표는 모든 사회적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지표와 업종별 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조영복·류정란(2014)은 SROI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접근법들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들(SROI, BSC, Cost-Effectiveness Analysis, Cost-Benefit Analysis) 중 SROI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승규와 배귀희(2014)는 전라북도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연관성분석(input-output analysis)를 이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균형성과표(BSC), 사회투자수익률(SROI), 기타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에 의한 편익추정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최영출·이상엽(2015)은 충북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2014년도의 운영 자료를 활용하여 질적 비교 방법(QCA)를 적용하여 사회적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김호철·정석(2016)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로 SROI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대학의 사회공헌 활동이 대학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Gregory et al.(2016)은 Ohlson의 가치측정방식을 이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성과(Corporate Social Performance, CSP)의 가치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CSP가 높은 기업들은 자본비용이 낮거나 이익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용한(2017)은 사회적 가치 측정 척도는 세 영역의 요구, ① 외부 이해 관계자에 대한 보고의 필요성, ② 내부 의사결정 및 운영 자료의 필요성, ③ 사회적 영향력 평가의 필요성이라는

서로 다른 세 측면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정도진 외(2017)는 사회적 성과를 “기업이 주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출한 공익적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표시된 재무성과 중에서 영업이익과 유사한 개념을 사회적 가치에 적용하였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인식 및 측정기준을 준용하여 객관적으로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성과를 인식 및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이 창출한 모든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지 못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라. 공공기관에 관한 연구

라영재·윤태범(2010)은 공공기관의 특성은 민간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모델 및 적용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Beare et al.(2014)은 35개 캐나다 기업의 전문가를 인터뷰하여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와 공공정책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시에 공공정책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대한 공공정책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로부터의 가이드라인 부재가 보고서와 공공정책 연계의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영재(2012)는 사회적 책임 또는 지속가능경영의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ISO 26000 이행수준을 파악하고 적용이 가능한 경영모델을 제시하였다. 한상일(2013)은 공공부문의 다양성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적 책임성의 개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혜숙(2013)은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요인들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여, 사회적 차원의 고객만족, 지역사회공헌과 환경적 차원의 환경오염방지 등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호식(2015)은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치제안, 가치창출, 그리고 가치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 분석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사례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목현수(2015)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지속가능경영을 기반구축 차원(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여부, UN Global Compact 가입 여부)과 활동수준 차원(리더십, 책임경영, 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이행 점수 합산)으로 구분하여 경영 효율성과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효진 외(2015)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활동 효과성에 대해 연구하여 교육학술지원, 자원봉사활동, 기부협찬활동이 유의하게 효과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영재(2017)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적 평가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표가 균형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김정인(2018)은 사회적 가치 중 포용적 성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가치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효과적인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해 공직자들은 사회적 혁신, 가외성, 협업, 포용적 공감성, 사회적 감수성, 예방적 전문성 등과 같은 공직가치들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정의

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국가(국제기구)에 따라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학자에 따라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의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지고 있다(윤태범 외, 2017). 세계적으로 경제적 가치 중심의 경제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인권, 환경, 안전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들(UN, OECD, ISO 등)이 사회적 가치의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나 지표를 개발하여 전파하고 있다. 주로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에서 논의되어 왔던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사회의 모든 분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창출

(CSV), 사회책임투자(SRI) 등 사회적 가치를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을 초월(혹은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하여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개념에는 개인보다는 타인과 공동체의 입장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내재하고 있다.⁶⁾ 사회적 가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⁷⁾

- 공공성(공익성): 공개적이고, 공통의 관심사를 형성하고 있음
- 유동성(역사성, 가변성): 사회적 가치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재구성됨.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신념, 삶의 방식이 변하면 사회적 가치의 내용이나 가치 분배방식에 대한 생각이 변화함. 국가·지역·시대별 정치, 경제제도에 따라서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편차가 존재함. 시기마다 떠오른 시대적 화두나 반향이 큰 사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변화함.
- 다양성: 사회적 합의체로서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가 발현됨
- 협의성: 사회적 가치들이 서로 상충될 때, 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함

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의 정의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인권·안전·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2019년부터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배경에는 그간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 합리화 등 효율성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공공

6) 윤태범 외(2017),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행정학회.

7) 김태영 외(2017), 『인재개발분야의 사회적 가치정립 및 확산 방안 연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8)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계층 간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책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박광온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⁹⁾이 입법 추진 중에 있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업무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서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인권, 노동권, 사회적 약자 배려, 안전, 생태·환경과 지속가능성, 일자리, 상생 등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장에서 기술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OECD, 1999; 라영재·윤태범, 2010; 라영재, 2012; 김혜숙, 2013; 목현수, 2015; 정도진 외, 2017; 김정인, 2018 등).

예를 들어, 김정인(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형평성, 공동체주의, 통합성, 보편성, 보장성, 지속가능성, 공유성, 포용적 성장, 민주성, 자율적 개방성, 윤리성, 공개성, 안전성, 건강성 등과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정의하면서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OECD(1999)에 의하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자본보다 사람을 중시,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개방성 강조, 구성원들 간 민주적 통제, 보편적 이익 추구, 사회적 연대와 책임,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목적과 공익활동 추구, 실업 문제 해결 등으로 설명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종합하여 공공기관에 적용한다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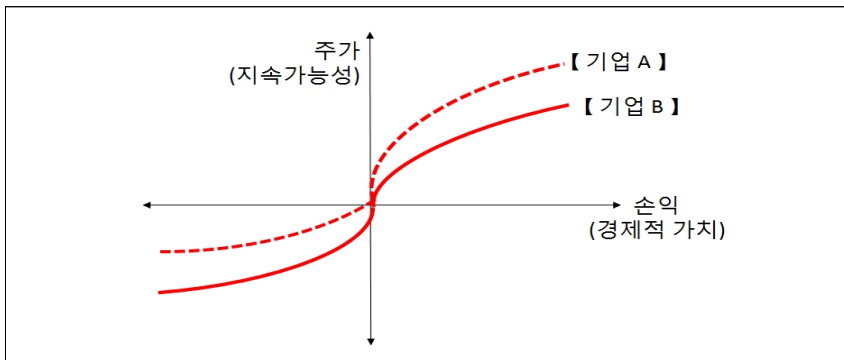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2017년 10월 26일, 박광온 의원 외 20인의 국회의원 입법발의).

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될 수 있다.

다.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CSR과 CSV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본조달비용에 음(-)의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주가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Waddock and Graves, 1997). 마찬가지로 창출된 사회적 가치도 자본조달비용에 음(-)의 영향을 미쳐 기업의 주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그림 II-1]과 같이 기업의 주가는 손익 등의 경제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지만, 동일한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보다 더 높은 지속가능성에 따라 더 높은 주가로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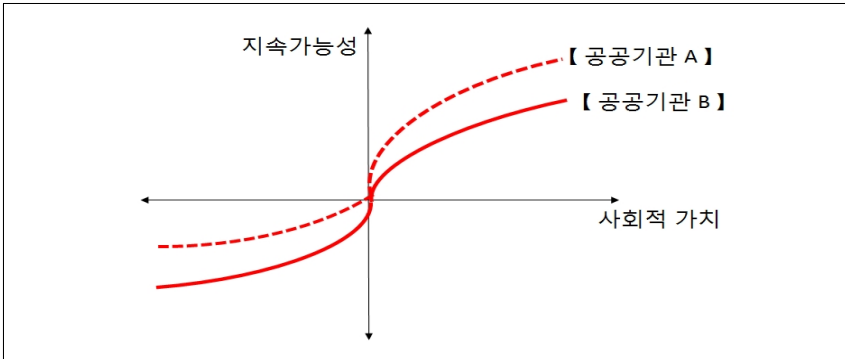
[그림 II-1]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주: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기업 A)
 사회적 가치가 낮은 기업(기업 B)
 자료: Friedman(197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은 [그림 II-2]와 같이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그림 II-2]와 같이 동일한 사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보다 더 높은 지속가능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림 II-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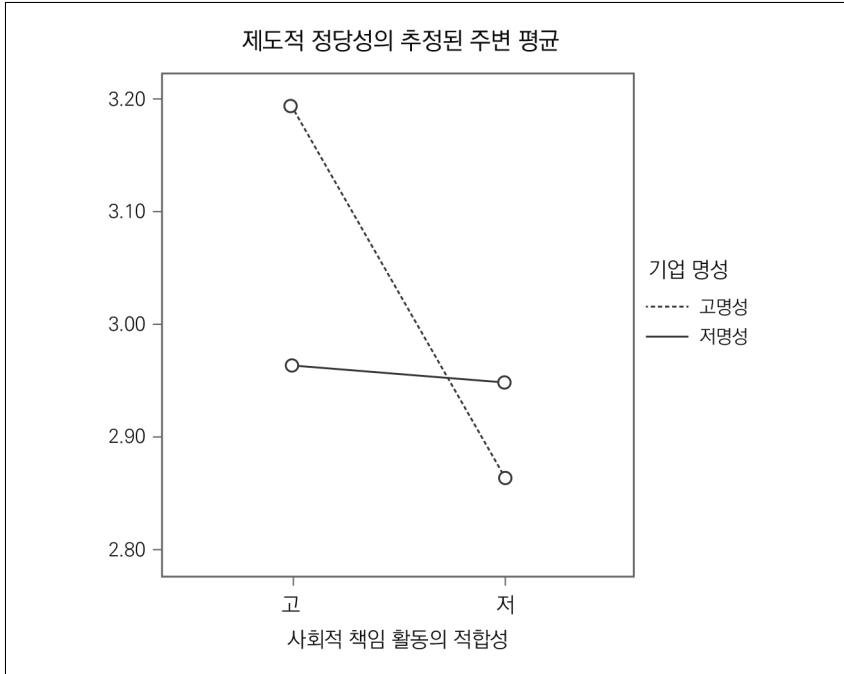


주: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기관(공공기관 A)
 경제적 가치가 낮은 공공기관(공공기관 B)
 자료: Friedman(197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따라서 시장성향이 강한 공공기관(예, 시장형 공기업)은 [그림 II-1]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규모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이 요구되는 반면, 공공성이 강한 공공기관(예,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은 [그림 II-2]와 같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이 공공기관 본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또한, 박수정·차희원(2009)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그 명성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즉, 고명성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수행 여부가 그 존재의 정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저명성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수행 여부가 그 존재의 정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을 결정할 때 명성을 고려해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림 II-3] 기업 명성과 사회적 책임활동의 적합성이 제도적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자료: 박수정·차희원(2009), p. 518, [그림 1]

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범주

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2016)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제3조의 1)에서는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를 다음 13가지 범주로 제시하고 있다.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나. 윤태범 외(2017)의 연구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시되는 사회적 가치로 국내외에서 중요하게 꼽고 있는 인권, 안전, 노동, 일자리, 건강·복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상생 협력, 지역경제, 공동체복원, 책임 및 윤리경영, 환경, 참여 등 12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12개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내용과 일치한다.

〈표 II-3〉 윤태범 외(2017)의 사회적 가치 범주

구성 요소	의미	국내외 관련 논의
1.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추구권, 평등권, 정보기본권, 직업의 자유, 주거 생활의 보장 등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유지·보호 - 평등: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장애, 나이, 용모, 고용형태, 학력,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 상황, 사상·정치적 의견, 실외된 전과, 성적 취향, 병력 등에 의한 차별금지 - 정보기본권: 필요·충분한 정보 공개 및 공유 - 직업의 자유: 경제적 강자에 의한 침탈행위 시정 - 안정적인 주거생활: 과도한 집값 인상, 주택의 소유 집중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10조, 제39조 • ISO 26000 사회적 책임 7원칙 • 글로벌컴팩트 원칙 1, 2, 6 • G3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과 안전으로부터 국민 보호 - 시장의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국민의 안전 지키기 - 국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예방 - 지역·계층·연령·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안전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 글로벌컴팩트 원칙 4, 5, 6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3. 건강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식품·의약품 안전, 의료접근권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 빈곤,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출산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기초생활을 유지(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34조, 36조 • G3 가이드라인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표 II-3〉의 계속

구성 요소	의미	국내외 관련 논의
4.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권(일할 수 있는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 -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전환 - 실업수당의 지급대상과 급여 수준의 확대 • 노동 3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 향상: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건 공동결정, 최저임금 인상, 고용안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노조 조직률, 협약적용비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32조, 제33조 • ISO 26000 사회적 책임 7원칙 • 글로벌컴팩트 원칙 3, 4, 5 • G3 가이드라인 • 서울 CSR 평가 •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5.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 공공서비스 확충 - 노동시간 단축 유도,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유도 - 최저임금 기준 인상 - 기업규모, 고용형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축소 - 노동이사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32조 • ISO 26000 사회적 책임 7원칙 • 글로벌컴팩트 원칙 6 • 서울 CSR 평가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6. 사회적 약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사회적 기회 제공,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 및 사회 통합 • 사회적 약자의 인간존엄과 가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를 통해 적정 소득 확보 -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에도 적절한 사회보장 실현 -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 조치 실시 • 여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실현 • 노인, 청소년 • 생활능력이 없는 자(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의 민주화(공정한 경제)를 위하여 규제 및 조정 - 상생협력: 중소기업의 대기업 생산 및 이익에 대한 협력이익배분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32조, 제34조 • ISO 26000 사회적 책임 7원칙 • 서울 CSR 평가 • 사회적 경제기본법(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표 II-3〉의 계속

구성 요소	의미	국내외 관련 논의
7. 상생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극화 해소, 경제 성장동력 확충 - 경제의 민주화(공정한 경제)를 위하여 규제 및 조정 - 상생협력: 중소기업의 대기업 생산 및 이익에 대한 협력이익배분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극화 해소, 경제 성장동력 확충 • 글로벌컴팩트 원칙 10 • 서울 CSR 평가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8. 공동체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복원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결정과정에 주민자치 확대 - 지역소재 기업의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117조, 제118조 • G3 가이드라인 • 사회적 경제기본법(안) •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9. 지역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 열위지역에 대한 적극적 투자 - 지방에서도 자체적이고 자립적인 경제활동 활성화 - 지역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123조 • G3 가이드라인 • 사회적 경제기본법(안) •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10. 책임·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존재로서의 기업(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도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 활동 유도 ① 좋은 지배구조 형성 ② 인권보호 ③ 노동 ④ 환경보호 ⑤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⑥ 소비자보호 ⑦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26000 사회적 책임 7원칙 • 글로벌컴팩트 원칙 10 • G3 가이드라인 • 서울 CSR 평가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11.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생활 환경 보장, 환경과 생물종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 모든 생명체 존중,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과 생물종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 미세먼지, 핵폐기물 등 여러 종류의 환경오염 축소·방지 - 기후변화 적응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에너지 사용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35조 • ISO 26000 사회적 책임 7원칙 • 글로벌컴팩트 원칙 7, 8, 9 • G3 가이드라인 •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표 II-3〉의 계속

구성 요소	의미	국내외 관련 논의
12.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실현 - 시민이 공동체 의사결정 참여 - 시민참여 조건·관련 정보 최대한 공개·참여 수단으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정부의 정책 입안, 집행, 평가의 과정에서 시민 참여 적극적 보장 - 시민 속의를 국가의 권력기구 조직과 국가 권력 행사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전문, 제41조, 제67조, 제72조, 제118조, 제119조, 제13조 • 사회적 경제기본법(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자료: 윤태범 외(2017), pp. 33~36.

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범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제시한 13개 항목(기타 포함)을 각각 독립적인 사회적 가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나열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목록화하면 의미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도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의미있게 사회적 가치를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라준영 외(2017)나 정도진 외(2017)의 연구에서 적용한 범주화의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사명과 사회적 가치의 창출방식을 고려하여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회서비스 성과 영역의 4개 항목은 공공기관의 내부 구성원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엄밀하게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로 공동체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가의 기준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표 II-4〉 라준영 외(2017)와 정도진 외(2017)의 연구에서 적용한 범주

4개의 영역	세부 항목
I. 사회서비스성과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II. 고용성과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III. 환경성과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IV. 사회생태계성과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자료: 라준영 외(2017), pp.17~18; 정도진 외(2017), pp. 34~35.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통해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2개 범주로 구성된다. 정부는 경영관리 범주에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를 포함시킨다. 다음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제시된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평가지표이다.

〈표 II-5〉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제시된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평가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1)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시간선택제 실적을 평가한다.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3) 안전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근로환경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관의 실적을 평가한다.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 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5) 윤리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자료: 기획재정부(2017), p. 17~21. 요약 발췌

4. 공공기관이 실현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조사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실현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은 일반국민과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추구할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 보고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내용에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구성원 입장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사업 및 기타 활동을 통하여 현재 사회적 가치를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지 향후 더 중요

시하여야 할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 분야(또는 사업)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가. 공공기관과 일반인 응답자 종합분석 결과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한국가스공사) 응답자와 일반인 응답자에게 공통으로 실시한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의 종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1	공공기관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

〈표 II-6〉은 가스공사와 도로공사 소속의 공공기관 응답자와 일반인 집단 간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비교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두 집단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인 가스공사와 도로공사가 일반인 집단보다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가치추구 정도의 중요성 인식

구분	소속		계
	공공기관(가스+도로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1(0.5)	-	1(0.2)
대체로 아니다	2(1.0)	5(2.3)	7(1.6)
보통	10(4.9)	13(5.9)	23(5.4)
대체로 그렇다	58(28.2)	93(42.5)	151(35.5)
매우 그렇다	135(65.5)	108(49.3)	243(57.2)
계	206(100)	219(100)	425(100)

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율, $X^2=13.40(p=0.01)$
 자료: 저자 작성

문항 2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

〈표 II-7〉은 공공기관이 추구해야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비중
에 대한 공공기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분석결과, 공공기관과 일반인 모두 “경제적 가치 50 : 사회적 가치 50”이
전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경제적 가치 50 : 사회적 가치 50’이 39.3%, ‘경제
적 가치 30 : 사회적 가치 70’이 34.0%로 고르게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일반인
의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 50 : 사회적 가치 50’이 43.8%로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가치 70 : 사회적 가치 30’이 24.2%, ‘경제적 가치 30 : 사회적 가치
70’ 23.7% 순으로 ‘경제적 가치’의 비중이 큰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공공기관 응답자는 사회적 가치를 더 강조하는 반면에 일반인 응답자는 경
제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7〉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비율

구분	소속		계
	공공기관(가스+도로공사)	일반인	
경제 10 : 사회 90	12(5.8)	8(3.7)	20(4.7)
경제 30 : 사회 70	70(34.0)	52(23.7)	122(28.7)
경제 50 : 사회 50	81(39.3)	96(43.8)	177(41.6)
경제 70 : 사회 30	39(18.9)	53(24.2)	92(21.6)
경제 90 : 사회 10	4(1.9)	10(4.6)	14(3.3)
계	206(100)	219(100)	425(100)

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율, $\chi^2=9.04(p=0.05)$
자료: 저자 작성

문항 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의 반영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

〈표 II-8〉은 기관평가에서 적정한 ‘사회적 가치’의 비중에 대한 공공기관 응답자와 일반인 응답자의 비교분석 결과는 공공기관 응답자는 ‘20~30% 미만’이 가장 높고, 일반인 응답자는 ‘30~40%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공공기관보다 일반인 응답자가 사회적 가치의 반영비율이 높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비중

구분	소속		계
	공공기관(가스+도로공사)	일반인	
20% 미만	27(13.1)	6(2.7)	33(7.8)
20% ~ 30% 미만	77(37.4)	29(13.2)	106(24.9)
30% ~ 40% 미만	37(18.0)	80(36.5)	117(27.5)
40% ~ 50% 미만	21(10.2)	52(23.7)	73(17.2)
50% 이상	44(21.4)	52(23.7)	96(22.6)
계	206(100)	219(100)	425(100)

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율, $\chi^2=64.40(p=0.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4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숫자(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

〈표 II-9〉는 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화폐가치로의 측정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아니다’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일반인 응답자는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즉, 공공기관의 응답자는 화폐단위 측정에 대하여 일반인 보다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표 II-9〉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가치추구 정도의 중요성 인식

구분	소속		계
	공공기관(가스+도로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32(15.5)	5(2.3)	37(8.7)
대체로 아니다	41(19.9)	18(8.2)	59(13.9)
보통	65(31.6)	64(29.2)	129(30.4)
대체로 그렇다	41(19.9)	99(45.2)	140(32.9)
매우 그렇다	27(13.1)	33(15.1)	60(14.1)
계	206(100)	219(100)	425(100)

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율, $\chi^2=52.96(p=0.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5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관련 활동을 기술하는 것이 충분하다.
-------------	--

〈표 II-10〉은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에 대한 기술의 충분성에 대한 공공기관과 일반인 집단 간 비교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공공기관은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빈도가 높은 반면에, 일반인 응답자는 ‘보통’과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즉,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활동의 충분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의 충분성 인식

구분	소속		계
	공공기관(가스+도로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2(1.0)	14(6.4)	16(3.8)
대체로 아니다	29(14.1)	42(19.2)	71(16.7)
보통	65(31.6)	56(25.6)	121(28.5)
대체로 그렇다	68(33.0)	94(42.9)	162(38.1)
매우 그렇다	42(20.4)	13(5.9)	55(12.9)
계	206(100)	219(100)	425(100)

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율, $\chi^2=31.15(p=0.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6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는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한다.
-------------	--

〈표 II-11〉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공기관과 일반인 응답자 간의 비교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응답자는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등의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에, 일반인 응답자는 ‘대체로 그렇다’, ‘보통’, ‘매우 그렇다’ 등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즉, 공공기관응답자는 일반인 응답자에 비해 사회적 가치 성과의 재무제표 보고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11〉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성과의 재무제표에의 보고

구분	소속		계
	공공기관(가스+도로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32(15.5)	12(5.5)	44(10.4)
대체로 아니다	53(25.7)	36(16.4)	89(20.9)
보통	60(29.1)	48(21.9)	108(25.4)
대체로 그렇다	38(18.4)	88(40.2)	126(29.6)
매우 그렇다	23(11.2)	35(16.0)	58(13.6)
계	206(100)	219(100)	425(100)

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율, $\chi^2=35.63(p=0.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7	만일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 II-12〉는 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공기관과 일반인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석)’이 74.9%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일반인 응답자는 ‘재무제표 자산, 부채, 수익, 비용_본문’의 응답이

38.1%로 공공기관보다 높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어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II-12〉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의 재무제표에의 보고방식

구분	소속		계
	공공기관(가스+도로공사)	일반인	
재무제표 자산·부채·수익·비용 부문	23(11.3)	83(38.1)	106(25.1)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석)	181(88.7)	135(61.9)	316(74.9)
계	204(100)	218(100)	422(100)

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율, $\chi^2=40.24(p=0.00)$ #무응답자 제외
자료: 저자 작성

문항 8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는 재무제표와는 별도보고서(예, 사회성과보고서)로 보고되어야 한다.

〈표 II-13〉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보고는 재무제표와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공공기관과 일반인 응답자 모두, 전반적으로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제표 본문 보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3〉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 성과에 대한 별도보고서 보고인식

구분	소속		계
	공공기관(가스+도로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7(3.4)	4(1.8)	11(2.6)
대체로 아니다	12(5.8)	17(7.8)	29(6.8)
보통	41(19.9)	35(16.0)	76(17.9)
대체로 그렇다	84(40.8)	105(47.9)	189(44.5)
매우 그렇다	62(30.1)	58(26.5)	120(28.2)
계	206(100)	219(100)	425(100)

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율, $\chi^2=4.23(p=0.37)$
자료: 저자 작성

문항 9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범위는 정관에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

〈표 II-14〉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범위에 대한 정관의 기술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기관 응답자는 ‘아니다’의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에, 외부인인 일반인 응답자는 ‘그렇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공공기관 관계자와 외부 일반인 간의 다소간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두 집단 모두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범위의 정관의 기술 필요성

구분	소속		계
	공공기관(가스+도로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12(5.8)	3(1.4)	15(3.9)
대체로 아니다	27(13.1)	13(5.9)	40(9.4)
보통	63(30.6)	37(16.9)	100(23.5)
대체로 그렇다	70(34.0)	111(50.7)	181(42.6)
매우 그렇다	34(16.5)	55(25.1)	89(20.9)
계	206(100)	219(100)	425(100)

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율, $\chi^2=30.93(p=0.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10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작성지침(모범규준)이 필요하다.
--------------	---

〈표 II-15〉는 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 및 보고를 위한 작성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공공기관과 일반인 응답자 간의 비교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두 집단 모두 ‘그렇다’라는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

났으며, 특히, 공공기관 응답자보다 기관의 외부인인 일반인 응답자가 그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5〉 전체 응답자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성과 측정·보고 작성지침의 필요성

구분	소속		계
	공공기관(가스+도로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7(3.4)	2(0.9)	9(2.1)
대체로 아니다	8(3.9)	4(1.8)	12(2.8)
보통	44(21.4)	26(11.9)	70(16.5)
대체로 그렇다	88(42.7)	117(53.4)	205(48.2)
매우 그렇다	59(28.6)	70(32.0)	129(30.4)
계	206(100)	219(100)	425(100)

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율, $\chi^2=13.40(p=0.00)$

자료: 저자 작성

나. 일반인 응답자 분석결과

일반인 응답자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응답결과로, ‘매우 그렇다(중요하다)’ 49.3%, ‘대체로 그렇다’ 42.5%로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상대적 비중에 대하여는, ‘경제적 가치 50 : 사회적 가치 5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적정한 ‘사회적 가치’영역의 반영비중은 ‘30~40%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40~50% 미만’과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화폐가치 측정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 3.63(±0.92)로 가스공사와 도로공사의 종사자에 비해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기관의 창출한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에 대한 기술로 충분하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3.22(±1.03)로 ‘보통’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가치성과의 재무제표에 보고에 대하여는 평균 3.45(±1.10)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식)'이 64.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에 대한 보고는 재무제표와는 별도보고서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평균 3.90(±0.94)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범위에 대한 정관예의 기술에 필요성에 대하여는 평균 3.90(±0.94)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운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 및 보고하기 위한 작성지침의 필요성에 대하여 평균 4.14(±0.76)로 매우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 '대체로 그렇다(4점) 수준을 상회하는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 기관별 분석결과

1) 가스공사 분석결과

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관련 인식도 조사

'가스공사' 소속 응답자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분석 결과, 4.69(±0.65)로 높은 인식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은 '경제적 가치 50 : 사회적 가치 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평가에서 적절한 '사회적 가치'의 비중에 대한 결과로써, 50% 이상이 30.1%, 20~30% 미만이 28.2%로 나타났다.

'가스공사' 소속 응답자는 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화폐가치 측정 필요성에 대해 3.04(±1.25)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기관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의 기술로 충분한가에 대한 설문결과는 평균분석결과 3.53(±0.93)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가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평균 3.17(±1.24)로 '보통'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에서는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식)'이 84.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는 재무제표가 아닌 별도보고서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3.89(±1.08)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기관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범위에 대한 정관예의 기술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평균 3.71(±1.0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 및 보고하기 위한 작성지침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평균 4.03(±0.97)로 높게 나타났다.

나) 공공기관이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와 실현수준

공공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관련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실제 실현 정도에 대한 비교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인식 정도’가 ‘실현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 정도는 실현 정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 정도에 대한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표 II-16〉 가스공사의 「경제 관련 사회적 가치」 인식 정도와 실현 정도(n=103)

분야 및 내용		인식 정도 (n=103)	실현 정도 (n=103)	t-value
경영	제품과 서비스 윤리적 생산/공급	4.41(0.93)	4.26(0.71)	1.26
	윤리경영	4.64(0.77)	4.13(0.86)	4.70**
산업	공정경쟁 기반 구축	4.27(0.89)	4.17(0.77)	0.96
중소 기업	협력업체와 협업 강화	4.05(0.88)	4.11(0.82)	-0.55
	대기업/중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	3.99(0.91)	4.06(0.81)	-0.63
	창업 및 벤처기업 참여확대 등 지원	3.79(0.96)	3.65(1.01)	1.12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업 강화	3.95(0.98)	3.93(0.92)	0.16
	혁신제품 판로 등 혁신성장 지원	3.98(0.84)	3.81(0.96)	1.51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p<0.05, **p<0.01
 자료: 저자 작성

「사회 관련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실제 실현 정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인식 정도’가 ‘실현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복지의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직원 노동권 보장’,

‘근로조건의 향상’과 ‘안전’ 영역(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생활환경의 유지, 안전문화 확산)에서 중요도에 대한 인식수준에 비해 실현 정도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17〉 가스공사의 「사회 관련 사회적 가치」 인식 정도와 실현 정도(n=103)

분야 및 내용		인식 정도 (n=103)	실현 정도 (n=103)	t-value
보건	국민의 건강한 생활가능 보건의 제공	3.90(1.02)	3.84(1.01)	0.47
복지	새로운 서비스/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4.01(0.93)	3.64(1.09)	3.24**
	국민의 삶의 질 개선	4.43(0.73)	4.29(0.74)	1.52
	양질의 일자리 창출	4.07(0.96)	4.13(0.86)	-0.51
	직원의 노동권 보장	4.43(0.74)	4.16(0.87)	2.84**
	근로조건의 향상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의 양립 정책)	4.53(0.70)	4.21(0.84)	3.2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사회통합	4.15(0.99)	4.14(0.72)	0.01
	취약계층 지원 강화 (특화된 서비스/제품 제공 등)	4.17(0.97)	4.13(0.79)	0.33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지원	3.79(1.12)	3.94(0.92)	-1.17
환경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4.44(0.73)	4.28(0.76)	1.61
안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 생활환경의 유지	4.68(0.49)	4.39(0.77)	4.10**
	안전문화 확산	4.66(0.55)	4.38(0.79)	3.71**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p(0.05), **p(0.01)

자료: 저자 작성

「기타 공공서비스 관련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실제 실현 정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 ‘인권보호’,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에 대하여는 인식정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제고’가 중요도에 대한 인식수준에 비해 실현 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정과제 추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시민단체와의 협업 강화’ 분야에서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수준에 비해 실현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8〉 가스공사의 「기타 공공서비스 관련 사회적 가치」 인식 정도와 실현 정도(n=103)

분야 및 내용	인식 정도 (n=103)	실현 정도 (n=103)	t-value
대국민 서비스 제고	4.40(0.82)	4.26(0.73)	1.98*
조달혁신	3.91(0.93)	4.00(0.86)	-1.01
인권보호	4.14(0.92)	4.04(0.82)	0.10
국정과제 추진	4.00(0.94)	4.35(0.86)	-3.92**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3.99(0.98)	4.20(0.72)	-1.97*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4.07(0.88)	4.00(0.81)	0.72
시민적 권리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4.10(0.85)	4.15(0.83)	-1.00
시민단체와 협업 강화	3.65(1.09)	4.02(0.82)	-3.20**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p<0.05, **p<0.01

자료: 저자 작성

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 우선순위 및 실현해야 할 사회적 가치 우선순위

한국가스공사가 실현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제품의 윤리적 생산공급’, ‘윤리경영’, ‘공정경쟁기반 구축’,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잘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윤리경영’, ‘제품의 윤리적 생산과 공급’, ‘공정경쟁기반 구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민 삶의 질 개선’, ‘직원노동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 ‘협업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 가스공사 종합분석

가스공사의 인식도 및 수행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II-19〉 한국가스공사 설문조사 인식도 및 수행성과 매트릭스

구분	인식도(상)	인식도(중)	인식도(하)
실현 (상)	-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안전문화 확산 -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자연환경의 지속보전 실현 - 국정과제 추진	
실현 (중)	- 윤리경영 실현 - 공정경쟁기반 구축 - 재난과 사고안전 근로환경 유지	- 제품과 서비스의 윤리적 생산과 공급 - 협력업체와 협력강화 - 대중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회적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사회통합 - 취약계층지원 강화 - 인권보호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질개선 지원 -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복원 -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공헌
실현 (하)	- 직원 노동권보장 - 근로조건의 향상	-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업 강화	- 창업벤처기업 참여확대 지원 - 혁신제품판로 등 혁신성장지원 - 국민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 제공 -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 조달혁신 - 시민적 권리로서 참여의 실현 -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 시민단체와의 협업 강화

자료: 저자 작성

2) 도로공사 분석결과

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관련 인식도 조사

‘도로공사’ 소속 응답자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응답결과, 평균 4.46(±0.68)의 높은 인식도를 나타냈다. 또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에 대하여는 ‘경제적 가치 50: 사회적 가치 50’와 ‘경제적 가치 30: 사회적 가치 70’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적정한 ‘사회적 가치’의 비중은 ‘20~30%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40% 미만, 20%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화폐가치로의 측정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2.86(±1.23) 수준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창출한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에 대한 기술로 충분하다는 데에 평균 3.62(±1.06)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에 대한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평균 2.51(±1.12)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석)’이 91.3%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에 대한 보고는 재무제표와는 별도보고서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평균 3.87(±0.95)로 높게 나타나 재무제표 보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범위를 정관예의 기술 필요성에 대하여는 평균 3.23(±1.06)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또한, 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 및 보고하기 위한 작성지침의 필요성에 대하여 평균 3.76(±0.97)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나) 공공기관이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와 실현수준

공공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관련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실제 실현 정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인식 정도’가 ‘실현 정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품과 서비스의 윤리적 생산 및 공급’과 ‘윤리경영’에 대한 경영 전반에 대한 인식 정도는 실현 정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0〉 한국도로공사의 「경제 관련 사회적 가치」 인식 정도와 실현 정도(n=103)

분야 및 내용		인식 정도 (n=103)	실현 정도 (n=103)	t-value
경영	제품과 서비스 윤리적 생산/공급	4.14(0.78)	3.89(0.69)	3.09**
	윤리경영	4.42(0.82)	3.95(0.76)	5.16**
산업	공정경쟁기반 구축	4.15(0.79)	4.01(0.71)	1.56
중소 기업	협력업체와 협업 강화	3.96(0.79)	3.89(0.74)	0.78
	대기업/중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	4.03(0.77)	3.92(0.76)	1.17
	창업 및 벤처기업 참여확대 등 지원	3.65(0.89)	3.57(0.91)	0.78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업 강화	3.77(0.87)	3.75(0.81)	0.20
	혁신제품 판로 등 혁신성장 지원	3.72(0.82)	3.75(0.85)	-0.32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p<0.05, **p<0.01

자료: 저자 작성

또한, 공공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 관련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실제 실현 정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복지영역의 ‘직원의 노동권 보장’,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초제공 및 사회통합’과 환경영역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안전영역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 및 생활환경 유지’, ‘안전문화 확산’ 분야에서 중요도에 대한 인식수준에 비해 실현 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 한국도로공사의 「사회 관련 사회적 가치」 인식 정도와 실현 정도(n=103)

분야 및 내용		인식 정도 (n=103)	실현 정도 (n=103)	t-value
보건	국민의 건강한 생활가능 보건의 제공	3.82(0.99)	3.66(0.85)	1.55
복지	새로운 서비스/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3.75(0.83)	3.73(0.83)	0.22
	국민의 삶의 질 개선	4.16(0.78)	4.04(0.64)	1.51
	양질의 일자리 창출	3.92(0.87)	3.83(0.75)	1.20
	직원의 노동권 보장	4.26(0.83)	3.76(0.86)	4.65**
	근로조건의 향상유연근무제 등 일/가정의 양립 정책	4.30(0.79)	3.70(0.76)	6.09**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초제공/사회통합	3.99(0.79)	3.79(0.69)	2.51**
	취약계층 지원강화(특화된 서비스/제품 제공 등)	3.87(0.79)	3.79(0.72)	1.12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지원	3.76(0.87)	3.74(0.70)	0.23
환경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4.22(0.64)	3.74(0.72)	5.44**
안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생활환경의 유지	4.50(0.69)	4.01(0.73)	5.37**
	안전문화 확산	4.58(0.69)	4.18(0.74)	4.60**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p<0.05, **p<0.01

자료: 저자 작성

또한, 「기타 공공서비스 관련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실제 실현 정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 ‘인권보호’에 대하여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수준에 비해 실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달혁신’, ‘국정과제 추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에의 공헌’, ‘시민단체와의 협업 강화’ 등은 중요도에 대한 인식수준에 비해 실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 한국도로공사의 「기타 공공서비스 관련 사회적 가치」 인식 정도와 실현 정도(n=103)

분야 및 내용	인식 정도 (n=103)	실현 정도 (n=103)	t-value
대국민 서비스제고	4.36(0.74)	4.18(0.68)	2.38*
조달혁신	3.62(0.82)	3.77(0.83)	-1.73
인권보호	4.03(0.97)	3.83(0.85)	2.01*
국정과제 추진	3.84(0.85)	4.26(0.69)	-4.1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3.64(0.94)	3.86(0.82)	-2.23*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3.62(0.96)	3.85(0.81)	-2.23*
시민적 권리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3.78(0.94)	3.69(0.84)	0.90
시민단체와 협업강화	3.37(1.06)	3.51(0.96)	-1.27*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p<0.05, **p<0.01

자료: 저자 작성

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 우선순위 및 실현해야 할 사회적 가치 우선순위
 ‘도로공사’가 실현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우선순위는 ‘윤리경영’, ‘제품의 윤리적 생산공급’, ‘국민 삶의 질 개선’ ‘공정경쟁기반 구축’, ‘직원노동권 보장’, ‘재난과 사고안전환경 유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공사가 잘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분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우선순위로 는 ‘윤리경영’, ‘제품의 윤리적 생산과 공급’, ‘국민 삶의 질 개선’, ‘재난과 사고안전환경 유지’, ‘안전문화 확산’ 등이 우선적으로 나타났다.

라) 도로공사 종합분석

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범주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및 수행성과의 분석결과를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II-23〉 한국도로공사 설문조사 인식도 및 수행성과 매트릭스

구분	인식도(상)	인식도(중)	인식도(하)
실현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과 서비스의 윤리적 생산과 공급 - 공정경쟁기반 구축 -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자연환경의 지속보전 실현 - 재난과 사고안전 근로환경 유지 - 안전문화확산 - 대국민 서비스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사회통합 - 국정과제 추진 	
실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경영실현 - 직원 노동권 보장 - 근로조건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와 협력 강화 - 대중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 -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업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지원 강화 - 인권보호 -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공헌 - 시민적 권리로서 참여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지원 - 조달혁신 -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복원
실현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 판로 등 혁신성장지원 - 국민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 제공 -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기업 참여 확대 지원 - 시민단체와의 협업 강화

자료: 저자 작성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분석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앞선 가스공사 및 도로공사에서 수행했던 설문과는 달리, 개개인의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는 제외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공

단의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이 이미 조직 구성원 내에 충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공단 단위의 인식도 및 수행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공단’ 소속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의 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한 근로환경의 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산업) 보건복지의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 보건복지의 제공’ 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행성과에 대한 우선순위로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의 유지’, ‘윤리적 생산과 유통(예, 공정무역) 등 윤리경영’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인식도 및 수행성과에 대한 비교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범주별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실현 정도에 비해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성 강화성과」 부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한 근로환경의 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산업) 보건복지의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 보건복지의 제공’에 대한 인식 정도는 수행성과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인식도 및 수행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II-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설문조사 인식도 및 수행성과 매트릭스

	인식도(상)	인식도(중)	인식도(하)
수행 성과 (상)	-	-	-
수행 성과 (중)	1.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의 유지	14. 윤리적 생산과 유통 (예, 공정무역) 등 윤리경영	-
수행 성과 (하)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한 근로환경의 유지 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산업) 보건복지의 제공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 보건복지의 제공	5. 새로운 서비스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6.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서비스제품 제공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8.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10. 노동권의 보장과 양질의 근로조건 제공 11. 창업벤처 참여 확대 등 혁신 성장 지원 1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15.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16.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1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1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9. 양질의 일자리 창출 13. 지역경제 공헌

자료: 저자 작성

Ⅲ.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의 범주와 측정

1.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의 인식기준 및 측정기준

본 연구에서는 제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의 사업수행을 통하여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첫째, 공공기관의 사업수행과정, 둘째,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 기여, 셋째,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사회적 가치의 인식과 측정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 가치 인식과 측정 대안은 측정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¹⁰⁾ 이에 반하여 정도진 외(2017)는 사회적 가치의 객관적인 인식과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인식 및 측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기업활동 결과를 재무적으로 측정하여 보고하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항목을 분리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사업수행결과를 재무적으로(화폐적으로) 측정하여 보고하는 공공기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자산, 부채, 수익, 비용) 중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항목을 구분해낼 수 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의해 정립된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및 측정기준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또는 사회공헌활동)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화폐적으로 측정하여 관리가능하게 하는

10) 다양한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으로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측정법, 지불의사액 평가법, 가상의 재난손실 산출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사회적 가치 창출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강점을 가진다. 이하에서는 정도진 외(2017)의 연구에 기초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인식 및 측정기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의 인식기준

1) K-IFRS 인식요건¹¹⁾

가)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의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은 첫째, 재무제표의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하고, 둘째, 인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셋째, 중요한 항목인 경우에 재무제표에 인식된다. 이하에서는 각 단계별로 각각 설명하도록 한다.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의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인식기준 중 중요한 기준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의 발생 가능성과 측정의 신뢰성이다. 특정 재무제표 요소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원가 또는 가치)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인식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및 인식기준이 충족할 경우에 다음 단계는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요성은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이 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으로 본다.

나) 인식기준: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 가능성, 측정의 신뢰성

재무제표의 인식기준 중 중요한 기준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 가능성과 측정의 신뢰성 기준이다.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

11) K-IFRS 인식요건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이 높다면 인식기준의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 가능성은 특정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에서 유출될 불확실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영업활동이 수행되는 기업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정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용가능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인식기준의 두 번째 요건은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항목이 재무제표에 인식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원가 또는 가치를 갖고 있거나 원가 또는 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추정이 신뢰성을 훼손하지는 않으나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은 재무제표에 인식될 수 없다.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을 위한 발생 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항목의 존재는 주식, 설명 자료 또는 부속명세서에 공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항목이 재무제표 요소에 부합하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은 주식, 설명 자료 또는 부속명세서에 공시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시점에서는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이더라도 그 후에 후속 상황이나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인식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다.

2) 사회적 가치 관련 자산·부채·수익·비용의 인식요건

가) 자산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의 인식

자산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실체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중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것”이다. 자산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예를 들어, 동반성장의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고자산은 자산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가 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낮은 가격으로 신용으로 판매하였을 경우에 해당 매출채권은 사회적 가치 관련 자산이 될 것이다.

사회적 가치와 관련되어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회계기간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대신에 그러한 거래는 포괄손익 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경영진이 그 지출과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었거나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단지 당해 회계기간 후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의 정도가 자산의 인식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나) 부채로부터의 사회적 가치의 인식

부채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는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로서, 실체가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중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반성장 차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신용으로 구매한 경우에 매입채무는 사회적 가치 관련 부채가 될 것이다.

부채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실무에서는 주문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한 부채와 같이 동일한 비율로 미이행된 계약상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도 때로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으며, 특정한 상황에서 인식기준이 충족된다면 재무제표에 인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채의 인식과 동시에 관련 자산이나 비용도 인식된다.

다) 수익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의 인식

사회적 가치 관련 수익으로 부터의 사회적 가치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사회적 가치창출과 관련된 것이며,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수익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는 실제로 수익의 인식이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해당 금액은 수익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가 될 것이다.

라) 비용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의 인식

비용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는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것이며,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비용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는 실제로 비용의 인식이 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가 공급하는 사무용 소모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면, 사회적 가치 관련 비용과 부채로서 소모품비용과 미지급비용이 인식될 것이다.

3)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문서화 요건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핵심 미션과 주요 사업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게 사회적 가치

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공익 목적의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혁신과 효율성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의 창출에 비중을 높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나 절차가 문서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기관의 정관이나 비전에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규정이나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의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조직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문서화에는 공공기관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소와 범주가 규정되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문서의 종류나 형태, 형식 등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나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내용을 기업에서 문서화하여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정도진 외(2017)의 연구를 참조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문서화에 포함될 내용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성과를 창출한 주된 사업
- 사회적 가치 창출의 목적과 수행조직
-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소 및 범주
-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의 세부내역
- 사회적 가치 인식, 측정, 보고방법

이러한 문서화의 내용은 공공기관이 주된 영업활동과정(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또한 이러한 공익적 사업이 일관되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사회적 가치 인식을 위한 기본전제

현행 회계개념체계 및 기준하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되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측정의 신뢰성이 보장되고,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어야 한다.

정도진 외(2017)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재무회계개념체계와 회계기준을 그대로 원용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가 재무제표에서 구분(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두 가지 기본전제하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자산, 부채, 수익, 비용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더라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즉,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현행 회계개념을 적용하면서도 기관의 재무성과에는 변동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재무제표 표시항목 내에서 식별하고 인식한다. 둘째, 재무제표 본문에서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재무제표 본문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항목에서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을 구분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무제표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적 가치 관련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면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의 보고방식은 재무제표의 본문에 직접 구분 표시하는 방식 이외에, 대안적으로 재무제표의 주석이나 별도의 보고서로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게 된다.

나.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측정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구성요소의 측정기준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온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다. 이러한 역사적 원가 이외에도 K-IFRS에서는 현행원가, 실현가능가치, 현재가치 등의 측정기준이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측정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사회적 가치 관련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측정한다면 사회적 가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실현

가능가치, 현재가치가 모두 측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역사적 원가 이외의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표시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중에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가 식별되었다면 해당 측정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원가로 측정된 자산의 일부가 자산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로 식별되었다면, 자산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는 현행원가로 측정되는 것이다.

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의 측정 예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의 측정기준에 따른 개별 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거래유형인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원가 이하의 공공재 공급’, ‘친환경(또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취약계층 가격 할인’을 회계처리의 사례로 하였다.

〈표 III-1〉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오지지역의 사회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A사는 재충전이 가능한 전구를 개발하여 2,000원(원가 1,000원) 판매 하였다. (A사의 총매출액과 매출원가는 각각 10,000원과 6,000원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한 공익적 결과에 따른 수익이므로, 매출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2,000원을 매출에서 구분 표시한다.				
현행		미래		
매출	10,000	매출	10,000	
매출원가	6,000	⇒ 매출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2,000	매출원가	6,000
매출총이익	<u>4,000</u>		매출총이익	<u>4,000</u>

자료: 저자 작성

〈표 III-2〉 원가 이하의 공공재 공급

A사는 공공재를 1,000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공공재의 원가는 2,000원이다.
(A사의 총매출액과 매출원가는 각각 10,000원과 6,000원이다.)

원가 이하로 공급된 공공재의 매출원가 1,000원을 사회적 가치로 구분 표시한다. (단, 공공재의 판매 자체가 공익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현행			미래	
매출	10,000		매출	10,000
매출원가	6,000	⇒	매출원가	6,000
매출총이익	<u>4,000</u>		매출원가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1,000
			매출총이익	<u>4,000</u>

자료: 저자 작성

〈표 III-3〉 친환경 또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A사는 소모품으로 친환경(또는 중소기업)제품을 1,000원에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A사의 총매출액과 매출원가는 각각 10,000원과 6,000원이며, 판매관리비는 2,000원이다.)

판매관리비(소모품비)로 친환경(또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므로 1,000원을 판매관리비로부터의 사회적 가치로 구분 표시한다.

현행			미래	
매출	10,000		매출	10,000
매출원가	6,000	⇒	매출원가	6,000
매출총이익	4,000		매출총이익	4,000
판매관리비	2,000		판매관리비	2,000
영업이익	<u>2,000</u>		판매관리비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1,000
			영업이익	<u>4,000</u>

자료: 저자 작성

〈표 III-4〉 가격할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A사는 취약계층 에게 정상 판매가격이 4,000원인 제품(원가 1,000원)을 3,000원에 할인 판매 하였다. (A사의 총매출액과 매출원가는 각각 9,000원과 6,000원이다.)			
매출할인판매액 3,000원을 사회적 가치로 기록하되, 할인금액 1,000원은 사회적 가치로 기록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한 비망기록 관리는 필요하다.)			
현행		미래	
매출	9,000	매출	9,000
매출원가	6,000	매출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3,000
매출총이익	<u>3,000</u>	매출원가	6,000
		매출총이익	<u>3,000</u>

자료: 저자 작성

2. 사회적 가치 측정사례

본 절에서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대상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측정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 공공기관의 개요와 주요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적 가치 인식기준에 부합하는 항목과 금액을 식별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금액을 산출한다. 각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식별 및 측정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재무제표 인식기준 충족 여부 검토, 설문을 통해 확인한 28개의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의 범주 포함 여부 확인,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정의(주요 사업수행과정, 직접적, 의도적, 지속가능) 요소 충족 여부 검토, 문서화 조건의 충족 여부 검토로 이루어진다.

가. 한국가스공사

1) 기업 사업개요 및 일반현황¹²⁾

한국가스공사의 사업개요 및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설립 일은 1983년 8월이며 「한국가스공사법」(법률 제3639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주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www.kogas.co.kr)이다. 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가스공사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도시가스의 제조/공급과 부산물의 정제/판매,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 건설/운영, 천연가스의 개발과 수송 및 수출입,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천연가스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와 청정합성 연료 및 기후친화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도시가스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및 부대사업,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사업 및 관련 사업을 들 수 있다.

기업이념은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Better Energy, Better World)’이며 핵심가치로 ‘세계를 향한 도전, 미래를 향한 변화, 사회에 대한 책임,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4가지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경영목표 및 전략으로는 천연가스산업 선도,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 대비 체질 개선¹³⁾을 내세우고 있다. 조직은 총 7본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부 아래 26처(실, 원), 13사업소(기지본부,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2018년 9월말 기준 총 3,965명¹⁴⁾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배관망 총연장은 4,790km이며, LNG 생산능력은 평택생산기지 4,636톤/시간, 인천생산기지 4,940톤/시간, 통영생산기지 3,030톤/시간, 삼척생산기지 1,320톤/시간이고, LNG 저장능력 및 판매량은 각각 1,147만kl와 32,162천톤이다. 한국가스공사는 1999년 12월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주요주주는 정부(26.15%), 한국

12) 사업개요 및 현황은 ALIO(<http://alio.go.kr/alioSystem.do>)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3) 부록 3-1 참조

14) 부록 3-2 참조

전력공사(20.47%), 지방자치단체(7.93%), 우리사주(4.05%), 외국인(10.30%), 일반주주 등(31.10%)으로 구성된다. 재무현황(2017년 12월 말 기준)을 살펴 보자면 자산총계는 37조 1,394억원, 부채총계는 28조 9,990억원으로서 부채 비율은 356.24% 수준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2조 1,723억원과 1조 339억원에 달한다.

2) 한국가스공사 2017년 주요성과¹⁵⁾

한국가스공사의 2017년도 주요성과를 요약하면, 경영관리 측면에서 에너지 복지사업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선제적 안전조치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제고하였으며,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상생연대기금을 공공기관 최초로 출연함으로써 노사협력 기반 노사공동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한편, 주요사업에서는 경제적 천연가스 도입으로 3,542억원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수급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수요예측 오차율 3.0%p 감소'를 달성하였으며, 배관 진단기술 수출 추진 등 기술 수출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해외 LNG 사업 국내기업 동반진출 등 민간협업을 통한 천연가스 기반 사업확대 성과를 달성하였다.

3) 한국가스공사 2018년 혁신 종합계획¹⁶⁾

한국가스공사의 2018년 혁신 종합계획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안정·경제적 LNG 공급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 뒷받침, 보편적 에너지 복지 확대, 대기 질 개선, 선제적 대국민 서비스 제공, 조직 및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이다. 둘째,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선도적인 일자리 질 개선, 민간 고용확대 지원, 신규시장 조성, 중소·혁신기업 육성, 상생협력 강화, 사회형평적 인사 실현을 통한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시도이다. 마지막으로, 채용비리 근절 등 윤리경영 강화, 선도적 인권 경영 도입,

15) 부록 3-3 한국가스공사 2017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참조

16) 부록 3-4 참조

국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국민참여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가치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 목표하에 그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및 핵심성과 지표 등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추진방향은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동반성장 및 지역협력, 건강한 사회시스템 선도 등 4가지로 설정하고 있다.¹⁷⁾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시키고자 공사의 경영활동을 사회적 가치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KOGAS 경영활동	사회적 가치
인권경영헌장 제정·준수 가스사고 예방 수급안정성 확보, 가스공급중단 예방 산업재해 예방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복리후생제도 개선, 비정규직 차별금지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중소기업 기술지원, 판로개척 지원 가스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사업 동반진출 업특성 연계 사회공헌활동 친환경 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대내·외 공모를 통한 혁신아이디어 발굴 가스가격 안정, 사회취약계층 요금 경감	인권보호, 건강한 사회시스템 선도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 보건복지 노동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통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 기업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그 밖의 공동체 이익(에너지 복지 등)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17)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일자리 창출형 해외사업 동반진출/일자리 질 제고, (2)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중단없는 가스공급/온실가스감축 및 환경보전활동 강화, (3) 동반성장 및 지역협력: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사회공헌활동 확대/지역협력사업 강화, (4) 건강한 사회시스템 선도: 윤리·청렴문화 정착/인사 공정성 확보/열린 고용 확대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성과를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사업기반 사회성과로서 기업활동 전 과정에서 제품, 서비스, 가치사슬, 조직 운영을 통해서 환경/사회/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여 창출되는 성과를 의미하며, 환경(자원소비, 환경오염, 에너지 복지), 사회(노동권 보장,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거버넌스(기업지배구조, 부정부패행위, 인권경영/민주적 의사결정)로 세분화된다. 둘째, 경제적 사회성과이며, 이는 공사의 경제활동과정에서 구성원/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자원이 전환되어 창출되는 사회성과를 의미한다. 경제적 사회성과는 다시 직접적 경제성과(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정부에 지급하는 법인세 등 세금,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이자 등 부가가치 배분)와 간접적 사회성과(취업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지역사회 활성화 및 상생협력 등 연관유발효과)로 세분화된다. 마지막으로, 공사의 재무성과와 기업의 유·무형자산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를 의미하는 사회공헌 성과이며, 회사에 의한 사회공헌 성과(사회공헌 기부금, 공사가 제공한 서비스 등)와 직원에 의한 사회공헌 성과(직원들이 모금한 펀드, 직원 봉사활동 등)로 대별된다.

5)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한국가스공사 제공내용 중 발췌)

〈표 III-5〉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구분	공사가 자체적으로 측정함 사회적 가치				적정성 평가					[1단계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금액(억원) (적정성 평가결과) ^{주2)}	비고	[2단계 사회적 가치] 재무제표외 추진 시 사회적 가치 금액(억원) ^{주3)}	
	사회적 가치 항목	사회적 가치 범주 ^{주1)}	산출 방법	사회적 가치 (억원)	인식	식별	정의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인적 결과
1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경제적 사회성과 (부가가치 배분)	실적치 적용	3,848	○	양질의 일자리 창출(A-4), 근로조건향상 (A-6)	○	△	△	○	일반 임직원과 노동취약계층 고용에 따른 급여(및 복리후생비)가 세부적으로 구분·제시되지 않아 진체금액을 제외시킴		
2	중소기업제품 구매	경제적 사회성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실적치 적용	2,705	○	대기업·중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 (C-5),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업 강화(C-7)	○	○	○	○	부적격	2,705	
3	법인세 납부	경제적 사회성과 (부가가치 배분)	실적치 적용	3,032	○	X	○	X	X	X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가 아님		
4	기부금 및 사회공헌 활동비용	사회공헌 성과	실적치 적용	171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A-7)	X	○	○	○	단순 기부금은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성이 낮음		

〈표 III-5〉의 계속

구분	공사가 자체적으로 측정된 사회적 가치				적정성 평가					[1단계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금액(억원) (적정성 평가결과)주 ²⁾	비고	[2단계 사회적 가치] 재무대표요건 충족 시 사회적 가치 금액(억원)주 ²⁾	
	사회적 가치 항목	사회적 가치 범주 ^{주1)}	산출 방법	사회적 가치 (억원)	인식	의의							
						식별	직접적	간접적	의도적				공인적 결과
5	출연금	사회공헌 성과	실적치 적용	39	○	×	○	○	○	○	부적격	비영리조직 출연금은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성이 낮음	
6	이자 지급	경제적 사회성과 부가가치(부분) 배분	실적치 적용	8,296	○	×	○	×	×	×	부적격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가 아니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관련성이 낮음	
7	민간일자리 창출	경제적 사회성과 취업유발 효과	20,663	×	×	○	○	○	○	○	부적격	개인적 측정이 어려운 상대적 가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성이 낮음	785
8	에너지 복지	사회기반 사회성과 사회적 약자 배려	실적치 적용	785	○	○	○	○	○	○	785		
9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 성과	실적치 적용	133	×	×	×	×	×	×	부적격	공사와는 독립된 이해관계자(직원)들에 의해 발생	
10	동반성장 R&D 투자액	경제적 사회성과 (연료)유발	실적치 적용	9	○	○	○	○	○	○	9		

〈표 III-5〉의 계속

구분	공사가 자체적으로 측정된 사회적 가치				적정성 평가					[1단계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금액(억원) (적정성 평가결과)주2)	비고	[2단계 사회적 가치] 재무제표요건 충족 시 사회적 가치 금액(억원)주2)	
	사회적 가치 항목	사회적 가치 범주(주1)	산출 방법	사회적 가치 (억원)	인식 재무제표 요건	식별 사회적 가치 실현 범주 및 세부내용 (셀문조사)	정의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11	동반성장 펀드	경제적 사회성과 연관유발 효과	실적지 적용	500	○	간상생과 협력 (C-5) 협력 업체와 협업 강화(C-4) 대기업·중소상공인 간상생과 협력 (C-5)	○	○	○	○	부적격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성이 낮음	9
12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액	사회공헌 성과	실적지 적용	3	○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B-7)	×	○	○	○	부적격	단순 후원금은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성이 낮음	
13	연구개발 투자비	사회기반 사회성과 개인이 삶의 질 향상	실적지 적용	679	○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A-2), 대국민 서비스 제공(B-3)	○	○	○	○	679		679
14	환경활동비용	사회기반 사회성과 환경오염	실적지 적용	254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A-9)	○	○	○	○	254		254
15	섹터 대비 친연가스	사회기반 사회성과	46,133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A-9)	○	○	○	○	부적격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2단계 사회성과	46,133

〈표 III-5〉의 계속

구분	공사가 자체적으로 측정 한 사회적 가치				적정성 평가					[1단계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금액(억원) (적정성 평가결과주) ²⁾	비고	[2단계 사회적 가치] 재무제표요건 충족 시 사회적 가치 금액(억원)주) ²⁾		
	사회적 가치 항목	사회적 가치 범주 ^{주)}	신출 방법	사회적 가치 (억원)	인식	식별	정의							
							주된 영인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조건
15	환경비용 절감액	(환경오염)				사회적 가치 실현 범주 및 세부내용 (설문조사)								
16	1차 공급업체 물품구매	경제적 사회성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실적치 적용	7,606	○	협력 업체와 협업 강화(C-4), 대기업·중소기업인 간 상생과 협력 (C-5)	○	△	○	○	△	○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전체금액을 제외시킴	
17	IMO 환경규제 적합 선별운영으로 운송비 절감액	사회기반 사회성과 (자원소비)	148만\$* 환율 1,130원/1\$ 적용	17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A-9)	○	○	○	○	○	○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2단계 사회성과	17
18	공사 지반 참여 호주 Prelude, 모잠비크 FILING 2017년 수주로 민간 일자리 확대	경제적 사회성과 (취업유발 효과)	호주 Prelude LNG 2375억 원, 모잠비크 4억구 Coral	7,670	×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지원(A-10)	×	×	○	○	○	○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상대적 가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성이 낮음	

〈표 III-5〉의 계속

구분	공사가 자체적으로 측정된 사회적 가치			적정성 평가					[1단계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금액(억원) (적정성 평가결과)주 ²⁾	[2단계 사회적 가치] 재무제표요건 충족 시 사회적 가치 금액(억원)주 ²⁾			
	사회적 가치 항목	사회적 가치 범주 ^{주1)}	산출 방법	사회적 가치 (억원)	인식	의의					조건		
						사회적 가치 실현 범주 및 세부내용 (셀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19	관세소송 적극 대응을 통한 관세 환급액	경제적 사회성과 (부가가치 환급)	4,198	4,198	○	×	○	○	×	×	비고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성이 낮으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관련성이 낮음	
	총계		86,077	86,077						4,432			50,582
			총매출액 대비 40.9%	총매출액 대비 40.9%						총매출액 대비 2.1%			총매출액 대비 24.0%

주: 1) 한미가스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크게 3가지^① 사업기반 사회성과(환경, 사회, 거버넌스), ^② 경제적 사회성과(부가가치배분 및 연평균발효과), ^③ 사회공헌 성과^④ 범주 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2) 본 연구에서는 한행 회계개념체계 및 기준 하에서 인식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에서 추가적인 요건(신별·정의·문사회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회성과 금액으로 인정됨.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의 사회성과를 "1단계 사회성과"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회계개념체계 및 기준하에서의 사회성과를 "2단계 사회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사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회계개념체계 및 기준이 정립된다면 한국가스공사의 추가적인 사회성과로 항목 15와 항목 17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자료: 가스공사 내부자료

6)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가치 측정항목별 적정성 평가

한국가스공사 사회성과 측정은 사회적 가치의 인식, 식별, 정의, 그리고 조건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절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가치의 인식기준은 해당 항목과 금액이 재무제표상에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 식별기준은 본 보고서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사회적 가치범주(A.사회복지·보건·환경, B.일반공공행정·안전, C.산업·통상·중소기업 등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와의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부합되는지 여부는 해당 항목이 기관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그리고 공익적 결과를 창출하였는지에 따라 판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의 조건 기준은 해당 항목이 기관의 정관,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업무현황 또는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과제 등에서 문서화되어 제시된 내용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별하였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기관의 공식적인 문서화 절차가 필히 요구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서화 조건은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가) 판매비와 관리비로부터의 사회성과: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추진과제 - 열린 고용확대, 일자리 질 제고]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A-4, A-6)	○	△	△	△	○

- ① 본 항목은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인식요건이 충족된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 중 양질의 일자리 창출(A-4) 및 근로조건의 향상(A-6)과 관련성이 높기에 식별요건이 충족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에서 발생하지만,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즉, 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상당 부분 공사가 기존에 고용한 임직원에게 지출한 금액이다. 만일, 공사가 노동취약계층(심신의 건강상태, 경제수준, 학력 및 기술 등을 이유로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기 어렵거나, 노동시장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얻기 어려운 자로 일반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탈학교 청소년 및 노숙인 등)의 고용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구분할 수 있다면, '직접고용' 또는 '의무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성과의 측정'에 해당되는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경제적 사회성과(직접적 경제성과: 부가가치 배분)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열린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제고)와 관련성이 높기에 문서화조건을 충족한다.

나)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로부터의 사회성과 / 재고자산으로부터의 사회성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추진과제 -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C-5, C-7)	○	○	○	○	○

- ① 본 항목은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중증장애인 등 공공구매에 따른 구입액으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인식요건이 충족된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 중 대기업·중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C-5) 및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업 강화(C-7)와 관련성이 높기에 식별요건이 충족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이므로 사회적 가치 정의에 부합된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경제적 사회성과(간접적 사회성과: 부가가치 유발효과)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서화조건을 충족한다.

다) 기타비용으로부터의 사회성과: 법인세 납부[추진과제 - 없음]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	×	×	×	×

- ① 본 항목은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인식요건이 충족된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와 관련성이 없기에 식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는 관련되어 있으나,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라고 보기 어렵기에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경제적 사회성과(직접적 경제성과: 부가가치 배분)에는 해당되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와의 관련성이 매우 낮기에 문서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라) 기타비용으로부터의 사회성과: 기부금 및 사회공헌활동비용[추진과제 - 사회공헌활동 확대]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A-7)	×	○	○	○	○

- ① 본 항목은 소외계층 사회공헌활동 경비, 복지재단·사회적 기업 등 기부금 집행금액으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인식요건이 충족된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A-7)과 관련성이 높기에 식별요건이 충족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이지만,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되지 않기에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회사에 의한 사회공헌 성과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사회공헌활동 확대)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서화조건을 충족한다.

마) 기타비용으로부터의 사회성과: 비영리조직 지원(출연금)[추진과제 - 사회공헌활동 확대]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	○	○	○	○

- ① 본 항목은 협회, 연맹, 재단 등 사회단체의 출연금으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인식요건이 충족된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와 관련성이 없기에 식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이지만,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되지 않기에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회사에 의한 사회공헌 성과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사회공헌활동 확대)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서화조건을 충족한다.

바) 금융원가로부터의 사회성과: 이자지급[추진과제 - 없음]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	×	×	×	×

- ① 본 항목은 타인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액으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인식요건이 충족된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와 관련성이 없기에 식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는 관련되어 있으나,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라고 보기 어렵기에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경제적 사회성과(직접적 경제성과 부가가치 배분)에는 해당되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와의 관련성이 매우 낮기에 문서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사)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상대적 사회성과: 민간일자리 창출[추진과제 - 동반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A-10)	×	○	○	○	○

- ① 본 항목은 투자사업, 민간협업 및 동반성장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상대적 가치에 해당되기에 인식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 중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지원(A-10)과 관련성이 높기에 식별요건이 충족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이지만,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경제적 사회성과(간접적 사회성과 연관유발효과)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동반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서화조건을 충족한다.

아)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으로부터의 사회성과: 에너지
복지[추진과제 - 사회공헌활동 확대]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A-3, A-8)	○	○	○	○	○

- ① 본 항목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또는 면제 금액으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인식요건이 충족된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 중 국민의 삶의 질 개선(A-3)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A-8)와 관련성이 높기에 식별요건이 충족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이므로 사회적 가치 정의에 부합된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사회기반 사회성과(사회: 사회적 약자 배려)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사회공헌활동 확대)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서화조건을 충족한다.

자) KOGAS 온누리봉사단 사회성과추진과제 - 사회공헌활동 확대]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A-7)	×	×	×	×	○

- ① 본 항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KOGAS 온누리봉사단 및 직원 성금 지원액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즉 공사와는 독립된 이해관계자(직원)들에 의한 현금기부라는 점에서 인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A-7)과 관련성이 높기에 식별요건이 충족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가 아니기에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직원에 의한 사회공헌 성과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사회공헌활동 확대)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서화조건을 충족한다.

차) 판매비와 관리비로부터의 사회성과: 동반성장 R&D 투자[추진과제 -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C-4, C-5)	○	○	○	○	○

- ① 본 항목은 LNG 저장탱크 외조 벽체 프리캐스트 모듈 개발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R&D 지출액으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인식요건이 충족된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 중 협력업체와 협업 강화(C-4) 및 대기업·중소상 공인 간 상생과 협력(C-5)과 관련성이 높기에 식별요건이 충족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이기에 사회적 가치 정의에 부합한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경제적 사회성과(간접적 사회성과: 연관유발효과)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서화조건을 충족한다.

카)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사회성과: 동반성장 펀드[추진과제 -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C-4, C-5)	×	○	○	○	○

- ① 본 항목은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동반성장 펀드 투자액으로 재무제표(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인식요건이 충족된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 중 협력업체와 협업 강화(C-4) 및 대기업·중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C-5)와 관련성이 높기에 식별요건이 충족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이지만,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되지 않기에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경제적 사회성과(간접적 사회성과·연관유발효과)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서화조건을 충족한다.

타) 기타비용으로부터의 사회성과: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추진과제
- 사회공헌활동 확대]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B-7)	×	○	○	○	○

- ① 본 항목은 바이애슬론 후원 등 동계올림픽 지원금으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인식요건이 충족된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 중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B-7)과 관련성이 높기에 식별요건이 충족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이지만,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되지 않기에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회사에 의한 사회공헌 성과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사회공헌활동 확대)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서화조건을 충족한다.

파) 판매비와 관리비로부터의 사회성과 / 무형자산으로부터의 사회성과:
 연구개발투자[추진과제 -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중단없는 가스공급]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A-2, B-3)	○	○	○	○	○

- ① 본 항목은 천연가스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액으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인식요건이 충족된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 중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A-2)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B-3)와 관련성이 높기에 식별요건이 충족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이므로 사회적 가치 정의에 부합된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사회기반 사회성과(사회: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중단없는 가스공급)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서화 조건을 충족한다.

하) 판매비와 관리비로부터의 사회성과: 환경활동비용[추진과제 - 온실가스감축 및 환경보전활동 강화]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A-9)	○	○	○	○	○

- ① 본 항목은 환경오염물 위탁처리 및 환경오염 예방활동(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지출액으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인식요건이 충족된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 중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A-9)과 관련성이 높기에 식별요건이 충족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이므로 사회적 가치 정의에 부합된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사회기반 사회성과(환경: 환경오염)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온실가스감축 및 환경보전활동 강화)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서화조건을 충족한다.

가)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2차 사회성과: 환경비용 절감[추진과제 - 온실가스감축 및 환경보전활동 강화]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A-9)	○	○	○	○	○

- ① 본 항목은 석탄 대비 천연가스 환경비용 절감액으로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상대적 가치에 해당되기에 인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 중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A-9)과 관련성이 높기에 식별요건이 충족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이므로 사회적 가치 정의에 부합된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사회기반 사회성과(환경: 환경오염)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온실가스감축 및 환경보전활동 강화)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서화조건을 충족한다.

너)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로부터의
 사회성과 / 재고자산으로부터의 사회성과: 1차 공급업체
 물품구매[추진과제 -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C-4, C-5)	○	△	△	△	○

- ① 본 항목은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 필수부품 공급업체 발주액으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인식요건이 충족된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 중 협력업체와 협업 강화(C-4) 및 대기업·중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C-5)과 관련성이 높기에 식별요건이 충족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지만,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라고 판단하기 어렵기에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경제적 사회성과(간접적 사회성과: 부가가치 유발효과)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서화조건을 충족한다.

더)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2차 사회성과: 운송비 절감[추진과제 - 온실가스감축 및 환경보전활동 강화]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A-9)	○	○	○	○	○

- ① 본 항목은 IMO 환경규제 적합 선박운영에 따른 운송비용 절감액으로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상대적 가치에 해당되기에 인

식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 중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A-9)과 관련성이 높기에 식별요건이 충족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이므로 사회적 가치 정의에 부합된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사회기반 사회성과(환경: 자원소비)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온실가스감축 및 환경보전활동 강화)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서화조건을 충족한다.

러)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상대적 사회성과: 민간일자리

확대추진과제 - 일자리 창출형 해외사업 동반진출]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A-10)	×	×	×	○	○

- ① 본 항목은 호수 Prelude LNG 및 모잠비크 Coral FLNG 국내조선사 수주에 따른 일자리 확대로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상대적 가치에 해당되기에 인식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 중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지원(A-10)과 관련성이 높기에 식별요건이 충족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가 창출한 공익적 결과이지만,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결과가 아니기에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경제적 사회성과(간접적 사회성과: 취업유발효과)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일자리 창출형 해외사업 동반진출)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서화조건을 충족한다.

머) 기타수익으로부터의 사회성과: 관세환급[추진과제 - 없음]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 결과	문서화
○	×	×	○	○	×	×

- ① 본 항목은 관세소송의 적극 대응을 통한 관세 환급액으로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인식요건이 충족된다.
- ② 본 항목은 사회적 가치 범주와 관련성이 없기에 식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본 항목은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결과이지만,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는 관련성이 낮으며 공익적 결과라고 보기 어렵기에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④ 공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경제적 사회성과(직접적 경제성과: 부가가치 환급)에는 해당되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는 과제와의 관련성이 매우 낮기에 문서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버) 적정성 검토결과 요약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크게 3가지(① 사업기반 사회성과(환경, 사회, 거버넌스), ② 경제적 사회성과(부가가치배분 및 연관유발효과), ③ 사회 공헌 성과 범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공사가 자체적으로 측정된 사회성과 금액은 8조 6,077억원이다. 이는 2017년도 총매출액 21조 556억원 대비 약 40.9%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4가지 기준(인식·식별·정의·문서화조건)에 기초하여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19개 항목 중 5개 항목(항목 2, 항목 8, 항목 10, 항목 13 및 항목 14)만이 모든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 사회성과 금액은 4,432억원으로 측정된다. 이는 2017년도 총매출액(21조 556억원) 대비 약 2.1% 수준에 해당되며, 공사가 자체적으로 측정된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가치 측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목 3, 항목 6 및 항목 19의 경우는 식별, 정의 및 문서화조건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4개 항목(항목 5, 항목 7, 항목 9 및 항목 18)은 2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단순 후원 성격의 기부금(항목 4) 및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항목 12)과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항목 1), 동반성장 펀드(항목 11), 1차 공급업체 물품구매(항목 16)의 경우는 공사의 주된 경영활동과의 관련성이 낮아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항목 1과 항목 11은 공사가 제시한 자료의 구체성이 떨어져 부분적인 인식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전체금액을 정의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항목 1의 경우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중 ‘직접고용’ 또는 ‘임무고용제도에 따른 고용 성과의 측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회성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항목 16의 경우도 1차 공급업체 구매금액 중에서 공사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출한 공익적 결과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사회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 만일, 보다 정교한 자료가 제시될 경우 이들 항목에 대한 사회성과 금액은 가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항목 15(환경비용 절감액)와 항목 17(운송비 절감액)은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상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인식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만,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기준(식별·정의·문서화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에서 공사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회계개념체계 및 기준이 정립된다면 추가적인 사회성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재무제표 인식요건 충족 시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성과 금액은 2017년도 총매출액(21조 556억원) 대비 약 24.0% 수준인 5조 58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사회성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적 가치 측정사례의 주된 목적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가치 인식기준(인식·식별·정의·문서화조건)에 따라 재무제표 구성요소(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과목과 금액을 분리해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공사 자체 기준에 근거하

여 측정된 사회적 가치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¹⁸⁾하였을 뿐 공사의 세부적인 기업 활동과 재무자료까지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항목이 손익계산서에서 식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 중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과목 및 금액을 보다 충분히 식별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나. 한국도로공사

1) 기업 사업개요 및 일반현황

한국도로공사의 사업개요 및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설립일은 1969년 2월이며 「한국도로공사법」(법률 제13690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주무기관은 국토교통부(www.ex.co.kr)이다. 설립은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도로공사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고속도로 유지관리,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관리, 관련 업무 연구 및 기술개발을 들 수 있다. 경영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이며 핵심가치로 ‘사람, 소통, 안전, 신뢰’라는 4가지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경영목표 및 전략으로는 사회적 가치 구현, 안전한 길, 빠르고 편리한 길, 미래 혁신성장 선도¹⁹⁾를 내세우고 있다. 조직은 본사에 6개의 본부 6개의 실 19처 1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하기관은 지역본부 8개, 지사 56개, 건설사업단 14개, R&D본부, 직할기관 4개로서 총 6,147명²⁰⁾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운영노선은 30개 노

18) 이와는 별도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손익계산서에서 발췌한 항목만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부록 3-5(손익계산서에 기초한 한국가스공사 사회성과 측정 결과)로 추가 제시한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9개 항목 중 항목 3과 항목 7을 제외한 7개 항목이 모든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 사회성과 금액은 약 2,201억원(2017년도 총매출액 210,556억원 대비 약 1.05% 수준)으로 측정된다. 이는 <표 III-5>에서 측정된 사회성과 금액(4,432억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손익계산서 항목만을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를 검토할 경우 더욱 보수적으로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19) 부록 3-1 참조

20) 부록 3-2 참조

선 4,151km²¹⁾이며 통행료 실적은 2017년 111억원/일이었으며 연 4조 564억원으로서 2016년 대비 0.3% 증가하였다. 2018년은 112억원/일이며 연간 4조 1,023억원으로 2017년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교통량은 2017년 435만대/일이었으며 연간 15억 8,659만대로 2016년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2018년은 447만대/일, 연간 16억 3,048만대로 2017년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무현황을 살펴보자면 총자산은 61조 894억원이며 이 중 94.5%를 차지하는 것은 유료도로 관리권으로서 57조 7,539억원 규모이다. 총부채는 27조 4,828억원으로서 이자지급 차입부채가 25조원 규모이며 부채비율은 81.78%이다. 총자본은 33조 6,069억원이며 법정자본금이 35조원, 납입자본금이 32조 7,41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주주기관은 국토교통부(85.56%), 기획재정부(0.41%), 수출입은행(10.0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한국도로공사 2017년 주요 성과

한국도로공사의 2017년 주요성과를 살펴보자면 첫째, 건설예산 2조 3,320억원을 투자하여 국토균형 발전사업과 도로망 연계성 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전 지역 소외 없는 국민의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둘째, 긴급대피 안내전화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의 안전시설을 보완,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교량의 내진성능(최대규모 6.3)을 확보, 안전점검 및 진단 적기 시행으로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고속도로를 구축해가고 있다. 셋째, 갈림길에 켜켜 차로유도선을 설치하여 명확한 경로를 안내하고,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버스정류장 대기소 설치로 편의성을 증진하고 신개념 테마휴게소 운영을 통해 국민을 섬기는 고속도로를 만들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주요노선 186km를 신설 수준으로 리모델링하고, 올림픽 기간 특별교통·제설대책 실시하여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지원²²⁾하였으며, 휴

21) 부록 3-3 참조

22) 부록 3-4 참조

게소 인프라를 이용한 창업지원 및 경영컨설팅, 휴게소에 지역 농특산물을 직거래하는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 공헌을 하였다.

3) 한국도로공사 2018년 주요업무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주요업무는 첫째, 고속도로망 확충, 교통소통 개선을 통한 막힘없는 고속도로 구현이다. 둘째, 예방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적 도로안전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을 최우선하고자 한다. 셋째, 고속도로 이용 서비스를 혁신하고 고객 편의성을 증진시켜 국민이 편리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넷째,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고속도로를 구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²³⁾을 위해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를 2018년의 주요업무 목표로 삼고 있다.

4)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한국도로공사가 내세우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비전은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이다. 여기서 사람 중심이란 것은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뜻이고 스마트 고속도로는 건설 및 정보통신 기술의 핵심 역량을 고속도로 구현에 이용하여 도로가치를 상승시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는 일자리, 안전, 상생협력, 지역경제발전, 책임 및 윤리경영, 환경보전, 참여, 인권, 취약계층지원, 노동에서 창출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두가 안전한 길, 빠르고 편리한 길, 즐겁고 행복한 길, 더불어 잘사는 길, 신뢰와 혁신의 길이라는 5가지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모두가 안전한 길은 모든 지역에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며 이용자 중심의 주행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서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비즈

23) 부록 3-5 참조

니스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빠르고 편리한 길은 첨단 교통소통 관리와 요금 수납 편리성 구현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향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터널 집진시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즐겁고 행복한 길은 고객 서비스, 사회적 경제공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휴게시설 확충 및 휴게시설 근로시간 개선과 정규직 전환 등 사람 중심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잘사는 길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고용부문의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여 성평등 일자리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뢰와 혁신의 길은 열린 경영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을 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서 소통과 존중의 상호공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이를 이루고자 한다.

5)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1)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 범주 내의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으로 5가지 항목으로 나뉘며 비계량적, 계량적인 기준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사회적 가치 구현과 관련된 경영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다.

지표	비계량	계량
일자리 창출	4	3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1
안전 및 환경	2	1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3
윤리경영	3	-
총합계(비계량, 계량)		22

자료: 기획재정부(2017), p. 110.

(2) 한국도로공사 사회적 가치 실현 70대 실행과제 현황

한국도로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과제로 다음과 같은 5가지²⁴⁾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이는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과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을 통해서 내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내 벤처 활성화 등 민간 부문 일자리를 창출과 일자리 창출형 기술혁신 및 신사업을 발굴을 통하여 실행한다. 둘째, 차별없는 기회와 사회통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증진한다. 이를 위하여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도록 노력하고 채용에서도 투명하고 고졸자와 지역인재, 여성 인력을 활용하며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이를 이루고자 한다. 셋째, 국민안전 및 지속가능 환경을 만들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산업재해와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와 정보보안 관리 및 환경에 대한 예방적 관리와 보전 노력으로 안전과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넷째,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킨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며 적기자금 결제와 같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며 사회책임조달 체계 구축과 같이 사회적 경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자발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전사적 윤리경영 체계를 구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이를 실천한다. 또한, 내부 경제 시스템 강화 및 근로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여 스스로 윤리적 관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4) 부록 3-6 참조

6) 한국도로공사 사회성과 측정 결과(한국도로공사 제공내용 중 발췌)

〈표 III-6〉 한국도로공사 사회성과 측정 결과

	손익계산서 항목(발췌)	손익계산서상 금액(원)	사회적 가치 금액(원) (한국도로공사 제사)	인식 재무 대표 요건	실행			정의			사회적 가치 금액(원) (적정성 평가결과)	비고
					사회적 가치 실현 범주 및 세부내용 (설문조사)	주된 영역 활동	직접 적	간접 적	공익 적 과	문서 화 화		
1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매출액)	183,004,452,105	7,193,414,968*		사회서비스 성과-동일품질 가격 할인: 직영 주유소 유류판매액 중 가격할인으로 고객에게 환원된 금액, 수익 포함에서 제외된 부분	○	×	○	○	부적격	해당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인이 어떠한 목적에 의한 할인이었는지 불분명함. 직접적, 의도적 측면의 관련성이 부족함.	
2	영업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매출액)	4,430,779,569,664	333,834,743,261	○	사회서비스 성과-동일품질 가격 할인: 동행로 수입 중 P80(장애 인, 유공자, 구호차량, 명절 등) 감면 또는 면제금액, 수익 포함에서 제외된 부분	○	○	○	○	333,834,743,261		
3	매출 원가	3,220,599,629,610	403,567,710,803*	○	재난·사고로부터 예방: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중 도로시설의 보수, 수선, 안전과 관련된 직접투입비	○	×	○	○	부적격	단순 안전시설 보강 부분은 해당 기관의 기본업무에 해당 하는 것으로 직접적, 의도적 측면에서 관련성이 부족 함.	
4	매출원가		2,222,995,000	○	사회서비스 성과-동일품질 가격 할인: 국민행복단말기 지원금(가격할인 업체에 대한 보전)	○	○	○	○	2,222,995,000		

〈표 III-6〉의 계속

순익개산서 항목(발체)	순익개산서상 금액(원)	사회적 가치 금액(원) (한국도로공사 제시)	인식 제무 제표 요건	식별 사회적 가치 실현 범위 및 세부내용 (실문조사)	정의				사회적 가치 금액(원) (적정성 평가결과)	비고
					주요 영업 활동	직접적	간접적	공익적 결과		
5		678,080,325,889	○	친환경, 중소기업제품 구매;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중 공공구매(중소기업, 기술개발, 사회적기업, 중장비인 등) 구매액으로 재단사 고로 부터 예방과 시회서비스 성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금액	○	○	○	○	678,080,325,889	
6		3,550,480,305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채용,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 등 임금고용 수준을 초과 채용하여 지급한 초과 임금액	○	○	○	○	3,550,480,305	
7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2,073,347,653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담고 속도도 개량사업비 중 생태환경 도로, 로드킬 방지 등 환경보존 관련 시설개량 투자비	○	○	○	○	2,073,347,653	
8		1,699,448,672,435	○	새로운 서비스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기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중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적자노선 비수익노선(타당성 BC 10이하)에 투자한 금액, (로드킬 방지, 생태도로 등 친환경 건설투자 금액 포함)	○	○	○	○	1,699,448,672,435	

〈표 III-6〉의 계속

	순익계산서 항목(발체)	순익계산서상 금액(원)	사회적 가치 금액(원) (한국도로공사 제시)	인식 재무 제표 요건	식별 사회적 가치 실현 범위 및 세부내용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정의				사회적 가치 금액(원) (정정성 평가결과)	비고
							직접 적	간접 적	의도 적	공의 적		
9			403,919,472,168	○	친환경, 중소기업제품 구매: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중 공공구매(중소기업, 기술개발,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등) 구매액으로 재단사고로 부터 예방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금액	○	○	○	○	403,919,472,168		
10			334,912,951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채용,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 등 의무고용 수준을 초과 채용하여 지급한 초과 인금액	○	○	○	○	334,912,951		
11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	240,875,774,199	78,207,199,866	○	전체 판매비 중 공공구매금액·친환경, 중소기업제품 구매: 판매비와 관리비 중 공공구매(중소기업, 기술개발,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등) 구매액으로 재단예방, 대국민 서비스 제고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금액	○	○	○	○	78,207,199,866		
12	급여	92,566,895,975	660,830,371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채용,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 등 의무고용 수준을 초과 채용하여 지급한 초과 인금액	○	○	○	○	660,830,371		

〈표 III-6〉의 계속

순익계산서 항목(발체)	순익계산서상 금액(원)	사회적 가치 금액(원) (한국도공공사 제시)	인식 재무 지표 요건	식별 사회적 가치 실현 범위 및 세부내용 (설문조사)	정의				사회적 가치 금액(원) (적정성 평가결과)	비고	
					주권 영업 활동	직접 적	의도 적	공의 적			조건 문서 적
13 판매비와 관리비	광고선전비 2,254,923,809	505,066,850	재난·사고로부터 예방: 고속도로 안전캠페인 등 교통안전 관련 홍보 직접투입비(교통안전 캠페인 TV광고, 졸음운전 예방홍보 등)						505,066,850		
14 관리비	기타판매비와 관리비 48,989,472,107	13,762,869,566	재난·사고로부터 예방 / 대국민 서비스제공: 고속도로 안전성 강화, 휴게시설 편의성·서비스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 직접비						13,762,869,566		
15 기타비용	기부금 6,064,539,340	6,064,539,340*	○	사회적약자의 복지(기회제공: 소외계층 사회공헌 활동경비, 복지재단, 사회적기업 등 기부금 집행금액		X	○	○	○	○	단순 기부금은 해당 기관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관련성이 낮음.
16 기타손실	그밖의 기타손실 37,125,916,117	37,125,916,117*	○	재난·사고로부터 예방: 제해순찰 예산 집행액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시설물의 복구비용과 예방비용		○	X	○	○	○	해당기관의 기본업무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직접적, 의도적 측면에서 관련성이 부족함.
사회성과 총계		3,670,552,497,543 총매출액 대비 45.6%							3,216,600,916,315 총매출액 대비 39.9%		

주: * 적정성 평가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1) 문서화 조건은 정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작성. 문화화 조건은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한국도공공사 내부자료

7) 한국도로공사 사회성과 측정항목별 적정성 평가

한국도로공사 사회성과 측정은 사회적 가치의 인식, 식별, 정의, 그리고 조건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절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가치의 인식기준은 해당 항목과 금액이 재무제표상에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 식별기준은 본 보고서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사회적 가치범주(A.경제(산업·경영·중소기업), B.사회(보건·복지·환경·안전), C.기타공공서비스 등)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와의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부합되는지 여부는 해당 항목이 기관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그리고 공익적 결과를 창출하였는지에 따라 판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의 조건 기준은 해당 항목이 기관의 정관, 사업보고서, 업무현황, 또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실행(추진)과제 등에서 문서화되어 제시된 내용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별하였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기관의 공식적인 문서화 절차가 필히 요구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서화 조건은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으로부터의 사회성과: 사회서비스 성과-동일품질 가격할인(추진과제 IV)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결과	문서화
○	○ (B-2,3 C-1)	○	X	X	○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직영 주유소(9개소) 유류판매액 중 가격할인으로 고객에게 환원된 금액, 수익 포함에서 제외된 부분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당 항목과 관련된 금액할인이 어떠한 목적에 의한 할인이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여겨지므로 사회적 가치의 정의 항목과 관련하여 직접적, 의도적 측면에 있어서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으로부터의 사회성과: 사회서비스 성과-동일품질 가격할인(추진과제 IV)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결과	문서화
○	○ (B-7,8)	○	○	○	○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통행료 수입 중 PSO(장애인, 유공자, 구호차량, 명절 등) 감면 또는 면제금액, 수익 포함에서 제외된 부분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인식, 식별, 정의 및 조건 등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사회성과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로부터의 사회성과: 재난·사고로부터 예방(추진과제 III)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결과	문서화
○	○ (B-11,12)	○	X	X	○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중 도로시설의 보수, 수선, 안전과 관련된 직접투입비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단순 안전시설 보강 부분은 해당 기관의 기본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가치의 정의 항목과 관련하여 직접적, 의도적 측면에서 관련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항목을 사회성과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라)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로부터의
 사회성과: 사회서비스 성과-동일품질 가격할인(추진과제 M)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결과	문서화
○	○ (B-2)	○	○	○	○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국민행복단말기 지원금(가격할인 업체에 대한 보
 전)에 관한 것으로서 주된 영업활동, 직접적, 의도적,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
 려했을 때 사회성과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로부터의
 사회성과: 친환경, 중소기업제품 구매(추진과제 III, IV)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결과	문서화
○	○ (A-4,5,7, B-10)	○	○	○	○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국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중 공공구매(중소기업, 기
 술개발, 사회적 기업, 중증장애인 등) 구매액으로서 재난사고로부터의 예방
 과 사회서비스 성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가
 치의 인식, 식별, 정의 및 조건 등의 측면에 기초했을 때 사회성과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로부터의
 사회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추진과제 I)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결과	문서화
○	○ (B-4,9)	○	○	○	○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청년채용,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 등 의무고용 수준을 초과 채용하여 지급한 초과 임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인식, 식별, 정의 및 조건 등의 측면에 기초했을 때 사회성과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사)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로부터의 사회성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추진과제 III)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결과	문서화
○	○ (B-10)	○	△	△	○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당기 고속도로 개량사업비 중 생태환경도로, 로드킬 방지 등 환경보존 관련 시설개량 투자비에 관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인식, 식별, 정의 및 조건 등의 측면에 기초했을 때 사회성과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아)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로부터의 사회성과:
 새로운 서비스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추진과제 M),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추진과제 III)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결과	문서화
○	○ (B-2, B-10)	○	○	○	○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당기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중 국가 균형발전을 위
 해 적자노선, 비수익노선(타당성 BC 1이하)에 투자한 금액(로드킬 방지, 생
 태도로 등 친환경 건설투자 금액 포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인
 식, 식별, 정의 및 조건 등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사회성과 금액으로 인식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자)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로부터의 사회성과:
 친환경, 중소기업제품 구매(추진과제 III, IV)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결과	문서화
○	○ (A-4,5,7, B-7,10)	○	○	○	○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중 공공구매(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등) 구매액으로서 재난사고로부터의 예방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인식, 식별, 정의 및 조건 등의 측면에 기초했을 때 사회성과 금액으
 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차)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로부터의 사회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추진과제 I)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결과	문서화
○	○ (B-4,9)	○	○	○	○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청년채용,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 등 의무고용 수준을 초과 채용하여 지급한 초과 임금액에 관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인식, 식별, 정의 및 조건 등의 측면에 기초했을 때 사회성과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카)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로부터의 사회성과: 전체 판관비 중
공공구매금액-친환경, 중소기업제품 구매(추진과제 III, IV)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결과	문서화
○	○ (A-4,5,7 B-7,10)	○	○	○	○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중 공공구매(중소기업, 기술개발, 사회적 기업, 중증장애인 등) 관련 구매액으로서 재난예방, 대국민 서비스 제고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인식, 식별, 정의 및 조건 등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사회성과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타) 판매비와 관리비(급여)로부터의 사회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추진과제 I)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결과	문서화
○	○ (B-4,9)	○	○	○	○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청년채용,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 등 의무고용 수준을 초과 채용하여 지급한 초과 임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인식, 식별, 정의 및 조건 등의 측면에 기초하여 판단했을 때 사회성과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파) 판매비와 관리비(광고선전비)로부터의 사회성과: 재난·사고로부터
예방(추진과제 III)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결과	문서화
○	○ (B-11,12)	○	○	○	○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고속도로 안전캠페인 등 교통안전 관련 홍보 직접 투입비(교통안전 캠페인 TV광고, 줄임운전 예방홍보 등)에 관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인식, 식별, 정의 및 조건 등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사회성과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하) 판매비와 관리비(기타판매비와관리비)로부터의 사회성과:

재난·사고로부터 예방(추진과제 Ⅲ), 대국민 서비스 제고(추진과제 Ⅳ)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결과	문서화
○	○ (B-11,12, C-1)	○	○	○	○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고속도로 안전성 강화, 휴게시설 공익성·서비스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 직접비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인식, 식별, 정의 및 조건 등의 측면에 기초하여 판단했을 때 사회성과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가) 기타비용(기부금)으로부터의 사회성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기회)제공(추진과제 Ⅳ)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결과	문서화
○	○ (B-7)	×	○	○	○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소외계층 사회공헌 활동경비, 복지재단, 사회적 기업 등 기부금 집행금액에 관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단순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단순 기부금은 해당 기관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관련하여 그 적합성이 떨어지므로 사회성과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나) 기타손실로부터의 사회성과: 재난·사고로부터 예방(추진과제 Ⅲ)

적정성 평가						
인식	식별	정의				조건
재무제표 요건	사회적 가치 범주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적	의도적	공익적결과	문서화
○	○ (B-11,12)	○	×	×	○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재해손실 예산 집행액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시설물의 복구비용과 예방비용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폭설,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복구, 예방으로 인한 손실은 해당 기관의 기본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정의 항목과 관련하여 직접적, 의도적 측면에 있어서 그 관련성이 매우 낮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사회성과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더) 적정성 검토결과 요약

위에서 제시된 한국도로공사 사회성과 측정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도로공사가 인식·측정하고 제시한 사회성과금액은 2017년도 총매출액 8,059,818,660,507원 중 3,670,552,497,543원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총매출액 대비 45.5%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공사 사회성과 측정에 대한 적정성 판단 결과, 항목 1, 항목 3의 경우는 직접적, 의도적 측면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항목 15의 경우는 주된 영업 활동으로부터의 발생 측면에서의 관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회성과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항목 1, 항목 3, 항목 15, 항목 16을 제외할 경우 사회성과 금액은 3,216,600,916,315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총매출액 대비 39.9%에 해당하며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45.5%)에 비해 5.6% 감소하였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사회성과 측정 자료에서는 손익계산서의 주요 항목 위주로 분류되어 사회성과가 측정되었기 때문에 주요항목 내에 사회성과

로 인식될 수 있는 세부항목들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회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항목으로 측정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회적 가치 측정결과

가) 사회적 가치 산출과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회적 가치는 2017년도 예산서에 기초하여 집계하였다. 예산서는 공단의 사업 종류에 따라 관, 항, 목, 세목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예산서를 엑셀로 변환하여 사회적 가치와 무관한 계정을 분류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공단의 ERP를 이용하였으며, ERP상에서 사업별로 구분회계가 되지 않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사회적 가치 측정은 예산서상 사회적 가치에서 사회적 가치와 무관한 계정항목 중 집행내역이 확인된 계정을 차감하여 최종 사회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동항목에는 자산·비용항목이 모두 포함되며, 최종 사회적 가치에서 자산성이 있는 연구개발비·유형자산을 제외하여 비용으로 집행된 사회적 가치를 집계하였다. 나머지는 사회적 가치자산으로 분류하였다.

〈표 III-7〉 사회적 가치와 무관한 계정명칭

사회적 가치와 무관한 계정명칭	집행내역이 확인되는 계정	현재·미래에 자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정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¹⁾	업무추진비 ¹⁾	
복리후생비 ¹⁾	복리후생비 ¹⁾	
직무수행경비 ¹⁾	직무수행경비 ¹⁾	
연구개발비 ²⁾		연구개발비 ²⁾
운영수당		
인센티브 ¹⁾	인센티브 ¹⁾	
토지매입비(자산)		
건설비(자산)		
유형자산(자산) ²⁾		유형자산(자산) ²⁾
무형자산		
민간이전 ¹⁾	민간이전 ¹⁾	
융자금		

주: 1) 사회적 가치와 무관한 계정번호·계정명칭 중 집행내역이 확인되는 계정

2) 현재·미래에 자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정

자료: 저자 작성

나) 사회적 가치 측정결과

위의 산출과정에 따라 측정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최종 사회적 가치는 201,783,659천원이다. 예산서상 사회적 가치의 회사제시금액은 204,469,000천원이며, 업무추진비 938,095천원, 직무수행경비 1,747,246천원을 합한 2,658,341천원을 차감항목으로 하여 집계한 금액이다. 해당 최종 사회적 가치는 최종 사회적 가치자산 16,932,755천원과 최종 사회적 가치비용 184,850,904천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표 III-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총 사회적 가치

(단위: 천원)

사회적 가치 회사 제시금액			204,469,000
(차감항목)			2,658,341
	업무추진비	938,095	
	복리후생비	-	
	직무수행경비	1,747,246	
	인센티브	-	
	민간이전	-	
최종 사회적 가치			201,783,659
(계정재분류항목)			
최종 사회적 가치자산			16,932,755
	연구개발비	11,692,755	
	유형자산	5,240,000	
최종 사회적 가치비용			184,850,904

자료: 저자 작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업종별 재해예방, 안전인증 및 검사, 유해작업 환경개선, 근로자 건강보호, 안전보건문화 정착,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산재예방시설 건립,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총 9개 부문이다. 사업별 사회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기관에 제시한 646.9 억원에서 업무추진비 5,1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8,000만원이 차감되어 644.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계정 재분류 결과 사회적 가치 자산은 1억 7,520 만원, 사회적 가치 비용은 642억 8,544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사회적 가치
(단위: 천원)

사회적 가치 회사 제시금액			64,692,000
(차감항목)			231,360
	업무추진비	51,360	
	복리후생비	-	
	직무수행경비	180,000	
	인센티브	-	
	민간이전	-	
최종 사회적 가치			64,460,640
(계정재분류항목)			
최종 사회적 가치자산			175,200
	연구개발비	144,200	
	유형자산	31,000	
최종 사회적 가치비용			64,285,440

자료: 저자 작성

(2) 업종별 재해예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은 기관에 제시한 422.3억원에서 업무추진비 3억 3,724만원, 직무수행경비 6억 695만원이 차감돼 412.9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계정 재분류 결과 사회적 가치 자산은 22억 1,390만원, 사회적 가치 비용은 390억 7,494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재해예방사업 사회적 가치
(단위: 천원)

사회적 가치 회사 제시금액			42,233,000
(차감항목)			944,160
	업무추진비	337,210	
	복리후생비	-	
	직무수행경비	606,950	
	인센티브	-	
	민간이전	-	
최종 사회적 가치			41,288,840
(계정재분류항목)			
최종 사회적 가치자산			2,213,900
	연구개발비	1,932,900	
	유형자산	281,000	
최종 사회적 가치비용			39,074,940

자료: 저자 작성

(3) 안전인증 및 검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및 검사 사업은 기관에 제시한 106.5억원에서 업무추진비 6,067만원, 직무수행경비 4억 3,455만원이 차감돼 101.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계정 재분류 결과 사회적 가치 자산은 16억 6,550만원, 사회적 가치 비용은 84억 8,52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및 검사 사업 사회적 가치
(단위: 천원)

사회적 가치 회사 제시금액			10,646,000
(차감항목)			495,220
	업무추진비	60,670	
	복리후생비	-	
	직무수행경비	434,550	
	인센티브	-	
	민간이전	-	
최종 사회적 가치			10,150,780
(계정재분류항목)			
최종 사회적 가치자산			1,665,500
	연구개발비	779,500	
	유형자산	886,000	
최종 사회적 가치비용			8,485,280

자료: 저자 작성

(4) 유해작업 환경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작업 환경개선 사업은 기관에 제시한 219.7억원에서 업무추진비 4,715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3,975만원이 차감돼 217.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계정 재분류 결과 사회적 가치 자산은 7억 831만원, 사회적 가치 비용은 210억 7,08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 사회적 가치

(단위: 천원)

사회적 가치 회사 제시금액			21,966,000
(차감항목)			186,896
	업무추진비	47,150	
	복리후생비	-	
	직무수행경비	139,746	
	인센티브	-	
	민간이전	-	
최종 사회적 가치			21,779,104
(계정재분류항목)			
최종 사회적 가치자산			708,305
	연구개발비	341,605	
	유형자산	366,700	
최종 사회적 가치비용			21,070,799

자료: 저자 작성

(5) 근로자건강보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보호 사업은 기관에 제시한 172.0억원에서 업무추진비 3,215만원, 직무수행경비 2,800만원이 차감되어 171.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계정 재분류 결과 사회적 가치 자산은 18억 3,136만원, 사회적 가치 비용은 153억 649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보호 사업 사회적 가치

(단위: 천원)

사회적 가치 회사 제시금액			17,198,000
(차감항목)			60,150
	업무추진비	32,150	
	복리후생비	-	
	직무수행경비	28,000	
	인센티브	-	
	민간이전	-	
최종 사회적 가치			17,137,850
(계정재분류항목)			
최종 사회적 가치자산			1,831,360
	연구개발비	471,360	
	유형자산	1,360,000	
최종 사회적 가치비용			15,306,490

자료: 저자 작성

(6) 안전보건문화정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문화정착 사업은 기관에 제시한 276.5억원에서 업무추진비 3억 3,798만원, 직무수행경비 3억 2,000만원이 차감되어 269.9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계정 재분류 결과 사회적 가치 자산은 19억 9,399만원, 사회적 가치 비용은 249억 9,70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문화정착사업 사회적 가치

(단위: 천원)

사회적 가치 회사 제시금액			27,649,000
(차감항목)			657,930
	업무추진비	337,930	
	복리후생비	-	
	직무수행경비	320,000	
	인센티브	-	
	민간이전	-	
최종 사회적 가치			26,991,070
(계정재분류항목)			
최종 사회적 가치자산			1,993,990
	연구개발비	1,609,390	
	유형자산	384,600	
최종 사회적 가치비용			24,997,080

자료: 저자 작성

(7)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은 기관에 제시한 75.7억원에서 업무추진비 6,243만원, 직무수행경비 3,800만원이 차감되어 74.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계정 재분류 결과 사회적 가치 자산은 44억 5,850만원, 사회적 가치 비용은 30억 1,10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개발사업 사회적 가치

(단위: 천원)

사회적 가치 회사 제시금액			7,570,000
(차감항목)			100,425
	업무추진비	62,425	
	복리후생비	-	
	직무수행경비	38,000	
	인센티브	-	
	민간이전	-	
최종 사회적 가치			7,469,575
(계정재분류항목)			
최종 사회적 가치자산			4,458,500
	연구개발비	3,884,000	
	유형자산	574,500	
최종 사회적 가치비용			3,011,075

자료: 저자 작성

(8) 산재예방시설건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설건립 사업은 차감항목 없이 기관에 제시한 7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계정 재분류 결과 사회적 가치 비용은 70.0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설건립사업 사회적 가치

(단위: 천원)

사회적 가치 회사 제시금액			7,000,000
(차감항목)			-
	업무추진비	-	
	복리후생비	-	
	직무수행경비	-	
	인센티브	-	
	민간이전	-	
최종 사회적 가치			7,000,000
(계정재분류항목)			
최종 사회적 가치자산			-
	연구개발비	-	
	유형자산	-	
최종 사회적 가치비용			7,000,000

자료: 저자 작성

(9)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사업은 기관에 제시한 55.2억원에서 업무추진비 920만원이 차감되어 55.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계정 재분류 결과 사회적 가치 자산은 38억 8,600만원, 사회적 가치 비용은 16억 1,98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사업 사회적 가치
(단위: 천원)

사회적 가치 회사 제시금액			5,515,000
(차감항목)			9,200
	업무추진비	9,200	
	복리후생비	-	
	직무수행경비	-	
	인센티브	-	
	민간이전	-	
최종 사회적 가치			5,505,800
(계정재분류항목)			
최종 사회적 가치자산			3,886,000
	연구개발비	2,529,800	
	유형자산	1,356,200	
최종 사회적 가치비용			1,619,800

자료: 저자 작성

Ⅳ.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의 성과보고

1. 사회가치성과 보고 및 접근방법

사회적 가치의 성과보고를 위한 접근방법의 몇 가지 대안으로 사회적 가치성과를 재무제표의 본문에 구분표시하여 반영하는 방법, 재무제표 본문과는 별도로 재무제표의 주석에 사회적 가치성과를 반영하는 방법, 재무제표와는 별개로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를 재무제표의 본문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중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항목을 구분하여 사회적 성과 자산과 사회적 성과부채로 표시한다. 또한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중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항목을 사회적 성과 수익과 사회적 성과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기존의 재무제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재무제표 구성요소(자산, 부채, 수익, 비용)를 본문에 표시하게 되면 사회적 가치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 기간에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성과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K-IFRS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경우에 사회적 가치 관련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정의나 구분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할 수 있다.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지만 재무제표에 특정 항목의 구분표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란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재무제표의 틀 내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구분표시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 사회적 가치 반영 연결재무상태표 예시

XYZ - 20X7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20X7년 12월 31일	20X6년 12월 31일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350,700	360,020
영업권	80,800	91,200
관계기업투자	227,470	227,470
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	100,150	110,770
비유동자산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u>142,500</u>	<u>156,000</u>
	901,620	945,460
유동자산		
재고자산	135,230	132,500
매출채권	91,600	110,800
유동자산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u>25,650</u>	<u>12,540</u>
현금및현금성자산	312,400	322,900
	564,880	578,740
자산총계	<u>1,466,500</u>	<u>1,524,200</u>
자본 및 부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납입자본	650,000	600,000
이익잉여금	243,500	161,700
기타자본구성요소	10,200	21,200
	903,700	782,900
비지배지분	<u>70,050</u>	<u>48,600</u>
자본총계	<u>973,750</u>	<u>831,500</u>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120,000	160,000
장기충당부채	28,800	26,040
비유동부채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u>28,850</u>	<u>52,240</u>
비유동부채합계	<u>177,650</u>	<u>238,280</u>
유동부채		
매입채무와 기타미지급금	115,100	187,620
단기차입금	150,000	2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0,000	20,000
당기법인세부채	35,000	42,000
유동부채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u>5,000</u>	<u>4,800</u>
유동부채합계	<u>315,100</u>	<u>454,420</u>
부채총계	<u>492,750</u>	<u>692,700</u>
자본 및 부채 총계	<u>1,466,500</u>	<u>1,524,200</u>

자료: 저자 작성

〈표 IV-2〉 사회적 가치 반영 연결손익계산서 예시
 XYZ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20X7	20X6
수익	390,000	355,000
수익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매출원가	(245,000)	(230,000)
매출원가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매출총이익	145,000	125,000
기타수익	20,667	11,300
기타수익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물류원가	(9,000)	(8,700)
관리비	(20,000)	(21,000)
기타비용	(2,100)	(1,200)
기타비용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금융원가	(8,000)	(7,500)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1)	35,100	30,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128,000
법인세비용	(40,417)	(32,000)
계속영업이익	121,250	96,000
중단영업손실	-	(30,500)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자료: 저자 작성

둘째, 사회적 가치 보고를 재무제표의 본문이 아닌 주석에 공시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방법은 재무제표 본문에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식에 비해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주석에 사회적 가치 보고서를 구분하여 공시할 경우에 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련된 정책(관련 근거 포함), 당기에 창출된 사회적 가치(사회적 가치 관련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포함한 세부내역), 사회적 가치 창출 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당기에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주요 범주별로 구분하고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자산, 부채, 수익, 비용) 중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금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새로운 보고서로 작성할 경우에 비해 기업에 공시비용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주석으로 공시할 경우에 본문에 표시하는 경우에 비해 정보의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가치 보고를 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방법은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하는 방식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의 작성방법은 공공기관의 연차 결산서, 사업보고서(시장형 공기업), 일부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새로운 보고서를 추가하게 됨으로써 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방식 이외에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 기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에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2. 사회적 가치성과를 반영하는 결산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사회적 가치성과 보고를 위한 접근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설문은 일반국민과 각 공공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를 재무제표의 본문에 반영하는가 또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반영하는가 또는 별도의 보고서에 담을 것인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응답자의 경우에는 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에 대한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45(±1.10)로 재무제표에 사회적 가치성과를 보고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의 본문보다는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는 재무제표와는 별도 보고서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경우,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많은 비중(50%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 관련활동의 기술만으로 충

분하다는 의견이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가치성과를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의 결과를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할 경우에는 재무제표 본문보다는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석)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는 재무제표가 아닌 별도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경우,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추구의 비중을 경제적 가치에 비해 높게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와 같은 중요성 인식에 비해 사회적 가치를 화계가치로 측정하는 데에는 다소 낮은 수준의 동의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데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성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데에도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한다면 재무제표의 본문보다는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석)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를 재무제표가 아닌 별도 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은 사회적 가치를 화폐적으로 측정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의 본문보다는 주석 또는 재무제표가 아닌 별개의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에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설문결과와 세 가지 사회적 가치성과의 보고 접근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는 재무제표의 주석이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적 성과 부분에 포함하는 방식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가치 성과자산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회적 가치 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회적 가치 성과수익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회적 가치 성과비용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사회적 가치를 기관의 규모(총자산 또는 매출액)로 나누어 표준화한 수치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가치 인식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한 기타의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V. 공공기관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

1. 공공기관의 경영위기에 대한 개념과 정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실체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대다수의 민간기업들은 발생가능한 위기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방안과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공기관은 위험관리 및 대응과정에 조직적, 제도적, 문화적 측면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은성·정지범, 2014).

학술적으로 위기(Crisis)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Seeger et al.(1998)은 “조직의 목표에 대해 높은 불확실성과 위협 또는 위협을 야기하는 비정형적인 사건이나 사건의 지속”으로 정의하였으며, 최진혁(2010)은 “어떤 임박하고도 갑작스러운 변화를 수반하는 불안정하고 위협한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또는 자연적 재난이나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을 통해 위기는 갑작스러운 사건, 위협을 야기, 조직의 목표를 저해하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의 위기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²⁵⁾(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7). 동 지침은 공공기관의 위기를 “공공기관의 존립 및 경영, 공공기관이 관리·제공하는 국가 중요 기능과 구성원·서비스·시설에 중대한 위협 또는 피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공공기관 위기 분야 및 유형을 경영위험, 재난, 홍보, 갈등으로 구분하였다.

25) 정부에서 공공기관 위기관리지침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며 지침이 사문화되어 공공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표준지침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표 V-1〉 공공기관 위기관리지침상 위기 분야 및 유형

분야	유형
경영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정책 및 경영환경 악화 등 경영 환경적 위험 • 환 리스크 증대, 유동성 악화 등 재무적 위험 • 주요 기술 유출, 경영상 중대 사항의 폭로, 부주의에 의한 시설 및 시스템 마비 등 운영상 위험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난에 의한 대규모 피해 • 인적재난에 의한 대규모 사고 및 피해 • 기술 및 작동 오류에 의한 시스템 가동 중단 등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평판 악화, 신뢰 실추 • 부정적 언론 보도로 비난 대두 • 비판적 여론 확산으로 경영활동에 장애 등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관계집단간 장기간 갈등과 피해, 충돌 • 갈등과 충돌로 업무 수행 및 공공서비스 기능 차질 등

자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2007), p. 5

각 위기 분야 중 재난, 홍보, 갈등의 위기는 조직 내부의 전담부서만으로 충분하지만 경영위기 분야는 불확실성이 높고 사후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중 재무적 위험은 기관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지만 체계적인 관리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 재정건전성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²⁶⁾ 이러한 특성상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정부의 재정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재무적 위험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중 재무적 위험을 중점적으로 검토²⁷⁾하고자 한다.

26) 2016년 말 공공부문 부채 중 공공기관의 부채는 34%(386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27) 이하 보고서의 경영위기는 재무적 위험을 의미한다.

2. 공공기관 경영위기 관리 현황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공공기관 경영공시 제도 및 공공기관 중 장기재무관리계획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위기에 대해 직·간접적인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와 한계점

정부는 매년 경영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경영평가는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관리는 세부적으로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협력과 참여 영역으로 구성되어, 기관의 경영관리 행태를 측정한다. 주요사업은 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 활동 및 성과를 측정하여 평가한다. 세부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지표와 지표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V-2〉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범주	평가지표	배점 (공기업 / 준정부기관 ¹⁾)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 6
	- 전략기획	2 / 2
	- 경영개선	2 / 2
	- 리더십	2 /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 20
	- 일자리 창출	7 / 6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 / 3
	- 안전 및 환경	3 / 3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 5
	- 윤리경영	3 / 3
3. 업무효율	5 / -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 6	
- 조직·인사 일반	3 / 3	
- 재무예산 운영·성과	5 / 2	

〈표 V-2〉의 계속

범주	평가지표	배점 (공기업 / 준정부기관 ¹⁾)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근로자 삶의질 제고	(1) / - 1 / 1
	5. 보수 및 복리후생비	8 / 8
	- 보수 및 복리후생	3 / 3
	- 총인건비관리	3 / 3
	- 노사관계	2 / 5
	6. 협력과 참여	5 / 5
	- 국민참여	1 / 1
- 열린혁신	1 / 1	
- 국민소통	3 / 3	
	소 계	55 / 45
주요사업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45 / 55
	소 계	45 / 55
합 계		100 / 100

주: 1) 위탁집행형 가중치를 나타낸다.

자료: 기획재정부(2017), p. 12~1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영위기와 관련될 수 있는 기관의 재무적 측면의 평가는 경영관리의 조직·인사·재무관리 항목에서 측정한다. 조직·인사·재무 관리 항목 중 재무관리 항목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항목에서 측정하며, 전체 경영평가 점수의 5%(준정부기관 2%)를 차지하고 있다. 즉 재무적 측면의 평가는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예산 운영·성과 항목의 배점으로 재무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재무예산 운영·성과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재무예산 성과 항목 ② 재무예산 운영 항목 ③ 자구노력 이행성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의 지표는 대부분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을 사용한다. ②의 경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목표부채 비율의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③에서는 기관의 재무예산 관리를 평가하지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적성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재무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

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평가의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주로 부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재무적 측면 평가는 기관의 부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는 경영성파로 인해 사후적으로 재정상태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채와 관련된 지표로 경영위기를 사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전적 재무적 위험관리는 재무예산 운영·성과 항목의 배점, 부채중심 지표 등으로 인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무적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 공공기관 경영공시 제도와 한계점

정부는 2005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은 2006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l Public Information In-One, 이하 ALIO)으로 확대 개편된 이래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ALIO는 법률²⁸⁾에 따라 40여개 항목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ALIO에 공시하는 항목은 일정기간마다 주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와 개별 사유가 발생할때 마다 공시하는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인 ALIO의 공시항목은 다음과 같다.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표 V-3〉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항목

대분류	소분류	비고
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정기공시
II. 기관운영	2. 임직원 수	정기공시
	3. 임원 현황	수시공시
	4. 신규채용, 청년인턴채용, 유연근무 현황	정기공시
	5. 임원연봉	정기공시
	6. 직원 평균보수	정기공시
	7. 기관장 업무추진비	정기공시
	8. 복리후생비	정기공시
	9.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 제도운영 상황 - 노조운영 지원비 - 영리시설, 장비운영권 노조 위탁 -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 - 단체협약외의 별도 합의사항	수시공시
10. 임원 국외출장 내역	수시공시	
11. 노동조합 관련현황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 - 단체협약 - 임금협약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수시공시	
12. 내부규정	수시공시	
13. 징계현황 - 징계처분 결과	정기공시	
14.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현황	정기공시	
15.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정기공시	
16. 요약 재무상태표	정기공시	
17. 요약 손익계산서 (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정기공시	
18. 수입, 지출현황	정기공시	
19. 주요사업	정기공시	
20. 투자집행내역	정기공시	
21. 자본금 및 주주현황	정기공시	
22. 장단기 차입금현황	정기공시	

〈표 V-3〉의 계속

대분류	소분류	비고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23. 투자 및 출자현황 - 퇴직임원 채용현황 - 대규모 거래내역 - 신규시설 투자	수시공시
	24. 연간 출연 및 증여	정기공시
	25. 경영부담비용추계 -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수시공시
	26.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정기공시
	27. 납세정보현황 - 세무확정내역 - 조세포탈현황(유죄판결 확정 내역)	수시공시
	28. 감사보고서	정기공시
Ⅳ. 대내외 평가	29. 국회지적사항	수시공시
	30. 감사원 / 주무부처 지적사항	수시공시
	31. 경영실적 평가결과	정기공시
	32. 경영평가 지적사항	정기공시
	3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정기공시
	34.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정기공시
Ⅴ. 공지사항	35. 이사회회의록, 내부감사결과	수시공시
	36. 경영혁신사례	수시공시
	37. 임직원 채용정보	수시공시
	38. 계약정보 - 입찰공고	수시공시
	39. 연구보고서	수시공시
	40. 기타정보공개	수시공시

자료: ALIO(<http://alio.go.kr/alioSystem.do>), 검색일자: 2018. 8. 21.

전체 공시항목 중 약 36%의 비율을 차지하는 수시공시 항목에 비해 정기공시 항목은 75%를 차지하고 있다. 수시공시 항목 중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투자 및 출자현황, 경영부담비용 추계, 납세정보현황은 수시공시 항목이지만 1분기에 정기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관련 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계약정보 등은 매 분기 말까지 정기공시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수시공시의 각 항목은 변경사유 발생시점과 공시일을 공

개하여 적시에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기공시의 분기별 공시항목을 살펴보면,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및 유연근무 현황,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투자집행내역은 매분기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3분기에 공기업 대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항목인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장단기 차입금현황과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공공기관의 공시시스템은 지표 등 이해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지 않고 기관에서 제출한 원자료만을 공시하고 있다. 이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공시시스템상 경영위기 조기경보와 관련된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경영공시 제도를 통해 경영실적을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세한 분기별 공시항목과 시점은 다음과 같다.

〈표 V-4〉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시점

공시시점	공시항목
1분기 공시항목	일반현황,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¹⁾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수입, 지출현황, 주요사업, 자본금 및 주주현황, 장단기 차입금현황, 투자 및 출자현황 ¹⁾ , 연군 출연 및 증여, 경영부담비용 추계 ¹⁾ ,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납세정보현황 ¹⁾ , 감사보고서, 경영평가 지적사항, 임직원 수, 신규채용현황 및 유연근무 현황,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투자집행내역, 노동조합 관련현황 ²⁾ , 계약정보 ²⁾
2분기 공시항목	임직원 수, 신규채용현황 및 유연근무 현황,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투자집행내역, 노동조합 관련현황 ²⁾ , 계약정보 ²⁾
3분기 공시항목	임직원 수, 신규채용현황 및 유연근무 현황,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투자집행내역, 요약 재무상태표(공기업 대상), 요약 손익계산서(공기업 대상), 장단기 차입금현황(공기업 대상), 경영평가 지적사항, 노동조합 관련현황 ²⁾ , 계약정보 ²⁾
4분기 공시항목	임직원 수, 신규채용현황 및 유연근무 현황,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투자집행내역, 노동조합 관련현황 ²⁾ , 계약정보 ²⁾

주: 1) 수시공시항목이지만 1분기에 공시하도록 규정됨.

2) 수시공시항목이지만 매분기에 공시하도록 규정됨.

자료: ALIO(<http://alio.go.kr/alioSystem.do>), 검색일자: 2018. 8. 21.

또한 ALIO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부채중점기관을 지정하여 기관별 재무위험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무위험은 주로 부채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경영평가 제도와 동일하게 사후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경보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

〈표 V-5〉 부채중점관리기관 부채 관련 ALIO 공시

번호	구분	세부사항
1	부채의 규모	1) 과거 15년간 부채추이
2	부채의 증가속도	
3	부채의 성격	1) 금융부채 현황 2) 장단기 금융부채 현황 3) 외화 금융부채 현황
4	부채관련 비용	1) 부채비율 2) 차입금 의존도
5	부채증감 관련 지표	

자료: ALIO(<http://alio.go.kr/alioSystem.do>), 검색일자: 2018. 8. 21.

다.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도와 한계점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실이 국가의 재정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또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²⁹⁾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있다. 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총 38개 기관 수립하였으며 수립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29) 「국가재정법」 제9조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2

〈표 V-6〉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기관

기준	공공기관
자산 2조원 이상 (36)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손실보전조항 (2)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08.30.), p. 1

전체 공공기관 중 38개 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일부 대형 공공기관만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재무적 위험이 존재하는 기관이 제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대상이 충분한지 의문이다.

또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예측한다. 이를 통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추정하며, 부채비용, 이자보상배율 등을 전망한다.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전망치와 실제치의 차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환류되어 기관의 실적으로 반영된다.

〈표 V-7〉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무전망

(단위: 배, %, 억원)

기관명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용		당기순이익	
	2017년	2021년	2017년	2021년	2017년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3.4	4.3	312	266	17,810	9,726
한국도로공사	1.0	1.1	85	83	1,306	1,648
한국철도시설공단	1.0	1.2	무자본 특수법인		233	1,874
한국수자원공사	1.1	1.6	203	180	325	1,935
한국철도공사	영업손실		335	209	△5,329	△2,747
인천국제공항공사	35.6	22.2	55	41	9,714	12,076
부산항만공사	3.2	2.7	46	55	1,006	846
인천항만공사	1.9	2.4	38	37	133	605
한국산업단지공단	영업손실		150	51	△507	△117
한국전력공사	2.6	1.3	96	116	17,128	4,974

〈표 V-7〉의 계속

기관명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2017년	2021년	2017년	2021년	2017년	2021년
한국수력원자력	2.5	2.0	117	135	3,574	3,264
한국중부발전	7.5	5.0	167	128	4,185	5,367
한국서부발전	4.2	6.6	149	145	2,212	5,443
한국동서발전	3.8	1.8	99	137	2,214	1,483
한국남부발전	2.2	1.6	139	124	1,243	1,353
한국남동발전	3.0	3.3	107	107	1,865	3,777
한국가스공사	1.1	1.8	327	258	△4,267	6,337
한국석유공사	영업손실	2.3	642	835	△6,628	163
한국지역난방공사	2.8	5.5	192	186	760	1,680
한국광물자원공사	영업손실	0.1	자본잠식		△2,562	133
대한석탄공사	영업손실		자본잠식		△879	△1,002
예금보험공사	1.6	6.0	무자본 특수법인		12,492	16,384
한국주택금융공사	2.9	5.3	49	37	2,430	4,513
한국자산관리공사	2.8	2.0	111	223	427	568
국민체육진흥공단	1,027.0	1,130.1	59	39	39	100
주택도시보증공사	125.1	110.8	35	36	3,187	2,997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08.30), p. 10.

이렇듯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의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발표된 계획인 만큼 일률적으로 부채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영평가와 유사하게 사후적 관리라는 측면과 동시에 기관의 특수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경영위험을 관리하는 제도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V-8〉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제도

종류	목적	문제점
경영평가 제도	기관 전체의 경영활동을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예산 운영·성과의 낮은 배점 사후적인 지표인 부채에 중점
경영공시 제도	기관의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을 견제하여 투명성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이 제시한 원자료만 공시 사후적인 지표인 부채에 중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도	기관 자체적으로 5개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건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기관에 불과한 수립대상 사후적인 지표인 부채에 중점

자료: 저자 작성

3. 경영위기에 관한 선행연구

공공기관의 경영위기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영위기 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위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기에,³⁰⁾ 민간기업의 경영위기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간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경영위기의 원인이 되는 부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민간기업의 경영위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도산 예측, 부실률 분석, 위험지표 탐색 및 위기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 해외의 선행연구

Altman(1996)은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도산을 예측하는 판별모형을 개발하였다. 판별모형³¹⁾은 유동성, 영업수익성, 투자수익성, 위험성, 효율성 등을 이용하였다. 건전기업과 도산기업을 판별모형을 이용해 비교한 결과 도산기업의 예측력은 5년 전 68.8%, 1년 전 97.6%를 나타냈으며, 건전기업의 예측력은 5년 전 77.2%, 1년 전 93.1%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aplan and Zingales(1997)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무적 제약을 측정하는 방안을 개발하였다. 측정모형은 재무적 제약 결정요인으로 배당성향, 현금흐름비율, 현금잔고비율, 레버리지비율 및 토빈Q를 활용하였다. Mitton(2002)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위기와 기업

30)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기관의 존속을 위해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수익성을 배제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 역시 일부 존재한다.

31) 판별모형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유동성: '운전자본/총자산', 영업수익성: '이익잉여금/총자산', 투자수익성: '이자와 법인세 차감전 이익/총자산', 위험성: '자기자본 시장가/부채 장부가', 효율성: '매출액/총자산'

지배구조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지배구조 중 재무보고의 질, 최대주주의 소유구조, 기업의 다각화 정도가 기업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며, 지배구조가 견고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위기 시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ampbell et al.(2008)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부도 예측력을 개선한 해저드 모형을 제시하였다. 해저드 모형은 시장자산순이익률, 시장부채비율, 초과수익률, 상대규모비율, 추가변동성, 현금비율, 시장가장부가비율, 주가 등을 포함하였다.

1) 해외 동향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이하 “IPSAS”) 위원회는 2017년 8월 지문보고서 ‘수익 및 비교환비용 회계처리(Accounting for Revenue and Non-exchange Expenses)’를 발표하였다. 수행의무가 있는 거래에 대해 IFRS 15의 수행의무 접근법(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을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게 수정한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Public Sector 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 이하 “PSPOA”)을 적용하였다. 동 회계처리는 경영위기 관리 지표 및 측정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정부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보조금 등의 인식기준의 변경에 따라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인식기준 및 회계처리도 변경된다. 따라서 수익·비교환비용 인식기준의 변동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IPSAS 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측정(Public Sector Measurement)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이는 경영위기 관리지표 및 측정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부채의 측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부채총액 및 공공부문의 자산·부채의 평가금액도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측정기준 변동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IPSAS 위원회는 또한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s)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IPSAS의 사회보장급여는 두 가지 방법(일반적 접근법, 보험접근법)에 따라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일반적 접근법(General Approach)에 따라 회계 처리할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차기급여에 대한 모든 수급요건(예: 퇴직,

실직 등)을 만족할 때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고, 보험접근법(Insurance Approach)을 적용할 경우에는 IFRS 17, ‘보험계약’ 또는 이와 원칙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자국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동 프로젝트는 사회책임의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차기급여에 대한 부채가 발생하고, 보험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계약기간동안 발생하는 전체 부채를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회계처리의 변동의 지속적인 동향 추적이 필요하다.

나. 국내의 선행연구

남주하·김창배(2008)는 재무요인과 비재무요인을 중심으로 산업별 부실률 예측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요인 중 매출액증가율, 자기자본 수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현금영업이익 대비 매출액 비율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재무요인은 내부경쟁, 수요자 교섭, 정부정책, 잠재진입, 대체재, 기존 시장규모, 공급자교섭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강내철·주상룡(2010)은 연결재무보고 환경에서 기업의 위험 판단지표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레버리지, 기업규모, 활동성, 수익성, 현금흐름, 유동성, 운전자본 등이 위험지표³²⁾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평가에 종속기업의 부채도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업의 도산위험 판단에는 종속기업의 재무구조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종원·안성만(2014)은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재무비율을 통한 부도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연구에서 사용된 117개 재무비율 중 금융비용 대 부채비율, 당좌비율, 이자비용 대 총비용, 총부채회전율, 총자본 투자효율, 총자산순이익률, 현금비율, 현금성자산비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 의존도가 부도예측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영·고윤성(2016)은 재무적 위기에 처한 기업이 재정적 비용 절감행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

32) 위험지표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레버리지: ‘총부채/총자산’, 기업규모: $\ln(\text{총자산})$, 활동성: ‘매출액/총자산’, 수익성: ‘순이익/총자산’, 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총부채’, 유동성: ‘유동부채/유동자산’, 운전자본: ‘유동자산-유동부채/총자산’

과 재무적 위험에 처한 기업은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광고비, 접대비, 연구개발비 등의 재량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구개발 투자와 같이 위험부담이 큰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V-9〉 선행연구의 경영위기 영향요인

구분	저자	영향요인
해외	Altman(1996)	유동성, 영업수익성, 투자수익성, 위험성, 효율성
	Kaplan and Zingales(1997)	배당성향, 현금흐름비율, 현금잔고비율, 레버리지비율, 토빈Q
	Mitton(2002)	재무보고의 질, 최대주주의 소유구조, 기업의 다각화 정도
	Campbell et al.(2008)	시장자산순이익률, 시장부채비율, 초과수익률, 상대규모비율, 주가변동성, 현금비율, 시장가·장부가비율, 주가
국내	남주하·김창배(2008)	매출액증가율, 자기자본수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현금영업이익 대비 매출액 비율
	강내철·주상룡(2010)	레버리지, 기업규모, 활동성, 수익성, 현금흐름, 유동성, 운전자본
	박종원·안성만(2014)	금융비용 대 부채비율, 당좌비율, 이자비용 대 총비용, 총부채회전율, 총자본투자효율, 총자산순이익률, 현금비율, 현금성자산비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박선영·고윤성(2016)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광고비, 접대비, 연구개발비

자료: 저자 작성

다. 공공기관의 선행연구

공공기관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부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채의 성격과 원인, 부채관리 방안 및 구분회계시스템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영신(2012)은 민영화된 공기업과 공기업의 성과를 비교하고, 공기업 부채 증가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기업 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 공기업 부채의 정부부채 포함 방안, 부실 공기업의 단계적 민영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허경선(2013)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5년간의 부채의 증가속도, 성격, 발생원인, 사업별 증가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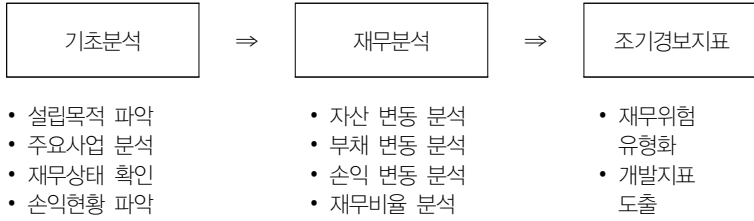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채감축을 위한 공공기관과 정부의 역할과 공공기관 부채대책을 제시하였다. 하세정 외(2014)는 공공기관의 부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부채는 경영비효율, 정부정책사업, 요금사업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부채유발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구분회계, 원가산정방식의 구체화 등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강나라 외(2015)는 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한 구분회계 도입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회계투명성 제고, 경영혁신 병행, 성과평가 연계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홍철규·양대천(2016)은 공공기관 중 구분회계를 시범 도입한 7개 기관의 세부적 분석을 통해 구분회계 도입의 문제점을 발굴하였으며, 정부지침 명확화, 구체성 등의 문제점 극복 방안을 제안하여 구분회계를 다른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공기관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다수의 연구가 재무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주로 부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4.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분석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분석에 앞서 분석에 사용한 방법 및 분석 표본 기관에 대하여 소개한다. 기관별 경영위기 분석 및 조기경보지표 개발은 기초분석, 재무분석, 조기경보지표 구축의 단계에 걸쳐 분석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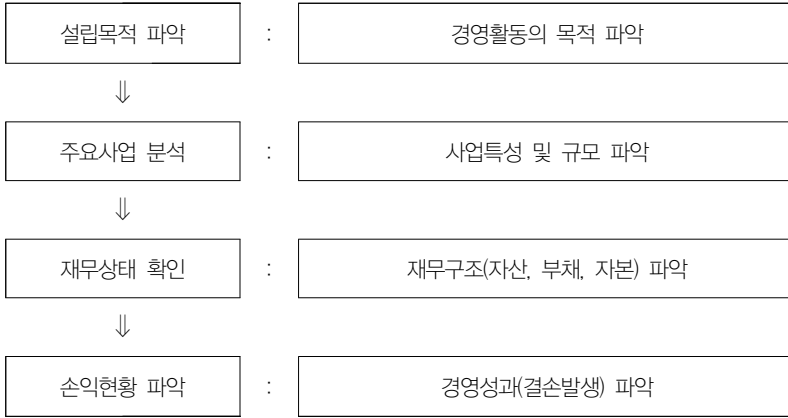
[그림 V-1] 기관별 경영위기 분석 흐름



자료: 저자 작성

경영위기 분석 및 조기경보시스템 도입과정을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분석 과정에서 기관의 종합적인 특성과 사업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준비단계를 설정한다. 우선 기관의 설립목적 및 설립근거를 밝힌다. 이는 기관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후 ALIO상 주요 사업 공시를 참고하여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요 사업 검토를 통해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경영상 위기로 작용할 만한 잠재적인 사항을 도출한다. 다음 단계로 기관의 재무상태를 파악한다.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확인한다. 또한 자본을 검토할 때 기관의 출자현황과 소유구조 등을 파악하여 잠재적 경영위기 요소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손익현황을 파악한다.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확인하여 경영성과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결손발생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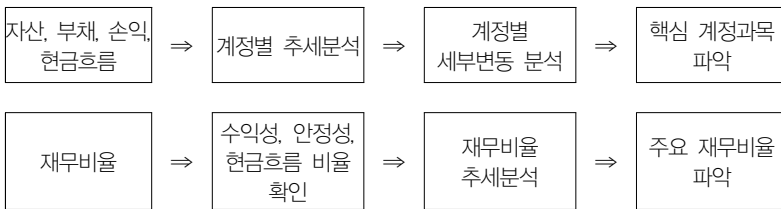
[그림 V-2] 기관별 기초분석 흐름



자료: 저자 작성

재무분석 과정에서는 재무분석을 통해 기관의 재무구조 및 핵심 계정과목을 추출하며, 재무비율을 통해 종합적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관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식 등을 활용하며, 자산, 부채, 손익, 현금흐름 및 재무비율 순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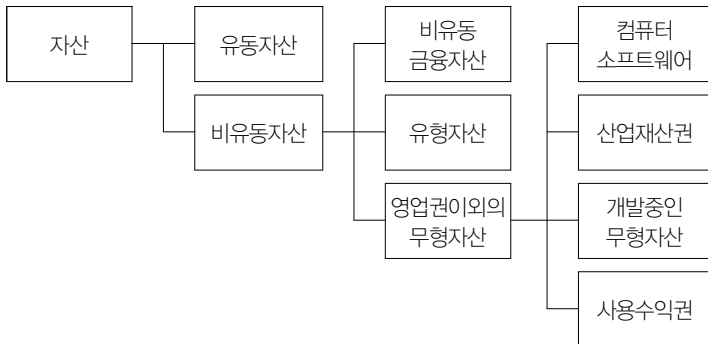
[그림 V-3] 기관별 재무분석 흐름



자료: 저자 작성

자산, 부채, 손익 및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은 첫 번째로 계정별 추세를 확인한다. 예를들어 자산의 경우 먼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비중과 추세를 확인한다. 만약 비유동자산이 주요 변동을 일으킨다면, 비유동자산을 구성하는 계정인 비유동금융자산, 유형자산,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등을 검토하여 변동을 일으키는 계정을 확인한다. 변동의 주요 원인이 된 계정이 무형자산이라면 무형자산의 세부 계정을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방식으로 핵심 계정과목을 파악하여 기관의 주요 자원을 검토한다. 구성항목 분석의 예는 다음 [그림 V-4]와 같다. 분석은 해당 계정의 구성 비중 및 증감 원인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며, 추가적으로 해당 계정이 다른 계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또한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필요에 따라 기존의 재무제표 구성이 아닌 별도의 분류기준³³⁾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자산, 부채, 손익, 현금흐름을 분석한다. 또한 포괄적인 재무분석을 위해 기관별로 수익성, 안전성 및 현금흐름 측면의 재무비율을 확인하여 주요 재무비율로 설정할 수 있는 재무비율을 탐색한다.

[그림 V-4] 구성항목 분석 도식



자료: 저자 작성

33) 예를 들어, 자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자산을 사업자산과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며, 사채 및 차입금을 다수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 부채를 차입부채와 기타부채로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조기경보지표 개발 과정에서는 기관의 기초분석과 재무분석을 통해 탐지한 위험요인을 이용하여 기관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조기경보지표를 구축한다. 공공기관은 유사한 산업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의 특수성이 존재하기에 민간에서 사용중인 재무지표만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관별 재무구조와 사업특성에 적합한 지표를 신규로 개발하여 조기경보지표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수준을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와 기준치를 마련하며, 실현한 경영 실적과 비교하여 실적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경보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유도한다. 즉, 경영위기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림 V-5] 기관별 조기경보지표



자료: 저자 작성

공공기관의 경영위기에 대한 현황 분석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12개 주요기관 중 금융업에 속하는 2개 기관³⁴⁾과 사업분야가 유사한 4개 기관³⁵⁾을 제외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별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

34) 금융업에 속하는 2개 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은 재무구조가 상이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5) 사업분야가 유사한 4개 공공기관(대한석탄공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유사, 한국석유공사는 한국가스공사와 유사,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유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철도공사와 유사)은 재무구조와 사업형태가 유사한 기관이 존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였다. 그 중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및 증가속도에 큰 영향을 끼친 기관을 부채관리 주요기관으로 지정하였다.³⁶⁾ 12개 주요 공공기관은 다음 <표 V-10>과 같다.

<표 V-10> 12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무부처	비고
대한석탄공사	공기업(준시장형)	산업통상자원부	유사
예금보험공사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금융위원회	금융업
한국가스공사	공기업(시장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광물자원공사	공기업(시장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도로공사	공기업(준시장형)	국토교통부	-
한국석유공사	공기업(시장형)	산업통상자원부	유사
한국수자원공사	공기업(준시장형)	환경부	유사
한국장학재단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교육부	금융업
한국전력공사	공기업(시장형)	산업통상자원부	유사
한국철도공사	공기업(준시장형)	국토교통부	-
한국철도시설공단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국토교통부	유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준시장형)	국토교통부	-

자료: 저자 작성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인 동시에 상장 공기업이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을 대표하여 포함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이지만 지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분석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관의 규모가 크고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포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실제 경영위기로 인해 통폐합이 결정되었기에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례에 포함하였다.

36)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은 18개 기관이나,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는 하나의 연결실체로 보고 12개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가. 한국광물자원공사

1)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기초분석

〈표 V-11〉 기초분석 체크리스트

단계	구분	내용
1 단계	설립목적 파악	경영활동의 목적 파악
2 단계	주요사업 분석	사업특성 및 규모 파악
3 단계	재무상태 확인	재무구조(자산, 부채, 자본) 파악
4 단계	손익현황 파악	경영성과(결손발생) 파악

자료: 저자 작성

한국광물자원공사는 1967년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V-12〉 한국광물자원공사 주요 사업기능

구분	내용
투자사업	전략광종 공급기반을 확충하여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
융자사업	국내광업의 경쟁력 향상과 민영광산의 효율적 개발을 도모
지원사업	국가 기간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국내부존 원료광물의 “광량확보”와 확보광물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광업선진화”로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광산물비축사업	희유금속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도모를 위한 광산물 비축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관리비 보조 지원

자료: ALIO(<http://alio.go.kr/alioSystem.do>), 검색일: 2018. 8. 21.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상태는 2017년 기준으로 4.2조원의 자산과 5.4조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은 -1.3조원으로 자본잠식상태에 놓여 있다.

〈표 V-13〉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상태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자산총계	2,474	2,942	3,625	5,221	5,852	4,687	4,366	4,152	100
유동자산	533	376	284	376	486	510	530	466	11.2
비유동자산	1,942	2,566	3,341	4,844	5,366	4,178	3,836	3,686	88.8
부채총계	1,550	1,769	2,283	3,523	4,020	4,621	5,207	5,434	100
유동부채	89	250	541	586	1,509	1,067	576	880	16.2
비유동부채	1,460	1,519	1,742	2,938	2,512	3,554	4,631	4,554	83.8
자본총계	925	1,173	1,342	1,697	1,832	67	-841	-1,282	
납입자본	789	999	1,259	1,483	1,708	1,888	1,956	1,986	
이익잉여금	110	142	120	149	-117	-1,910	-2,717	-3,032	
기타	4	5	5	172	208	-62	-244	-287	

자료: 저자 작성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출자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각각 99.86, 0.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운영 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표 V-14〉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현황

(단위: 백만원 %)

주주명	납입 자본금	지분율(%)
대한민국 정부	1,985,570	99.86
한국산업은행	2,700	0.14

자료: ALIO(<http://alio.go.kr/alioSystem.do>), 검색일: 2018. 8. 21.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17년 매출은 0.7조원이며, 매출원가는 0.8조원으로 매출총손실 및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당기순손실은 -0.4조원으로 집계되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4년 적자전환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에 따라, 2016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로 전환되었다.

〈표 V-15〉 한국광물자원공사 손익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211	225	284	327	274	298	330	723
매출원가	-174	-169	-293	-301	-519	-1,421	-607	-812
매출총이익(손실)	37	56	-9	26	-244	-1,123	-277	-89
판매비와관리비	-18	-18	-23	-31	-30	-35	-37	-89
영업이익(손실)	19	38	-32	-5	-274	-1,157	-314	-179
기타손익 ¹⁾	4	-5	11	24	11	-907	-673	-232
당기순이익(손실)	23	33	-21	19	-263	-2,064	-987	-411

주: 1) 기타수익, 기타비용, 기타이익(손실), 금융수익, 금융원가, 법인세비용의 합계금액

자료: 저자 작성

기초분석을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과 국내외 광물자원 확보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는 사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 재원조달, 상환 및 이자부담 위험과 대외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분석

〈표 V-16〉 재무분석 체크리스트

단계	구분	내용
1 단계	자산 분석	자산 변동내역 및 변동원인 파악
2 단계	부채 분석	부채 변동내역 및 변동원인 파악
3 단계	손익 분석	손익 변동내역 및 변동원인 파악
4 단계	현금흐름 분석	현금흐름 변동내역 및 변동원인 파악
5 단계	재무비율 분석	재무비율 분석을 통한 재무위험 탐지

자료: 저자 작성

가) 자산 분석

2017년 기준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산은 비유동자산 88.8%와 유동자산 11.2%으로 대부분의 자산은 유형자산,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장기대여금 등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산 분석은 비유동자산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V-17〉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자산총계	2,474	2,942	3,625	5,221	5,852	4,687	4,366	4,152	100
유동자산	533	376	284	376	486	510	530	466	11.2
비유동자산	1,942	2,566	3,341	4,844	5,366	4,178	3,836	3,686	88.8

자료: 저자 작성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유동자산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비유동금융자산 1.5조원,³⁷⁾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1.1조원, 유형자산 0.8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주요 사업과 연계해서 분석해 보면 용자사업 운영에 따른 장·단기대여금,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에 따른 유형자산 및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이 기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18〉 한국광물자원공사 비유동자산(자산)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비유동자산	1,942	2,566	3,341	4,844	5,366	4,178	3,836	3,686	100
비유동금융자산	1,141	1,128	1,607	1,072	1,284	1,169	1,364	1,487	40.3
(장기대여금)	1,114	1,099	1,573	1,005	1,252	1,167	1,363	1,474	
유형자산	55	57	81	1,720	2,092	1,442	1,014	825	22.4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561	1,172	1,408	1,810	1,692	1,140	1,040	1,058	28.7
기타	185	209	245	242	298	427	418	316	8.6

자료: 저자 작성

① 장·단기대여금 분석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용자사업을 통해 다양한 해외자원 및 국내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자금 용자지원, 국내자원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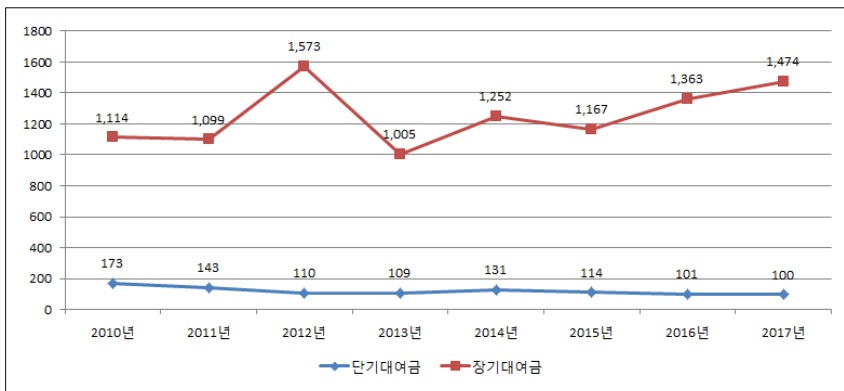
37) 비금융자산은 장기대여금이 대부분으로 2017년 기준으로 1,487십억원의 비유동금융자산 중 장기대여금이 1,474십억원으로 99% 이상을 차지함.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안전시설자금 및 설비투자자금 융자지원 등을 수행하며, 융자사업 운용에 따른 대여금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총 1.6조원(단기 0.1조원, 장기 1.5조원)에 이른다.

[그림 V-6]과 같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장·단기대여금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2012년 0.5조원 증가, 2013년 0.5조원 감소 등 규모가 크고 변동성이 매우 큰 편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조기경보지표 마련 시 장·단기대여금 및 관련 손익을 변수로 한 지표설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V-6] 한국광물자원공사 장·단기대여금(자산)

(단위: 십억원)



자료: 저자 작성

② 유형자산 분석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투자사업을 통해 6대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과 新전략광물(희토류, 리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2010년과 2017년 사이 자산과 부채의 주요 증감 요인은 해외투자사업의 추진에 따른 유형자산과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 지분의 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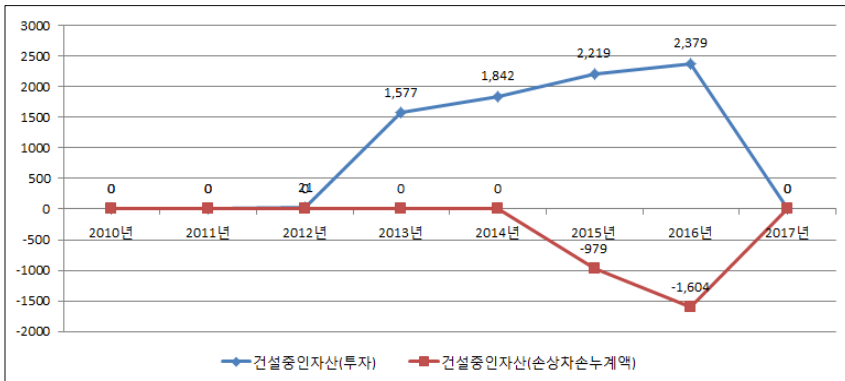
유형자산은 <표 V-15>와 같이 2010년 550억원에서 2014년 2.1조원으로 증가하고, 2017년에는 0.8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변동 규모가 매우 큰 편이므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유형자산에서 가장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 항목은 건설중인자산으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등 해외자원 개발에 따른 건물, 기계장치 등 건설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V-7과 같이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투자금의 변동추이를 분석해보면 2013년 1.5조원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이 2.4조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건설중인자산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재화생산, 용역제공, 임대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본계정 대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관운영에 무리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관의 경우 장기광물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2016년까지 건설중인자산에 대해 누적된 손상차손이 1.6조원에 달하는 등 관련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7] 한국광물자원공사 건설중인자산

(단위: 십억원)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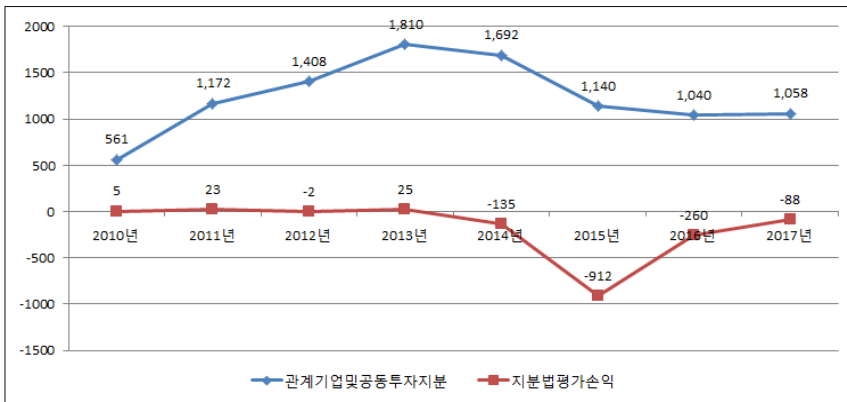
위 분석결과와 같이 건설중인자산을 포함한 유형자산의 경우 규모가 크고 변동성이 매우 큰 편임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조기경보지표 마련 시 유형자산 및 관련 손익을 변수로 한 지표설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

③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분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2010년 0.6조원에서 2013년에는 규모가 1.8조원 까지 증가했지만, 관련 지분법평가손익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특히, 2014년부터는 피투자회사의 적자전환에 따라 대규모 지분법평가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이 규모 및 변동성이 매우 커서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따라 조기경보지표 마련 시에도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및 관련 손익을 변수로 한 지표설정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8] 한국광물자원공사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단위: 십억원)



자료: 저자 작성

[표 V-19]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장·단기대여금	규모 및 변동성이 매우 큰 편으로 나타남
건설 중인 자산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분계정 대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관운영에 위험요소로 작용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규모 및 변동성이 매우 커서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자료: 저자 작성

나) 부채 분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2017년 기준으로 총 5.4조원으로 비유동부채 4.5조원(83.8%), 유동부채 0.9조원(16.2%)로 구성되어 있다.

〈표 V-20〉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부채총계(A)	1,549	1,769	2,283	3,524	4,021	4,621	5,207	5,434
유동부채(B)	89	250	541	586	1,509	1,067	576	880
비유동부채	1,460	1,519	1,742	2,938	2,512	3,554	4,631	4,554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분석을 위해 성격에 따라 차입부채, 총당부채, 기타부채로 재분류하였다. 차입부채는 채무, 사채 등과 같이 자본조달을 위해 발생한 부채로 구성하고, 총당부채는 불확실성이 내포된 부채를 포함하고, 그 외는 기타부채로 구분하였다.

〈표 V-21〉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분석 구분

재무제표 구분	부채분석 구분
유동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기타부채
유동금융부채	차입부채 ¹⁾
당기법인세부채	기타부채
유동비금융부채	기타부채
유동총당부채	총당부채
매각예정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기타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기타부채
비유동금융부채	차입부채 ²⁾
비유동비금융부채	기타부채
종업원급여채무	기타부채
비유동총당부채	총당부채

주: 1) 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유동파생상품부채, 기타유동금융부채 등은 기타부채로 구분

2)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비유동파생상품부채, 기타비유동금융부채 등은 기타부채로 구분

자료: 저자 작성

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차입부채는 약 5.2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96.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기타부채는 약 0.2조원으로 전체의 3.2%, 총당부채는 약 44십억원으로 전체의 0.8% 수준이다.

〈표 V-22〉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분류 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부채총계	1,550	1,769	2,283	3,523	4,020	4,621	5,207	5,434	100
차입부채	1,218	1,508	2,038	3,169	3,614	4,217	4,903	5,217	96.0
총당부채	-	-	5	37	78	175	90	44	0.8
기타부채	332	261	239	318	328	229	213	173	3.2

자료: 저자 작성

① 차입부채의 유형별 분석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입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사채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등의 사업 진행으로 인해 대규모 자본 조달의 필요에 따라 회사채를 다수 발행하였기 때문이다.

〈표 V-23〉 한국광물자원공사 차입부채(재분류 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차입부채(A)	1,218	1,508	2,038	3,169	3,614	4,217	4,903	5,217
차입금	566	649	821	1,445	1,055	1,092	1,126	933
사채(B)	652	859	1,217	1,724	2,558	3,124	3,777	4,283
사채 비중(B/A)	53.5	57.0	59.7	54.4	70.8	74.1	77.0	82.1

자료: 저자 작성

② 차입부채의 유동/비유동 분석

차입부채 중 1년 이내 상환의무가 도래하는 유동부채비율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2010년 5.5%에서 2014년 38.2%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 현재는 15.1%로 크게 감소하였다. 경기불황 시 유동부채 비중이 높은 경우

차입금 등에 대한 Roll-over(상환연장)가 되지 않아 유동성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유동부채비율의 변동폭이 매우 큰 편이라 조기경보지표에 포함해서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표 V-24〉 한국광물자원공사 유동 및 비유동차입부채(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차입부채총계(A)	1,218	1,508	2,038	3,169	3,614	4,217	4,903	5,217
유동차입부채(B)	67	229	501	488	1,381	986	510	787
비유동차입부채	1,152	1,279	1,538	2,682	2,233	3,231	4,393	4,430
유동부채비율(B/A)	5.5	15.2	24.6	15.4	38.2	23.4	10.4	15.1

자료: 저자 작성

③ 차입부채의 외화/원화 분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17년 차입부채 5.2조원 중 외화부채는 2.4조원으로 차입부채의 46.2%를 차지하였다. 외화부채 비중의 추이를 〈표 V-21〉에서 살펴보면 2010년 69.3%에서 2012년 79.3%으로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외화비중이 46.2%까지 낮아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여타 다른 공공기관 대비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변동 또한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외화차입부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기경보지표에서도 외화차입비중을 변수로 하는 지표설정 및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V-25〉 한국광물자원공사 원화 및 외화차입부채(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차입부채(A)	1,218	1,508	2,038	3,169	3,614	4,217	4,903	5,217
원화부채	374	421	421	946	1,559	1,771	2,496	2,806
외화부채(B)	844	1,087	1,617	2,223	2,055	2,446	2,407	2,411
외화비중(B/A)	69.3	72.1	79.3	70.1	56.9	58.0	49.1	46.2

자료: 저자 작성

〈표 V-26〉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사채	대규모 자본 조달로 인해 회사채를 다수 발행
유동부채	유동부채비율의 변동폭이 매우 큰 편
외화부채	다른 공공기관 대비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변동 또한 매우 큰 편

자료: 저자 작성

다) 손익 분석

재화판매의 경우 볼레오 및 암바토비 등 광산물 매출에 따라 발생한 수익으로 볼레오 광산 등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 및 관련 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을 제외하고는 매출총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자수익의 경우 용자사업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관련 원가는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구성된다. 니켈펀드 소송에 따른 이자비용을 추가 계상한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출총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기타사업의 경우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손익 및 손상차손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투자주식 특히, 암바토비 및 볼레오 등의 투자주식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총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조기경보지표에서는 이러한 사업별 손익을 관련 자산과 연계해서 변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재화판매의 경우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과 연동해서, 이자수익의 경우 장·단기대여금과 같이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V-27〉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업별 매출액·매출원가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화판매								
매출액	22	40	40	45	64	53	67	209
매출원가	15	24	29	35	59	71	55	200
매출총이익(손실)	7	16	11	10	5	-18	12	9
이자수익								
매출액	77	73	92	111	80	96	88	104
매출원가	39	38	57	80	106	46	69	104
매출총이익(손실)	38	35	35	31	-26	50	19	0
정부보조금								
매출액	21	24	26	27	26	24	20	18
매출원가	20	24	26	27	26	24	20	18
매출총이익(손실)	1	0	0	0	0	0	0	0
기타사업								
매출액	91	88	126	144	104	125	155	392
매출원가	100	83	181	159	328	1,280	463	490
매출총이익(손실)	-9	5	-55	-15	-223	-1,155	-308	-98

자료: 저자 작성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손익 중 기타이익(손실)의 비중이 높아 세부적인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형자산손상차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2015년부터 해외투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

〈표 V-28〉 한국광물자원공사 기타이익(손실)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타이익(손실)	0	-3	-1	40	-1	-934	-563	-145
유형자산처분이익	0	0	0	0	0	42	0	0
그밖의 기타이익	-	-	-	40	-	-	-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	-	-942	-561	-142
무형자산손상차손	-	-3	-	-	-	-33	-1	-2
기타	0	0	-1	0	-1	-1	-1	-1

자료: 저자 작성

〈표 V-29〉 한국광물자원공사 손익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손익 및 손상차손	투자주식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매출총손실이 발생
유형자산손상차손	해외투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자료: 저자 작성

라) 현금흐름 분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음(-)의 값,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양(+)의 값을 나타낸다.

〈표 V-30〉 한국광물자원공사 현금흐름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	-24	-127	-115	-226	-269	-172	-14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36	-779	-674	-1,168	-271	-291	-418	-459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74	780	811	1,283	649	542	557	528

자료: 저자 작성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2016년부터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31〉 한국광물자원공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	-24	-127	-115	-226	-269	-172	-144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1	-79	-108	-100	-161	-183	-78	-53
배당금수취	2	2	3	5	11	1	1	-
이자지급	-29	-30	-55	-80	-100	-106	-110	-111
이자수취	56	83	33	60	26	21	18	17
법인세환급(납부)	7	-	-	-	-3	-3	-3	3

자료: 저자 작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여금 유출입이 포함된 기타의 현금흐름이 약 절반가량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투자지분이 포함된 금융투자 관련 현금흐름과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유·무형자산 관련 현금흐름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V-32〉 한국광물자원공사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36	-779	-674	-1,168	-271	-291	-418	-459
유무형자산 관련 현금흐름	-115	-5	-12	-323	-326	-163	-108	-77
금융투자 관련 현금흐름	-111	-516	-293	-482	173	-6	-64	-24
기타의 현금흐름	-410	-258	-369	-363	-118	-122	-246	-357

자료: 저자 작성

〈표 V-33〉 한국광물자원공사 현금흐름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이자지급	차입금 및 사채로 인한 이자지급
기타의 현금흐름	대여금 유출입으로 인한 현금유출

자료: 저자 작성

마) 재무비율 분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수익성 비율은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제외하고는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모두 음(-)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자본순이익률 역시 자본잠식상태로 인해 당기순손실임에도 양(+의 값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통폐합이 진행 시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될 예정이나, 매각 전까지 해외자원개발 관련 손익으로 인해 수익성의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표 V-34〉 한국광물자원공사 수익성 비율

(단위: %)

지표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8.9	16.8	-11.2	-1.7	-99.8	-388.4	-94.9	-24.7
	매출액순이익률	11.1	14.5	-7.5	5.8	-96.0	-692.6	-298.8	-56.8
	총자산순이익률		1.2	-0.6	0.4	-4.8	-39.2	-21.8	-9.6
	자기자본순이익률		3.1	-1.7	1.7	-16.5	-204.5	345.1	39.6

자료: 저자 작성

안전성 비율은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으로 인해 유의적인 추세선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전반적으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자본금 증액계획이 국회의 개정법률안 부결되어 재무안전성이 더욱 악화되었다. 다만, 향후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을 통해 재무안전성이 개선될지 주의가 필요하다.

〈표 V-35〉 한국광물자원공사 안전성 비율

(단위: %)

지표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안전성	유동비율	595.2	150.3	52.5	64.3	32.2	47.8	92.0	52.9
	부채비율	167.6	150.8	170.1	207.6	219.5	6,905.0	-619.2	-423.8
	자기자본비율	37.4	39.9	37.0	32.5	31.3	1.4	-19.3	-30.9
	이자보상비율	291.0	964.6	-3,817.8	-90.9	-2,676.3	-20,639.6	-	-6,986.8

자료: 저자 작성

현금흐름 비율은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회계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을 이용하여 전체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 능력이 미약한 것을 의미한다. 향후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에 대한 시너지가 현금흐름 비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표 V-36〉 한국광물자원공사 현금흐름 비율

(단위: %)

지표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 대 매출액	3.0	-10.6	-44.8	-35.1	-82.5	-90.4	-51.9	-19.9
	영업현금흐름 대 총부채	0.4	-1.4	-5.6	-3.3	-5.6	-5.8	-3.3	-2.7
	영업현금흐름 대 총자산	0.3	-0.8	-3.5	-2.2	-3.9	-5.7	-3.9	-3.5
	영업현금흐름 대 유동부채	7.0	-9.6	-23.5	-19.6	-15.0	-25.2	-29.8	-16.4

자료: 저자 작성

〈표 V-37〉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비율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수익성, 안전성, 현금흐름	재무상태, 손익의 악화로 인해 재무비율 또한 전반적으로 악화

자료: 저자 작성

3)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조기경보지표

〈표 V-38〉 조기경보지표 체크리스트

단계	구분	내용
1단계	재무위험 유형화	기초분석과 재무분석을 통해 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유형화
2단계	개발지표 도출	유형화된 위험에 맞춰 신규지표 도출

자료: 저자 작성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조기경보지표를 구성하여 구축한다. 조기경보지표는 기관의 기초분석과 재무분석을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구성한다. 기관별 분석을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운영위험과 차입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위험 지표와 차입위험 지표를 구성한다.

〈표 V-39〉 한국광물자원공사 기관별 분석 결과

기초분석	재무분석	조기경영지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원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손익(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손익 및 손상차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입위험(차입부채비율) 운영위험(투자회전율)
대규모 투자에 따른 상환 및 이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장·단기대여금) 부채(사채, 유동부채) 현금흐름(이자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입위험(유동부채율) 운영위험(대여회전율)
대외적(해외사업)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외화부채) 손익(유형자산손상차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입위험(외화부채율) 운영위험(광산회전율)

자료: 저자 작성

운영위험 지표는 투자회전율, 광산회전율, 대여회전율 지표를 사용한다. 투자회전율은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이 기타 부문 중 지분법 관련 매출총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지표로 기관의 투자 효율성을 측정한다. 투자회전율은 자산의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을 기타 부문 중 지분법 관련 매출총이익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기타 부문 중 지분법 관련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의 기타 수익 중 지분법 관련 부분을 추출한 금액에서 매출원가의 기타 수익 중 지분법 관련 부분을 추출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광산회전율은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이 재화의 판매 부문의 매출총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통해 광산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광산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한다. 광산회전율은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합을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에서 재화의 판매로 인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대여회전율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중인 광업지원 용자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한다. 대여회전율은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의 합을 이자 부문의 매출총이익

익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표 V-40〉 한국광물자원공사 운영위험 지표 및 산식

지표명	지표산식
투자회전율	$(\text{기타손익 중 지분법 관련 금액} / \text{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 100$
광산회전율	$(\text{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 \text{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에 대한 매출원가}) / (\text{유형자산} + \text{재고자산}) * 100$
대여회전율	$(\text{이자수익} - \text{이자수익에 대한 매출원가}) / (\text{단기대여금} + \text{장기대여금}) * 100$

자료: 저자 작성

차입위험은 차입부채비율, 유동차입률, 외화차입률 지표를 활용한다. 차입부채비율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입부채를 대상으로 하여 기관의 채무상환 능력 등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다. 차입부채비율은 차입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유동차입률은 차입부채 중 1년 이내 상환의무가 도래하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며, 유동차입부채를 차입부채로 나누어 산출한다. 외화부채율은 부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화부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며, 이를 통해 환위험 등과 연계하여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화부채율은 외화부채를 차입부채로 나누어 사용한다.

〈표 V-41〉 한국광물자원공사 차입위험 지표 및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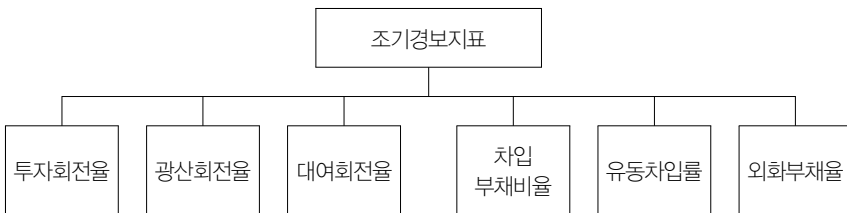
지표명	지표산식
차입부채비율	$(\text{차입부채} / \text{자기자본}) * 100$
유동부채율	$(\text{유동차입부채} / \text{차입부채}) * 100$
외화부채율	$(\text{외화부채} / \text{차입부채}) * 100$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지표를 통해 조기경보지표를 구성하며, 이와 동시에 몇 가지 지표를 보조지표로 주의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관에서 비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증가가 반드시 재무위험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 평균 대

비 과도한 투자증가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기관의 지속가능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에 비금융자산 비율³⁸⁾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차입금 및 사채발행으로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있어 이에 따라 매년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비용이 상당하다.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기관 손익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자부담률³⁹⁾을 조기경보지표에 포함하여 이자변동에 따른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산율⁴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주요 사업자산의 활동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금흐름 관점에서 순이익 대비 영업현금흐름⁴¹⁾ 지표와 금융투자 대비 영업현금흐름⁴²⁾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기관의 이익의 질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의 적정성 등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V-9] 한국광물자원공사 조기경보지표



자료: 저자 작성

38) 비금융자산 비율은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지분법주식을 비금융자산으로 구분해서 이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39) 이자부담률은 현금흐름표상 이자지급 금액을 차입부채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40) 사업자산율은 기관의 주요 사업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사업자산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및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을 포함한다.

41) 순이익 대비 영업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을 영업현금흐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42) 금융투자 대비 영업현금흐름은 투자현금흐름 중 금융투자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현금흐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한국도로공사⁴³⁾

1) 한국도로공사의 기초분석

한국도로공사는 1969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도로공사의 주요 사업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V-42〉 한국도로공사 주요 사업기능

구분	내용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국가 간선도로망의 중추로서 국토이용의 효율성 및 국민생활의 쾌적성을 실현하여 지역균형개발 촉진
고속도로 유지관리	고속도로 효용증진 및 이용차량 편의를 위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수행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관리	고속도로 효용증진 및 이용차량 편의를 위하여 휴게소 및 주유소 시설 유지 및 관리
관련업무 연구 및 기술개발	고속도로 효용증진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도로 및 이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자문 등 수행

자료: ALIO(<http://alio.go.kr/alioSystem.do>), 검색일: 2018. 8. 21.

한국도로공사의 사업기능은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고속도로 유지관리,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관리, 관련업무 연구 및 기술개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공사는 2017년 기준으로 61.1조원의 자산과 27.5조원의 부채, 33.6조원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은 0.7조원의 유동자산과 60.4조원의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자산이 비유동자산으로 확인된다. 부채는 3.7조원의 유동부채와 23.7조원의 비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43) 이하 기관별 분석에서 체크리스트는 생략함

〈표 V-43〉 한국도로공사 재무상태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자산총계	47,992	49,279	51,460	53,390	55,337	57,606	59,583	61,090	100
유동자산	371	298	410	454	565	477	946	735	1.2
비유동자산	47,621	48,982	51,050	52,936	54,772	57,129	58,636	60,355	98.8
부채총계	23,729	24,591	25,348	25,862	26,462	26,957	27,512	27,483	100
유동부채	3,439	3,537	3,400	3,204	3,801	3,822	4,654	3,740	13.6
비유동부채	20,289	21,054	21,949	22,658	22,661	23,135	22,859	23,743	86.4
자본총계	24,264	24,688	26,112	27,528	28,875	30,649	32,070	33,607	100
납입자본	23,554	23,846	25,218	26,549	27,848	29,526	30,900	32,285	96.1
이익잉여금	784	864	906	979	1,068	1,159	1,248	1,311	3.9
기타자본구성요소	-54	-1	5	10	-35	-34	-78	10	0.0
자본과부채총계	47,992	49,279	51,460	53,390	55,337	57,606	59,583	61,090	100

자료: 저자 작성

한국도로자원공사의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85.36%, 0.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지분을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표 V-44〉 한국도로공사 출자현황

(단위: 백만원, %)

법정 자본금	35,000,000	
	납입 자본금	지분율
국토교통부	27,557,656	85.36
기획재정부	134,189	0.42
한국산업은행	926,286	2.87
한국수출입은행	3,287,145	10.18
중소기업은행	224,235	0.69
국민은행	5,734	0.02
한국주택금융공사	150,000	0.46

자료: ALIO(<http://alio.go.kr/alioSystem.do>), 검색일: 2018. 8. 21.

한국도로공사의 2017년 매출은 8.1조원이며, 매출원가는 6.8조원으로 1.2조원의 매출총이익을 기록하였으며, 1조원의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0.1조원으로 집계되었다.

〈표 V-45〉 한국도로공사 손익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수익(매출액)	7,027	5,693	6,930	6,942	7,616	8,562	8,159	8,060	58,990
매출원가	-5,838	-4,205	-5,528	-5,767	-6,397	-7,517	-7,205	-6,847	-49,304
매출총이익(손실)	1,188	1,488	1,402	1,176	1,220	1,045	954	1,212	9,685
판매비와관리비	-152	-161	-172	-183	-193	-221	-229	-241	-1,550
영업이익(손실)	1,037	1,327	1,230	993	1,027	825	725	972	8,135
기타손익 ¹⁾	815	-40	924	564	693	906	1,289	1,121	6,271
당기순이익(손실)	66	103	83	80	117	132	135	135	851

주: 1) 기타수익, 기타비용, 기타이익(손실), 금융수익, 금융원가, 관계기업 공동기업 종속기업 관련이익(손실), 법인세비용의 합계금액

자료: 저자 작성

기초분석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안정적인 재무상태와 손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의 사업은 투자규모가 크고, 자본회수가 오랜기간 소요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이를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도로공사의 재무분석

가) 자산 분석

2017년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자산은 비유동자산 98.8%와 유동자산 1.2%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한국도로공사는 대부분의 자산을 비유동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V-46〉 한국도로공사 자산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자산총계	47,992	49,279	51,460	53,390	55,337	57,606	59,583	61,090	100
유동자산	371	298	410	454	565	477	946	735	1.2
비유동자산	47,621	48,982	51,050	52,936	54,772	57,129	58,636	60,355	98.8

자료: 저자 작성

한국도로공사의 유동자산은 평균적으로 전체 자산의 약 1%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자산 분석은 비유동자산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V-47〉 한국도로공사 유동자산(자산)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유동자산	371	298	410	454	565	477	946	735	100
현금 및 현금성자산	63	132	238	285	203	272	633	500	68.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02	116	126	125	125	137	163	205	27.9
기타	206	50	46	44	237	68	150	30	4.1

자료: 저자 작성

한국도로공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유동자산의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비유동금융자산,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비유동비금융자산,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순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유동자산 중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48〉 한국도로공사 비유동자산(자산)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비유동자산	47,621	48,982	51,050	52,936	54,772	57,129	58,636	60,355	100
비유동금융자산	412	446	313	307	233	243	183	158	0.3
유형자산	689	670	619	765	847	904	956	998	1.7
투자부동산	857	918	1,035	1,025	1,039	1,078	1,142	1,294	2.1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45,588	46,883	49,007	50,750	52,561	54,818	56,267	57,808	95.8
기타	75	65	76	89	92	86	88	97	0.2

자료: 저자 작성

비유동자산 항목 중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등 용역 운영권, 개발중인 무형자산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속도로의 사용수익권⁴⁴⁾이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중인 무형자산은 현재 건설중인 고속도로의 영향으로 인해 무형자산에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V-49〉 한국도로공사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자산-비유동자산)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45,588	46,883	49,007	50,750	52,561	54,818	56,267	57,808	100
컴퓨터소프트웨어	23	21	27	28	30	27	37	42	0.1
개발중인 무형자산	8,682	7,510	6,932	8,981	10,027	8,029	6,617	5,966	10.3
손상차손누계액	-	-263	-263	-263	-263	-263	-263	-263	-0.5
사용수익기부자산 등용역운영권	54,139	57,517	61,140	62,085	64,218	70,125	75,055	79,024	136.7
상각누계액	-17,263	-17,909	-18,837	-20,088	-21,457	-23,107	-25,188	-26,970	-46.7
기타	7	7	8	7	6	7	9	9	0.0

자료: 저자 작성

한국도로공사의 자산분석을 종합해보면, 공사의 자산은 대부분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 중 사용수익기부자산 등 용역운영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

44) 유료도로관리권이며, 이는 재무제표상 '사용수익기부자산등용역운영권' 계정으로 계상됨

속도로의 사용수익권 획득에 따라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자산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용수익권 획득과 관련한 자본조달을 주의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V-50〉 한국도로공사 자산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사용수익 기부자산 등 용역운영권	용역운영권 획득을 위한 자본조달 유의

자료: 저자 작성

나) 부채 분석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2017년 비유동부채 86.4%, 유동부채 13.6%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1년 이내 상환의무가 도래하는 부채에 비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부채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나타낸다.

〈표 V-51〉 한국도로공사 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부채총계	23,729	24,591	25,348	25,862	26,462	26,957	27,512	27,483	100
유동부채	3,439	3,537	3,400	3,204	3,801	3,822	4,654	3,740	13.6
비유동부채	20,289	21,054	21,949	22,658	22,661	23,135	22,859	23,743	86.4

자료: 저자 작성

한국도로공사의 효과적인 부채 분석을 위해 부채를 차입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로 재분류하였다. 기존의 재무제표 구성은 유동성을 기준으로 구분이 이루어져 있어, 부채 성격별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차입부채는 채무, 사채 등과 같이 자본조달을 위해 발생한 부채를 구분하며, 충당부채는 불확실성이 담보된 부채를 구분한다. 또한 그 외의 부채는 기타부채로 구분한다.

〈표 V-52〉 한국도로공사 부채분석 구분

재무제표 구분	부채분석 구분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기타부채
유동금융부채	차입부채 ¹⁾
당기법인세부채	기타부채
유동비금융부채	기타부채
유동충당부채	충당부채
매각예정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기타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기타부채
비유동금융부채	차입부채 ²⁾
비유동비금융부채	기타부채
종업원급여채무	기타부채
비유동충당부채	충당부채

주: 1) 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유동파생상품부채, 기타유동금융부채 등은 제외

2)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비유동파생상품부채, 기타비유동금융부채 등은 제외

자료: 저자 작성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2017년 기준으로 총 27.5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차입부채는 약 25.4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89.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기타부채는 약 1.9조원으로 전체의 7.0%, 충당부채는 약 1천억원으로 전체의 0.4%로 부채가 구성되어 있다.

〈표 V-53〉 한국도로공사 재분류 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부채총계	23,729	24,591	25,348	25,862	26,462	26,957	27,512	27,483	100
차입부채	21,096	22,114	22,870	23,687	24,583	25,218	25,434	25,427	89.0
충당부채	4	4	76	81	85	84	89	119	0.4
기타부채	2,628	2,472	2,402	2,093	1,794	1,655	1,989	1,937	7.0

자료: 저자 작성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입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사채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 진행으로 인해 회사채를 다수 발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V-54〉 한국도로공사 차입부채(재분류 부채)

(단위: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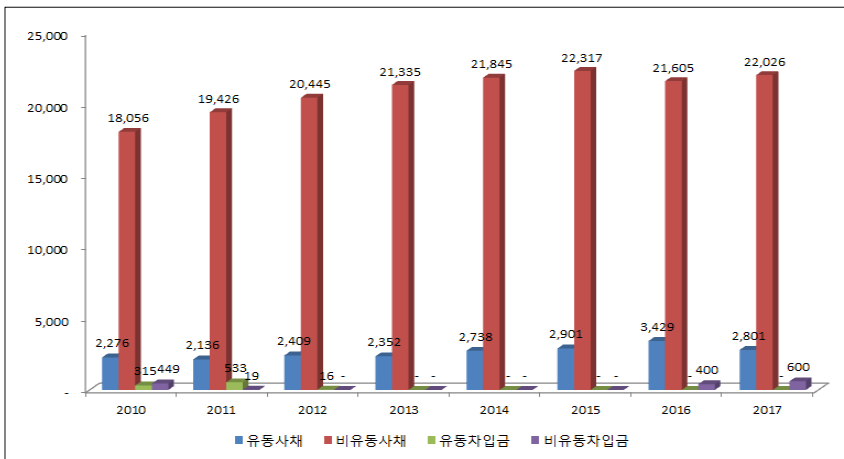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차입부채	22,528	23,410	24,060	24,702	25,192	25,554	25,713	25,761	100
차입금	764	552	16	-	-	-	400	600	2.4
사채	20,333	21,562	22,854	23,687	24,583	25,218	25,034	24,827	97.6

자료: 저자 작성

차입부채 중 차입금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사채는 지속적으로 높은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채의 추이를 유동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동사채와 비유동사채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비유동사채는 유동사채에 비해 증가폭이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10〉 한국도로공사 차입부채 추이

(단위: 십억원)



자료: 저자 작성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분석을 종합해 보면, 부채는 대부분 차입을 위해 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또한 비유동사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사는 장기사채 발행과 관련한 이자지급능력 및 원금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55〉 한국도로공사 부채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사채	대규모 자본 조달로 인해 회사채를 다수 발행
장기사채	장기사채 발행과 관련한 이자지급능력 및 유동성 대체 사채

자료: 저자 작성

다) 손익 분석

한국도로공사는 8.1조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매출원가 6.8조원, 판매비와관리비 1.2조원을 비용으로 차감하여 1조원의 영업이익을 보였다. 기타 수익과 비용을 가감하여 0.1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냈다.

〈표 V-56〉 한국도로공사 손익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수익(매출액)	7,027	5,693	6,930	6,942	7,616	8,562	8,159	8,060	58,990
매출원가	-5,838	-4,205	-5,528	-5,767	-6,397	-7,517	-7,205	-6,847	-49,304
매출총이익(손실)	1,188	1,488	1,402	1,176	1,220	1,045	954	1,212	9,685
판매비와관리비	-152	-161	-172	-183	-193	-221	-229	-241	-1,550
영업이익(손실)	1,037	1,327	1,230	993	1,027	825	725	972	8,135
기타수익	36	47	42	42	49	98	73	113	500
기타비용	-23	-28	-21	-23	-30	-28	-74	-95	-321
기타이익(손실)	6	-281	2	-5	-47	36	299	-11	-2
금융수익	299	117	336	164	228	187	136	328	1,796
금융원가	-1,260	-1,096	-1,372	-1,125	-1,111	-971	-948	-1,109	-8,992
법인세비용	-28	11	-133	34	2	-16	-78	-61	-270
당기순이익(손실)	66	103	83	80	117	132	135	135	851

자료: 저자 작성

수익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 수탁사업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이 전체의 수익의 과반을 넘으며,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과 수탁사업수익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으로 집계되었다.

매출원가는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보다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이 크게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 부문과 수탁사업 수익 부문은 영업이익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업이익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57〉 한국도로공사 사업별 매출액·매출원가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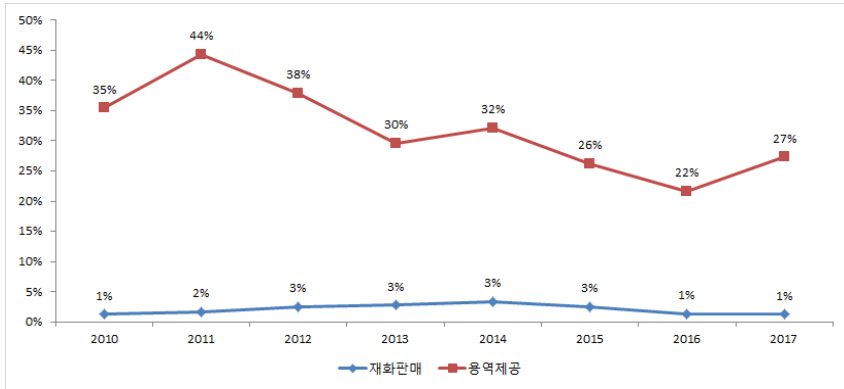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재화판매사업									
매출액	10	23	69	78	94	102	158	183	717
매출원가	9	23	67	76	91	100	156	181	702
매출총이익	1	0	2	2	3	2	2	2	15
용역제공사업									
매출액	3,370	3,361	3,692	3,964	3,781	3,986	4,402	4,431	30,986
매출원가	2,176	1,873	2,292	2,790	2,564	2,943	3,450	3,221	21,309
매출총이익	1,194	1,488	1,400	1,174	1,217	1,043	952	1,210	9,677
건설계약사업									
매출액	3,647	2,309	3,170	2,900	2,948	3,623	3,321	3,252	25,170
매출원가	3,653	2,309	3,170	2,900	2,948	3,623	3,321	3,252	25,176
매출총이익	-6	0	0	0	0	0	0	0	-6
수탁사업									
매출액	-	-	-	-	794	851	278	194	2,117
매출원가	-	-	-	-	794	851	278	194	2,117
매출총이익	-	-	-	-	0	0	0	0	0

자료: 저자 작성

사업별 매출총이익률은 용역의 제공 부문이 201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재화의 판매 부문은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또한 건설계약과 수탁사업은 0으로 나타나 매출총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V-11] 한국도로공사 사업별 매출총이익률 추이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따라서 용역의 제공부문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용역의 제공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행료 수입과 비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손익 중 금융원가의 비중이 높아 세부적인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이자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앞서 부채를 검토한 결과 부채 중 사채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

〈표 V-58〉 한국도로공사 금융비용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금융원가	1,260	1,096	1,372	1,125	1,111	971	948	1,109	8,992
이자비용	971	972	1,017	966	885	775	799	798	7,184
파생상품평가손실	134	9	216	44	79	30	7	214	735
외화환산손실	6	44	1	20	107	115	94	6	392
기타	149	71	138	95	40	51	48	91	681

자료: 저자 작성

한국도로공사의 손익분석을 종합하면, 매출액이 크지만, 매출원가 또한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높지 않다. 영업이익 또한 높은 금융원가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큰폭으로 감소한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원가의 세부구성내역은 이자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원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에 기인한 결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이자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V-59〉 한국도로공사 손익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매출총이익(용역제공)	용역제공 부문 매출총이익의 지속적 하락
이자비용	사채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

자료: 저자 작성

라) 현금흐름 분석

한국도로공사의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양(+)의 값,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음(-)의 값을 나타낸다.

〈표 V-60〉 한국도로공사 현금흐름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1,025	966	1,020	1,050	1,431	1,678	2,273	1,830	11,273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3,770	-2,647	-3,169	-3,057	-3,343	-3,599	-3,231	-3,446	-26,262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2,111	1,750	2,256	2,053	1,817	1,986	1,368	1,495	14,836

자료: 저자 작성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61〉 한국도로공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1,025	966	1,020	1,050	1,431	1,678	2,273	1,830	11,273
영업에서청출된현금	1,960	2,136	2,312	2,175	2,531	2,702	3,129	2,851	16,945
배당금수취	0	0	0	0	3	0	1	1	5
이자지급	-971	-1,221	-1,213	-1,150	-1,131	-1,032	-843	-934	-7,562
이자수취	49	38	33	28	28	7	8	7	190
법인세환급(납부)	-14	13	-112	-3	1	1	-21	-95	-134

자료: 저자 작성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이자지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금융원가의 이자비용과 비교해 보면, 금융원가의 이자비용보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이자지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지급이자 비용, 금융비용의 자본화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V-62〉 한국도로공사 이자비용 비교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영업현금흐름의 이자지급(A)	971	1,221	1,213	1,150	1,131	1,032	843	934	8,495
금융원가의 이자비용(B)	971	972	1,017	966	885	775	799	798	7,183
차이(A-B)	0	249	196	184	246	257	44	136	1,312

자료: 저자 작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무형자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사용수익권 취득을 위한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금융투자관련 활동과 유무형자산관련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유무형자산관련 현금흐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고속도로와 관련한 운영권 등의 취득을 위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V-63〉 한국도로공사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3,770	-2,647	-3,169	-3,057	-3,343	-3,599	-3,231	-3,446	-26,262
유무형자산관련 현금흐름	-3,775	-2,675	-2,993	-3,016	-3,116	-3,765	-3,244	-3,483	-26,066
금융투자관련 현금흐름	-10	20	-173	-41	-161	165	12	37	-151
기타의 현금흐름	15	9	-4	-	-66	0	1	0	-45

자료: 저자 작성

한국도로공사의 현금흐름 분석을 종합해보면, 한국도로공사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영업현금흐름상 이자지급 금액의 변동 폭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원가상 이자비용보다 높게 나타나 이자지급과 관련한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V-64〉 한국도로공사 현금흐름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이자지급	이자비용에 비해 이자지급액이 크며, 이자지급액의 변동성이 높음

자료: 저자 작성

마) 재무비율 분석

한국도로공사의 수익성 비율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모두 소폭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매출액을 제외한 부분의 수익성이 증가하였거나,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부분의 비용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표 V-65〉 한국도로공사 수익성 비율

(단위: %)

지표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14.8	23.3	17.7	14.3	13.5	9.6	8.9	12.1
	매출액순이익률	0.9	1.8	1.2	1.2	1.5	1.5	1.7	1.7
	총자산순이익률		0.2	0.2	0.2	0.2	0.2	0.2	0.2
	자기자본순이익률		0.4	0.3	0.3	0.4	0.4	0.4	0.4

자료: 저자 작성

안전성 비율은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비율 모두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V-66〉 한국도로공사 안전성 비율

(단위: %)

지표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안전성	유동비율	10.8	8.4	12.1	14.2	14.9	12.5	20.3	19.6
	부채비율	97.8	99.6	97.1	93.9	91.6	88.0	85.8	81.8
	자기자본비율	50.6	50.1	50.7	51.6	52.2	53.2	53.8	55.0
	이자보상비율	106.7	136.5	120.9	102.8	116.0	106.4	90.8	121.7

자료: 저자 작성

현금흐름 비율은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회계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을 이용하여 전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이는 이 공사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 능력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표 V-67〉 한국도로공사 현금흐름 비율

(단위: %)

지표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 대 매출액	14.6	17.0	14.7	15.1	18.8	19.6	27.9	22.7
	영업현금흐름 대 총부채	4.3	3.9	4.0	4.1	5.4	6.2	8.3	6.7
	영업현금흐름 대 총자산	2.1	2.0	2.0	2.0	2.6	2.9	3.8	3.0
	영업현금흐름 대 유동부채	29.8	27.3	30.0	32.8	37.7	43.9	48.9	48.9

자료: 저자 작성

한국도로공사의 재무비율 분석을 종합해보면, 한국도로공사의 재무비율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V-68〉 한국도로공사 재무비율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수익성, 안전성, 현금흐름	재무비율은 전반적으로 양호

자료: 저자 작성

3) 한국도로공사의 조기경보시스템

가) 조기경보지표

한국도로공사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조기경보지표를 구성하여 구축한다. 조기경보지표는 공사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한다. 이는 기관의 특수성에 적합한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기관별 재무분석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위험과 이자율위험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위험 지표와 이자율위험 지표를 구성한다.

〈표 V-69〉 한국도로공사 기관별 분석 결과

기초분석	재무분석	조기경영지표
투자규모 방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사채) 부채(장기사채) 자산 (사용수익 기부자산 등 용역운영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위험(자체건설비율) 사업위험(비금융자산비율)
장기의 자본회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익(이자비용) 현금흐름(이자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율위험(차입부채비율) 이자율위험(순이자부담률) 이자율위험 (영업현금흐름대차입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익(용역제공매출총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위험(통행료인상률)

자료: 저자 작성

사업위험 지표는 비금융자산비율, 자체건설비율, 통행료인상률을 사용한다. 한국도로공사는 SOC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수행 규모는

대규모이다. 재무분석 결과에서도 유무형자산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금융자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사업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통해 수행한다. 이때 기관 자체부담이 높아질 경우 재무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 따라서 자체건설비용을 사용하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용역제공사업이 주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용역제공사업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용역제공사업의 주 수입원인 통행료 수입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통행료 수입은 통행료 인상에 따라 연동하기 때문에 통행료인상률을 관리지표로 설정한다. 비금융자산비율은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합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사용하며, 자체건설비용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건설투자비에서 총건설투자비로 나누어 산출한다. 통행료인상률은 당기통행료인상률에서 전기통행료인상률을 차감하여 사용한다.

〈표 V-70〉 한국도로공사 사업위험 지표 및 산식

지표명	지표산식
비금융자산비율	$(\text{재고자산} + \text{유형자산} + \text{무형자산}) / \text{자기자본} * 100$
자체건설비용	$(\text{자체건설투자비} / \text{건설투자비}) * 100$
통행료인상률	$\text{당기통행료인상률} - \text{전기통행료인상률}$

자료: 저자 작성

이자율위험 지표는 차입부채비용, 순이자부담율, 영업현금흐름대차입부채지표를 사용한다. 한국도로공사의 재무현황 분석 결과 공사는 주로 장기사채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자비용이 높다. 또한 차입이자율에 따라 기관의 손익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차입부채비용을 사용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를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순이자부담률을 조기경보지표에 포함하여 이자변동에 따른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현금흐름대차입부채 비율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흐름이 차입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입부채비율은 차입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사용하며, 순이자부담률 지표는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보다 더 높게 나타난 현금흐름표상 이자지급 금액을 차입부채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영업현금흐름대차입부채는 영업현금흐름을 차입부채로 나누어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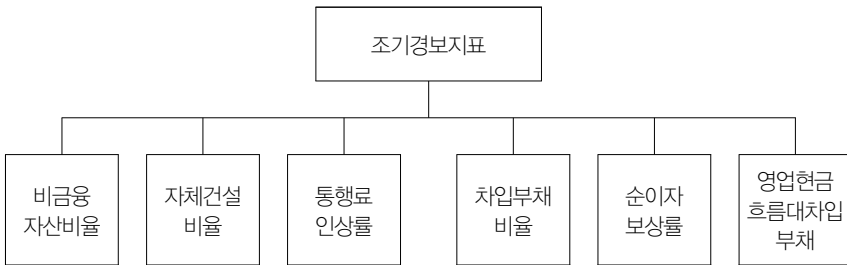
〈표 V-71〉 한국도로공사 이자율위험 지표 및 산식

지표명	지표산식
차입부채비율	(차입부채/자기자본)*100
순이자보상률	(이자지급/차입부채)*100
영업현금흐름대차입부채	(영업흐름/차입부채)*100

자료: 저자 작성

이를 종합하여, 비금융자산비율, 자체건설비율, 통행료인상률, 차입부채비율, 순이자보상률, 영업현금흐름대차입부채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조기경보지표를 구성한다.

[그림 V-12] 한국도로공사 조기경보지표



자료: 저자 작성

다. 한국가스공사

1) 한국가스공사의 기초분석

한국가스공사는 1983년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구체적인 주요 사업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V-72〉 한국가스공사 주요 사업기능

구분	내용
천연가스 판매(운영)사업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생산시설 건설사업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저장시설(LNG 저장, 송출, 기화설비) 확충
공급시설 건설사업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련설비(천연가스 배관, 관리시설 등) 확충
해외투자사업	자원개발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 자원 확보 및 수익창출

자료: ALIO(<http://alio.go.kr/alioSystem.do>), 검색일: 2018. 8. 21.

한국가스공사의 사업기능은 천연가스 판매사업, 생산시설 건설사업, 공급시설 건설사업 및 해외투자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공사는 2017년 기준으로 37.1조원의 자산과 29조원의 부채 및 8.1조원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은 0.7조원의 유동자산과 29.6조원의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자산이 비유동자산이다. 부채는 0.6조원의 유동부채와 22.4조원의 비유동부채로 이루어져 있다.

〈표 V-73〉 한국가스공사 자산·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규모	비중
자산총계	30,025	36,015	40,622	43,666	46,772	42,385	39,928	37,139	100
유동자산	8,804	11,987	11,786	12,239	13,791	10,015	8,544	7,582	20.4
비유동자산	21,221	24,028	28,836	31,427	32,981	32,371	31,384	29,557	79.6
부채총계	22,295	27,971	32,253	34,734	37,048	32,328	30,541	28,999	100
유동부채	6,378	8,137	10,183	8,338	9,862	5,729	5,556	6,590	22.7
비유동부채	15,917	19,834	22,070	26,395	27,186	26,600	24,985	22,409	77.3
자본총계	7,730	8,044	8,369	8,933	9,724	10,057	9,386	8,140	100
납입자본	1,056	1,056	1,056	1,765	1,765	1,765	1,765	1,765	21.7
이익잉여금	5,567	5,690	5,996	5,669	6,138	6,419	5,725	4,601	56.5
신종자본증권	-	-	-	-	308	308	308	308	3.8
기타	1,107	1,297	1,317	1,499	1,514	1,565	1,589	1,466	18.0

자료: 저자 작성

한국가스공사의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정부와 한국전력이 각각 26.15%, 20.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7.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와 관련된 지분이 54.55%에 달한다. 이는 한국가스 공사는 정부의 소유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표 V-74〉 한국가스공사 출자현황

(단위: 백만원 %)

주주명	납입 자본금	지분율
정부	120,722	26.15
한국전력	94,500	20.47
지방자치단체	36,606	7.93
우리사주	19,434	4.21
외국인	44,769	9.70
일반주주 등	145,534	31.54

자료: ALIO(<http://alio.go.kr/alioSystem.do>), 검색일: 2018. 8. 21.

한국가스공사의 2017년 매출은 22.2조원이며, 매출원가는 20.7조원으로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비용으로 인해 당기 순이익은 -0.7조원으로 집계되었다.

〈표 V-75〉 한국가스공사 손익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22,740	28,430	35,031	38,063	37,285	26,053	21,108	22,172
매출원가	-21,437	-27,109	-33,422	-36,215	-35,857	-24,668	-19,775	-20,729
매출총이익(손실)	1,303	1,321	1,609	1,848	1,428	1,385	1,333	1,443
판매비와관리비	-255	-297	-343	-360	-356	-377	-416	-409
영업이익(손실)	1,048	1,023	1,267	1,488	1,072	1,008	918	1,034
기타손익 ¹⁾	-773	-848	-905	-1,692	-625	-689	-1,592	-2,226
당기순이익(손실)	275	175	362	-204	447	319	-674	-1,192

주: 1) 기타수익, 기타비용, 기타이익(손실), 금융수익, 금융원가, 법인세비용의 합계금액
 자료: 저자 작성

기초분석을 통해 한국가스공사는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가스공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타 손익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의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경영상 위기요인을 찾아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한국가스공사의 재무분석

가) 자산 분석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 공급사업과 대규모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중 이와 관련된 내역이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가스공사 자산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자산을 사업자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으로 구분한다. 사업자산은 주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 등 금융성이 존재하는 자산을 의미

한다. 기타자산은 사업자산과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이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76〉 한국가스공사 자산분석 구분

재무제표 구분	자산분석 구분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타자산
유동금융자산	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기타자산
재고자산	사업자산
당기법인세자산	기타자산
유동비금융자산	기타자산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 집단	기타자산
비유동자산	
비유동금융자산	금융자산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기타자산
유형자산	사업자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사업자산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사업자산

자료: 저자 작성

한국가스공사의 전체자산 37.1조원 중 사업자산은 29.5조원, 금융자산은 0.6조원, 기타자산은 7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통해 사업자산이 전체자산의 7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77〉 한국가스공사 자산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규모	비중
자산총계	30,025	36,015	40,622	43,666	46,772	42,385	39,928	37,139	100
사업자산	19,531	23,919	25,463	28,809	32,588	32,499	31,264	29,545	79.6
금융자산	421	383	493	747	772	628	765	576	1.6
기타자산	10,073	11,713	14,666	14,111	13,412	9,259	7,899	7,019	18.9

자료: 저자 작성

사업자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고자산 1.5조원, 유형자산 83.7, 무형자산 1.8조원, 투자지분 1.4조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산의 대부분은 유형자산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업에 필수적인 구축물, 기계장치 등이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인식한 탐사자산, 금융리스자산 등이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표 V-78〉 한국가스공사 사업자산(자산)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규모	비중
사업자산	9,239	12,723	13,298	15,760	17,963	15,438	13,381	12,288	100
재고자산	2,157	3,360	1,894	2,493	3,579	1,795	1,070	1,542	5.2
유형자산	16,237	17,493	19,583	22,458	25,032	26,455	26,042	24,723	83.7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424	1,749	2,407	2,075	2,234	2,521	2,416	1,814	6.1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	714	1,317	1,579	1,782	1,742	1,727	1,736	1,465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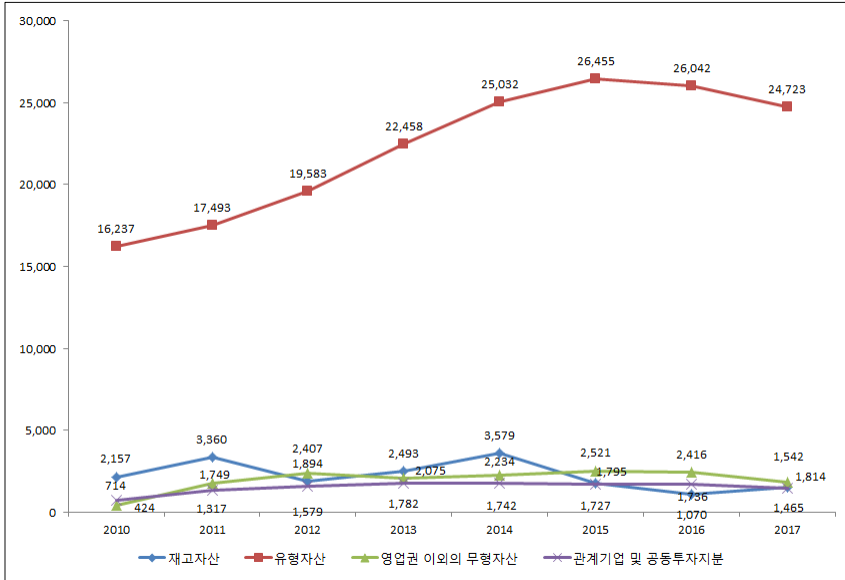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사업자산의 연도별 변화 금액은 유형자산이 가장 크다.⁴⁵⁾ 유형자산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하여 178조원이 변동하였으며 연도별로 평균 4조원의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 동 기간 동안 무형자산은 15.6조원, 투자지분은 12조원 변동하였으며, 각각 0.6조원 0.4조원의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45) 다만, 누적금액이 아닌 계정금액 대비 변화량은 재고자산, 무형자산, 투자지분, 유형자산 순이다.

[그림 V-13] 한국가스공사 사업자산 추이

(단위: 십억원)



자료: 저자 작성

한국가스공사의 자산분석을 종합해보면, 공사의 사업자산은 대부분 유형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별 추이 분석 시에도 큰 변동 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원개발사업 경과에 따라 변화한 것이므로 유형자산의 변동 요인을 주의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V-79> 한국가스공사 자산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변동폭이 매우 높음

자료: 저자 작성

나) 부채분석

한국가스공사의 효과적인 부채 분석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적용하였던 기준을 사용하여 부채를 차입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로 분류한다. 2017년

한국가스공사의 총부채는 29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차입부채가 22.1조원, 총당부채 0.3조원, 기타부채 6.6조원으로 집계되었다.

〈표 V-80〉 한국가스공사 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규모	비중
부채총계	22,295	27,971	32,253	34,734	37,048	32,328	30,541	28,999	100
차입부채	15,616	20,058	24,326	26,801	28,456	26,010	24,151	22,118	76.3
총당부채	120	135	139	240	272	261	181	271	0.9
기타부채	6,559	7,778	7,788	7,693	8,320	6,057	6,210	6,611	22.8

자료: 저자 작성

① 차입부채의 유형별 분석

차입부채는 차입금과 사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사채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의 설비투자 및 해외사업 확대에 따른 회사채를 다수 발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어 공사의 부채부담이 되고 있다.

〈표 V-81〉 한국가스공사 차입부채(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규모	비중
차입부채	15,616	20,058	24,326	26,801	28,456	26,010	24,151	22,118	100
차입금	2,757	3,987	5,146	3,944	3,895	1,745	453	774	3.6
사채	12,859	16,071	19,180	22,856	24,561	24,265	23,698	21,343	96.5

자료: 저자 작성

② 차입부채의 유동/비유동 분석

차입부채 중 사채의 추이를 유동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비유동 사채는 증가하다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동사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입금은 비유동차입금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유동차입금은 감소하다 2017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V-82〉 한국가스공사 유동차입부채(차입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규모	비중
유동차입부채	4,127	4,838	6,907	5,477	6,126	3,662	2,632	3,429	100
유동차입금	2,141	3,478	4,737	3,318	3,651	1,300	32	612	17.8
유동사채	1,986	1,360	2,170	2,159	2,475	2,362	2,600	2,817	82.2
비유동차입부채	11,489	15,220	17,419	21,323	22,330	22,348	21,518	18,689	100
비유동차입금	616	509	409	626	244	445	421	163	0.9
비유동사채	10,873	14,711	17,010	20,697	22,086	21,904	21,098	18,526	99.1

자료: 저자 작성

③ 차입부채의 외화/원화 분석

차입부채의 통화별 부채를 살펴보면, 2017년 외화부채가 전체 차입부채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화부채는 2010년 약 45%으로 과반 이하 비율을 보였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2014년 외화부채는 약 62%로 최고 비율을 보였다. 차입부채의 비중은 2016년까지 소폭 하락하였지만 2017년 다시 54%로 나타났다. 즉, 한국가스공사의 차입부채의 과반 이상은 외화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비율과 외화환산차손 등을 주의깊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83〉 한국가스공사 외화부채(차입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규모	비중
원화부채	8,511	10,826	11,530	12,173	10,892	13,113	11,106	10,281	46.5
외화부채	7,105	9,232	12,796	14,627	17,564	12,897	13,045	11,837	53.5

자료: 저자 작성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분석을 종합해 보면, 부채는 대부분 자본조달을 위한 사채 발행에 따라 발생하였다. 차입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유동사채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동사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비유동차입부채의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나타

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차입부채의 과반 이상은 외화부채로 나타났으며,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차입과 관련한 부채, 유동성, 통화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V-84〉 한국가스공사 부채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사채	대규모 자본 조달로 인해 회사채를 다수 발행
유동사채	비유동 사채의 유동성 대체
외화부채	전체 부채 중 외화부채의 높은 비중

자료: 저자 작성

다) 손익분석

한국가스공사의 2017년 매출은 22.2조원이며, 매출원가는 20.7조원으로 1조원의 영업이익을 보였다. 기타손실 등을 가감하여 0.4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표 V-85〉 한국가스공사 수익·비용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수익(매출액)	22,740	28,430	35,031	38,063	37,285	26,053	21,108	22,172	230,882
매출원가	-21,437	-27,109	-33,422	-36,215	-35,857	-24,668	-19,775	-20,729	-219,212
매출총이익(손실)	1,303	1,321	1,609	1,848	1,428	1,385	1,333	1,443	11,670
판매비외관리비	-255	-297	-343	-360	-356	-377	-416	-409	-2,813
영업이익(손실)	1,048	1,023	1,267	1,488	1,072	1,008	918	1,034	8,857
기타수익	2	2	5	6	5	7	4	7	39
기타비용	-14	-15	-13	-15	-52	-21	-19	-31	-178
기타이익(손실)	-66	7	8	-610	-16	-96	-1,071	-1,700	-3,544
금융수익	596	492	500	855	529	716	754	883	5,325
금융원가	-1,314	-1,262	-1,363	-1,694	-1,250	-1,428	-1,550	-1,592	-11,453
관계기업·공동기업·종속기업관련이익(손실)	115	142	115	118	97	90	115	149	940
법인세비용	-92	-215	-156	-353	63	42	176	59	-475
당기순이익(손실)	275	175	362	-204	447	319	-674	-1,192	-491

자료: 저자 작성

한국가스공사 사업별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다. 수익(매출액)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 정부보조금 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 전체의 95.8%를 차지하고 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과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 정부보조금수익 기타수익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부문의 매출이 높은 만큼 매출원가 또한 재화의 판매로 인한 부문이 전체 매출원가의 96.8%를 차지하여 매출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출총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화의 판매로 인한 부문은 평균 4.7%의 수익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부문은 매출총이익률이 다소 높은 편이나 변동성이 크다.

〈표 V-86〉 한국가스공사 사업별 매출액·매출원가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재화판매사업									
매출액	22,590	28,181	34,522	37,491	36,745	25,488	20,318	21,243	226,578
매출원가	21,376	26,923	33,030	35,806	35,514	24,262	19,182	20,066	216,158
매출총이익	1,214	1,258	1,492	1,685	1,231	1,226	1,136	1,177	10,420
용역제공사업									
매출액	110	202	471	530	469	506	710	808	3,805
매출원가	56	169	377	383	312	382	569	614	2,863
매출총이익	54	33	94	147	157	124	141	194	942
건설계약사업									
매출액	6	5	3	21	21	8	5	14	84
매출원가	5	4	2	19	20	7	5	13	76
매출총이익	1	1	1	2	1	1	0	1	8
기타사업									
매출액	34	42	35	21	50	51	75	107	415
매출원가	0	13	13	7	11	17	19	36	115
매출총이익	34	29	22	14	39	34	56	71	300

자료: 저자 작성

한국가스공사의 손익 중 기타이익(손실)의 변동성이 높은 것은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무형자산손상차손으로 확인된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하여 유가하락 등의 원인으로 상당한 금액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 V-87〉 한국가스공사 기타이익(손실)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기타이익(손실)	-66	7	8	-610	-16	-96	-1,071	-1,700	-2,906
유형자산손상차손	0	-10	0	0	-44	-75	-716	-1,317	-1,672
무형자산손상차손	-65	0	0	-604	0	-24	-289	-316	-1,076
기타	-1	17	8	-6	28	3	-66	-67	-158

자료: 저자 작성

한국가스공사의 손익분석을 종합하면, 영업이익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손익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내역을 보면, 유·무형자산손상차손과 금융비용의 규모가 커서 2016~2017년 당기순손실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형자산 변동 폭이 크고, 높은 수준의 차입부채에 따른 결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의 유·무형자산 손상 및 이자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V-88〉 한국가스공사 손익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금융비용	대규모 자본 조달에 따른 높은 금융비용
손상차손	자산손상으로 인한 유형자산 변동

자료: 저자 작성

라) 현금흐름 분석

한국가스공사의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양(+)의 값,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음(-)의 값을 나타낸다.

〈표 V-89〉 한국가스공사 현금흐름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982	-471	403	1,360	2,030	5,456	4,769	2,508	17,037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1,770	-3,663	-4,715	-4,469	-3,675	-2,247	-2,079	-1,226	-23,845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776	4,117	4,477	3,126	1,597	-3,266	-2,377	-1,266	7,183

자료: 저자 작성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11년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다만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으로 인해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90〉 한국가스공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82	-471	403	1,360	2,030	5,456	4,769	2,508	17,037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625	204	1,175	2,144	2,869	6,288	5,705	3,874	23,882
배당금수취	113	149	122	133	139	127	41	103	927
이자지급	-768	-835	-903	-923	-972	-979	-926	-889	-7,196
이자수취	17	18	14	12	14	23	33	31	162
법인세환급(납부)	-5	-8	-3	-6	-20	-3	-84	-611	-738

자료: 저자 작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금융투자관련 활동과 유무형자산관련 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유무형자산 관련 현금흐름 유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특성상 현금유출이 큰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금융투자관련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

났다. 이는 해외사업을 위한 지분 취득과 처분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확인된다.

〈표 V-91〉 한국가스공사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1,770	-3,663	-4,715	-4,469	-3,675	-2,247	-2,079	-1,226	-23,845
유무형자산관련 현금흐름	-1,799	-3,382	-4,288	-4,385	-3,706	-2,441	-1,899	-1,243	-23,143
금융투자관련 현금흐름	-8	-316	-409	-213	-69	181	-156	129	-861
기타의 현금흐름	37	34	-19	129	100	13	-24	-112	159

자료: 저자 작성

한국가스공사의 현금흐름 분석을 종합해보면, 한국가스공사는 불규칙적인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규모 사업에 따른 자본조달로 인한 이자지급 금액의 규모에 기인하므로 창출한 현금을 통해 부채 상환 여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무형자산 관련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높아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표 V-92〉 한국가스공사 현금흐름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이자지급	대규모 사업에 따른 이자지급
유무형자산 관련 현금흐름	변동성이 높아 지속적인 추적관찰 필요

자료: 저자 작성

마) 재무비율 분석

한국가스공사의 수익성 비율 중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안정적 수입구조에 따라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은 변동성이 높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수익성이 양호하지 않으며, 기관의 자산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V-93〉 한국가스공사 수익성 비율

(단위: %)

지표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4.6	3.6	3.6	3.9	2.9	3.9	4.3	4.7
	매출액순이익률	1.2	0.6	1.0	-0.5	1.2	1.2	-3.2	-5.4
	총자산순이익률		0.5	0.9	-0.5	1.0	0.7	-1.6	-3.1
	자기자본순이익률		2.3	4.5	-2.3	4.8	3.2	-7.0	-14.1

자료: 저자 작성

안전성 비율은 역시 수익성 비율과 유사하게 2014년을 정점으로 악화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의 대규모 투자와 그에 따른 손실로 인하여 안정성지표의 개선이 제한적으로 보이고 해외자원개발의 사업투자와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개선 방안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V-94〉 한국가스공사 안전성 비율

(단위: %)

지표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안전성	유동비율	138.0	147.3	115.7	146.8	139.8	174.8	153.8	115.0
	부채비율	288.4	347.7	385.4	388.8	381.0	321.5	325.4	356.2
	자기자본비율	25.7	22.3	20.6	20.5	20.8	23.7	23.5	21.9
	이자보상비율	165.0	141.4	147.7	177.7	127.1	129.8	109.1	124.6

자료: 저자 작성

현금흐름 비율은 2011년을 제외하고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낸다. 2015년 영업현금흐름이 일시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현금흐름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V-95〉 한국가스공사 현금흐름 비율

(단위: %)

지표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 대 매출액	4.3	-1.7	1.2	3.6	5.4	20.9	22.6	11.3
	영업현금흐름 대 총부채	4.4	-1.7	1.3	3.9	5.5	16.9	15.6	8.6
	영업현금흐름 대 총자산	3.3	-1.3	1.0	3.1	4.3	12.9	11.9	6.8
	영업현금흐름 대 유동부채	15.4	-5.8	4.0	16.3	20.6	95.2	85.8	38.0

자료: 저자 작성

한국가스공사의 재무비율 분석을 종합해보면, 한국가스공사의 재무비율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추세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V-96〉 한국가스공사 재무비율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수익성, 안전성, 현금흐름	수익성, 안전성, 현금흐름 비율 모두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

자료: 저자 작성

(3) 한국가스공사의 조기경보시스템

가) 조기경보지표

한국가스공사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재무현황 분석을 통해 공사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여 조기경보지표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관별 분석결과 한국가스공사는 차입위험과 사업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입위험 지표와 사업위험 지표를 구성한다.

〈표 V-97〉 한국가스공사 기관별 분석 결과

기초분석	재무분석	조기경영지표
대규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사채) 부채(유동사채) 손익(금융비용) 현금흐름(이자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입위험(차입부채비율) 차입위험(유동부채율)
해외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외화부채) 자산(유형자산) 현금흐름(유무형자산 관련 현금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입위험(외화부채율) 사업위험(사업자산비율) 사업위험(사업자산회전율)
기타손익의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익(손상차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위험(자산손상률)

자료: 저자 작성

차입위험지표는 차입부채비율, 비유동부채비율, 외화부채율을 사용한다.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사의 수익성을 파악하는 데 유익하다. 한국가스공사는 대부분의 부채를 차입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차입부채비율을 사용하여 공사의 안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차입부채비율은 차입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또한 공사의 차입부채 특성을 살펴본 결과 유동차입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동차입부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유동차입부채 관리를 통해 단기적인 부채상환을 파악하고 위험을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유동차입부채를 차입부채로 나눈 유동부채율을 사용한다. 공사는 대규모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기에 외화부채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환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화부채율을 사용한다. 외화부채율은 외화부채를 차입부채로 나누어 활용한다.

〈표 V-98〉 한국가스공사 차입위험 지표 및 산식

지표명	지표산식
차입부채비율	(차입부채/자기자본)*100
유동부채율	(유동차입부채/차입부채)*100
외화부채율	(외화부채/차입부채)*100

자료: 저자 작성

사업위험 지표는 사업자산비율, 사업자산회전율, 자산손상률을 사용한다. 재무현황 분석결과 한국가스공사는 대규모, 해외사업,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기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자산을 사업자산으로 분류하여 규모와 추세를 분석한 결과 동 자산을 주의 깊게 관리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자산의 증감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산비율은 사업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산의 효율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사업자산회전율을 주요사업 지표에 포함한다. 따라서 주요사업을 매출액으로 나눈 사업자산회전율을 활용하여 기관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의 사업 특성상 불규칙적인 유무형자산의 손상이 발생한다. 유무형자산의 손상은 기관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히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손익계산서 기타이익(손실)의 유형자산손상차손과 무형자산손상차손의 합계금액을 재무상태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연간 평균금액을 나눈 자산손상률 지표를 활용하여 조기경보지표를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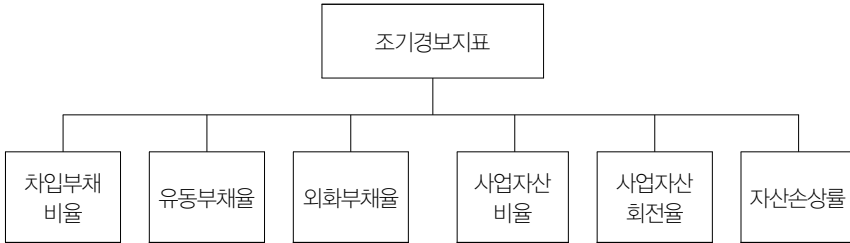
〈표 V-99〉 한국가스공사 사업위험 지표 및 산식

지표명	지표산식
사업자산비율	(사업자산/자기자본)*100
사업자산회전율	(사업자산/매출액)*100
자산손상률	(유형자산손상차손+무형자산손상차손) /(평균유형자산+평균무형자산)*100

자료: 저자 작성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차입부채비율, 외화부채율, 비유동부채율, 사업자산비율, 사업자산회전율, 자산손상률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조기경보지표를 구성한다.

[그림 V-14] 한국가스공사 조기경보지표



자료: 저자 작성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초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출범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토지·도시 개발 및 주택 건설 등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V-100〉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사업기능

구분	내용
도시조성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 및 주택난 해소(민간임대주택 공급)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거복지	사회취약계층의 현 생활권 내에서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도모
도시재생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문제의 해결
경제기반	산업업지의 원활한 공급 및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산업발전 촉진
토지비축	공공 목적의 토지 확보와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원 마련 및 혁신도시 활성화
국책개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국가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자료: ALIO(<http://alio.go.kr/alioSystem.do>), 검색일: 2018. 8. 2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기준으로 173.7조원의 자산과 130.9조원의 부채 및 42.8조원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V-101〉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규모	비중
자산총계	147,879	158,473	167,762	173,348	171,620	169,889	172,322	173,683	100
유동자산	85,380	92,250	95,037	97,005	92,198	87,168	86,772	84,456	48.6
비유동자산	62,499	66,223	72,724	76,343	79,422	82,722	85,549	89,227	51.4
부채총계	121,527	130,571	138,122	142,260	137,881	134,188	133,347	130,932	100
유동부채	30,213	34,109	38,184	39,293	36,366	48,194	51,745	52,902	40.4
비유동부채	91,314	96,462	99,938	102,967	101,515	85,995	81,602	78,031	59.6
자본총계	26,352	27,902	29,640	31,087	33,739	35,701	38,975	42,751	100
납입자본	21,640	22,414	23,076	23,889	25,777	26,843	28,037	29,389	68.7
이익잉여금	4,747	5,519	6,656	7,271	8,037	8,939	11,020	13,361	31.3
기타	-35	-31	-92	-73	-75	-81	-82	1	0

자료: 저자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출자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정부가 84.8%, 한국산업은행이 12.7%, 한국수출입은행이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운영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표 V-102〉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현황

(단위: 백만원, %)

주주명	납입 자본금	지분율
대한민국 정부	24,917,732	84.8
한국산업은행	3,732,018	12.7
한국수출입은행	738,978	2.5

자료: ALIO(<http://alio.go.kr/alioSystem.do>), 검색일: 2018. 8. 2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7년 매출은 23.6조원이며, 매출원가는 19.9조원으로 매출총이익 3.6조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3조원 및 2.8조원으로 집계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이후 지속해서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어 운용 측면에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V-103〉 한국토지주택공사 손익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익(매출액)	13,161	15,260	18,372	18,273	21,242	23,757	22,968	23,559
매출원가	-12,411	-13,731	-16,455	-16,957	-19,664	-21,764	-19,229	-19,939
매출총이익	750	1,528	1,917	1,315	1,578	1,994	3,739	3,621
판매비와관리비	-400	-439	-508	-486	-466	-522	-563	-619
영업이익	350	1,090	1,409	829	1,112	1,471	3,176	3,001
금융수익	354	445	511	494	427	275	350	229
금융원가	-814	-586	-754	-858	-975	-878	-1,037	-470
기타손익 ¹⁾	620	-158	39	246	284	112	-252	29
당기순이익	510	791	1,205	711	848	980	2,237	2,789

주: 1) 기타수익, 기타비용, 기타이익(손실), 관계기업공동기업중속기업관련이익(손실), 법인세비용 합계
자료: 저자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초분석 결과 안정적인 재무상태 및 경영성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기능을 확인해 볼 때 정책사업과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분석

가) 자산 분석

2017년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은 유동자산 48.6%와 비유동자산 51.4%로 구성되어 있다. 유동자산의 경우 분양사업 운영에 따른 재고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유동자산의 경우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투자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

분석은 재고자산 및 투자부동산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V-104〉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규모	비중
자산총계	147,879	158,473	167,762	173,348	171,620	169,889	172,322	173,683	100
유동자산	85,380	92,250	95,037	97,005	92,198	87,168	86,772	84,456	48.6
비유동자산	62,499	66,223	72,724	76,343	79,422	82,722	85,549	89,227	51.4

자료: 저자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은 주요 사업유형에 따라 재고자산(분양사업), 투자부동산(임대사업), 기타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표 V-80〉과 같다. 2017년 기준으로 투자부동산이 총자산 대비 4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재고자산이 40.3%에 달하고 있다.

〈표 V-105〉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별 자산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분양사업	재고자산	76,464	83,455	85,058	86,719	81,403	76,754	74,860	70,032 (40.3)
임대사업	투자부동산	55,298	59,136	65,585	70,302	75,179	79,279	81,999	85,540 (49.3)
기타	기타자산 (금융자산 등)	16,118	15,883	17,119	16,327	15,038	13,856	15,463	18,111 (19.4)
합 계		147,879	158,473	167,762	173,348	171,620	169,889	172,322	173,683 (100.0)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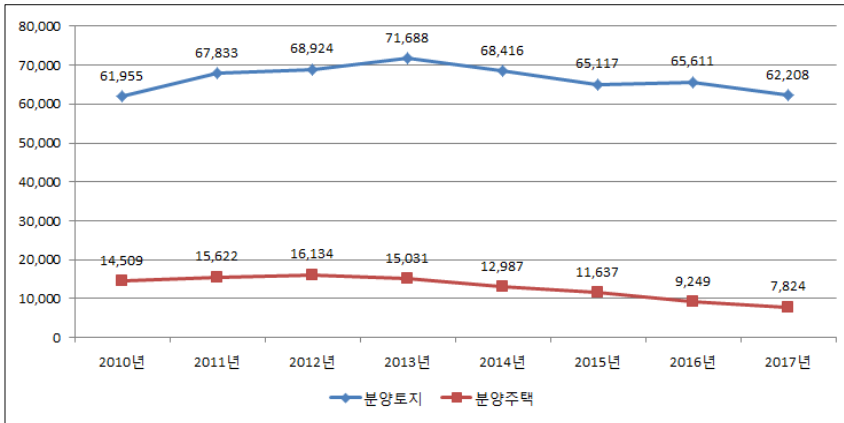
① 재고자산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사업,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정책에 따른 분양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관련 분양토지 및 분양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분양토지의 경우 2010년 61.9조원에서 2013년 71.7조원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62.2조원 수준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2010년 14.5조원에서 2012년 16.1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7.8조원을 기록하였다.

[그림 V-15]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자산(토지, 주택)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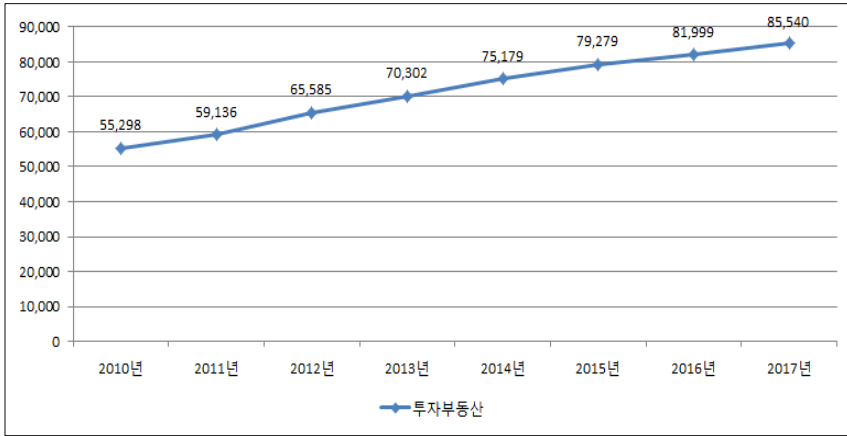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② 투자부동산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사업 운영에 따른 관련 임대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투자부동산은 2010년 55.3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85.5조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사업은 사업자의 부채부담이 크며, 사업 특성상 초기 대규모 집중투자가 선행된 후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구조로 임대사업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기관 운영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림 V-16] 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부동산

(단위: 십억원)



자료: 저자 작성

〈표 V-106〉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투자부동산	임대주택사업의 특성상 임대사업물량 증가는 기관의 재정부담으로 전이 가능

자료: 저자 작성

나) 부채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017년 기준으로 총 130.9조원으로 유동부채 52.9조원(40.4%), 비유동부채 78.0조원(59.6%)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도시, 택지와 산업단지, 임대주택 건설 등 대규모 정부의 토지·주택 정책사업 진행으로 인해 2013년까지 부채가 크게 증가했지만, 2014년부터는 매출호조 등에 따른 수입금 증가로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V-107〉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규모	비중
부채총계	121,527	130,571	138,122	142,260	137,881	134,188	133,347	130,932	100
유동부채	30,213	34,109	38,184	39,293	36,366	48,194	51,745	52,902	40.4
비유동부채	91,314	96,462	99,938	102,967	101,515	85,995	81,602	78,031	59.6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효과적인 부채 분석을 위해 부채를 차입부채, 총당부채, 기타부채로 재분류⁴⁶⁾하였다. 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차입부채는 76.7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기타부채⁴⁷⁾ 39.3조원으로 전체의 30.0%, 총당부채는 14.9조원으로 전체의 11.4% 수준으로, 차입부채와 기타부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V-108〉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분류 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부채총계	121,527	130,571	138,122	142,260	137,881	134,188	133,347	130,932	100.0
차입부채	84,521	89,824	96,483	106,034	98,834	90,167	83,439	76,727	58.6
총당부채	406	682	8,169	9,384	9,352	10,944	12,560	14,901	11.4
기타부채	36,600	40,065	33,470	26,842	29,694	33,077	37,348	39,305	30.0

자료: 저자 작성

① 차입부채의 유형별 분석

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입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차입금은 33.6조원으로 차입부채 중 44.0%이며, 주로 주택도시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17년 29.6조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채는 42.7조원으로 차입부채 중 56.0%를 차지하며, 차입부채 중 사채비중은 2010년 67.4%에서 2017년 56%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46) 한국도로공사 참고

47) 2017년 기준으로 선수금 11.9조원, 임대보증금 21.6조원 등으로 구성

〈표 V-109〉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입부채(재분류 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차입부채	84,420	89,774	96,209	105,764	98,630	90,011	83,310	76,561
차입금	27,509	31,106	37,156	44,687	39,477	35,252	34,008	33,662
사채	56,911	58,668	59,053	61,078	59,153	54,759	49,302	42,900
사채비중(B/A)	67.4	65.4	61.4	57.7	60.0	60.8	59.2	56.0

자료: 저자 작성

② 차입부채의 유동/비유동 분석

차입부채 중 1년 이내 상환의무가 도래하는 유동부채비율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2010년 12.5%에서 2012년 18.0%까지 증가하였다가 2015년 이후에는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불황 시 유동부채 비중이 높은 경우 차입금 등에 대한 Roll-over(상환연장)가 되지 않아 유동성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유동부채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규모가 매우 커서 조기경보지표에 포함해서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표 V-110〉 한국토지주택공사 유동 및 비유동차입부채(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차입부채총계(A)	84,420	89,774	96,209	105,764	98,630	90,011	83,310	76,561
유동차입부채(B)	10,564	13,316	17,349	17,762	14,388	15,547	14,593	13,079
비유동차입부채	73,856	76,458	78,859	88,002	84,242	74,464	68,717	63,482
유동부채비율(B/A)	12.5	14.8	18.0	16.8	14.6	17.3	17.5	17.1

자료: 저자 작성

③ 차입부채의 외화/원화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7년 기준으로 차입부채 76.6조원 중 외화부채는 1.7조원으로 차입부채의 2.2%를 차지하였다. 기관의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고, 그 변동 수준 또한 크지 않아 별도의 지표로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11〉 한국토지주택공사 원화 및 외화차입부채(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차입부채(A)	84,420	89,774	96,209	105,764	98,630	90,011	83,310	76,561
원화부채	81,812	87,744	94,108	103,229	96,650	88,316	81,438	74,865
외화부채(B)	2,608	2,030	2,101	2,535	1,980	1,695	1,872	1,696
외화비중(B/A)	3.1	2.3	2.2	2.4	2.0	1.9	2.2	2.2

자료: 저자 작성

④ 기타부채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여타 다른 기관과는 달리 기타부채의 규모가 큰 편으로, 2017년 기준 39.3조원으로 전체부채의 30.0%를 차지한다. 주요 내역을 검토해보면,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보증금이 2017년 기준 21.2조원으로 가장 큰 편이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사업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증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선수금이 2017년 기준 11.9조원에 달하는데 주로 대규모 건설투자사업 운영에 따른 분양선수금으로 최근 대금회수 호조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V-112〉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 및 선수금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증금	9,158	10,760	11,653	13,137	15,059	17,019	19,443	21,239
선수금	10,561	10,425	9,276	8,739	9,259	9,658	11,598	11,941

자료: 저자 작성

〈표 V-113〉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이자지급	대규모 사업에 따른 이자지급
유무형자산 관련 현금흐름	변동성이 높아 지속적인 추적관찰 필요

자료: 저자 작성

다) 손익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은 크게 분양사업(토지, 주택), 임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매출 및 관련 원가의 사업별 추이를 분석해보면 [그림 V-18]과 같다. 분양토지사업의 매출총이익률은 부동산 경기호황에 따른 판매가격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7년 22.4%를 기록하였다. 분양주택사업의 경우 최저 7.5%에서 최고 14.1%의 매출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임대사업의 경우 국민, 영구, 공공임대 등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임대주택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매출총이익률이 (-)를 기록하고 있으며, 관련 손실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기관 전체적으로는 분양사업의 이익이 임대사업의 손실을 상쇄해서 이익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사업은 주로 주거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서비스로 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수익성보다는 주거안전 및 주거복지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지만, 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익을 분석해보면 분양사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임대사업에서는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할수록 기관의 손실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기관이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임대사업의 확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V-114〉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별 매출액·매출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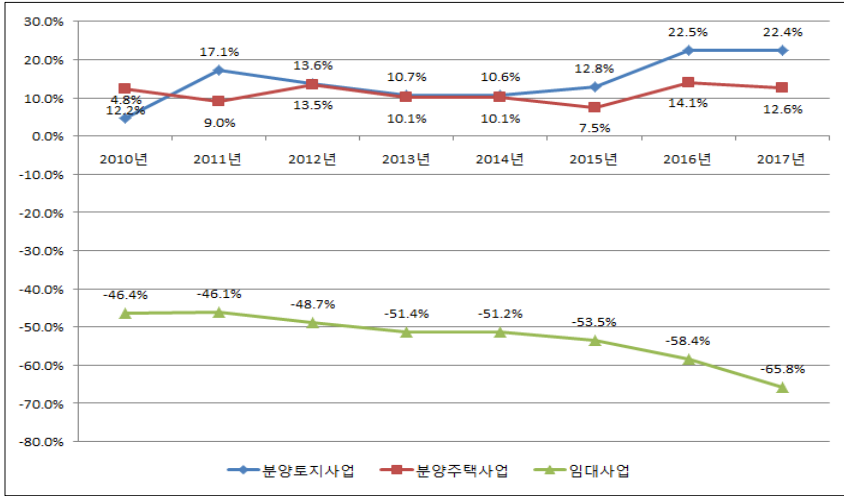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분양토지사업								
매출액	5,969	7,638	12,291	10,892	13,757	17,501	16,899	17,533
매출원가	5,685	6,328	10,614	9,727	12,297	15,254	13,102	13,605
매출총이익	285	1,310	1,677	1,165	1,459	2,247	3,796	3,928
분양주택사업								
매출액	6,200	6,522	4,858	6,116	6,198	4,902	4,574	4,382
매출원가	5,444	5,933	4,202	5,497	5,572	4,536	3,929	3,830
매출총이익	756	589	655	619	626	367	645	552
임대사업								
매출액	663	770	870	919	1,020	1,100	1,194	1,301
매출원가	970	1,125	1,294	1,391	1,541	1,688	1,891	2,156
매출총이익	-307	-355	-424	(472)	(522)	(589)	(697)	(856)
기타사업								
매출액	329	330	353	346	267	254	301	344
매출원가	312	345	345	343	254	285	306	347
매출총이익	17	-15	8	4	14	(31)	(6)	(3)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17]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별 매출총이익률 추이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표 V-115> 한국토지주택공사 손익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매출총이익(임대사업)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할수록 기관의 손실 증가

자료: 저자 작성

라) 현금흐름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양(+)의 값,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음(-)의 값을 나타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16〉 한국토지주택공사 현금흐름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097	-2,389	-785	3,036	9,161	11,712	9,959	11,55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356	-6,372	-6,590	-5,034	-6,660	-5,062	-4,884	-4,80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051	6,952	6,714	2,099	-2,149	-7,198	-5,015	-5,560

자료: 저자 작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주택관리사업의 임대수익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지출 등 투자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나타났다.

〈표 V-117〉 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356	-6,372	-6,590	-5,034	-6,660	-5,062	-4,884	-4,805
투자부동산의 취득	-8,013	-4,557	-5,939	-6,542	-4,967	-4,634	-4,048	-4,569
기타	-343	-1,815	-651	1,508	-1,693	-428	-836	-236

자료: 저자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금흐름 분석을 종합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표 V-89〉의 현금흐름비율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표 V-118〉 한국토지주택공사 현금흐름 비율

(단위: %)

지표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현금	영업현금흐름 대 총부채	-7.5	-1.8	-0.6	2.1	6.6	8.7	7.5	8.8
흐름	영업현금흐름 대 유동부채	-30.1	-7.0	-2.1	7.7	25.2	24.3	19.2	21.8

자료: 저자 작성

〈표 V-119〉 한국토지주택공사 현금흐름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모두 안정적인 상태로, 특별한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기경보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조기경보지표를 구성하여 구축한다. 조기경보지표는 기관의 기초분석과 재무분석을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구성한다. 기관별 분석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운영위험과 차입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위험 지표와 차입위험 지표를 구성한다.

〈표 V-120〉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별 분석 결과

기초분석	재무분석	조기경영지표
정책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투자부동산) 손익(임대사업매출총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험(분양자산회전율) 운영위험(임대자산회전율)
대규모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차입부채) 부채(유동차입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입위험(차입부채비율) 차입위험(유동차입률) 사업위험(영업현금흐름대 차입부채)

자료: 저자 작성

운영위험 지표는 분양자산회전율, 임대자산회전율 지표를 사용한다. 분양자산회전율은 분양자산이 분양사업 매출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지표로 기관의 투자 효율성을 측정한다. 분양자산회전율은 자산의 분양사업 관련 매출을 분양재고자산(주택, 토지)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임대자산회전율은 투자부동산이 임대사업의 매출에 기여하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투자부동산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임대자산회전율은 임대사업수익을 투자부동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표 V-121〉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위험 지표 및 산식

지표명	지표산식
분양자산회전율	(분양사업수익/분양채고자산)*100
임대자산회전율	(임대사업수익/투자부동산)*100

자료: 저자 작성

차입위험은 차입부채비율, 유동차입률, 영업현금흐름대총부채비율 지표를 활용한다. 차입부채비율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입부채를 대상으로 하여 기관의 채무상환 능력 등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다. 차입부채비율은 차입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유동차입률은 차입부채 중 1년 이내 상환의무가 도래하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며, 유동차입부채를 차입부채로 나누어 산출한다. 영업현금흐름대총부채비율은 영업현금흐름을 총부채 금액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공사는 차입금 및 사채발행으로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있어 매년 이에 따른 현금유출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조기경보지표에 포함하여 영업현금흐름을 통해 총부채를 상환 능력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122〉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입위험 지표 및 산식

지표명	지표산식
차입부채비율	(차입부채/자기자본)*100
유동차입률	(유동차입부채/차입부채)*100
영업현금흐름대총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총부채)*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18〕 한국토지주택공사 조기경보지표



자료: 저자 작성

마. 한국철도공사

(1) 한국철도공사의 기초분석

한국철도공사는 2015년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V-123〉 한국철도공사 주요 사업기능

구분	내용
계량사업	노후 철도시설물·철도차량 개량을 통한 이용고객 편의 증진 및 안전성 확보
시설개량사업	철도시설물 개량을 통한 이용고객 편의 증진 및 안전성 확보
차량개량사업	철도차량 개량을 통한 이용고객 편의 증진 및 안전성 확보
차량구입	신규노선 개통 및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한 철도차량 구입
일반철도개량사업	적기 구조물 보수보강을 통한 사고예방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

자료: ALIO(<http://alio.go.kr/alioSystem.do>), 검색일: 2018. 8. 21.

한국철도공사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공사는 2017년 기준으로 19.9조원의 자산과 14.9조원의 부채, 5.0조원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은 1.7조원의 유동자산과 18.2조원의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고, 부채는 2.9조원의 유동부채와 12.0조원의 비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표 V-124〉 한국철도공사 재무상태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자산총계	21,047	22,179	20,185	22,065	22,208	18,199	18,513	19,878	100
유동자산	2,326	1,685	1,690	1,970	5,519	953	1,096	1,713	8.6
비유동자산	18,722	20,494	18,495	20,095	16,689	17,246	17,417	18,165	91.4
부채총계	12,624	13,456	14,321	17,338	17,861	13,450	13,744	14,881	100
유동부채	2,593	2,664	2,485	4,560	5,549	2,807	2,909	2,854	19.2
비유동부채	10,031	10,792	11,836	12,778	12,312	10,644	10,835	12,026	80.8
자본총계	8,424	8,723	5,864	4,726	4,347	4,749	4,769	4,998	100
납입자본	9,575	9,577	9,578	9,580	9,599	9,989	10,104	10,246	205.0
이익잉여금	-1,345	-989	-3,836	-8,068	-8,458	-8,283	-8,388	-9,228	-184.6
기타	194	135	122	3,214	3,206	3,043	3,053	3,980	80

자료: 저자 작성

한국철도공사의 출자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표 V-125〉 한국철도공사 출자현황

(단위: 백만원, %)

주주명	납입 자본금	지분율
대한민국정부	10,250,985	100

자료: ALIO(<http://alio.go.kr/alioSystem.do>), 검색일: 2018. 8. 21.

한국철도공사의 2017년 매출은 5.8조원이며, 매출원가는 5.9조원으로 매출총손실 및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은 -0.8조원으로 집계되었다.

〈표 V-126〉 한국철도공사 손익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수익(매출액)	4,545	4,514	4,815	4,866	5,094	5,516	5,694	5,787	40,830
매출원가	-4,762	-4,632	-4,753	-4,747	-4,720	-5,109	-5,232	-5,918	-39,873
매출총이익(손실)	-218	-118	63	119	373	407	461	-131	957
판매비와관리비	-230	-246	-268	-305	-273	-294	-340	-339	-2,294
영업이익(손실)	-448	-364	-205	-185	100	114	122	-470	-1,337
기타손익 ¹⁾	1,020	815	-2,615	-4,146	-438	-28	-348	-386	-6,125
당기순이익(손실)	572	451	-2,820	-4,331	-338	86	-226	-856	-7,462

주: 1) 기타수익, 기타비용, 기타이익(손실), 금융수익, 금융원가, 관계기업공동기업종속기업관련이익(손실), 법인세비용의 합계금액

자료: 저자 작성

한국철도공사의 정부로부터 직접지원을 받은 정부보조금 규모는 2017년 기준 2,962억원으로 기관 운영규모 대비 적은 편이며, 손실보전조항은 따로 없다.

〈표 V-127〉 한국철도공사 정부지원수입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조금	537,256	507,842	378,991	353,873	296,222

자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한국철도공사의 기초분석 결과 공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수익성은 2015년 일시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의 사업특성에 기반하여 기관의 재무적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철도공사의 재무분석

가) 자산 분석

2017년 기준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자산은 비유동자산 91.4%와 유동자산 8.6%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한국철도공사는 대부분의 자산을 비유동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V-128〉 한국철도공사 자산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자산총계	21,047	22,179	20,185	22,065	22,208	18,199	18,513	19,878	100
유동자산	2,326	1,685	1,690	1,970	5,519	953	1,096	1,713	8.6
비유동자산	18,722	20,494	18,495	20,095	16,689	17,246	17,417	18,165	91.4

자료: 저자 작성

2017년 기준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유동자산은 전체 자산의 약 8.6%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이 2017년 기준 51.7%,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28.1%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표 V-129〉 한국철도공사 유동자산(자산)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유동자산	2,326	1,685	1,690	1,970	5,519	953	1,096	1,713	100
현금 및 현금성자산	407	163	177	397	230	209	374	482	28.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022	678	745	766	396	449	358	886	51.7
재고자산	264	298	383	351	248	199	232	248	14.5
기타	633	546	385	456	4,645	96	132	97	5.7

자료: 저자 작성

한국철도공사 비유동자산의 대부분은 유형자산으로 2017년 기준으로 9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KTX, 일반철도 등의 철도여객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공사이기 때문이고, 전체 자산에서 유형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된다.

〈표 V-130〉 한국철도공사 비유동자산(자산)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비유동자산	18,722	20,494	18,495	20,095	16,689	17,246	17,417	18,165	100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7,123	8,647	6,295	4,075	598	566	541	235	1.3
유형자산	10,658	10,884	11,450	15,350	15,279	15,958	16,296	17,358	95.6
투자부동산	367	401	349	318	464	303	167	278	1.5
기타	574	562	401	352	348	419	413	294	1.6

자료: 저자 작성

비유동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토지, 철도차량, 건물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토지 56.7%, 철도차량 3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선로 등 철도건설 및 관리와 관련된 자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며,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등 철도운영과 관련된 자산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다. 주요 자산의 증감추이를 분석해보면, 2013년 및 2017년 토지가 각각 4.3조원, 1.1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토지재평가에 따른 증가이며, 대부분 자금유출을 수반한 자산 증가는 아닌 것

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철도차량의 경우 매년 평균 0.7조원⁴⁸⁾ 수준으로 투자활동이 이뤄져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V-131〉 한국철도공사 유형자산(자산-비유동자산)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유형자산	10,658	10,884	11,450	15,350	15,279	15,958	16,296	17,358	100
토지	4,336	4,312	4,345	8,652	8,535	8,629	8,772	9,842	56.7
건물	1,409	1,369	1,497	1,501	1,453	1,433	1,464	1,431	8.2
철도차량	3,912	3,740	4,088	4,243	4,428	4,882	5,211	5,283	30.4
기타	1,000	1,463	1,521	954	863	1,014	849	801	4.6

자료: 저자 작성

① 토지·건물 분석

유형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는 2013년과 2017년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재평가 등과 같은 급격한 자산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용역수익과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물의 경우 변동 폭이 작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므로 동일 기간 완만하게 증가한 용역수익과 연계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의 자산분석은 유형자산 중 토지·건물을 제외한 철도차량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② 철도차량 분석

철도차량의 추세는 회전율 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철도차량회전율은 철도차량이 얼마의 매출액을 벌어들이는지를 측정하는 활동성지표라고 할 수 있다. 철도차량회전율의 추이가 높아진다면, 그만큼 철도차량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고 철도차량회전율이 낮아진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철도차량회전율의 변동 폭이 크지 않으나, 회전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48) 연결감사보고서상 취득+기타증감 금액 기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규철도차량 도입 과정에 따른 철도차량 대수의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표 V-132〉 한국철도공사 철도차량회전율

(단위: 십억원, 대,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용역수익	3,747	3,869	4,183	4,355	4,543
평균철도차량	4,166	4,336	4,655	5,047	5,247
용역수익/평균철도차량 철도차량회전율	90.0	89.2	89.9	86.3	86.6

자료: 저자 작성

〈표 V-133〉 한국철도공사 자산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요인
철도차량	철도사업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있음

자료: 저자 작성

나) 부채 분석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는 2017년 비유동부채 80.8%, 유동부채 19.2%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1년 이내 상환의무가 도래하는 부채에 비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부채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나타낸다.

〈표 V-134〉 한국철도공사 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부채총계	12,624	13,456	14,321	17,338	17,861	13,450	13,744	14,881	100
유동부채	2,593	2,664	2,485	4,560	5,549	2,807	2,909	2,854	19.2
비유동부채	10,031	10,792	11,836	12,778	12,312	10,644	10,835	12,026	80.8

자료: 저자 작성

한국철도공사의 효과적인 부채 분석을 위해 부채를 차입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로 재분류하였다. 기존의 재무제표 구성은 유동성을 기준으로 구분

되어 있어, 부채 성격별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차입부채는 채무, 사채 등과 같이 자본조달을 위해 발생한 부채를 구분하며, 총당부채는 불확실성이 담보된 부채를 구분한다. 또한 그 외의 부채는 기타부채로 구분한다.

〈표 V-135〉 한국철도공사 부채분석 구분

재무제표 구분	부채분석 구분
유동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기타부채
유동금융부채	차입부채 ¹⁾
당기법인세부채	기타부채
유동비금융부채	기타부채
유동총당부채	총당부채
매각예정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기타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기타부채
비유동금융부채	차입부채 ²⁾
비유동비금융부채	기타부채
종업원급여채무	기타부채
비유동총당부채	총당부채

주: 1) 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유동파생상품부채, 기타유동금융부채 등은 제외
 2)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비유동파생상품부채, 기타비유동금융부채 등은 제외
 자료: 저자 작성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는 2017년 기준으로 총 14.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차입부채⁴⁹⁾는 약 11.8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9.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기타부채⁵⁰⁾는 약 2.2조원으로 전체의 14.6%, 총당부채는 전체의 6.0%로 부채가 구성되어 있다.

49)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사채 등으로 구성

50) 2017년 기준으로 종업원급여채무 0.9조원,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0.7조원

〈표 V-136〉 한국철도공사 재분류 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부채총계	12,624	13,456	14,321	17,338	17,861	13,450	13,744	14,881	100
차입부채	10,389	11,052	11,970	14,923	13,088	11,285	11,576	11,811	79.4
총당부채	70	105	322	490	373	374	403	898	6.0
기타부채	2,165	2,299	2,029	1,926	4,399	1,792	1,765	2,172	14.6

자료: 저자 작성

① 차입부채의 유형별 분석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입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차입금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여 2014년부터 대부분의 비중을 사채가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공사의 차입금 비중 감소는 공항철도 영업부문 매각에 따른 코레일 CP 상환과 공항철도 장기차입금의 기타부채(매각예정부채) 재분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채는 지속적으로 높은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국가 철도산업 등의 정책사업 진행으로 인해 회사채를 다수 발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V-137〉 한국철도공사 차입부채(재분류 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차입부채	10,389	11,052	11,970	14,923	13,088	11,285	11,576	11,811	100
차입금	2,967	2,926	2,714	4,599	192	385	158	124	1.0
사채	7,422	8,126	9,256	10,324	12,896	10,899	11,419	11,687	99.0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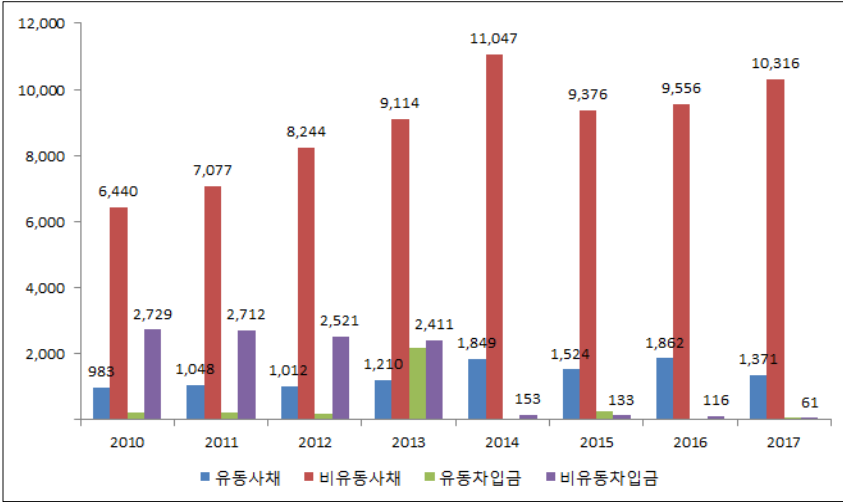
② 차입부채의 유동/비유동 분석

차입부채 중 차입금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사채는 지속적으로 높은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채의 추이를 유동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동사채는 연도별 비슷한 수준인 반면에 비유동사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비유동사채는 유동사채에 비해 증가폭이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19] 한국철도공사 차입부채 추이

(단위: 십억원)



자료: 저자 작성

③ 차입부채의 외화/원화 분석

한국철도공사의 2017년 차입부채 11.8조원 중 외화부채는 1.5조원으로 차입부채의 12.4%를 차지하였다. 외화부채 비중의 추이를 <표 V-106>에서 살펴보면 2010년 15.9%에서 2013년 9.4%까지 감소한 뒤 다소 증가하여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여타 다른 공공기관 대비 외화부채의 비중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공사의 해외사업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표 V-138〉 한국철도공사 원화 및 외화차입부채(부채)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차입부채(A)	10,389	11,052	11,970	14,923	13,088	11,285	11,576	11,811
원화부채	8,736	9,630	10,347	13,513	11,531	9,869	10,143	10,349
외화부채(B)	1,653	1,422	1,623	1,410	1,557	1,416	1,433	1,462
외화비중(B/A)	15.9	12.9	13.6	9.4	11.9	12.5	12.4	12.4

자료: 저자 작성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분석을 종합해 보면, 부채는 토지와 철도차량과 같은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유동사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사는 장기 사채 발행과 관련한 이자지급능력 및 원금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39〉 한국철도공사 부채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사채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다수의 사채 발행
비유동사채	장기사채 발행에 따른 원금상환 및 유동성 대체
외화부채	해외사업 확장에 따른 외화부채 증가

자료: 저자 작성

다) 손익 분석

수익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이 2017년 기준 4.5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철도여객·화물운송 등으로 인한 운송사업 등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과 수탁사업수익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으로 집계되었다.

〈표 V-140〉 한국철도공사 사업별 매출·매출원가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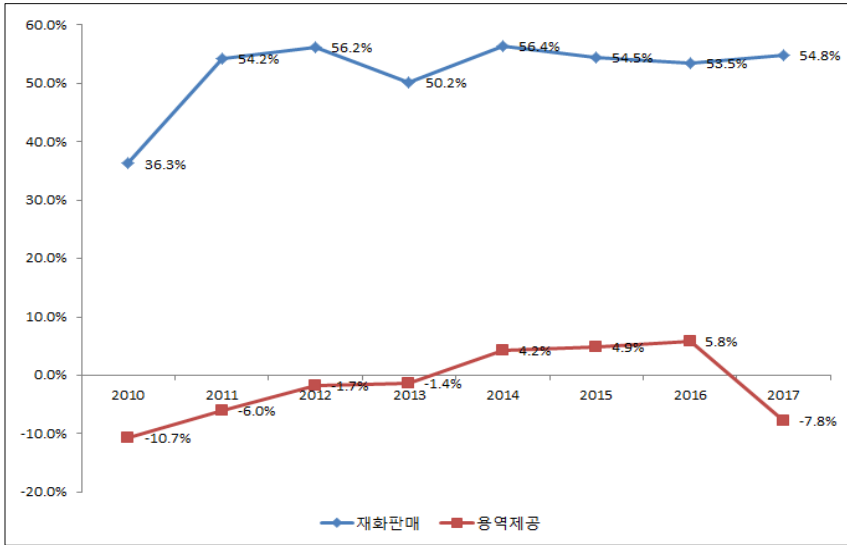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재화판매									
매출액	300	225	247	234	278	279	290	299	2,153
매출원가	191	103	108	117	121	127	135	135	1,038
매출총이익	109	122	139	117	157	152	155	164	1,115
용역제공									
매출액	3,787	4,211	4,562	3,747	3,869	4,183	4,355	4,543	33,258
매출원가	4,194	4,464	4,638	3,798	3,705	3,978	4,101	4,898	33,777
매출총이익	-407	-253	-76	-51	164	205	254	-355	-519
건설계약									
매출액	457	78	7	4	7	8	17	8	586
매출원가	377	64	7	-	7	7	17	8	487
매출총이익	80	14	0	4	0	1	0	0	99
수탁사업									
매출액	-	-	-	880	939	1,046	1,031	936	4,833
매출원가	-	-	-	832	887	997	979	876	4,571
매출총이익	-	-	-	48	52	49	52	60	262

자료: 저자 작성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용역제공의 매출총이익률은 2014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해서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 크게 감소하였다. 영위사업의 높은 공익성으로 인해 용역제공의 수익이 취약한 상태였으나 운임인상 등의 경영효율화 노력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2016년말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개시로 인해 2017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었다.

[그림 V-20] 한국철도공사 사업별 매출총이익률 추이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한국철도공사의 금융원가는 주로 이자비용으로 2017년 말 약 3,920억원이다. 차입부채의 증가로 인해 이자비용이 증가하다가 차입부채의 상환으로 이자비용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V-141〉 한국철도공사 금융비용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금융원가	-620	-593	-680	-515	-615	-572	-454	-528	-4,578
이자비용	552	557	563	456	539	481	420	392	3,961
기타	39	1	102	19	34	3	2	95	295

자료: 저자 작성

〈표 V-142〉 한국철도공사 손익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요인
매출총이익(용역제공)	공익적 사업 특성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

자료: 저자 작성

라) 현금흐름 분석

한국철도공사의 현금흐름은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주로 양(+)의 값,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주로 음(-)의 값을 나타낸다. 특히, 누적손실에 비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채조달을 통해 많은 자금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표 V-143〉 한국철도공사 현금흐름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7	153	79	291	691	938	743	509	3,46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90	-512	-569	-2,478	-771	684	-810	-464	-5,71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87	114	504	2,400	-128	-1,813	147	120	2,332

자료: 저자 작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로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신설노선에 따른 철도 차량의 취득과 노후화된 유형자산의 대체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44〉 한국철도공사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십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적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90	-512	-569	-2,478	-771	684	-810	-464	-5,710
유형자산의 취득	-928	-824	-787	-2,468	-709	-987	-906	-	-7,608
이자수취	102	116	102	68	20	15	7	-	430
기타의현금 흐름	36	196	116	-79	-82	1,655	89	-	1,931

자료: 저자 작성

〈표 V-145〉 한국철도공사 현금흐름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재무활동	부채조달을 통한 자금마련

자료: 저자 작성

마) 재무비율 분석

한국철도공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6년 말 SRT의 운행개시로 인해 크게 하락하였다. 2013년 용산사업 해체에 따른 손실로 인하여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이 많이 악화되었고, 그 이후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지만 철도산업의 공공재적·정책적 특성으로 인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표 V-146〉 한국철도공사 수익성 비율

(단위: %)

지표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9.9	-8.1	-4.3	-3.8	2.0	2.1	2.1	-8.1
	매출액순이익률	12.6	10.0	-58.6	-89.0	-6.6	1.6	-4.0	-14.8
	총자산순이익률		2.1	-13.3	-20.5	-1.5	0.4	-1.2	-4.5
	자기자본순이익률		5.2	-39.4	-84.1	-8.1	1.9	-4.4	-18.4

자료: 저자 작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비율 모두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저하된 수익성과 높은 차입금 및 사채의 부채과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도공사의 경우 용산사업 해체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2013년 2014년에 인식함에 따라 자기자본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용산사업해제손실은 총 4.6조원으로 철도공사의 재무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재무안전성이 양호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비율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차입금 감축 및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V-147〉 한국철도공사 안전성 비율

(단위: %)

지표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안전성	유동비율	89.7	63.2	68.0	43.2	99.5	33.9	37.7	60.0
	부채비율	149.9	154.3	244.2	366.8	410.9	283.3	288.2	297.8
	자기자본비율	40.0	39.3	29.1	21.4	19.6	26.1	25.8	25.1
	이자보상비율	-81.1	-65.3	-36.5	-40.6	18.6	23.6	28.9	-119.8

자료: 저자 작성

현금흐름 비율은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회계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을 이용하여 전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표 V-148〉 한국철도공사 현금흐름 비율

(단위: %)

지표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 대 매출액	1.3	3.4	1.6	6.0	13.6	17.0	13.0	8.8
	영업현금흐름 대 총부채	0.5	1.1	0.6	1.7	3.9	7.0	5.4	3.4
	영업현금흐름 대 총자산	0.3	0.7	0.4	1.3	3.1	5.2	4.0	2.6
	영업현금흐름 대 유동부채	2.2	5.8	3.2	6.4	12.4	33.4	25.5	17.8

자료: 저자 작성

〈표 V-149〉 한국철도공사 재무비율의 위험요인

구성요소	위험원인
수익성, 안전성	2015년부터 재무비율 악화

자료: 저자 작성

(3) 한국철도공사의 조기경보시스템

가) 조기경보지표

공사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조기경보지표를 구성하여 구축한다. 조기경보지표는 기관의 기초분석과 재무분석을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구성

한다. 기관별 분석을 통해 한국철도공사는 운영위험과 차입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위험 지표와 차입위험 지표를 구성한다.

〈표 V-150〉 한국철도공사 기관별 분석 결과

기초분석	재무분석	조기경영지표
공익적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투자부동산) 재무비율(수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험(분양자산회전율) 운영위험(임대자산회전율)
대규모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사채) 부채(비유동사채) 부채(외화부채) 손익(용역제공매출총이익) 현금흐름(재무활동) 재무비율(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입위험(차입부채비율) 차입위험(유동차입률) 차입위험(외화부채율) 사업위험(영업현금흐름대 차입부채)

자료: 저자 작성

운영위험 지표는 철도차량회전율을 사용한다. 재무분석 결과 운송사업의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적자 발생은 기관에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철도차량회전율 지표는 손익계산서상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평균철도차량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표 V-151〉 한국철도공사 운영위험 지표 및 산식

지표명	지표산식
철도차량회전율	(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익/철도차량)*100

자료: 저자 작성

차입위험은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인 부채비율을 공사의 특성에 맞춰 세분화하여 차입부채비율, 유동차입률, 외화부채율을 이용한다. 또한 현금흐름 비율의 영업현금흐름 대 차입부채비율을 활용한다. 차입부채비율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을 통해 차입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는 공사의 장기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차입부채비율은 차입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사

용한다. 유동차입률은 차입부채 중 1년 이내 상환의무가 도래하는 차입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며, 유동차입부채를 차입부채로 나누어 산출한다. 외화부채율은 부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화부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며, 이를 통해 환위험 등과 연계하여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화부채율은 외화부채를 차입부채로 나누어 사용한다.

영업현금흐름 대 차입부채 비율은 영업현금흐름을 차입부채 금액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공사는 차입금 및 사채발행으로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있어 매년 이에 따른 현금유출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조기경보지표에 포함하여 영업현금흐름을 통해 차입부채를 상환 능력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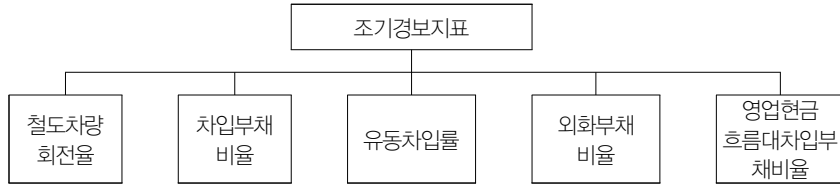
〈표 V-152〉 한국철도공사 차입위험 지표 및 산식

지표명	지표산식
차입부채비율	(차입부채/자기자본)*100
유동차입율	(유동차입부채/차입부채)*100
외화부채율	(외화부채/차입부채)*100
영업현금흐름 대 차입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차입부채)*100

자료: 저자 작성

조기경보지표는 재무비율 분석에서 활용된 지표들을 활용하며, 추가적으로 공사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한다. 이는 널리 유용성이 검증된 지표들을 활용함과 동시에 기관의 특수성에 적합한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림 V-21] 한국철도공사 조기경보지표



자료: 저자 작성

5.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도입방안

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겪은 뒤,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및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2010년 7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이 결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었다. 사전경보시스템의 평가지표는 5개 관점 및 7개 재정지표로 구성되어있다. 각 재정지표들은 행정안전부의 분기별 모니터링 및 서면검토를 통해 관리되며, 위기 지표들은 개별 기준에 따라 주의수준·심각수준 단계로 구분된다.

〈표 V-153〉 지방자치단체 모니터링 기준

관점	재정지표	주의수준	심각수준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25% 초과	30% 초과
채무관리	예산대비채무비율	25% 초과	40% 초과
	채무상환비율	12% 초과	17% 초과
세입관리	지방세징수액현황	50% 미만	0% 미만
자금관리	금고잔액현황	20% 미만	10% 미만
공기업	공기업부채비율	순자산의 4배 초과	순자산의 6배 초과
	개별공기업부채비율	순자산의 4배 초과	순자산의 6배 초과

자료: 배인명(2016), p. 86.

모니터링 양적 분석을 통해 발견한 위기 지표들은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정현황과 향후 전망을 고려한 질적 분석을 거친다. 이후 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는 국가정책 이행 관련성, 재난발생 여부 및 단기 회복가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정상/주의/심각 단계로 자치단체의 위험등급을 심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한다.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재정건전화계획이 권고된다. 심각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 및 신규 사업 추진이 제한되며, 지정 이후 60일 이내에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입증대·세출절감안의 자구책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 경보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적인 관리에 일조한다. 또한, 재정위기 자치단체를 주의·심각단계 단계로 구분 관리하여 선제적인 위기대처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이어져 국가 재정위기의 예비 위협요인을 관리하는 목적 또한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몇 가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현재 평가 지표는 조사한 시점의 지표이므로, 재정위기를 사전에 진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재정위기를 진단하기 위해선 지방재정운용의 추세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위기 진단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또한, 지표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해당 위가지표를 초래한 원인을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재무적 지표에 기초한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1997년 한국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뒤, 정부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시장안정성을 예측관리하기 위해 2005년 국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가 조기경보시스템은 7가지 부문으로 나뉘며 부문별로 독립적인 모형이 개발되었다. 그 중 금융시장부문의 조기경보모형은 채권·주식·대

출 시장의 불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한 다음의 3단계 모형으로 이루어져있다.

〈표 V-154〉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모형

단계	세부내용
1단계	금융스트레스지수(FSI) 임계치 초과 시 금융위기로 인식
2단계	경제위기 선행지표로 구성된 금융시장 조기경보지수(EWI) 산정
3단계	조기경보기준(EWI) 등급별 구분 관리

자료: 금융위원회(2012) p. 63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금융스트레스지수(FSI)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한 지수이며, 은행·채권·주식·외환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위기지수를 도출한다. 금융시장 조기경보지수(EWI)는 금융위기와 관련한 선행지표들을 종합하여 구성한 지수이며, 금융위기 상황은 사전에 관련 지표들에 이상 징후를 나타낸다는 신호접근법에 이론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조기경보지수는 과거 누적 기간에 대해 1997년 한국 외환위기, 1999년 대우사태, 2003년 신용카드 대란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위기신호 기간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위기경보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작성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나, 시장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기경보 모형을 통한 계량적 예측 분석은 금융시장의 취약점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되는 시발점 역할을 하여, 국가 위기 관리 능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통화 및 자금사정·주식·실물·대외거래·해외부문의 30개 거시·금융지표변수로 구성된 조기경보지수는 모형 내 지표별 공표시차를 반영하여 지수 산출의 정교성을 더하고 있다. 1995년 1월부터 대상인 표본기간은 기간이 확대될수록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계량적 예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반면, 해외의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과 비교하여 국내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나타난다. 첫째로, 해외 위기경보 모형은 금융시장의 위기 요인은 조기에 식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잠재적인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화하고 있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작성기법을 통해, 위기 요인들이 시

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한계위험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악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로, 현재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정량적인 계량지표 분석에 치중하여 정성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해외의 시스템의 경우, 정량적인 재무지표 분석을 넘어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지향하여 포괄적인 방향으로 분석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위험 변수들을 탐지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모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금융업 경영실태평가

금융기관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전경영을 위해 감독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주무부처)의 감독규정 등에 따라 경영실태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가 포함된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CAMEL방식을 기본으로 금융기관에 특수성에 맞게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를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다. CAMEL방식의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기관의 경영실태를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Management), 수익성(Earnings) 및 유동성(Liquidity)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감독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향후 지도감독의 정책방향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검사 시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건전성을 점검하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금융기관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부실예방 측면에서 조기경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별 금융기관의 실태 및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표 V-155〉 금융기관별 경영실태평가 현황

구분	관련규정	적기시정조치
은행	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보험	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5조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감독기준 제35조	

자료: 저자 작성

나. 공공기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방안

본 연구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등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에 적합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경영위가지표 값을 이용하여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각 분야의 조기경보시스템 모형을 준용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조기경보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담당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등의 경우 3단계 경보체계와 표준편차 방식을 사용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조기경보시스템은 기관별 조기경보지표로 적합한 6개 지표를 이용하여 3단계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3단계 체계는 관심, 주의, 심각 단계로 구분⁵¹⁾하며, 각 단계는 동일한 유형⁵²⁾의 공공기관 횡단면의 표준편차와 시계열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다음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예시이다. 동일한 유형의 기관을 대상으로 전체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상 벗어나는 경우, 과거 시계열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상 벗어나는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설계한다.

51) 관심 단계는 기관의 위험이 직면하지는 않았지만 위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를 나타내며, 주의 단계는 위험가능성이 확실하고 위험이 임박한 단계를 의미한다. 심각단계는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52) 동일한 유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된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한다.

〈표 V-156〉 공기업 전체 수익성 및 안전성 지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11.0	14.0	9.1
	매출액 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100)	3.1	6.1	2.7
	총자산 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평균)×100)	0.8	1.6	0.7
	자기자본 순이익률(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평균)/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100)	2.6	4.6	1.8
안전성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144.4	134.0	130.8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193.8	183.4	179.6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100)	34.0	35.3	35.8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100)	299.0	366.4	271.1

자료: 기획재정부(2018a), p. 41~53.

각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관심 단계는 각 지표 중 1개 지표 이상이 1 표준편차($\mu \pm 1\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이며, 주의 단계는 각 지표 중 2개 지표 이상이 1 표준편차($\mu \pm 1\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또는 1개 지표 이상 2 표준편차($\mu \pm 2\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설정한다. 심각 단계는 각 지표 중 3개 지표 이상이 1 표준편차($\mu \pm 1\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2개 지표 이상 2 표준편차($\mu \pm 2\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또는 1개 지표 이상 3 표준편차($\mu \pm 3\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설정한다.

〈표 V-157〉 공공기관 조기경보시스템 경보단계

단계	설정
관심	지표 중 1개 지표 이상이 1 표준편차($\mu \pm 1\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주의	지표 중 2개 지표 이상이 1 표준편차($\mu \pm 1\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지표 중 1개 지표 이상이 2 표준편차($\mu \pm 2\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심각	지표 중 3개 지표 이상이 1 표준편차($\mu \pm 1\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지표 중 2개 지표 이상이 2 표준편차($\mu \pm 2\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지표 중 1개 지표 이상이 3 표준편차($\mu \pm 3\sigma$)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자료: 저자 작성

다. 공공기관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방안

공공기관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재무위험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을 구성하여 조기경보시스템과 조기경보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과 현황에 대한 결과는 공공기관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대내외적으로 기관의 재정위험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각 기관의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및 결과를 기관의 평가와 연동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이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라. 공공기관 조기경보지표 적용사례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영위기가 발생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⁵³⁾을 가동하였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기관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조기경보지표를 활용하였다.

조기경보지표를 산출한 결과 운영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운영위험 중 투자회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지분법 관련 투자는 급증한 반면 손실은 크게 증가하여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차입위험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차입부채비율과 유동차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큰폭으로 하락하여 변동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외화 부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해외사장을 통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3)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설명은 5. 공공기관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도입방안 참고

〈표 V-158〉 한국광물자원공사 조기경보지표 현황

(단위: %)

지표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운영 위험	투자회전율	0.8	1.9	-0.2	1.4	-8.0	-80.0	-25.0	-8.3
	광산회전율	12.8	28.5	14.2	0.6	0.3	-1.2	1.1	1.1
	대여회전율	2.7	2.7	2.0	2.6	-1.8	3.8	1.2	0.0
차입 위험	차입부채비율	131.8	129.3	152.9	188.1	198.2	6324.5	-585.0	-408.0
	유동차입률	5.5	15.1	24.4	15.3	38.0	23.3	10.4	15.0
	외화부채율	69.3	71.7	78.8	69.6	56.6	57.8	48.9	46.1

자료: 저자 작성

실제 조기경보시스템은 시계열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과거 3년간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가동하였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2013년도에 최초로 가동할 수 있었다.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결과 가동 첫째인 2013년부터 운영위험은 모두 ‘관심’ 단계로 나타났으며, 차입위험은 유동차입률을 제외하고 ‘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영위기는 최종적으로 ‘심각’ 단계로 확인되었다. 2014년은 경영위기가 보다 악화되어, 각 비율들이 ‘심각’ 단계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심각’ 단계가 유지되었다. ‘심각’ 단계는 이후 2016년까지 지속되었으나 2017년 경보가 해제되었다. 2017년의 결과는 과거의 변동폭이 높아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만약 과거시계열을 확장하여 표준편차를 평탄화하였다면, 2017년도 조기경보시스템 역시 부정적인 결과로 나왔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V-159〉 한국광물자원공사 조기경보시스템 가동결과

지표	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운영 위험	투자회전율	관심	심각	심각	관심	-
	광산회전율	관심	-	-	주의	-
	대여회전율	관심	심각	주의	-	-
차입 위험	차입부채비율	주의	-	심각	주의	-
	유동차입률	-	심각	주의	주의	-
	외화부채율	주의	심각	-	-	-
총 합		심각	심각	심각	심각	-

자료: 저자 작성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결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라서 적극적인 해외광산사업 투자를 추진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로 증가한 대부분의 자산은 당장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개발 및 탐사단계 사업에 대한 투자로서, 실제 수익창출로 이어지기까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기관운영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조기경보지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기관운영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위기 지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장밋빛 전망 및 홍보에만 치중한 결과 기관의 경영위기 수준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실제, 한국광물자원공사 관련 주요 기사⁵⁴⁾를 검색한 결과 해외자원개발의 투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는 경영위기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의 부재로 문제 제기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하 내용에서는 조기경보지표가 제공한 정보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 5년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추가로 검토하였다.

먼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손익계산서를 검토해보면 2013년까지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기관의 경영위기가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2014년부터 영업손실 274십억원, 당기순손실 263십억원을 기록하여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경영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관의 2014년 이후 지속된 적자는 해외광물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감소와 기관의 부실한 해외광산 투자에 따른 관련 지분법손실 및 자산손상차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조기경보지표에서는 투자가 급증한 시점에 이미 기관의 정상범주를 벗어난 무리한 투자에 대한 경고가 여러 지표를 통해 제기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경영위기를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2014년에 이르러서였다. 실제 언론기사⁵⁵⁾를 검색해 보면 2013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 개발의 부실에

54) 2010.1.1.~2012.12.31. 기간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검색어로 조회

55) 2013.1.1.~2014.12.31. 기간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대해 처음 거론되고, 2014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비판 및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60〉 한국광물자원공사 손익계산서(2013~2017년)

(단위: 십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익(매출액)	327	274	298	330	723
매출원가	-301	-519	-1,421	-607	-812
매출총이익(손실)	26	-244	-1,123	-277	-89
판매비와관리비	-31	-30	-35	-37	-89
영업이익(손실)	-5	-274	-1,157	-314	-179
기타수익	2	6	3	1	14
기타비용	-3		-99	-102	-1
기타이익(손실)	40	-1	-934	-563	-145
금융수익	12	15	13	20	22
금융원가	-11	-12	-10	-7	-2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4	-267	-2,185	-964	-315
법인세비용	-15	4	121	-23	-96
계속영업이익(손실)	19	-263	-2,064	-987	-411
당기순이익(손실)	19	-263	-2,064	-987	-411

자료: 저자 작성

이런 무리한 사업확장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09년에서 2012년에 이르는 부채비율 및 사업자산비율에서 이미 기관의 과도한 투자에 대해 경고를 주고 있지만, 기관은 지속적인 투자를 감행한 결과 2015년 유형자산(특히, 건설중인자산)과 관계기업 및 공동투자지분이 크게 증가하여 자산총액이 5.9조원에 달했다. 이러한 부채조달을 통한 지속된 해외 자원투자는 해외광물가격의 하락 및 부실투자가 겹치면서 2014년 이후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고, 2016년에는 부채가치가 자산가치보다 더욱 커지게 되어 기관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었다.

제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검색어로 조회

〈표 V-161〉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상태표(2013~2017년)

(단위: 십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자산총계	5,221	5,852	4,687	4,366	4,152
유동자산	376	486	510	530	466
비유동자산	4,844	5,366	4,178	3,836	3,686
부채총계	3,523	4,020	4,621	5,207	5,434
유동부채	586	1,509	1,067	576	880
비유동부채	2,938	2,512	3,554	4,631	4,554
자본총계	1,697	1,832	67	-841	-1,282
납입자본	1,483	1,708	1,888	1,956	1,986
이익잉여금	149	-117	-1,910	-2,717	-3,032
기타	172	208	-62	-244	-287

자료: 저자 작성

한국광물자원공사는 M&A와 자산인수를 통해 덩치를 키우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한 결과, 재무위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해외자원시장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은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간이 매우 장기간에 걸친 사업으로 오히려, 이런 시장에 성과지향적인 단기간에 걸친 무리한 사업확장은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기관에서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사업의 지속가능한 측면에서의 적절한 조기경보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했다면 기관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조기경보시스템은 2013년부터 가동하였다. 다만,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이 2013년 이전이기 때문에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은 다소 늦은 결과일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6. 소 결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영위기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공공기관 위기 관리는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위기를 사전에 감지·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실제 공공기관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검증한다.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분석 및 조기경보시스템 도입과정은 첫 번째 단계로 기초분석을 통해 기관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다. 두 번째 단계로 재무분석을 통해 기관의 재무구조 및 재무적 특이사항을 파악하며, 재무비율을 통해 종합적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분석한다. 세 번째로는 기관의 기초분석과 재무분석을 통해 탐지한 위험요인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여 조기경보지표를 구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경영위기 조기경보지표는 공공기관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에 활용한다. 조기경보시스템은 3단계 체계를 설정하며, 1단계는 관심, 2단계는 주의, 3단계는 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각 단계는 동일한 유형의 공공기관 횡단면의 표준편차와 시계열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운영되도록 설계한다.

이와 더불어 기관별 사례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위기 분석을 통해 자본조달 등과 같은 공통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의 도입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부채의 유형별 분류이다. 공공기관의 자본조달은 사채와 차입금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사채와 차입금을 대상으로 차입부채 항목을 고려하고, 차입부채에 대한 유동성 관리를 수행한다면, 기관의 자본조달과 관련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부채를 표시통화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해외사업을 주로 수행한다. 따라서 부채를 표시 통화별로 관리한다면, 부채의 환율변동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부채를 이자율 유형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자율 유형별 부채관리는 부채의 이자비용 예측과 금리 변동 시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여 기관의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V-162〉 공공기관 위기관리 방안

분류	소분류	
상품 유형별	차입금	단기
		장기
	사채	단기
		장기
표시 통화별	자국 통화 표시	
	외화 표시	
이자율 유형별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자료: 저자 작성

VI. 결론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며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익성이 강조되는 기관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에 혁신과 경영합리화 등 효율성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공익이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무는 소홀하게 된 경향이 있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계층 간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국가적 현안과 전 세계적으로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 강조되고 있는 환경, 사회, 경제, 지배구조 등의 균형적 가치추구 추세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공익적 가치는 기관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재무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영위기지표의 개발을 통해 조기에 위험을 진단하고 처방하여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성과의 측정과 보고방안, 재무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기경보장치로서 경영위기지표의 제시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설문응답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추구하고 경제적 가치 추구의 비중도 50:50(또는 사회적 가치추구를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공공기관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화폐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정의에 부합하고, 기관의 주된 경영활동과정에서 창출된 가치이어야 하며, 정관 등에 구체적으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추가적 조건을 부가하였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매우 협소하고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전부를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 공헌활동을 나열하거나 정관이나 주요사업전략 등에 구체적인 공익추구활동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은 지속가능성도 낮고 또한 진정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객관적인 측정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유지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설문결과, 일반응답자, 공공기관 구성원 모두 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적으로 측정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 접근방법에 관하여 재무제표의 주석 또는 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의 주석이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사회적 성과 부분에 사회적 가치 성기를 보고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설문응답자 대부분이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의 범위가 정관에 기술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측정 및 보고를 위한 작성지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구체적으로 정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같은 공공 관련 회계기준 제정기구에서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 및 보고를 위한 모범기준 등을 작성하여 전파할 필요가 있다.

가스공사와 도로공사의 경우에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과 실제 실현 정도를 설문으로 확인한 결과 일부 범주의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이 중요도 만큼 실제 실현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공공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무제표 구성요소(손익계산서 중심) 중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요소와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한 자료를 본 연구의 사회적 가치 인식조건에 근거하여 분석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관이 제시한 사회적 가치 성과가 사회적 가치의 인식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과 금액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 및 보고와 관련된 모범규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 경영평가지표의 변경 또는 입법발의 등으로 공공기관에 적극적인 관련 사업추진의 동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을 경영평가에 맞추려는 점수 따기식의 사업추진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적 위기를 중심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관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분석 단계, 기관의 재무구조 및 재무적 특이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분석 단계, 기초분석과 재무분석을 통해 탐지한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지표를 개발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를 마련하여 기관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종합적인 기관별 경영위기 분석결과, 기관별 사업특성에 따라 재무구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특수성에 적합한 조기경보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동안 사용하였던 보편적인 재무지표와 더불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재무지표를 병행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은 공공기관의 위기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강나라·홍주연·정대길, 「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한 구분회계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Vol.20 No. 5, 대한회계학회, 2015, pp.259~285.
- 강내철·주상룡, 「연결재무보고 환경에서의 기업위험 판단 The Risk Assessment in Consolidated Reporting Environment」,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2, 한국공인회계사회, 2010, pp.407~433.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적 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6.
- _____,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7.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공공기관 위기관리 지침」, 2007.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 금융위원회, 「국내외 조기경보활동 동향점검 및 금융시장 조기경보모형 개선」, 2012.
-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17.
- _____,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8.30.
- _____, 「2017년 공기업 통합 결산서」, 2018a.
- _____,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2018b.
- 김순양,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및 적용」, 『지방정부연구』, Vol.12 No.1,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pp.31~59.
- 김영신, 「공기업 부채 증가의 분체점 및 시사점: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KERI Insight』, Vol.2012 No. 5, 한국경제연구원, 2012, pp.1~12.
- 김은성·정지범, 「우리나라 공기업 전사적 위험관리의 조직적, 제도적, 문화적 특징」, 『한국행정연구』, Vol.23 No.2, 한국행정연구원, 2014, pp. 35~61.
- 김정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직가치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인

- 『사행정학회보』, Vol.17 No.1, 한국인사행정학회, 2018, pp.57~83.
- 김종대·안형태·명재규·배성미, 「성공적 CSR 전략으로서 CSV에 대한 평가」, 『Korea Business Review』, Vol.20 No.1, 한국경영학회, 2016, pp. 291~319.
- 김태영·송성수·김기룡·최일환, 『인재개발분야의 사회적 가치정립 및 확산 방안 연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7.
- 김호식,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 파워의 사회적기업 비즈니스모델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보』, Vol.19 No.4, 한국비교정부학회, 2015, pp.1~30.
- 김호철·정석, 「대학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서울도시연구』, Vol.17 No.2, 서울연구원, 2016, pp.159~175.
- 김혜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의 SROI 기법에 의한 측정: 경남 지역의 'A 간병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3 No.2, 서울행정학회, 2012, pp.249~278.
- 김혜숙,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2013.
- 노태협, 「기업 신용 위험관리를 위한 재무 상태 및 추세 진단 모형」, 『회계연구』, 제15권 제1호, 대한회계학회, 2010, pp.357~387.
- 남주하·김창배, 「산업별 신용위험에 대한 연구- 재무 및 비재무요인을 중심으로-」, 『응용경제』, Vol.10 No.3, 한국응용경제학회, 2008, pp.157~182.
- 라영재,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모델 개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_____,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부의 역할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Vol.22 No.1, 한국부패학회, 2017, pp.119~142.
- 라영재·윤태범,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의 성과와 한계』, 한국조세연구원, 2010.
- 라준영·김수진·정소민·박성훈, 『사회성과인센티브 사회성과 측정 매뉴얼』, 사회성과인센티브추진단, 2017.

- 목현수,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효율성과 청렴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 2015.
- 박상욱,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정책기획위원회 정책세미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발표자료, 2018.
- 박선영·고윤성, 「재무적 곤경 기업의 재량적 비용 절감 전략에 대한 연구 =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and Their Strategies to Reduce Discretionary Expenses」, 『經營學研究』, Vol.45 No.4, 한국경영학회, 2016, pp.1089~1118.
- 박수정·차희원, 「기업 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와 적합성이 위기 시 기업 정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5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pp.496~532.
- 박승규·배귀희, 『사회적기업의 경제적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1 No.1, 한국거버넌스학회, 2014, pp.123~144.
- 박종원·안성만, 『재무비율을 이용한 부도예측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외부감사대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학연구」, Vol.43 No.3, 한국경영학회, 2014, pp.639~669.
- 배인명,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재정분석, 진단제도와 지방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2016권2호, 2016, pp.76~91.
- 서울특별시, 『서울시공공조달혁신백서』, 2016.
- 송용한, 「사회적 가치지표 고찰: 사회적 가치와 측정 지표의 괴리」,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지표 고찰 세미나 자료집』, 2014.
- 양동수, 『사회적 가치 개념 정의와 공공부문에서의 실현방식』, 한국사회학회 학술심포지엄 토론문, 2017.
- 윤태범·양동수·윤기찬·최현성·김보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7.
- 의안정보시스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016.
- _____,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17.

- 이승규·라준영,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 사회투자수익률(SROI)」,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13 No.3, 한국중소기업학회, 2010, pp.41~56.
- 이용탁, 「BSC를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성과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Vol.16 No.S,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9. pp.267~287.
- 임의영,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논거 모색: M. Walzer의 '다원주의적 정의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3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2009, pp.1~18.
- 조영복·류정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그 접근법과 발전방향의 모색: SROI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Vol.21 No.3,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14, pp.475~494.
- 주효진·신희정·이서화,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유형과 사회적 책임 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 충북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9 No.2,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pp.111~125.
- 정도진·김이배·전규안·박상형, 『사회성과에 대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개정안』, 한국회계학회, 2017.
- 진희선, 「한국 사회적기업에서의 사회적 가치와 그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 『윤리연구』, Vol.91, 한국윤리학회, 2013, pp.127~167.
- 최영출·이상엽,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QCA 방법의 적용」,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9 NO.1, 한국비교정부학회, 2015, pp.157~178.
- 최진혁, 「기업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전략에 관한 연구 - 해외 Pandemic Planning 사례를 중심으로 -」, 『기업경영연구(구 동림경영연구)』, Vol.36 NO.0, 한국기업경영학회, 2010, 149~169.
- 채종헌·이종한·장현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9.
- 하세정·오영민·라영재,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한국행정학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2017.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2007.

한상일, 「한국 공공부문의 다양화와 새로운 책임성 개념의 모색」, 『한국조직학회보』, Vol.10 No.2, 한국조직학회, 2013, pp.123~151.

허경선,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과 원인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홍철규·양대천,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 시범도입기관의 도입 사례 연구」, 『경영교육연구』, Vol.31 No. 5, 한국경영교육학회, 2016, pp.329~355.

Aupperle, K. E., A. B. Carroll and J. D. Hatfield,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Profitability,”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ume 28, No. 2, 1985, pp.446~463.

Altman, E., “Distress Classification of Korean Firms Bank Credit Risk Management,” *Korea Institute of Finance*, 1996, pp.381~410.

Bear, Dan, Ruvena Buslovich and Cory Searcy, “Linkages betwee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Public Polic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Vol.21 No.6, 2014. pp.336~350.

Bowen, Howard R.,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 Row*, 1953.

Campbell, John Y, Hilscher Jens and Szilagyi Jan, “In Search of Distress Risk,” *Journal of Finance*, Vol.LXIII No.6, 2008, pp.2899~2939.

Donaldson, Thomas, “Corporations and Morality,” Prentice-Hall, 1982.

Kaplan and Zingales, “Do Investment-Cash Flow Sensitivities Provide Useful Measures of Financing Constrain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ume 112, Issue 1, 1997, pp.169~215.

- Friedman, Milt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The New York Times Magazine*, 1970.
- Gregory, Alan, Julie Whittaker and Xiaojuan Ya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Competitive Advantage, Earnings Persistence and Firm Value," *Journal of Business Financial & Accounting*, Volume 43, Issue 1-2, 2016, pp.3~30.
- Mitton, "A cross-firm analysis of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ume 64, Issue 2, 2002, pp.215~241.
- OECD, "Social Enterprises," 1999.
- Pava, Moses L. and Joshua Krausz, "The association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paradox of social cost,"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ume 15, 1996, pp.321~357.
- Porter, Michael E. and Mark R. Kramer,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Volume 89, 2011, pp.62~77.
- Seeger, Matthew W. Timothy L. Sellnow and Robert R. UlmerPorter, "Communication, Organization, and Crisis,"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Volume 21, Issue 1, 1998, pp.231~276.
- Vance, S., "Are Socially Responsible Corporations Good Investment Risks?" *Managerial Review*, Volume 64, Issue 8, 1975, pp.18~24.
- Waddock, S. and Graves, S., "Market Effect of List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Disclosure—Based on Combined Test of the Double Ev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8, 1997, pp.303~319.

〈웹사이트〉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alio.go.kr/alioSystem.do>, 검색 일자: 2018. 8. 21.

부록 1.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인식 설문(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일반국민)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경영평가부터 '사회적 가치 구현'이 별도의 경영관리 평가지표로 신설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자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및 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조사결과의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4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진 : 정도진, 박성환, 강평경, 김종현, 박윤진, 엄기중, 손지영
조사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회계정보학회

2018년 8월

연락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 일반사항

※ 다음 질문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은 ?

- ① 일반국민 ② 연구기관 ③ 공공기관 ④ 회계전문가
 ⑤ 교수 ⑥ 학생

2.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II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관련 인식도 설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항목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문항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일반	1) 공공기관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②—③—④—⑤				
	2)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적 가치 : 사회적 가치 (:)				
	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의 반영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예시) 30% (%)				

구분	문항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		
2. 측정	1)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관련 활동을 기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①—②—③—④—⑤		
	2)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숫자(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②—③—④—⑤		

구분	문항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		
3. 보고	1)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는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한다.	①—②—③—④—⑤		
	2) 만약,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재무제표 자산, 부채, 수익, 비용(본문) ②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석)		
	3)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는 재무제표와는 별도의 보고서(예: 사회성과보고서)로 보고되어야 한다.	①—②—③—④—⑤		

구분	문항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⑤		
4. 작성 지침	1)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범위는 정관에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①—②—③—④—⑤		
	2)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작성지침(모범규준)이 필요하다.	①—②—③—④—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공단, 공사용)

1. 다음의 사회적 가치 중 공사가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와 공사가 실현하고 있는 수준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에 표시 (V)해 주세요.

A. 경제(산업·경영·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추구해야 할 가치					실현하고 있는 수준					
		매우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낮다		보통이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경영)제품과 서비스의 윤리적 생산과 공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경영)윤리경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산업)공정경쟁 기반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중소기업)협력 업체와 협업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중소기업)대기업·중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 참여 확대 등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중소기업)사회적 경제기업과 협업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중소기업)혁신제품 판로 등 혁신성장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B. 사회(보건·복지·환경·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추구해야 할 가치					실현하고 있는 수준					
		매우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낮다		보통이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보건)국민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의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복지)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복지)국민의 삶의 질 개선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4	(복지)양질의 일자리 창출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5	(복지)직원의 노동권 보장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6	(복지)근로조건의 향상(유연근무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정착)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7	(복지)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8	(복지)취약계층 지원 강화(특화된 서비스 또는 제품제공 등)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9	(복지)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지원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10	(환경)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11	(안전)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생활환경의 유지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12	(안전)안전문화 확산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C. 기타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		추구해야 할 가치	실현하고 있는 수준
		매우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낮다 보통이다 매우 높다
1	대국민 서비스 제고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2	조달 혁신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	인권 보호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4	국정과제 추진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5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6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7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8	시민단체와 협업 강화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2. 문항 1의 사회적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되는 가치 5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예 : A-3, B-2, B-7 등)

3. 문항 1의 사회적 가치 중 공사가 **잘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가치 5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예 : A-3, B-2, B-7 등)

4. 문항 1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단답식)

5. 문항 1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사가 **잘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단답식)

부록 2. 공공기관이 실현할 사회적 가치 인식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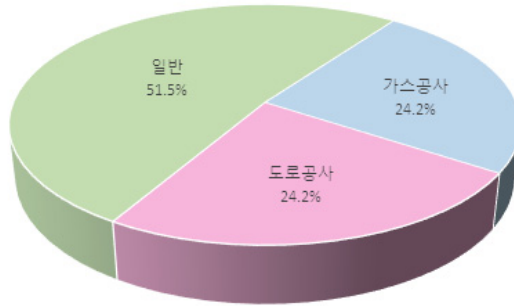
1. 공공기관이 실현할 사회적 가치 인식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실현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은 일반국민과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추구할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 보고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내용에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구성원 입장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사업 및 기타 활동을 통하여 현재 사회적 가치를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지 향후 더 중요시하여야 할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 분야(또는 사업)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가. 응답자 특성별 분포

- 본 조사는 가스공사, 도로공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부록그림 2-1]은 각 응답자 소속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부록그림 2-1] 응답자 분포(n=425)



자료: 저자 작성

- 〈부표 2-1〉은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가스공사는 연령별 고른 분포를 나타냈고, 도로공사는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인은 20대가 높게 나타났다.

〈부표 2-1〉 응답자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가스공사	도로공사	일반
20대	25(24.3)	3(.9)	150(68.5)
30대	32(31.1)	44(42.7)	40(18.3)
40대	22(21.4)	51(49.5)	14(6.4)
50대 이상	24(23.3)	5(4.9)	15(6.8)
계	103(100)	103(100)	219(100)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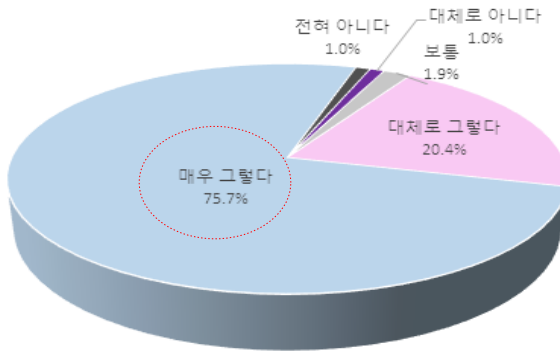
나. 기관별 분석결과

(1) 가스공사 분석결과

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인식

문항 1 공공기관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록그림 2-2〉 사회적 가치 추구 중요성(n=103)



자료: 저자 작성

- [부록그림 2-2]는 ‘가스공사’ 소속 응답자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응답결과로, “매우 그렇다(중요하다)” 75.7%, “대체로 그렇다” 20.4%로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 4.69(±0.65)로 높은 중요한 인식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문항 2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부표 2-2〉는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경제적 가치 50 : 사회적 가치

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가치 30 : 사회적 가치 70'으로 나타났다.

〈부표 2-2〉 공공기관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비율

(단위: 명, %)

구분	빈도(%)
경제 10 : 사회 90	6(5.8)
경제 30 : 사회 70	32(31.1)
경제 50 : 사회 50	42(40.8)
경제 70 : 사회 30	21(20.4)
경제 90 : 사회 10	2(1.9)
계	103(1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의 반영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

- 〈부표 2-3〉은 기관평가에서 적정한 '사회적 가치'의 비중에 대한 결과로써, 50% 이상이 30.1%, 20~30% 미만이 28.2%, 30~40% 미만이 20.4% 순으로 나타났다.

〈부표 2-3〉 공공기관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비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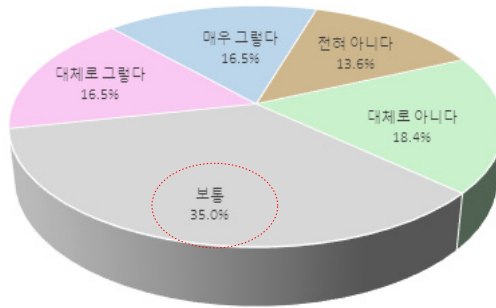
구분	빈도(%)
20% 미만	11(10.7)
20~30% 미만	29(28.2)
30~40% 미만	21(20.4)
40~50% 미만	11(10.7)
50% 이상	31(30.1)
계	103(1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4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숫자(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록그림 2-3]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화폐가치로의 측정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로, “보통”이 35.0%, “대체로 그렇다” 16.5%, “매우 그렇다” 16.5%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결과, 3.04(±1.25)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록그림 2-3]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화폐단위 측정 필요성(n=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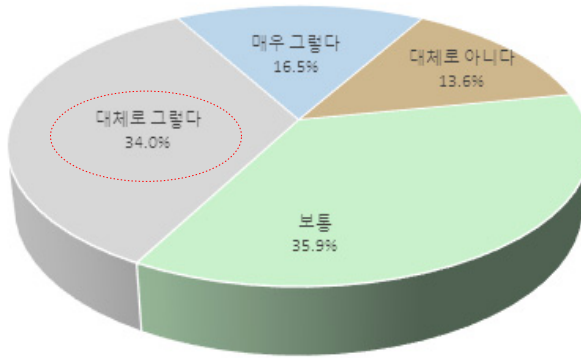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5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관련 활동을 기술하는 것이 충분하다.

- [부록그림 2-4]는 기관의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의 기술에 대한 충분성에 대한 인식으로는 “대체로 그렇다”가 34.0%, “매우 그렇다”는 16.5%로 그렇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 3.53(±0.93)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록그림 2-4]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활동 기술 충분성(n=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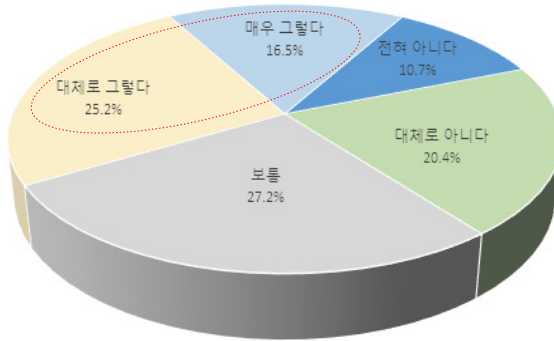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6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는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한다.

- [부록그림 2-5]는 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보통” 27.2%, “대체로 그렇다 25.2%”, “매우 그렇다” 16.5%로 그렇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대체로 아니다”도 20.4%, “전혀 아니다” 10.75%로 보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결과, 3.17(±1.24)로 “보통”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록그림 2-5]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성과의 재무제표에의 보고(n=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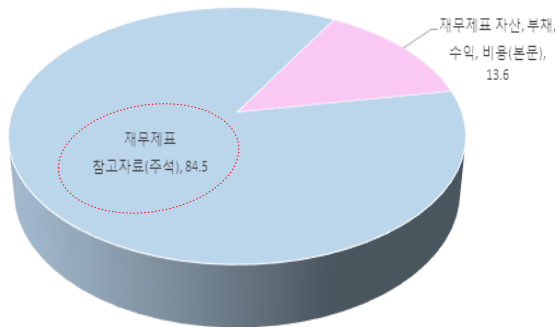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7 만일,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록그림 2-6]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석)”이 84.5%로 높게 나타났다.

[부록그림 2-6]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의 재무제표에의 보고방식(n=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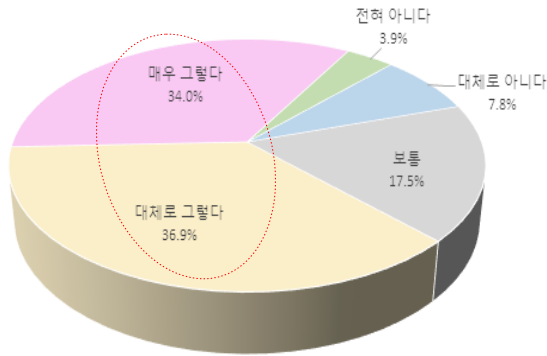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8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는 재무제표와는 별도 보고서(예, 사회성과보고서)로 보고되어야 한다.
-------------	---

- [부록그림 2-7]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보고는 재무제표와는 별도 보고서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대체로 그렇다” 36.9%, “매우 그렇다” 34.0%로 별도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 3.89(±1.08)로 “그렇다”(4점)에 가까운 수준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록그림 2-7]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성과의 별도 보고서 보고(n=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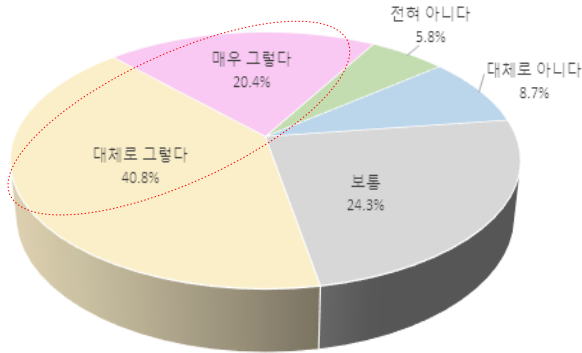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9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범위는 정관에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

- [부록그림 2-8]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범위에 대한 정관의 기술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 3.71(±1.09)로 “그렇다”(4점)에 가까운 수준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록그림 2-8]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정관에의 기술(n=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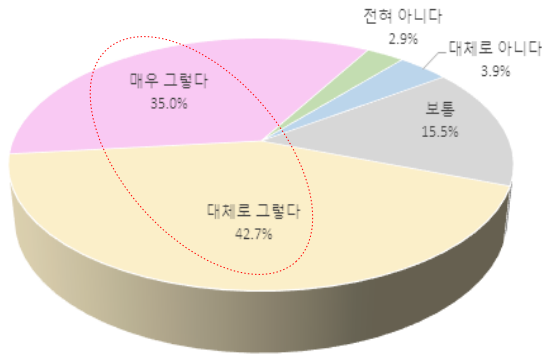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10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작성지침(모범규준)이 필요하다.
--------------	---

- [부록그림 2-9]는 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 및 보고하기 위한 작성지침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다” 42.7%, “매우 그렇다” 35.0%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 4.03(±0.97)로 “그렇다”(4점) 수준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록그림 2-9]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 보고지침 필요성(n=103)



자료: 저자 작성

나) 공공기관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견

- <부표 2-7>과 <부표 2-8>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우선순위와 실현해야 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는 ‘제품의 윤리적 생산공급’, ‘윤리경영’, ‘공정경쟁기반 구축’,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우선순위로는 ‘윤리경영’, ‘제품의 윤리적 생산과 공급’, ‘공정경쟁기반 구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민 삶의 질 개선’, ‘직원노동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 ‘협업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표 2-4〉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인식순위(n=103)

(단위: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문항	빈도	문항	빈도	문항	빈도
제품의 윤리적 생산공급	45 (43.7)	윤리경영	27 (26.2)	국민 삶의 질 개선	19 (18.6)
윤리경영	41 (39.8)	국민 삶의 질 개선	16 (15.5)	양질의 일자리 창출	12 (11.7)
공정경쟁기반 구축	3 (2.9)	공정경쟁기반 구축	13 (12.6)	공정경쟁기반 구축	9 (8.8)
.....		
계	103 (100)	계	103 (100)	계	103 (100)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5〉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실현순위(n=103)

(단위: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문항	빈도	문항	빈도	문항	빈도
윤리경영	37 (35.9)	윤리경영	21 (20.8)	국민 삶의 질 개선	12 (11.9)
제품의 윤리적 생산공급	32 (31.1)	공정경쟁기반 구축	11 (10.9)	직원노동권 보장	10 (9.9)
공정경쟁기반 구축	7 (6.8)	대·중소기업상생협력	11 (10.9)	근로조건 향상	10 (9.9)
협업 강화	7 (6.8)	협업 강화	10 (9.7)	협업 강화	7 (6.8)
.....		
계	101 (100)	계	101 (100)	계	1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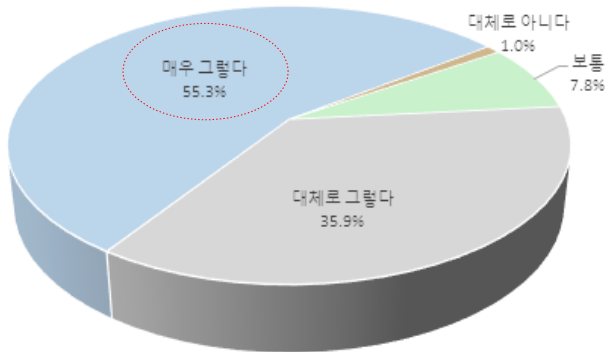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도로공사 분석결과

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인식

문항 1 공공기관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록그림 2-10] 사회적 가치 추구 중요성(n=103)



자료: 저자 작성

- [부록그림 2-10]은 ‘도로공사’ 소속 응답자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응답결과로, “매우 그렇다(중요하다)” 55.3%, “대체로 그렇다” 35.9%로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문항 2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부표 2-9>는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경제적 가치 50 : 사회적 가치 50”와 “경제적 가치 30 : 사회적 가치 70”의 순으로 추구 정도의 중요도를 나타냈다.

〈부표 2-6〉 공공기관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비율

(단위: 명, %)

구분	빈도(%)
경제 10 : 사회 90	6(5.8)
경제 30 : 사회 70	38(36.9)
경제 50 : 사회 50	39(37.9)
경제 70 : 사회 30	18(17.5)
경제 90 : 사회 10	2(1.9)
계	103(1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의 반영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

- 〈부표 2-10〉은 기관평가에서 적정한 ‘사회적 가치’의 비중에 대한 결과로서, “20~30%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40% 미만, 20%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부표 2-7〉 공공기관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비율

(단위: 명, %)

구분	빈도(%)
20% 미만	16(15.5)
20~30% 미만	48(46.6)
30~40% 미만	16(15.5)
40~50% 미만	10(9.7)
50% 이상	13(12.6)
계	103(100)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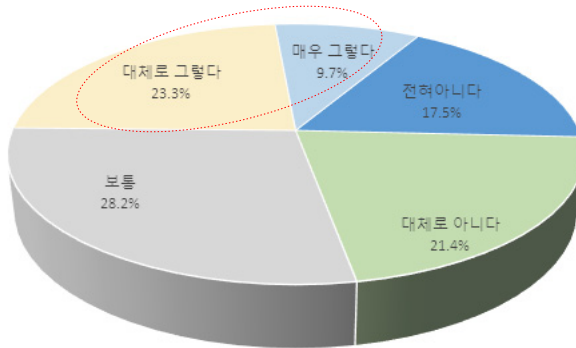
문항 4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숫자(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부록그림 2-11]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화폐가치로의 측정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로, “보통”이 28.2%, “대체로 그렇다” 23.3%, “대체로 아니다” 21.4%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결과, 2.86(±1.23)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부록그림 2-11〉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화폐단위 측정필요성(n=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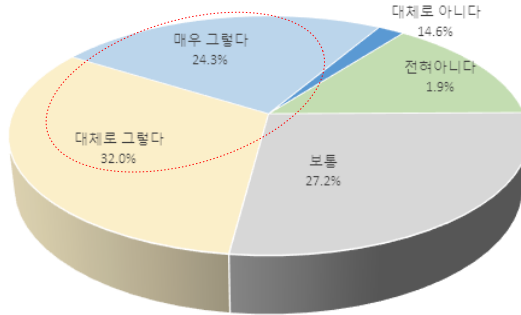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5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관련 활동을 기술하는 것이 충분하다.

- [부록그림 2-12]는 기관의 창출한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에 대한 기술의 충분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대체로 그렇다”가 32.0%, “보통” 27.2%, “매우 그렇다” 24.3%로 그렇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결과, 3.62(±1.06)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록그림 2-12]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활동 기술 충분성(n=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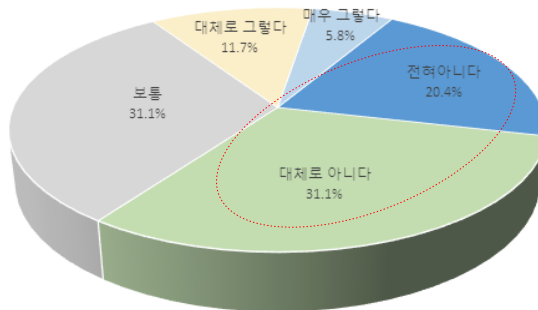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6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는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한다.

- [부록그림 2-13]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보통” 31.1%, “대체로 아니다” 31.1%, “전혀 아니다” 20.4%로 아니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 2.51(±1.12)로 “보통”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록그림 2-13]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 성과의 재무제표에의 보고(n=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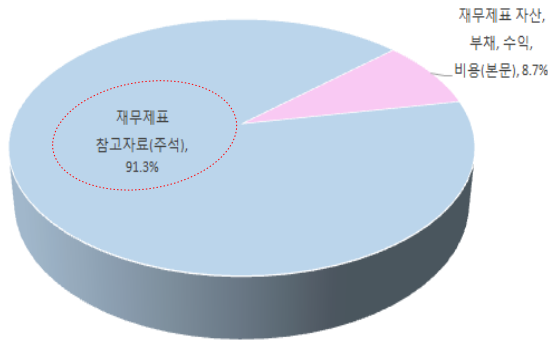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7 만일,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록그림 2-14]는 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석)”이 91.3%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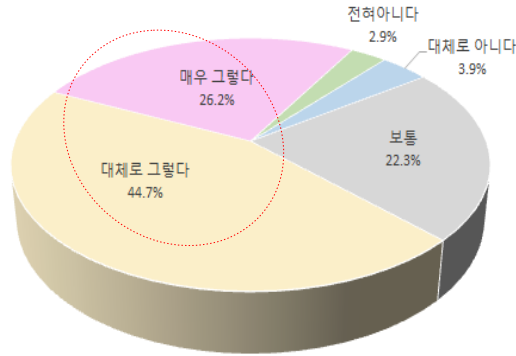
[부록그림 2-14]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의 재무제표에의 보고방식(n=103)



자료: 저자 작성

- [부록그림 2-15]는 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보고는 재무제표와는 별도 보고서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대체로 그렇다” 44.7%, “매우 그렇다” 26.2%로 별도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 3.87(±0.95)로 “그렇다(4점)”에 가까운 수준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록그림 2-15]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성과의 별도 보고서 보고(n=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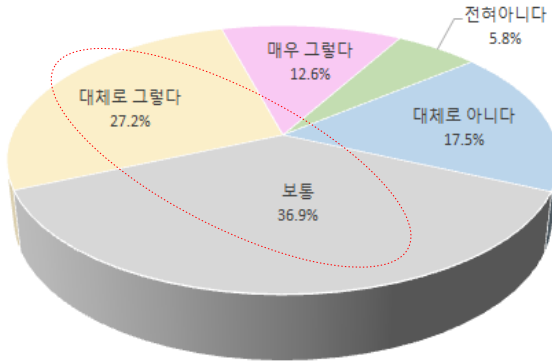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9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범위는 정관에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

- [부록그림 2-16]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범위에 대한 정관에 의 기술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보통”과 “대체로 그렇다”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 3.23(±1.06)로 “보통”(3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록그림 2-16]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정관예의 기술(n=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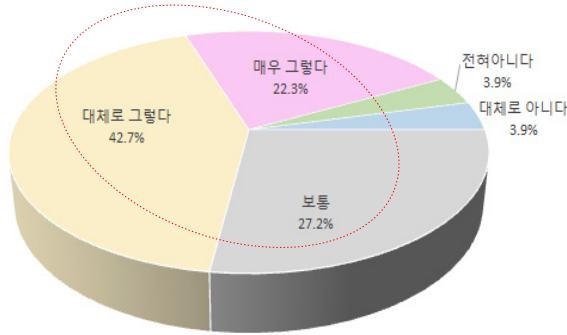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10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작성지침(모범규준)이 필요하다
--------------	--

- [부록그림 2-17]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 및 보고하기 위한 작성지침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다” 42.7%, “보통” 27.2%, “매우 그렇다” 22.3%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 3.76(±0.97)로 “보통”(3점) 수준을 상회하는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록그림 2-17]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 보고지침 필요성(n=103)



자료: 저자 작성

나) 공공기관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견

- 〈부표 2-14〉와 〈부표 2-15〉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우선순위와 실현해야 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는 ‘윤리경영’, ‘제품의 윤리적 생산공급’, ‘국민 삶의 질 개선’, ‘공정경쟁기반 구축’, ‘직원노동권 보장’, ‘재난과 사고 안전환경 유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우선순위로는 ‘윤리경영’, ‘제품의 윤리적 생산과 공급’, ‘국민 삶의 질 개선’, ‘재난과 사고안전환경 유지’, ‘안전문화 확산’ 등을 우선적으로 나타났다.

〈부표 2-8〉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인식순위(n=103)

(단위: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문항	빈도	문항	빈도	문항	빈도
윤리경영	42 (40.8)	윤리경영	27 (21.4)	국민 삶의 질 개선	14 (13.7)
제품의 윤리적 생산공급	31 (30.1)	국민삶의 질 개선	18 (17.5)	직원노동권 보장	14 (13.7)
국민 삶의 질 개선	7 (6.8)	공정경쟁기반 구축	12 (11.7)	재난과 사고안전환경 유지	12 (11.8)
.....		
계	103 (100)	계	103 (100)	계	102 (100)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9〉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실현순위(n=103)

(단위: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문항	빈도	문항	빈도	문항	빈도
윤리경영	39 (37.9)	국민 삶의 질 개선	18 (17.5)	재난과 사고안전 환경 유지	19 (18.4)
제품의 윤리적 생산공급	19 (18.4)	윤리경영	13 (12.6)	안전문화 확산	13 (12.6)
대중소기업상생 협력	8 (7.8)	사회적 경제기업 협업 강화	10 (9.7)	국민의 삶의 질 개선	11 (10.7)
협업 강화	8 (7.8)	근로조건 향상	9 (8.7)	대국민서비스 제고	7 (6.8)
.....		
계	103 (100)	계	103 (100)	계	103 (100)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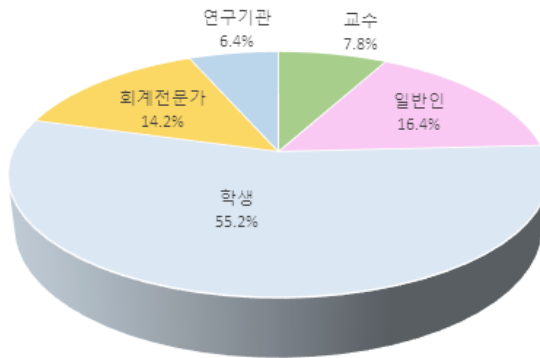
다. 일반인 응답자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별 분포

가) 직업별 분포

- [부록그림 2-18]은 '일반인'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로,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학생'으로 나타났고, 회계전문가 14.2%, 일반인 16.4%, 대학교수 7.8%, 연구기관 소속 6.4% 순으로 나타났다.

〈부록그림 2-18〉 일반인 응답자 소속별 분포(n=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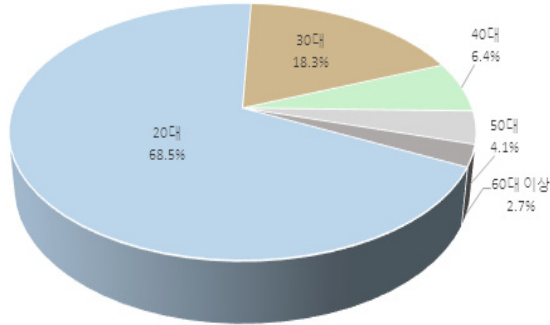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나) 연령별 분포

- [부록그림 2-19]는 '일반인'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로,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학생'임에 따라서, 20대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록그림 2-19] 일반인 응답자 연령별 분포(n=219)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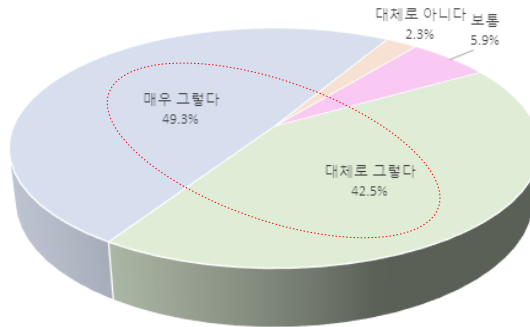
(2) 공공기관의 가치 인식

가)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

문항 1	공공기관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부록그림 2-20]은 ‘일반인’ 응답자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응답결과로, “매우 그렇다(중요하다)” 49.3%, “대체로 그렇다” 42.5%로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부록그림 2-20〉 사회적 가치 추구 중요성(n=219)



자료: 저자 작성

문항 2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

- 〈부표 2-16〉은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경제적 가치 50 : 사회적 가치 50”이 전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표 2-10〉 공공기관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추구정도 비율

(단위: 명, %)

구분	빈도
경제 10 : 사회 90	8(3.7)
경제 30 : 사회 70	52(23.7)
경제 50 : 사회 50	96(43.8)
경제 70 : 사회 30	53(24.2)
경제 90 : 사회 10	10(4.6)
계	219(1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의 반영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

- 〈부표 2-17〉은 기관평가에서 적정한 ‘사회적 가치’의 비중에 대한 결과로서, “30~40%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40~50% 미만”과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표 2-11〉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비중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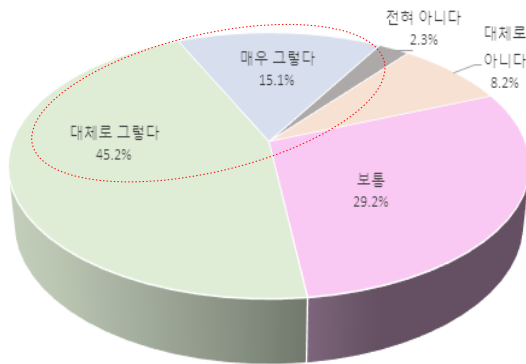
구분	빈도(%)
20% 미만	6(2.7)
20~30% 미만	29(13.2)
30~40% 미만	80(36.5)
40~50% 미만	52(23.7)
50% 이상	52(23.7)
계	219(1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4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숫자(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록그림 2-21]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화폐가치로의 측정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로, “대체로 그렇다” 45.2%, “매우 그렇다” 15.1%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결과, 3.63(±0.92)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필요성을 나타냈다.

[부록그림 2-21]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화폐단위 측정 필요성(n=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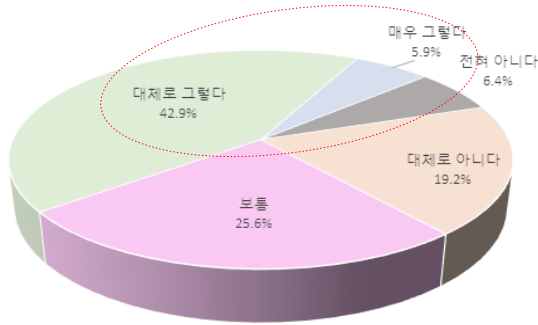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5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관련 활동을 기술하는 것이 충분하다.

- [부록그림 2-22]는 기관의 창출한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에 대한 기술의 충분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대체로 그렇다”가 42.9%, “매우 그렇다” 5.9%로 그렇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 3.22(±1.03)로 “보통”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록그림 2-22〉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활동 기술 충분성(n=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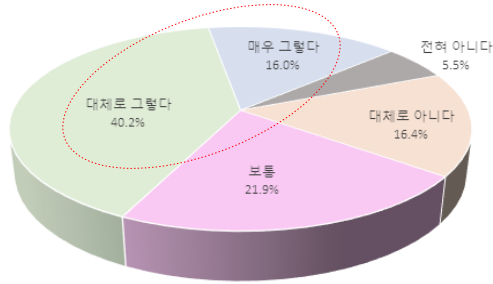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6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는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한다.

- [부록그림 2-23]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대체로 그렇다” 40.2%, “매우 그렇다” 16.0%로 그렇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 3.45(±1.10)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록그림 2-23]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성과의 재무제표에의 보고(n=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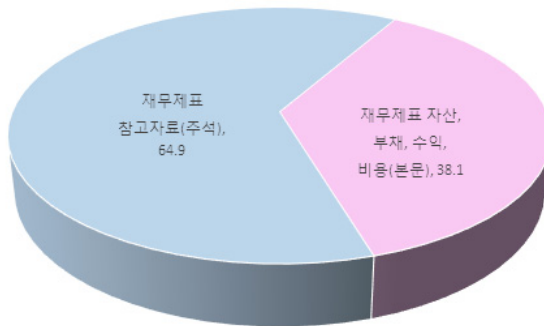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7 만일,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록그림 2-24]는 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석)”이 64.9%로 높게 나타났다.

[부록그림 2-24]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의 재무제표에의 보고방식(n=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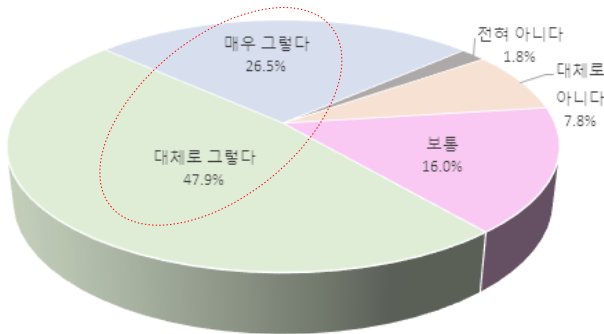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8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는 재무제표와는 별도 보고서(예, 사회성과보고서)로 보고되어야 한다.

- [부록그림 2-25]는 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보고는 재무제표와는 별도 보고서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대체로 그렇다” 47.9%, “매우 그렇다” 26.5%로 별도로 보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 3.90(±0.94)로 “그렇다”(4점)에 가까운 수준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록그림 2-25]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성과의 별도 보고서 보고(n=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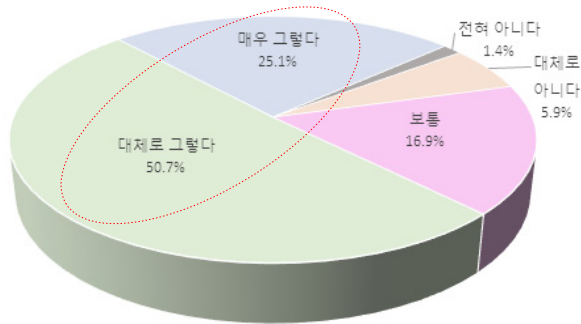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9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범위는 정관에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부록그림 2-26]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범위에 대한 정관에 의 기술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 3.90(±0.94)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운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부록그림 2-26]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정관예의 기술(n=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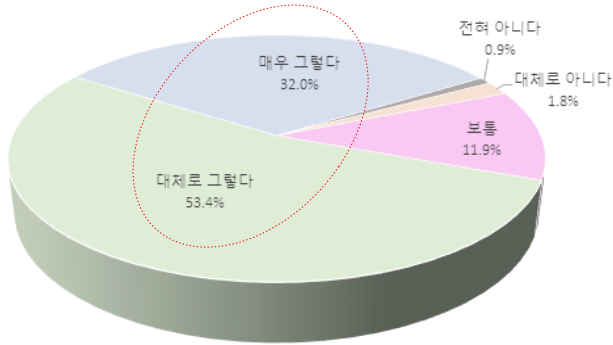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문항 10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작성지침(모범규준)이 필요하다.
--------------	---

- [부록그림 2-27]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 및 보고하기 위한 작성지침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다” 53.4%, “매우 그렇다” 32.0%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 4.14(±0.76)로 “대체로 그렇다”(4점) 수준을 상회하는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록그림 2-27]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 보고지침 필요성(n=219)



자료: 저자 작성

라. 종합논의

(1) 일반응답자와 가스공사

가) 연령별 응답자 분포

- 응답자의 소속별 연령분포 분석결과, 가스공사 응답자는 30대, 40대, 50대의 분포가 높고, 일반인 응답자는 20대의 연령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부표 2-12〉 가스공사와 일반인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가스공사	일반인	
20대	25(13.6)	150(68.5)	175(54.3)
30대	32(31.1)	40(18.3)	72(22.4)
40대	22(21.4)	14(6.4)	36(11.2)
50대	24(23.3)	9(4.1)	33(10.2)
60대 이상	-	6(2.7)	6(1.9)
계	103(100)	219(100)	322(100)

자료: 저자 작성

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비교분석

문항 1 공공기관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표 2-30〉은 가스공사 응답자와 일반인 집단 간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비교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전반적으로 두 집단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반인 응답자보다 가스공사 소속의 응답자의 중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13〉 가스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가치추구 정도의 중요성 인식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가스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1(1.0)	-	1(0.3)
대체로 아니다	1(1.0)	5(2.3)	6(1.9)
보통	2(1.9)	13(5.9)	15(4.7)
대체로 그렇다	21(20.4)	93(42.5)	114(35.4)
매우 그렇다	78(75.7)	108(49.3)	186(57.8)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23.28(p=0.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2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부표 2-31〉은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비중에 대한 가스공사와 일반인 집단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경제적 가치 50 : 사회적 가치 50”이 전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표 2-14〉 가스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비율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가스공사	일반인	
경제 10 : 사회 90	6(5.8)	8(3.7)	14(4.3)
경제 30 : 사회 70	32(31.1)	52(23.7)	84(26.1)
경제 50 : 사회 50	42(40.8)	96(43.8)	138(42.9)
경제 70 : 사회 30	21(20.4)	53(24.2)	74(23.0)
경제 90 : 사회 10	2(1.9)	10(4.6)	12(3.7)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4.09(p=0.39)$

자료: 저자 작성

문항 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의 반영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

- 〈부표 2-32〉는 기관평가에서 적정한 '사회적 가치'의 비중에 대한 가스공사와 일반인 응답자의 비교분석 결과로서, 가스공사 응답자는 "20~30% 미만"이 가장 높고, 일반인 응답자는 "30~40%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또한, "20% 미만"이라는 응답은 가스공사 응답자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30%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반인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 즉, 공공기관인 가스공사 응답자보다 일반인 응답자가 사회적 가치의 반영 비율이 높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15〉 가스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비중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가스공사	일반인	
20% 미만	11(10.7)	6(2.7)	17(5.3)
20~30% 미만	29(28.2)	29(13.2)	58(18.0)
30~40% 미만	21(20.4)	80(36.5)	101(31.4)
40~50% 미만	11(10.7)	52(23.7)	63(19.6)
50% 이상	31(30.1)	52(23.7)	83(25.8)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30.04(p=0.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4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숫자(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표 2-33〉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화폐가치로의 측정 필요성에 대한 가스공사와 일반인 집단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분석결과,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아니다”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일반인 응답자는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가스공사 집단과 일반인 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부표 2-16〉 가스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화폐단위 측정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가스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14(13.6)	5(2.3)	19(5.9)
대체로 아니다	19(18.4)	18(8.2)	37(11.5)
보통	36(35.0)	64(29.2)	100(31.1)
대체로 그렇다	17(16.5)	99(45.2)	116(36.0)
매우 그렇다	17(16.5)	33(15.1)	50(15.5)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38.41(p=0.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5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관련 활동을 기술하는 것이 충분하다.

- 〈부표 2-34〉는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에 대한 기술의 충분성에 대한 가스공사와 일반인 집단 간 비교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분석결과, 가스공사는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빈도가 높은 반면에, 일반인 응답자는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즉,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활동의 충분성에 대하여는 가스공사 종사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17〉 가스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의 충분성 인식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가스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	14(6.4)	14(4.3)
대체로 아니다	14(13.6)	42(19.2)	56(17.4)
보통	37(35.9)	56(25.6)	93(28.9)
대체로 그렇다	35(34.0)	94(42.9)	129(40.1)
매우 그렇다	17(16.5)	13(5.9)	30(9.3)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20.24(p=0.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6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는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한다.

- 〈부표 2-35〉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스공사와 일반인 응답자 간의 비교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분석결과, 가스공사 응답자는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등의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에, 일반인 응답자는 “대체로 그렇다”, “보통”, “매우 그렇다” 등의 보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18〉 가스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성과의 재무제표에의 보고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가스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11(10.7)	12(5.5)	23(7.1)
대체로 아니다	21(20.4)	36(16.4)	57(17.7)
보통	28(27.2)	48(21.9)	76(23.6)
대체로 그렇다	26(25.2)	88(40.2)	114(35.4)
매우 그렇다	17(16.5)	35(16.0)	52(16.1)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8.52(p=0.07)$

자료: 저자 작성

문항 7	만일,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부표 2-36〉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스공사 종사자와 일반인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석)”이 69.6%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공공기관 응답자는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석)”의 응답이 86.1%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일반인 응답자는 “재무제표 자산, 부채, 수익, 비용_본문”의 응답이 38.1%로 공공기관보다 높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어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부표 2-19〉 가스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의 재무제표에의 보고방식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가스공사	일반인	
재무제표 자산·부채·수익·비용_본문	14(13.9)	83(38.1)	97(30.4)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석)	87(86.1)	135(61.9)	222(69.6)
계	101(100)	218(100)	319(100)

주: $\chi^2 = 19.21(p=0.00)$ #무응답자 제외

자료: 저자 작성

문항 8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는 재무제표와는 별도 보고서(예, 사회성과보고서)로 보고되어야 한다.
-------------	---

- 〈부표 2-37〉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보고는 재무제표와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 분석결과, 가스공사 응답자와 외부인 일반인 응답자 모두, 전반적으로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사회성과보고서와 같은 별도 보고서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20〉 가스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별도 보고서 보고인식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가스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4(3.9)	4(1.8)	11(2.6)
대체로 아니다	8(7.8)	17(7.8)	29(6.8)
보통	18(17.5)	35(16.0)	76(17.9)
대체로 그렇다	38(36.9)	105(47.9)	189(44.5)
매우 그렇다	35(34.0)	58(26.5)	120(28.2)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4.59(p=0.33)$

자료: 저자 작성

문항 9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범위는 정관에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

- 〈부표 2-38〉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범위에 대한 정관의 기술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 공공기관인 가스공사 응답자는 “보통”과 “아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반면에, 외부인인 일반인 응답자는 “그렇다”는 응답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21〉 가스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범위의 정관의 기술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가스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6(5.8)	3(1.4)	9(2.8)
대체로 아니다	9(8.7)	13(5.9)	22(6.8)
보통	25(24.3)	37(16.9)	62(19.3)
대체로 그렇다	42(40.8)	111(50.7)	153(47.5)
매우 그렇다	21(20.4)	55(25.1)	76(23.6)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9.87(p=0.04)$

자료: 저자 작성

문항 10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작성지침(모범규준)이 필요하다.
--------------	---

- 〈부표 2-39〉는 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 및 보고를 위한 작성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가스공사 종사자와 일반인 응답자 간의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가스공사와 일반인 응답자 모두, 정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부표 2-22〉 가스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범위의 정관예의 기술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가스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3(2.9)	2(0.9)	5(1.6)
대체로 아니다	4(3.9)	4(1.8)	8(2.5)
보통	18(15.5)	26(11.9)	42(13.0)
대체로 그렇다	44(42.7)	117(53.4)	161(50.0)
매우 그렇다	36(35.0)	70(32.0)	106(32.9)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5.51(p=0.24)$

자료: 저자 작성

나) 일반응답자와 도로공사

① 연령별 응답자 분포

- 응답자의 소속별 연령분포 분석결과, 가스공사 응답자는 30대, 40대의 분포가 높고, 일반인 응답자는 20대의 연령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부표 2-23〉 도로공사와 일반인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도로공사	일반인	
20대	3(2.9)	150(68.5)	153(47.5)
30대	44(42.7)	40(18.3)	84(26.1)
40대	51(49.5)	14(6.4)	65(20.2)
50대	5(4.9)	9(4.1)	14(4.3)
60대 이상	-	6(2.7)	6(1.9)
계	103(100)	219(100)	322(100)

자료: 저자 작성

②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비교분석

문항 1 공공기관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표 2-41〉은 도로공사 응답자와 일반인 집단 간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비교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전반적으로 두 집단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반인 응답자보다 도로공사 소속의 응답자의 중요성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24〉 도로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가치추구 정도의 중요성 인식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도로공사	일반인	
대체로 아니다	1(1.0)	5(2.3)	6(1.9)
보통	8(7.8)	13(5.9)	21(6.5)
대체로 그렇다	37(35.9)	93(42.5)	130(40.4)
매우 그렇다	57(55.3)	108(49.3)	165(51.2)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2.25(p=0.52)$

자료: 저자 작성

문항 2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부표 2-42〉는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비중에 대한 도로공사와 일반인 집단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경제적 가치 50 : 사회적 가치 50”이 전체의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 30 : 사회적 가치 70”에 대하여는 36.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표 2-25〉 도로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비율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도로공사	일반인	
경제 10 : 사회 90	6(5.8)	8(3.7)	14(4.3)
경제 30 : 사회 70	38(36.9)	52(23.7)	90(28.0)
경제 50 : 사회 50	39(37.9)	96(43.8)	135(41.9)
경제 70 : 사회 30	18(17.5)	53(24.2)	71(22.0)
경제 90 : 사회 10	2(1.9)	10(4.6)	12(3.7)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48.42(p=0.08)$

자료: 저자 작성

문항 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의 반영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

- 〈부표 2-43〉은 기관평가에서 적정한 ‘사회적 가치’의 비중에 대한 도로공사 응답자와 일반인 응답자의 비교분석 결과로서, 도로공사 응답자는 “20~30% 미만”이 가장 높고, 일반인 응답자는 “30~40%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또한, “20% 미만”이라는 응답은 도로공사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30%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반인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 즉, 도로공사보다 일반인 응답자가 사회적 가치의 반영비율이 높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26〉 도로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비중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도로공사	일반인	
20% 미만	16(15.5)	6(2.7)	22(6.8)
20~30% 미만	48(46.6)	29(13.2)	77(23.9)
30~40% 미만	16(15.5)	80(36.5)	96(29.8)
40~50% 미만	10(9.7)	52(23.7)	62(19.3)
50% 이상	13(12.6)	52(23.7)	65(20.2)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71.20(p=0.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4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숫자(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표 2-44〉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화폐가치로의 측정 필요성에 대한 도로공사와 일반인 집단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분석결과,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아니다”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일반인 응답자는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도로공사집단과 일반인 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부표 2-27〉 도로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화폐단위 측정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도로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18(17.5)	5(2.3)	23(7.1)
대체로 아니다	22(21.4)	18(8.2)	40(12.4)
보통	29(28.2)	64(29.2)	93(28.9)
대체로 그렇다	24(23.3)	99(45.2)	123(38.2)
매우 그렇다	10(9.7)	33(15.1)	43(13.4)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42.71(p=0.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5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관련 활동을 기술하는 것이 충분하다.

- 〈부표 2-45〉는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에 대한 기술의 충분성에 대한 도로공사와 일반인 집단 간 비교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분석결과, 도로공사는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빈도가 높은 반면에, 일반인 응답자는 “보통”과 “대체로 그렇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즉,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활동의 충분성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종사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28〉 도로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의 충분성 인식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도로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2(1.9)	14(6.4)	16(5.0)
대체로 아니다	15(14.6)	42(19.2)	57(17.7)
보통	28(27.2)	56(25.6)	84(26.1)
대체로 그렇다	33(32.0)	94(42.9)	127(39.4)
매우 그렇다	25(24.3)	13(5.9)	38(11.8)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25.77(p=0.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6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는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한다.

- 〈부표 2-46〉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도로공사와 일반인 응답자간의 비교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분석결과, 도로공사 응답자는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등의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에, 일반인 응답자는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보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29〉 도로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성과의 재무제표에의 보고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도로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21(20.4)	12(5.5)	33(10.2)
대체로 아니다	32(31.1)	36(16.4)	68(21.1)
보통	32(31.1)	48(21.9)	80(24.8)
대체로 그렇다	12(11.7)	88(40.2)	100(31.1)
매우 그렇다	6(5.8)	35(16.0)	41(12.7)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48.69(p=0.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7	만일,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부표 2-47〉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어디에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로공사 종사자와 일반인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석)”이 71.3%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도로공사 응답자는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석)”의 응답이 91.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인 응답자는 “재무제표 자산, 부채, 수익, 비용_부문”의 응답이 38.1%로 도로공사보다 높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어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부표 2-30〉 도로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의 재무제표에의 보고방식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도로공사	일반인	
재무제표 자산·부채·수익·비용_본문	9(8.7)	83(38.1)	92(28.7)
재무제표 참고자료(주석)	94(91.3)	135(61.9)	229(71.3)
계	101(100)	218(100)	319(100)

주: $\chi^2 = 29.44(p=0.00)$ #무응답자 제외
자료: 저자 작성

문항 8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는 재무제표와는 별도 보고서(예, 사회성과보고서)로 보고되어야 한다.
-------------	---

- 〈부표 2-48〉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보고는 재무제표와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 분석결과, 도로공사 응답자와 외부 일반인 응답자 모두, 전반적으로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사회성과보고서와 같은 별도 보고서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31〉 도로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창출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별도 보고서 보고인식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도로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3(2.9)	4(1.8)	7(2.2)
대체로 아니다	4(3.9)	17(7.8)	21(6.5)
보통	23(22.3)	35(16.0)	58(18.0)
대체로 그렇다	46(44.7)	105(47.9)	151(46.9)
매우 그렇다	27(26.2)	58(26.5)	85(26.4)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3.73(p=0.44)$
자료: 저자 작성

문항 9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범위는 정관에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

- 〈부표 2-49〉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범위에 대한 정관
에의 기술에 필요성에 대한 도로공사와 일반인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
다.
- 공공기관인 도로공사 응답자는 “보통”과 “아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
으로 다소 높은 반면에, 외부인인 일반인 응답자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정관에의 기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표 2-32〉 도로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범위의 정관에의
기술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도로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6(5.8)	3(1.4)	9(2.8)
대체로 아니다	18(17.5)	13(5.9)	31(9.6)
보통	38(36.9)	37(16.9)	75(23.3)
대체로 그렇다	28(27.2)	111(50.7)	139(43.2)
매우 그렇다	13(12.6)	55(25.1)	68(21.1)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chi^2 = 40.83(p=0.00)$

자료: 저자 작성

문항 10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작성지침(모범규준)이 필요하다.
--------------	--

- 〈부표 2-50〉은 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측정 및 보고를 위
한 작성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도로공사 종사자와 일반인 응답자 간의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도로공사 종사자보다 일반인 응답자의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 보고에 대한 작성지침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33〉 도로공사/일반인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 보고 작성지침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소속		계
	도로공사	일반인	
전혀 아니다	4(3.9)	2(0.9)	6(1.9)
대체로 아니다	4(3.9)	4(1.8)	8(2.5)
보통	12(27.2)	26(11.9)	54(16.8)
대체로 그렇다	44(42.7)	117(53.4)	161(50.0)
매우 그렇다	23(22.3)	70(32.0)	93(28.9)
계	103(100)	219(100)	322(100)

주: $X^2 = 18.16(p=0.00)$

자료: 저자 작성

다) 한국안전보건공단 설문결과

한국안전보건공단은 공단 단위의 인식도 및 수행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한국도로공사·한국가스공사에 시행한 것과 같이 개개인의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는 제외하였는데, 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이 이미 조직 구성원 내에 충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인식도 및 수행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는, 「공공성 강화성과」, 「경제패러다임 전환 성과」, 「국민신뢰 회복 성과」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총 1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 항목마다 1~5점의 5단계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에 대해 높은 점수의 응답이 있을수록 인식도·수행성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백분율은 5점 만점의 응답 점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각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표 2-34〉 인식도 설문조사(공공성 강화 성과)

(단위: 점, %)

공공성 강화성과	Survey (인식도)	
	점수	비중
1.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의 유지	4.78	96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한 근로환경의 유지	4.67	93
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산업) 보건복지의 제공	4.53	91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 보건복지의 제공	4.48	90
5. 새로운 서비스·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4.10	82
6.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서비스·제품 제공	4.20	84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4.28	86
8.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4.03	81
평균	4.38	88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35〉 인식도 설문조사(경제패러다임 전환 성과)

(단위: 점, %)

경제패러다임 전환 성과	Survey (인식도)	
	점수	비중
9. 양질의 일자리 창출	3.94	79
10. 노동권의 보장과 양질의 근로조건 제공	(노동권) 4.19/ (근로조건) 4.40	84 / 88
11. 창업벤처 참여 확대 등 혁신 성장 지원	3.98	80
1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4.30	86
13. 지역경제 공헌	3.96	79
평균	4.10	82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36〉 인식도 설문조사(국민신뢰 회복 성과)

(단위: 점, %)

국민신뢰 회복 성과	Survey (인식도)	
	점수	비중
14. 윤리적 생산과 유통(예, 공정무역) 등 윤리경영	4.45	89
15.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4.08	82
16.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4.37	87
1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4.09	82
1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4.06	81
평균	4.17	83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37〉 인식도 설문조사(전체 평균)

(단위: 점, %)

전체 평균	4.25	85
-------	------	----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38〉 수행성과 설문조사(공공성 강화 성과)

(단위: 점, %)

공공성 강화성과	Survey (수행성과)	
	점수	비중
1.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의 유지	4.09	82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한 근로환경의 유지	3.85	77
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산업) 보건복지의 제공	3.82	76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 보건복지의 제공	3.75	75
5. 새로운 서비스·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3.58	72
6.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서비스·제품 제공	3.64	73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3.73	75
8.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3.62	72
평균	3.76	7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39〉 수행성과 설문조사(경제패러다임 전환 성과)

(단위: 점, %)

경제패러다임 전환 성과	Survey (수행성과)	
	점수	비중
9. 양질의 일자리 창출	3.50	70
10. 노동권의 보장과 양질의 근로조건 제공	(노동권) 3.57/ (근로조건) 3.61	71 / 72
11. 창업벤처 참여 확대 등 혁신 성장 지원	3.55	71
1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3.77	75
13. 지역경제 공헌	3.65	73
평균	3.61	72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40〉 인식도 설문조사(국민신뢰 회복 성과)

(단위: 점, %)

국민신뢰 회복 성과	Survey (수행성과)	
	점수	비중
14. 윤리적 생산과 유통 (예, 공정무역) 등 윤리경영	4.02	80
15.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3.68	74
16.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3.82	76
1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3.63	73
1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3.68	74
평균	3.77	7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41〉 인식도 설문조사(전체 평균)

(단위: 점, %)

전체 평균	3.72	74
-------	------	----

자료: 저자 작성

부록 3. 한국가스공사 기본업무현황 및 사회적 가치 활동현황

1. 경영목표 및 전략

- 천연가스 산업 선도: 가스사업 공공성 강화, 해외사업 성과 창출, 동북아 천연가스 리더십 확보
-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신에너지 사업 활성화, 연료전환 확대, 미래의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강화
-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및 나눔, 동반 상생협력 확대, 재난·안전·환경 관리 강화
- 미래대비 체질 개선: 일하는 방식의 혁신, 재무 안정성 제고, ICT 활용 관리시스템 고도화

2. 인원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	임원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1급	2급	3급	4~7급		
정 원	3,965	7	52	223	692	2,593	126	272
구 성	100	0.2	1.3	5.6	17.4	65.4	3.2	6.9

주: 2018년 9월 말 기준
자료: 저자 작성

3. 한국가스공사 2017년 주요성과: 2017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요약

□ 경영관리

- (1) 에너지 복지사업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
 - 도시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용 냉·난방기 설치로 취약계층의 LNG 사용 지원
 - 복지시설 및 저소득가구의 보일러, 도배·장판, 단열 등 개·보수를 통한 열효율 개선
 - 노숙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목공, 도배 등 기술습득 기회 제공
- (2)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 (3) 아이디어의 실행으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
 - 40만평 기지를 한 눈에, 신속한 설비위치 파악을 위한 ESD(Emergency Shut Down) 네비게이션 구축: 비상대응조치 시간 단축 성과 달성
 - 이동식 가스공급설비 도입으로 가스공급 중단없는 배관공사 가능
- (4) 선제적 안전조치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 제고
 - 선제적 시설보강을 통한 중단없는 가스공급으로 교통대란 예방
 - 119 종합상황실과 가스배관위치 공유로 국민안전 제고
- (5) 경제적 LNG도입·판매 및 해외사업 내실화
- (6)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구체적 경영성과 창출
- (7) 신규 차입 축소 지속으로 재무구조 안정성 제고
 - 선제적인 금리인상 대응으로 금융비용 등 99억원 절감
 - 한국 공기업 중 최저 가산금리 글로벌 본드 발행으로 50억원 절감
- (8) 부채감축계획 이행에 따른 현금흐름 창출로 3년 연속 금융부채 감소 성공
- (9) 근로시간 단축 등 보수제도 개선 추진
- (10) 노사협력 기반 노사공동 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상생연대기금 공공기관 최초 출연
- (11) 노사상생 및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 주요사업

- (1) 안정적 수급밸런스 달성으로 '수급비상발생 ZERO'
- (2) 경제적 천연가스 도입으로 3,542억원 비용절감
 - 전략적 스팟 구매로 도입비용 절감
 - LNG 수입 과세기준 정립으로 도입비용 절감
- (3) LNG 수송 경쟁력 강화로 '운항 안정성 확보' 및 '경제성 제고'
- (4) 수급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수요예측 오차율 3.0%p 감소'
- (5) 가스요금 인하로 국민의 에너지비용 절감
- (6) 설비 및 프로세스 개선으로 생산 및 건설원가 절감
 - 버려지는 냉(冷)에너지를 활용한 생산기지 원가절감
 - 국내최초 '이동식 가스공급설비' 도입으로 안정공급 및 공사비 절감
- (7) 안정적 천연가스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LNG 생산기지 적기 건설
 - (제주기지) 지역맞춤형 생산기지 기반구축을 통한 건설사업 적기 추진
- (8)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공사 추진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적기 건설
 - 협업을 통한 상수관·가스관 병행시공으로 제주기지 상수도 적기 공급
- (9)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 대규모 지진에 대비한 포항 LCNG 충전소 침하 보강으로 지진피해 전무(全無)
- (10) 친환경 사업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
 - 한국형 가스 누출량 산정방식 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
- (11) 효율적 사업관리를 통한 투자비 적기 회수
 - 개발 최적화와 비용절감을 통한 투자비 적기 회수
- (12) 국내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통한 자본 확충
 - 미얀마 가스전을 대상으로 투자금 2,236억원 유치
- (13) 기술 수출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 LNG선 화물창 설계 국산화로 동반성장
 - 배관 진단기술 수출 추진

(14) 가스전의 독자적 운영을 위한 핵심 기술력 확충

□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 (1) 일자리 목표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 (2) 민간협업을 통한 천연가스 기반 사업확대
 - 안정적 LNG 수송을 위한 LNG선 건조 및 수리
 - 해외 LNG 사업 국내기업 동반진출: 모잠비크 FLNG 일자리 창출 5,824명

4. 한국가스공사 2018년 혁신 종합 계획

□ 공공성 강화

- (1) 안정·경제적 LNG 공급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 뒷받침
 - 천연가스 도입·공급 가격 경쟁력 확보
 - 천연가스 수급관리 역량 강화
 -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한국형 도입 연계 LNG 사업 개발
 - PNG 도입 추진으로 천연가스 조달 포트폴리오 다원화
- (2) 보편적 에너지 복지 확대
 - 도시가스 미공급세대 50%로 축소
 -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로 요금경감 사회복지시설 확대
- (3) 에너지 신사업을 통한 대기 질 개선
 - LNG 화물차 보급을 통한 육상 대기질 개선
 - LNG 병커링으로 해상 대기질 개선
 - 선도적 인프라 투자로 수소차 보급 기반 마련
- (4) 선제적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소매 도시가스 배관망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환상망 구축으로 공급 안정성 강화
 - 도시가스와 협업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 절감
- (5) 조직 및 프로세스 효율화

-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사업에 집중
- 사업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 핵심사업 중심 조직 재설계 및 인력 육성·운영
- 개인 및 조직 성과관리 체계 개선

□ 경제패러다임 전환 시도

- (1)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 수급 안정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공공투자 확대
 - 인프라 사업 확대로 민간 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견인
- (2) 선도적인 일자리 질 개선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 주 52시간 조기 정착으로 일과 삶의 균형 달성
- (3) 민간 고용 확대 지원
 - 합동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준비생 One-Stop 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사업 확대 시행으로 中企 일자리 안정 지원
- (4) LNG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규시장 조성
 - 인프라 기반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운영
 - 개방·협업형 R&D 체계로 혁신
 - 핵심 선도사업 적극 활용을 통해 설비 운영의 최적화
- (5)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중소·혁신기업 육성
 - 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6) 상생 협력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 불공정 거래관행 및 갑질 근절
- (7) 사회형평적 인사 실현
 - 학력·지역·성별 등 차별 시정

□ 국민 신뢰 회복

(1) 채용비리 근절 등 윤리경영 강화

- 채용비리 원천 차단
- 사전 예방활동 중심의 윤리경영 추진
- 실천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시행

(2) 선도적 인권 경영 도입

- 인권경영 기반 구축

(3) 국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 국민 직접 참여로 사회적 문제해결
- 시민참여 사회공헌 예산제도 운영

(4) 국민참여 프로그램 시행

- 지역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안심마을 만들기’프로젝트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프로그램 설계·시행

〈부표 3-1〉 한국가스공사 사회성과 측정 결과(손익계산서 기초)

(단위: 원)

구분	공사가 자체적으로 측정된 사회적 가치		적정성 평가						사회적 가치 금액 (적정성 평가결과)	비고		
	손익계산서 항목(발취)	손익계산서상 금액	사회적 가치	인식	식별	정의						
						주된 영업 활동	직접 접촉	의도적			공익적 결과	조건
1	매출액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	78,500,000,000	○	국민의 삶의 질 개선(A-3) 취약계층 지원 강화(A-8)	○	○	○	○	○	78,500,000,000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감감
2			25,400,000,000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A-9)	○	○	○	○	○	25,400,000,000	환경활동비용
3	매출원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3,700,000,000	○	협력 업체와 협업 강화(C-4) 대기업·중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C-5)	○	△	△	△	○	부적격	1차 공급업체 구매비용으로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창출한 판단하기 어려움
4			71,483,098,803	○	대기업·중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C-5)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업 강화(C-7)	○	○	○	○	○	71,483,098,803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용
5	판매비와 관리비	등반성장 R&D비용	941,174,000	○	협력 업체와 협업 강화(C-4) 대기업·중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C-5)	○	○	○	○	○	941,174,000	등반성장 관련 R&D 투자비용

〈부표 3-1〉의 계속

구분	공사가 자체적으로 측정된 사회적 가치		적정성 평가						사회적 가치 금액 (적정성 평가결과)	비고	
	손익계산서 항목(발취)	사회적 가치	인식	시범		정의					조건
				사회적 가치 실현 범위 및 세부내용 (설문조사)	주된 영업 활동	직접 접촉	의도적	공익적 결과			
6	손익계산서상 금액 연구개발비	42,682,000,000	○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A-2) 대국민 서비스 제고(B-3)	○	○	○	○	○	42,682,000,000	연구개발 투자비용
7	기타비용	17,187,742,151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A-7)	○	○	○	○	○	부적격	기부금 및 생활동 사회공헌활동 비용으로 인한 공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낮음
8	기타손익	연구개발 투자수익	○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A-2) 대국민 서비스 제고(B-3)	○	○	○	○	○	64,978,223	연구개발 관련 투자수익
9	연구개발비	1,039,386,509	○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A-2) 대국민 서비스 제고(B-3)	○	○	○	○	○	1,039,386,509	연구개발 관련 투자비용
총계			240,998,379,686							220,110,637,535	
			총매출액 대비 1.14%							총매출액 대비 1.05%	

자료: 저자 작성

부록 4. 한국도로공사 기본업무현황 및 사회적 가치 활동현황

1. 경영목표 및 전략

- 사회적 가치 구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객만족도 향상, 공정경제 선도
- 안전한 길: 교통안전 선진화, 재난안전 강화, 효율적 유지관리
- 빠르고 편리한 길: 원활한 교통소통, 미래형 도로 건설, 스마트 영업 운영
- 미래 혁신성장 선도: 재무건전성 제고, 합리적 조직운영, 미래성장 동력 확충

2. 인원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이하	실무직 등
인 원	6,147	7	40	408	1,202	3,239	1,251
구 성	100	0.1	0.7	6.6	19.6	52.7	20.3

자료: 저자 작성

3. 운영노선

(단위: km)

30개 노선 4,151km	10차로	8차로	6차로	4차로
	41	434	503	3,173

자료: 저자 작성

4.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 중부선(호법~하남) 41.1km, 영동선(여주~강릉) 145.2km

5.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

(1) 사람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

- 「도공형 일자리창출 5개년 로드맵」을 추진하여 스마트고속도로 구축, 휴게시설 서비스 혁신 등 5년간 일자리 16천개 창출
-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년 내 안전순찰, 청소 등 전환대상자 1,316명의 정규직 전환 합의 추진
- 공익단체 및 대학교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 명절 및 평창올림픽 기간 통행료 면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통행료 30% 할인 등 고속도로의 사회적 가치 제고
- 유류공동 구매 등을 추진하여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가를 전국평균 대비 리터당 50원 이상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고객 편익 증진
- 휴게소 임대수수료율의 시중매장 수준(46% → 39%) 조정 유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와 입점업체 간 동반성장을 추진

(3) 사회적 약자 보호

- 민간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도공기술마켓을 운영하고, 도공의 높은 신인도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견인하는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추진
-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전 현장에 확대 적용하여 임금 및 자재·

장비대금체불을 원천 차단

6. 한국도로공사 사회적 가치 실현 70대 실행과제 현황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 중점과제 1.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일자리 개선
 -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 중점과제 2.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을 통한 내부 일자리 창출
 - 민관협업체계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청년인턴십)

- 중점과제 3. 사내벤처 활성화 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 도공형 사내벤처 활성화로 혁신형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창업자 등 금융지원
 - 휴게시설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휴게소 공간개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도공형 교통관리패키지 개도국 수출
 - 하이패스센터 전국 운영으로 서비스와 일자리 동시 만족
 -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 중점과제 4. 일자리 창출형 기술혁신 및 신사업 발굴
 - 기술마켓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기술심사 노하우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 고부가가치 해외투자사업 개발
 - 유지관리 전문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강화
 - LED조명 사업 확대를 통한 「도로조명 주행환경」 개선

-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다각화
- 교통사고 감소 및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C-ITS 구축
- 화물운전자 편의증진 복합휴게시설 및 서비스센터 확충

II. 차별없는 기회와 사회통합

- 중점과제 5. 과정과 결과가 공정·투명한 채용
 - 고졸 취업지원 확대 및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 중점과제 6.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나눔의 인사정책 시행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출산·육아 등 직장내 차별해소
- 중점과제 7. 여성관리자 확대 등 여성인력 활용 제고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나눔의 인사정책 시행
- 중점과제 8. 고졸자·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 취업계층 처우개선을 통한 차별없는 좋은 일터 달성

III. 국민안전 및 지속가능 환경

- 중점과제 9. 산업재해 안전관리
 - 한국형 '슬립형PC방호벽' 개발
- 중점과제 10. 재난 안전관리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유지관리 기술 고도화
 - 포트홀관리 선진화 추진으로 국민안전 강화
 - 첨단 스마트 비탈면 관리
 - 노후구조물 선제적·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전환

- 계측데이터 통합관리로 케이블교량 안전성 확보
- 정체시 전방통행속도 안내를 통한 추돌사고 예방
-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으로 안심고속도로 구현
- 나들목 교통혼잡 개선 및 안전성 향상
- 쾌적하고 안전하게! 고객만족형 졸음쉼터 개선
-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구축
- 선진 제설기법 도입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최첨단 기술기반, '과열차량 알림서비스' 제공
- 지진빈발 양산단층벨트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고 즉시 알림 시스템 구축
- 사고현장 신속접근을 위한 '고속도로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
- 겨울철 도로 위 복병! 노면 살얼음 예보 시스템 구축
- 사람중심의 고속도로 구현을 위한 안전투자 확대

□ 중점과제 11.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 국민중심, EX-SMART 통합플랫폼 앱 구축

□ 중점과제 12. 환경의 예방적 관리 및 지속 보전

-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 에너지생산도로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 전력피크 저감을 위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
-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추진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터널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기법 개발
- 국민 행복실현을 위한 고속도로변 소음피해지역 조기해소
- 국민안전을 위한 야생동물사고 30% 줄이기

Ⅳ.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업 상생협력

- 중점과제 13.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 가치 Boom-Up, 함께하는 사회공헌 실천
 - 유희부지를 활용한 도로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산학공동 '오픈 캠퍼스'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
 - 고속도로 통행요금 공공성 강화
 - 기술심사 노하우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국민과 쌍방향 소통하는 국민 참여설계 실현
 - 사람 중심의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추진
 -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

- 중점과제 14. 적기자금 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 공사대금 직접지급 전면 적용을 통한 체불 제로화

- 중점과제 15.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창업자 등 금융지원
 - 기술마켓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

- 중점과제 16. 사회적 경제 지원
 - 사회적책임조달 체계 구축
 - 휴게소 공간 개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Ⅴ. 자발적인 윤리경영 실천

- 중점과제 17. 전사적 윤리경영 체계 구현

- 중점과제 18.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 실천
 - 유지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내외부 소통채널 구축

- 중점과제 19. 내부 견제 시스템 강화

- 중점과제 20.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 노동이사제(근로자 이사제) 도입
 -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
 - 유지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내외부 소통채널 구축

부록 5. 중점관리 공공기관 재무비율 분석

재무비율 분석은 노태협(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63개 재무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한다.⁵⁶⁾ 63개 재무비율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현금흐름, 활동성으로 나누어 사용하며, 각 재무비율의 상태를 비교한다. 연구에서 사용된 재무비율의 항목과 산식은 다음과 같다.

〈부표 5-1〉 공공기관 재무비율과 산식

구분	재무비율	산식
성장성	매출액성장률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영업이익성장률	(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100-100
	유동자산증가율	(당기유동자산/전기유동자산)*100-100
	유형자산증가율	(당기유형자산/전기유형자산)*100-100
	자기자본증가율	(당기자기자본/전기자기자본)*100-100
	채고자산증가율	(당기채고자산/전기채고자산)*100-100
	총자산증가율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100-100
	타인자본증가율	(당기타인자본/전기타인자본)*100-100
수익성	EBIT대매출액	((경상이익+이자비용)/매출액)*100
	경영자본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산-건설중인자산-투자자산-무형자산))*100
	고정비대매출액	(고정비/매출액)*100
	매출액경상이익률	(경상이익/매출액)*100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100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매출액총이익률	(매출총이익/매출액)*100
	매출원가대매출액	(매출원가/매출액)*100

56) 노태협(2010)의 연구에서는 총 68개 재무비율을 사용하였으나, 공공기관의 특성상 확보할 수 없는 계정(제조원가명세서 계정)이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63개 재무비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비율산출에 재무정보 확보가 불가능한 일부 기관의 경우 산출불가능한 지표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부표 5-1〉의 계속

구분	재무비율	산식
수익성	자기자본경상이익률	(경상이익/자기자본)*100
	자기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자기자본영업이익률	(영업이익/자기자본)*100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비)/(유형자산+무형자산-(건설중인 자산+토지)+감가상각비))*100
	감가상각률변화량	((당기감가상각률-전기감가상각률)/전기감가상각률)*100
	자본금경상이익률	(경상이익/자본금)*100
	자본금순이익률	(당기순이익/자본금)*100
	자본금영업이익률	(영업이익/자본금)*100
	총자산경상이익률	(경상이익/총자산)*100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산)*100
안정성	총자산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산)*100
	고정부채비율	(고정부채/자기자본)*100
	고정비율	(고정자산/자기자본)*100
	금융비용부담률	(이자비용/매출액)*100
	당좌비율	(당좌자산/유동부채)*100
	매출액반영차입금증가율	(영업활동후차입금증감/매출액)*100
	부채비율	(총부채/자기자본)*100
	순금융비용부담률	((이자비용-이자수익)/매출액)*100
	순운전자본대총자본	((유동자산-유동부채)/총자본)*100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자기자본)*100
	유동부채비율변화량	당기유동부채비율-전기유동부채비율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이자보상비율	((경상이익+이자비용)/이자비용)*100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100
	차입금 의존도	((정단기차입금+회사채)/총자본)*100
	현금비율	(현금과 예금/유동부채)*100
지급이자율	(이자비용/평균이자비용발생부채)*100	
현금 흐름	영업현금흐름대고정부채	(영업흐름/고정부채)*100
	영업현금흐름대단기차입금	(영업흐름/단기차입금)*100

〈부표 5-1〉의 계속

구분	재무비율	산식
현금 흐름	영업현금흐름대매출액	(영업흐름/매출액)*100
	영업현금흐름대유동부채	(영업흐름/유동부채)*100
	영업현금흐름대총부채	(영업흐름/총부채)*100
	영업현금흐름대총자산	(영업흐름/총자산)*100
	현금보상비율	((영업흐름+금융비용)/(단기차입금+금융비용))*100
활동성	운전자본회전기간	재고자산회전기간+매출채권회전기간-매입채무회무회전기간
	운전자본회전기간변화량	당기운전자본회전기간-전기운전자본회전기간
	경영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건설중인자산-투자자산-무형자산)*100
	고정자산회전율	(매출액/고정자산)*100
	매입채무회전기간	(평균매입채무/매출액)*365
	매입채무회전기간변화량	당기매입채무회전기간-전기매입채무회전기간
	매출채권회전기간	(평균매출채권/매출액)*365
	매출채권회전기간변화량	당기매출채권회전기간-전기매입채무회전기간
	유형자산회전율	(매출액/유형자산)*100
	자기자본회전율	(매출액/자기자본)*100
	재고자산회전기간	(평균재고자산/매출액)*365
	재고자산회전기간변화량	당기재고자산회전기간-전기재고자산회전기간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100

자료: 노태협(2010), p. 363~365.

1) 한국광물자원공사

〈부표 5-2〉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성장성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성장률	-	6.7	25.8	15.3	-16.0	8.5	10.9	118.7
영업이익성장률	-	102.5	-183.6	-82.8	4,909.6	322.6	-72.9	-43.0
유동자산증가율	-	-29.4	-24.5	32.5	29.1	4.9	3.9	-12.1
유형자산증가율	-	3.6	42.3	2,018.7	21.6	-31.1	-29.7	-18.7
자기자본증가율	-	26.9	14.4	26.5	7.9	-96.4	-1,356.6	52.5
재고자산증가율	-	0.0	0.0	72,178.3	676.4	18.1	-35.3	-30.5
총자산증가율	-	18.9	23.2	44.0	12.1	-19.9	-6.9	-4.9
타인자본증가율	-	14.1	29.0	54.4	14.1	14.9	12.7	4.4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3〉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안정성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고정부채비율	158.0	129.5	129.8	173.1	137.1	5,311.0	-550.7	-355.2
고정비율	210.0	218.8	248.9	285.4	292.9	6,243.0	-456.2	-287.5
금융비용부담률	3.1	1.7	0.3	1.8	3.7	1.9	0.0	0.4
당좌비율	595.2	150.3	52.5	62.2	26.2	37.7	79.9	47.4
부채비율	167.6	150.8	170.1	207.6	219.5	6,905.0	-619.2	-423.8
순금융비용부담률	-0.9	-2.0	-3.0	-1.1	1.5	0.8	-1.4	-0.4
순운전자본대총자본	17.9	4.3	-7.1	-4.0	-17.5	-11.9	-1.1	-10.0
유동부채비율	9.7	21.3	40.3	34.5	82.4	1,594.0	-68.5	-68.6
유동부채비율변화량	-	11.7	19.0	-5.8	47.8	1,511.7	-1,662.5	-0.1
유동비율	595.2	150.3	52.5	64.3	32.2	47.8	92.0	53.0
이자보상비율	291.0	964.6	-3,817.8	-90.9	-2,676.3	-20,639.6	-	-6,986.8
자기자본비율	37.4	39.9	37.0	32.5	31.3	1.4	-19.3	-30.9
차입금의존도	-	-	-	-	-	-	-	-
현금비율	71.0	16.2	5.5	4.5	10.3	13.6	19.8	4.2
지급이자율	-	0.3	0.1	0.4	0.7	0.4	0.0	0.2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4〉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수익성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BIT 대 매출액	14.0	19.7	-8.4	12.2	-93.6	-731.5	-291.7	-43.2
매출액경상이익률	10.9	18.0	-8.7	10.4	-97.3	-733.4	-291.7	-43.6
매출액순이익률	11.1	14.5	-7.5	5.8	-96.0	-692.7	-298.8	-56.8
매출액영업이익률	8.9	16.8	-11.2	-1.7	-99.8	-388.4	-94.9	-24.7
매출액총이익률	17.5	25.0	-3.2	7.9	-88.9	-376.8	-83.8	-12.4
매출원가 대 매출액	-82.5	-75.1	-103.2	-92.1	-188.9	-476.8	-183.8	-112.4
자기자본경상이익률	2.5	3.5	-1.8	2.0	-14.6	-3,265.1	114.6	24.6
자기자본순이익률	2.5	2.8	-1.6	1.6	-16.0	-1,387.1	135.2	31.6
자기자본영업이익률	2.0	3.2	-2.4	-0.3	-15.0	-1,729.4	37.3	13.9
감가상각률	0.1	0.1	0.4	0.2	0.1	0.1	0.3	0.5
감가상각률변화량	-	7.2	280.1	-50.0	-33.2	-34.3	164.9	96.1
자본금경상이익률	2.9	4.1	-2.0	2.3	-15.6	-115.6	-49.2	-15.8
자본금순이익률	3.0	3.3	-1.7	1.3	-15.4	-109.2	-50.4	-20.7
자본금영업이익률	2.4	3.8	-2.5	-0.4	-16.0	-61.2	-16.0	-9.0
총자산경상이익률	-	1.5	-0.8	0.8	-4.8	-41.5	-21.3	-7.4
총자산순이익률	-	1.2	-0.7	0.4	-4.8	-39.2	-21.8	-9.6
총자산영업이익률	-	1.4	-1.0	-0.1	-5.0	-22.0	-6.9	-4.2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5〉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현금흐름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영업현금흐름 대 고정부채	0.4	-1.6	-7.3	-3.9	-9.0	-7.6	-3.7	-3.2
영업현금흐름 대 단기차입금	15.5	-10.5	-	-57.4	-61.2	-70.0	-48.6	-1,916.7
영업현금흐름 대 매출액	3.0	-10.7	-44.8	-35.2	-82.5	-90.4	-51.9	-19.9
영업현금흐름 대 유동부채	7.0	-9.6	-23.5	-19.6	-15.0	-25.3	-29.8	-16.4
영업현금흐름 대 총부채	0.4	-1.4	-5.6	-3.3	-5.6	-5.8	-3.3	-2.7
영업현금흐름 대 총자산	0.3	-0.8	-3.5	-2.2	-3.9	-5.8	-3.9	-3.5
현금보상비율	-0.7	-12.7	15,022.0	-67.0	-66.7	-74.6	-51.6	884.7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6〉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활동성 비율

(단위: 일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운전자본회전기간	-	-0.4	-0.9	5.3	69.2	123.8	103.1	26.8
운전자본회전기간변화량	-	-	-0.6	6.2	63.9	54.7	-20.7	-76.4
고정자산회전율	-	10.0	9.6	8.0	5.4	6.2	8.3	19.2
매입채무회전기간	-	0.4	0.9	1.3	0.9	0.8	0.8	5.9
매입채무회전기간변화량	-	-	0.6	0.4	-0.4	-0.1	-0.1	5.2
매출채권회전기간	-	0.0	0.0	0.0	1.5	2.6	5.8	2.9
매출채권회전기간변화량	-	-	0.0	0.0	1.5	1.1	3.2	-2.9
유형자산회전율	-	401.7	410.1	36.3	14.4	16.9	26.9	78.6
자기자본회전율	-	21.5	22.5	21.5	15.6	31.4	-85.4	-68.1
재고자산회전기간	-	0.0	0.0	6.6	68.5	122.0	98.1	29.9

자료: 저자 작성

2) 한국도로공사

〈부표 5-7〉 한국도로공사의 성장성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성장률	-	-19.0	21.7	0.2	9.7	12.4	-4.7	-1.2
영업이익성장률	-	28.0	-7.3	-19.2	3.4	-19.7	-12.0	33.9
유동자산증가율	-	-19.8	37.7	10.7	24.5	-15.6	98.4	-22.4
유형자산증가율	-	-2.8	-7.6	23.7	10.6	6.7	5.9	4.4
자기자본증가율	-	1.8	5.8	5.4	4.9	6.1	4.6	4.8
재고자산증가율	-	102.5	-36.5	56.5	-29.4	2.6	-16.5	4.8
총자산증가율	-	2.7	4.4	3.8	3.7	4.1	3.4	2.5
타인자본증가율	-	3.6	3.1	2.0	2.3	1.9	2.1	-0.1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8〉 한국도로공사의 안정성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고정부채비율	83.6	85.3	84.1	82.3	78.5	75.5	71.3	70.7
고정비율	196.3	198.4	195.5	192.3	189.7	186.4	182.8	179.6
금융비용부담률	13.8	17.1	14.7	13.9	11.6	9.1	9.8	9.9
당좌비율	10.4	7.6	11.5	13.3	14.3	12.0	20.0	19.2
부채비율	97.8	99.6	97.1	94.0	91.6	88.0	85.8	81.8
순금융비용부담률	13.6	16.8	14.5	13.7	11.4	8.9	9.7	9.8
순운전자본대총자본	-6.4	-6.6	-5.8	-5.2	-5.9	-5.8	-6.2	-4.9
유동부채비율	14.2	14.3	13.0	11.6	13.2	12.5	14.5	11.1
유동부채비율변화량	-	0.2	-1.3	-1.4	1.5	-0.7	2.0	-3.4
유동비율	10.8	8.4	12.1	14.2	14.9	12.5	20.3	19.7
이자보상비율	106.7	136.5	120.9	102.8	116.0	106.4	90.8	121.7
자기자본비율	50.6	50.1	50.7	51.6	52.2	53.2	53.8	55.0
차입금의존도	-	-	-	-	-	-	-	-
현금비율	1.8	3.7	7.0	8.9	5.3	7.1	13.6	13.4
지급이자율	-	215.3	257.5	297.9	233.4	212.6	267.0	334.4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9〉 한국도로공사의 수익성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BIT 대 매출액	15.2	18.5	17.8	14.6	13.1	10.8	12.4	12.4
매출액경상이익률	1.4	1.5	3.1	0.7	1.5	1.7	2.6	2.4
매출액순이익률	0.9	1.8	1.2	1.2	1.5	1.5	1.7	1.7
매출액영업이익률	14.8	23.3	17.7	14.3	13.5	9.6	8.9	12.1
매출액총이익률	16.9	26.1	20.2	16.9	16.0	12.2	11.7	15.0
매출원가 대 매출액	-83.1	-73.9	-79.8	-83.1	-84.0	-87.8	-88.3	-85.0
자기자본경상이익률	0.4	0.3	0.8	0.2	0.4	0.5	0.7	0.6
자기자본순이익률	0.3	0.4	0.3	0.3	0.4	0.4	0.4	0.4
자기자본영업이익률	4.3	5.4	4.7	3.6	3.6	2.7	2.3	2.9
감가상각률	0.0	0.0	0.0	0.0	0.0	0.0	0.0	0.0
감가상각률변화량	-	-1.0	-9.7	5.2	68.1	98.2	8.6	9.0
자본금경상이익률	0.4	0.4	0.9	0.2	0.4	0.5	0.7	0.6
자본금순이익률	0.3	0.4	0.3	0.3	0.4	0.5	0.4	0.4
자본금영업이익률	4.4	5.6	4.9	3.7	3.7	2.8	2.4	3.0
총자산경상이익률	-	0.2	0.4	0.1	0.2	0.3	0.4	0.3
총자산순이익률	-	0.2	0.2	0.2	0.2	0.2	0.2	0.2
총자산영업이익률	-	2.7	2.4	1.9	1.9	1.5	1.2	1.6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10〉 한국도로공사의 현금흐름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영업현금흐름 대 고정부채	5.1	4.6	4.6	4.6	6.3	7.3	10.0	7.7
영업현금흐름 대 단기차입금	341.5	966.3	-	-	-	-	-	-
영업현금흐름 대 매출액	14.6	17.0	14.7	15.1	18.8	19.6	27.9	22.7
영업현금흐름 대 유동부채	29.8	27.3	30.0	32.8	37.7	43.9	48.9	48.9
영업현금흐름 대 총부채	4.3	3.9	4.0	4.1	5.4	6.2	8.3	6.7
영업현금흐름 대 총자산	2.1	2.0	2.0	2.0	2.6	2.9	3.8	3.0
현금보상비율	24.5	13.1	25.7	6.7	-28.8	-72.8	-139.9	-64.9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11〉 한국도로공사의 활동성 비율

(단위: 일,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운전자본회전기간	-	127.4	165.1	164.3	159.2	224.0	321.6	499.6
운전자본 회전기간변화량	-	-	37.7	-0.8	-5.2	64.9	97.5	178.0
고정자산회전율	-	11.8	13.9	13.4	14.1	15.3	14.1	13.6
매입채무회전기간	-	6.8	5.7	6.7	13.3	14.3	3.0	2.4
매입채무 회전기간변화량	-	-	-1.2	1.0	6.7	0.9	-11.3	-0.6
매출채권회전기간	-	111.3	143.3	138.1	135.7	171.1	185.9	239.3
매출채권 회전기간변화량	-	-	32.0	-5.1	-2.4	35.3	14.8	53.4
유형자산회전율	-	838.2	1,075.8	1,003.0	944.8	978.4	877.3	824.6
자기자본회전율	-	23.3	27.3	25.9	27.0	28.8	26.0	24.5
재고자산회전기간	-	1.3	1.2	1.2	1.1	0.9	0.8	0.8

자료: 저자 작성

3) 한국가스공사

〈부표 5-12〉 한국가스공사의 성장성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성장률	-	-1.2	-42.0	-0.6	1.5	2.1	-4.2	512.8
영업이익성장률	-	49.8	18.4	22.5	-26.6	-10.5	4.1	184.0
유동자산증가율	-	36.2	-1.7	3.9	12.7	-27.4	-14.7	-11.3
유형자산증가율	-	7.7	12.0	14.7	11.5	5.7	-1.6	-5.1
자기자본증가율	-	4.1	4.0	6.7	8.9	3.4	-6.7	-13.3
재고자산증가율	-	55.8	-43.6	31.6	43.6	-49.9	-40.4	44.1
총자산증가율	-	20.0	12.8	7.5	7.1	-9.4	-5.8	-7.0
타인자본증가율	-	25.5	15.3	7.7	6.7	-12.7	-5.5	-5.1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13〉 한국가스공사의 안정성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고정부채비율	205.9	246.6	263.7	295.5	279.6	264.5	266.2	275.3
고정비율	274.5	298.7	344.6	351.8	339.2	321.9	334.4	363.1
금융비용부담률	1.4	4.0	9.3	10.3	8.9	8.2	8.1	3.7
당좌비율	104.2	106.0	97.1	116.9	103.6	143.5	134.5	91.7
부채비율	288.4	347.7	385.4	388.8	381.0	321.5	325.4	356.2
순금융비용부담률	1.2	3.6	8.8	9.6	8.4	7.2	7.9	3.5
순운전자본대총자본	8.1	10.7	3.9	8.9	8.4	10.1	7.5	2.7
유동부채비율	82.5	101.2	121.7	93.4	101.4	57.0	59.2	81.0
유동부채비율변화량	-	18.7	20.5	-28.3	8.1	-44.5	2.2	21.8
유동비율	138.1	147.3	115.7	146.8	139.8	174.8	153.8	115.1
이자보상비율	270.9	145.7	127.0	142.3	118.5	113.2	123.7	124.6
자기자본비율	25.8	22.3	20.6	20.5	20.8	23.7	23.5	21.9
차입금의존도	-	-	-	-	-	-	-	-
현금비율	3.2	1.9	2.4	2.7	2.1	2.4	8.7	6.7
지급이자율	-	62.7	78.1	60.3	43.4	44.2	42.3	123.7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14〉 한국가스공사의 수익성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BIT 대 매출액	4.3	9.8	20.3	22.8	20.2	-148.0	3.6	-1.9
매출액경상이익률	2.9	5.8	11.0	12.5	11.3	-156.1	-4.6	-5.6
매출액순이익률	2.3	4.6	8.4	9.6	8.1	-153.4	-3.2	-5.4
매출액영업이익률	3.8	5.8	11.8	14.6	10.6	9.3	10.1	4.7
매출액총이익률	5.3	7.6	15.0	18.0	14.1	12.9	14.2	6.5
매출원가 대 매출액	-94.7	-92.4	-85.0	-82.0	-85.9	-87.1	-85.8	-93.5
자기자본경상이익률	2.4	4.6	4.8	5.1	4.3	-58.6	-1.8	-15.4
자기자본순이익률	1.9	3.6	3.7	3.9	3.1	-57.7	-1.3	-15.4
자기자본영업이익률	3.2	4.6	5.2	6.0	4.0	3.5	3.9	12.7
감가상각률	0.0	0.0	0.0	0.0	0.0	0.0	0.0	0.1
감가상각률변화량	-	19.9	-41.5	-12.3	22.0	-16.8	-0.6	271.4
자본금경상이익률	47.8	95.0	104.0	99.0	90.5	-1,277.8	-35.8	-270.9
자본금순이익률	38.3	75.9	79.8	75.4	64.9	-1,255.7	-25.3	-258.2
자본금영업이익률	63.4	94.9	112.4	115.3	84.6	75.8	78.9	224.0
총자산경상이익률	-	1.1	1.1	1.1	0.9	-13.2	-0.4	-3.2
총자산순이익률	-	0.9	0.8	0.8	0.7	-13.0	-0.3	-3.1
총자산영업이익률	-	1.1	1.1	1.3	0.9	0.8	0.9	2.7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15〉 한국가스공사의 현금흐름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영업현금흐름 대 고정부채	6.2	-2.4	1.8	5.2	7.5	20.5	19.1	11.2
영업현금흐름 대 단기차입금	50.5	-14.0	8.7	42.3	62.7	442.5	-	411.1
영업현금흐름 대 매출액	15.3	-7.5	11.0	37.3	54.9	144.5	131.8	11.3
영업현금흐름 대 유동부채	15.4	-5.8	4.0	16.3	20.6	95.2	85.8	38.1
영업현금흐름 대 총부채	4.4	-1.7	1.3	3.9	5.5	16.9	15.6	8.7
영업현금흐름 대 총자산	3.3	-1.3	1.0	3.1	4.3	12.9	11.9	6.8
현금보상비율	44.3	-25.9	-2.7	32.9	57.5	589.9	-1,349.2	-93.2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16〉 한국가스공사의 활동성 비율

(단위: 일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운전자본회전기간	-	394.4	755.2	776.9	813.0	687.3	525.3	85.3
운전자본회전기간변화량	-	-	360.9	21.6	36.1	-125.7	-161.9	-440.1
고정자산회전율	-	28.0	13.9	12.1	11.5	11.6	11.4	72.8
매입채무회전기간	-	94.4	206.8	193.3	208.8	159.0	90.7	17.6
매입채무회전기간변화량	-	-	112.4	-13.4	15.5	-49.8	-68.3	-73.2
매출채권회전기간	-	329.6	700.6	750.6	722.2	586.6	471.6	81.3
매출채권회전기간변화량	-	-	371.0	50.0	-28.4	-135.5	-115.1	-390.3
유형자산회전율	-	37.5	19.8	17.3	15.6	14.7	13.8	87.4
자기자본회전율	-	80.2	44.7	42.1	39.7	38.2	37.2	253.0
재고자산회전기간	-	159.2	261.4	219.6	299.7	259.7	144.5	21.5

자료: 저자 작성

4) 한국토지주택공사

〈부표 5-1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장성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성장률	-	16.0	20.4	-0.5	16.3	11.8	-3.3	2.6
영업이익성장률	-	211.2	29.3	-41.1	34.1	32.3	115.9	-5.5
유동자산증가율	-	8.1	3.0	2.1	-5.0	-5.5	-0.5	-2.7
유형자산증가율	-	3.5	-18.4	7.9	12.1	8.2	-3.9	-0.4
자기자본증가율	-	5.9	6.2	4.9	8.5	5.8	9.2	9.7
재고자산증가율	-	9.3	3.8	2.0	-6.1	-5.7	-2.5	-6.5
총자산증가율	-	7.2	5.9	3.3	-1.0	-1.0	1.4	0.8
타인자본증가율	-	7.4	5.8	3.0	-3.1	-2.7	-0.6	-1.8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18〉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안정성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고정부채비율	346.5	345.7	337.2	331.2	300.9	240.9	209.4	182.5
고정비율	237.2	237.3	245.4	245.6	235.4	231.7	219.5	208.7
금융비용부담률	3.7	1.4	1.8	2.1	1.7	1.6	2.8	0.6
당좌비율	34.4	30.1	26.1	26.2	29.7	21.6	23.0	27.3
부채비율	461.2	468.0	466.0	457.6	408.7	375.9	342.1	306.3
순금융비용부담률	1.4	-1.2	-0.7	0.0	0.4	1.0	1.6	0.6
순운전자본대총자본	37.3	36.7	33.9	33.3	32.5	22.9	20.3	18.2
유동부채비율	114.7	122.3	128.8	126.4	107.8	135.0	132.8	123.8
유동부채비율변화량	-	7.6	6.6	-2.4	-18.6	27.2	-2.2	-9.0
유동비율	282.6	270.5	248.9	246.9	253.5	180.9	167.7	159.7
이자보상비율	72.8	515.5	436.7	218.7	309.5	387.4	503.4	2,158.8
자기자본비율	17.8	17.6	17.7	17.9	19.7	21.0	22.6	24.6
차입금의존도	-	-	-	-	-	-	-	-
현금비율	13.4	6.5	4.1	4.2	5.4	3.0	2.9	5.0
지급이자율	-	4.7	5.6	7.0	10.4	18.0	23.1	3.1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19〉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익성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BIT 대 매출액	8.0	8.8	10.4	7.5	6.9	7.4	15.3	13.3
매출액경상이익률	4.4	7.4	8.6	5.4	5.2	5.8	12.6	12.7
매출액순이익률	3.9	5.2	6.6	3.9	4.0	4.1	9.7	11.8
매출액영업이익률	2.7	7.1	7.7	4.5	5.2	6.2	13.8	12.7
매출액총이익률	5.7	10.0	10.4	7.2	7.4	8.4	16.3	15.4
매출원가 대 매출액	-94.3	-90.0	-89.6	-92.8	-92.6	-91.6	-83.7	-84.6
자기자본경상이익률	2.2	4.0	5.3	3.2	3.3	3.9	7.4	7.0
자기자본순이익률	1.9	2.8	4.1	2.3	2.5	2.8	5.7	6.5
자기자본영업이익률	1.3	3.9	4.8	2.7	3.3	4.1	8.2	7.0
감가상각률	0.0	0.0	0.0	0.0	0.0	0.0	0.0	0.0
감가상각률변화량	-	-2.1	-2.6	-13.4	-7.6	42.0	8.3	-4.6
자본금경상이익률	2.7	5.0	6.9	4.1	4.3	5.2	10.3	10.2
자본금순이익률	2.4	3.5	5.2	3.0	3.3	3.7	8.0	9.5
자본금영업이익률	1.6	4.9	6.1	3.5	4.3	5.5	11.3	10.2
총자산경상이익률	-	0.7	1.0	0.6	0.6	0.8	1.7	1.7
총자산순이익률	-	0.5	0.7	0.4	0.5	0.6	1.3	1.6
총자산영업이익률	-	0.7	0.9	0.5	0.6	0.9	1.9	1.7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2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현금흐름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영업현금흐름 대 고정부채	-10.0	-2.5	-0.8	3.0	9.0	13.6	12.2	14.8
영업현금흐름 대 단기차입금	-606.5	-132.7	-22.4	121.4	436.2	1,064.8	622.4	1,050.6
영업현금흐름 대 매출액	-69.1	-15.7	-4.3	16.6	43.1	49.3	43.4	49.1
영업현금흐름 대 유동부채	-30.1	-7.0	-2.1	7.7	25.2	24.3	19.3	21.9
영업현금흐름 대 총부채	-7.5	-1.8	-0.6	2.1	6.6	8.7	7.5	8.8
영업현금흐름 대 총자산	-6.2	-1.5	-0.5	1.8	5.3	6.9	5.8	6.7
현금보상비율	-1,444.1	-245.1	-56.1	132.6	727.8	4,875.9	1,585.0	1,759.7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2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활동성 비율

(단위: 일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운전자본회전기간	-	1,899.6	1,680.4	1,747.6	1,471.9	1,230.0	1,218.6	1,134.6
운전자본 회전기간변화량	-	-	-219.1	67.2	-275.7	-241.9	-11.4	-84.0
고정자산회전율	-	23.7	26.4	24.5	27.3	29.3	27.3	27.0
매입채무회전기간	-	23.7	17.2	15.0	10.5	8.5	10.2	11.7
매입채무 회전기간변화량	-	-	-6.5	-2.2	-4.5	-2.0	1.7	1.5
매출채권회전기간	-	46.2	38.4	47.0	38.0	23.6	24.0	23.9
매출채권 회전기간변화량	-	-	-7.8	8.6	-9.0	-14.4	0.5	-0.1
유형자산회전율	-	1,194.1	1,556.5	1,657.7	1,750.9	1,779.3	1,687.4	1,768.9
자기자본회전율	-	56.3	63.9	60.2	65.5	68.4	61.5	57.7
재고자산회전기간	-	1,877.1	1,659.3	1,715.6	1,444.4	1,214.9	1,204.7	1,122.4

자료: 저자 작성

5) 한국철도공사

〈부표 5-22〉 한국철도공사의 성장성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성장률	-	-0.7	6.7	1.1	4.7	8.3	3.2	1.6
영업이익성장률	-	-18.8	-43.6	-9.9	-154.0	13.5	7.1	-486.5
유동자산증가율	-	-27.6	0.3	16.6	180.2	-82.7	15.1	56.3
유형자산증가율	-	2.1	5.2	34.1	-0.5	4.4	2.1	6.5
자기자본증가율	-	3.6	-32.8	-19.4	-8.0	9.2	0.4	4.8
재고자산증가율	-	12.6	28.5	-8.2	-29.5	-19.7	16.5	6.9
총자산증가율	-	5.4	-9.0	9.3	0.7	-18.1	1.7	7.4
타인자본증가율	-	6.6	6.4	21.1	3.0	-24.7	2.2	8.3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23〉 한국철도공사의 안정성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고정부채비율	119.1	123.7	201.8	270.4	283.2	224.1	227.2	240.6
고정비율	222.3	234.9	315.4	425.2	383.9	363.2	365.2	363.5
금융비용부담률	12.2	12.4	11.7	9.4	10.6	8.7	7.4	6.8
당좌비율	79.5	52.1	52.6	35.5	95.0	26.9	29.7	51.4
부채비율	149.9	154.3	244.2	366.8	410.9	283.3	288.2	297.8
순금융비용부담률	4.4	2.4	1.3	9.1	10.3	8.4	7.2	6.6
순운전자본대총자본	-1.3	-4.4	-3.9	-11.7	-0.1	-10.2	-9.8	-5.7
유동부채비율	30.8	30.6	42.4	96.5	127.7	59.1	61.0	57.1
유동부채비율변화량	-	-0.2	11.8	54.1	31.2	-68.5	1.9	-3.9
유동비율	89.7	63.2	68.0	43.2	99.5	34.0	37.7	60.0
이자보상비율	-81.1	-65.3	-36.5	-40.6	18.6	23.6	29.0	-119.8
자기자본비율	40.0	39.3	29.1	21.4	19.6	26.1	25.8	25.1
차입금의존도	-	-	-	-	-	-	-	-
현금비율	15.7	6.1	7.1	8.7	4.2	7.4	12.9	16.9
지급이자율	-	117.9	141.3	116.0	201.7	345.5	247.8	291.1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24〉 한국철도공사의 수익성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BIT 대 매출액	30.4	30.4	-45.3	-102.1	0.1	3.7	3.3	-13.3
매출액경상이익률	18.2	18.0	-57.0	-111.5	-10.5	-5.0	-4.1	-20.1
매출액순이익률	12.6	10.0	-58.6	-89.0	-6.6	1.6	-4.0	-14.8
매출액영업이익률	-9.9	-8.1	-4.3	-3.8	2.0	2.1	2.1	-8.1
매출액총이익률	-4.8	-2.6	1.3	2.5	7.3	7.4	8.1	-2.3
매출원가 대 매출액	-104.8	-102.6	-98.7	-97.5	-92.7	-92.6	-91.9	-102.3
자기자본경상이익률	9.8	9.3	-46.8	-114.8	-12.3	-5.8	-4.9	-23.3
자기자본순이익률	6.8	5.1	-49.2	-94.6	-8.5	1.8	-4.4	-18.0
자기자본영업이익률	-5.3	-4.2	-3.5	-3.9	2.3	2.4	2.6	-9.4
감가상각률	0.4	0.4	0.4	0.4	0.4	0.3	0.4	0.4
감가상각률변화량	-	8.1	-9.9	-2.8	3.0	-26.2	52.5	-7.9
자본금경상이익률	8.7	8.5	-28.6	-56.6	-5.6	-2.8	-2.3	-11.3
자본금순이익률	6.0	4.7	-29.4	-45.2	-3.5	0.9	-2.2	-8.4
자본금영업이익률	-4.7	-3.8	-2.1	-1.9	1.0	1.1	1.2	-4.6
총자산경상이익률	-	3.8	-13.0	-25.7	-2.4	-1.4	-1.3	-6.1
총자산순이익률	-	2.1	-13.3	-20.5	-1.5	0.4	-1.2	-4.5
총자산영업이익률	-	-1.7	-1.0	-0.9	0.5	0.6	0.7	-2.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25〉 한국철도공사의 현금흐름 비율

(단위: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영업현금흐름 대 고정부채	0.6	1.4	0.7	2.3	5.6	8.8	6.9	4.2
영업현금흐름 대 단기차입금	739.3	694.5	644.8	14.0	8,121.9	423.1	7,108.1	6,359.7
영업현금흐름 대 매출액	1.3	3.4	1.7	6.0	13.6	17.0	13.0	8.8
영업현금흐름 대 유동부채	2.2	5.8	3.2	6.4	12.5	33.4	25.5	17.8
영업현금흐름 대 총부채	0.5	1.1	0.6	1.7	3.9	7.0	5.4	3.4
영업현금흐름 대 총자산	0.3	0.7	0.4	1.3	3.1	5.2	4.0	2.6
현금보상비율	91.9	77.0	90.0	-14.3	-12.4	-104.2	-65.0	3.8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26〉 한국철도공사의 활동성 비율

(단위: 일 %)

비율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운전자본회전기간	-	52.9	61.6	64.6	44.4	24.8	23.3	23.1
운전자본 회전기간변화량	-	-	8.7	3.0	-20.2	-19.6	-1.5	-0.3
고정자산회전율	-	23.0	24.7	25.2	27.7	32.5	32.9	32.5
매입채무회전기간	-	15.4	17.1	19.2	17.0	15.0	14.1	14.4
매입채무 회전기간변화량	-	-	1.6	2.1	-2.2	-2.0	-0.9	0.3
매출채권회전기간	-	45.6	52.9	56.2	39.9	25.1	23.7	22.4
매출채권 회전기간변화량	-	-	7.3	3.4	-16.3	-14.9	-1.4	-1.3
유형자산회전율	-	41.9	43.1	36.3	33.3	35.3	35.3	34.4
자기자본회전율	-	52.7	66.0	91.9	112.3	121.3	119.7	118.5
재고자산회전기간	-	22.7	25.8	27.5	21.5	14.8	13.8	15.1

자료: 저자 작성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결산보고서 개발

정도진 · 박성환 · 김종현 · 강평경

현재 공공기관의 성과는 공공성보다는 경제성을 주된 사항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되고 있다. 반면, 최근 민간기업들은 통합보고서(Integrated Reporting)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 등을 포괄하는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보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의 경영위기는 정부의 재정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경영위기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성과의 측정과 보고방안을 제시하고,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설문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사회적 가치 추구하고 경제적 가치 추구의 비중도 50:50(또는 사회적 가치추구를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공공기관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인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정의에 부합, 기관의 주된 경영활동과정에서 창출된 가치, 정관 등에 기관의 특성에 맞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문서화이다. 다만 본 연구의 인식기준이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전부를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측정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유지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설문결과, 일반응답자, 공공기관 구성원 모두 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적으로 측정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 접근방법에 관하여 재무제표의 주석 또는 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의 주석이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사회적 성과 부분에 사회적 가치성과를 보고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 경영평가지표의 변경 또는 입법발의 등으로 공공기관에 적극적인 관련 사업추진의 동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을 경영평가에 맞추려는 점수따기 식의 사업추진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적 위기를 중심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공공기관의 경영위치지표를 설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례들을 통해 매뉴얼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기초분석을 통해 기관의 종합적인 특성과 사업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준비단계를 설정한다. 두 번째로 재무분석을 통해 기관의 재무구조 및 재무적 특이사항을 파악하며, 재무비율을 통해 종합적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분석한다. 세 번째로는 기관의 기초분석과 재무분석을 통해 탐지한 위험요인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여 조기경보지표를 구축한다.

종합적인 기관별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산출 결과 기관별 사업특성에 따라 재무구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특수성에 적합한 조기경보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동안 사용하였던 보편적인 재무지

표와 더불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재무지표를 병행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은 공공기관의 위기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financial report that covers sustaina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Do-Jin Jung · Sung-Whan Park
Jong-Hyun Kim · Pyung-Kyung Kang

The performance of a public institution is reported to its stakeholders based on economic feasibility rather than public nature. On the other hand, private companies disclose information that embodies corporate social values through integrated reporting, resulting in an increasing demand for information on the social value of public institutions. Also, considering the significant por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public sector, the financial crisis of the public sector is likely to result in fiscal risks of a government.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crisis proactively.

This study provides the methods to measure and report social values creat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suggests the early warning system for management crisi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survey shows that most stakeholder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reating social value. In addition, many respondents support that social values should be pursued equally as economic values, or sometimes be pursued more than

economic values. This supports the needs to emphasize the public aspect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is study, the social values of public institutions are defined as "the values that contribute to the public interest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in all areas including society, economy, environment and culture". Specific criteria to recognize social value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be recognized, social values should meet definitions of components (assets, liabilities, revenue, expenses) of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internationally recognized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created by the primary management activiti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finally should be documen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tc.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recognition criteria of this study can not contain all social values created by public institutions. However, an objective measurement is the most fundamental starting point to create sustainable social values and manage th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both the general public and the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agree that social values generated can be transformed into monetary values. In addition, it appears that they prefer separate reporting of social values created by public institutions to reporting in footnotes or in the body of financial statements. In this study, we propose to report social values and social performance in the footnotes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r as part of the Sustainability Report. It is fortunate that the creation of social values has promoted related projects in public institutions through the promotion of legislative initiatives, changes in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 etc. However, a score-picking formula to match the creation of social value with performance evaluation should be avoided.

In this study, we explore how to build an early warning system focusing on the financial crisis of public institutions. Especiall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manual is prepared through the examples of the processes to establish management crisis indicators for public institutions. Specifically, the first step is to review the basic status of the organization through a basic analysis. The second step is to identify the financial structure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through financial analysis, and analyze the overall business performance and financial status through financial ratio analysis. Third, the indicators are developed based on the risk factors detected through the basic analysis and the financial analysis of the institution to establish the early warning indicators. As a result, the financial structure varies depending on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of each institution. Therefore, it has been confirmed that an early warning indicator suitable for the specificity of public institutions is necessary. Therefore, we can establish an early warning system by combining the prior financial indicators and the financial indicators developed through this research.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efficiency of crisi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 저자약력

정도진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Kentucky 경영학 박사
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박성환

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교수

김종현

한양대학교 회계학 학사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 한양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강평경

서강대학교 문학사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경영학 박사
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자료 수집 및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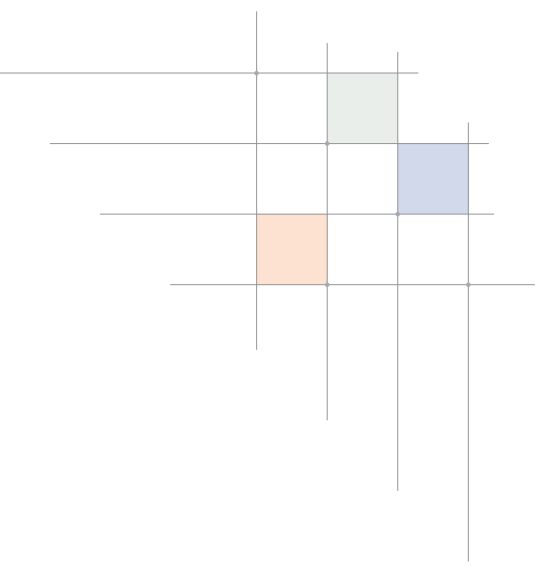
박윤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통계팀장
엄기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손지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보고서 18-17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결산보고서 개발

발행	2018년 12월 31일
저자	정도진·박성환·김종현·강평경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14,000원
조판 및 인쇄	고려씨엔피
I S B N	978-89-8191-965-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代) www.kipf.re.kr

